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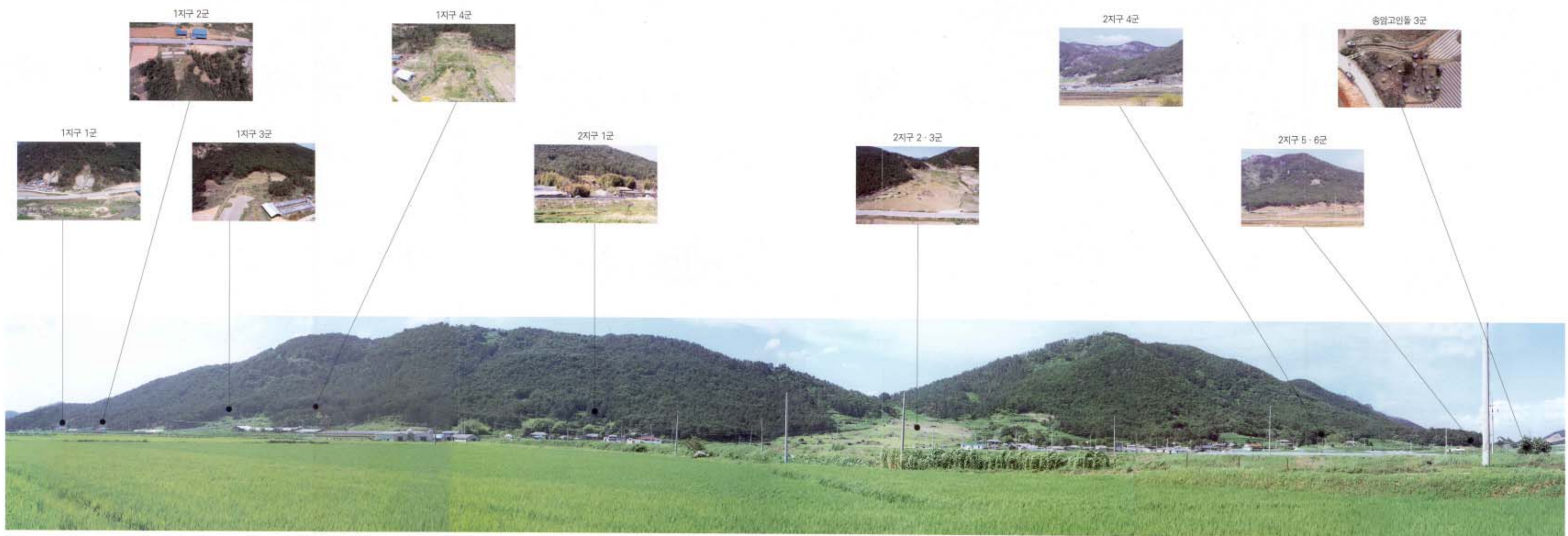
史蹟 第391號

高敞 고인돌 遺蹟地表調查報告

2001

(財)湖南文化財研究院

高 敞 郡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

目 次

I. 머리말	21
II. 遺蹟 位置 및 環境	23
1. 遺蹟의 位置 및 自然環境	23
2. 歷史的 環境	23
III. 調査方法	27
IV. 調査內用	28
1. 상감리 고인돌군(1지구)	28
2. 죽림리 고인돌군(2지구)	39
3. 도산리 고인돌군	53
4. 송암 고인돌군	54
5. 주변유적	57
V. 調査結果	59
1. 입지 및 분포	59
2. 구조 및 형식	60
3. 상석	61
4.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62
VI. 맺음말	63
□ 附錄	
韓國 支石墓의 特徵과 그 社會의 性格	427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 제4기 자연환경분석 연구	457

圖面目次

- | | |
|-----------------------------|---------------------------|
| 圖 1. 유적 위치도 / 24 | 圖 29. 2214호 고인돌 실측도 / 86 |
| 圖 2. 고인돌군 전체 분포도 / 별지 | 圖 30. 2215호 고인돌 실측도 / 86 |
| 圖 3. 1지구 1군 고인돌 분포도 / 67 | 圖 31. 2216호 고인돌 실측도 / 87 |
| 圖 4. 1109호 고인돌 실측도 / 68 | 圖 32. 2224호 고인돌 실측도 / 88 |
| 圖 5. 1120호 고인돌 실측도 / 68 | 圖 33. 2241호 고인돌 실측도 / 89 |
| 圖 6. 1139호 고인돌 실측도 / 68 | 圖 34. 2245호 고인돌 실측도 / 89 |
| 圖 7. 1지구 2군 고인돌 분포도 / 70 | 圖 35. 2249호 고인돌 실측도 / 90 |
| 圖 8. 1201호 고인돌 실측도 / 68 | 圖 36. 2257호 고인돌 실측도 / 90 |
| 圖 9. 1203호 고인돌 실측도 / 71 | 圖 37. 2308호 고인돌 실측도 / 91 |
| 圖 10. 1206호 고인돌 실측도 / 71 | 圖 38. 2318호 고인돌 실측도 / 91 |
| 圖 11. 1217호 고인돌 실측도 / 72 | 圖 39. 2320호 고인돌 실측도 / 92 |
| 圖 12. 1지구 3군 고인돌 분포도 / 73 | 圖 40. 2321호 고인돌 실측도 / 92 |
| 圖 13. 1305호 고인돌 실측도 / 72 | 圖 41. 2322호 고인돌 실측도 / 93 |
| 圖 14. 1308호 고인돌 실측도 / 74 | 圖 42. 2324호 고인돌 실측도 / 93 |
| 圖 15. 1321호 고인돌 실측도 / 74 | 圖 43. 2325호 고인돌 실측도 / 94 |
| 圖 16. 1339호 고인돌 실측도 / 75 | 圖 44. 2326호 고인돌 실측도 / 94 |
| 圖 17. 1347호 고인돌 실측도 / 75 | 圖 45. 2327호 고인돌 실측도 / 95 |
| 圖 18. 1지구 4군 고인돌 분포도 / 76 | 圖 46. 2328호 고인돌 실측도 / 95 |
| 圖 19. 1406호 고인돌 실측도 / 77 | 圖 47. 2331호 고인돌 실측도 / 96 |
| 圖 20. 1419호 고인돌 실측도 / 77 | 圖 48. 2333호 고인돌 실측도 / 96 |
| 圖 21. 2지구 1군 고인돌 분포도 / 78 | 圖 49. 2지구 4군 고인돌 분포도 / 97 |
| 圖 22. 2118호 고인돌 실측도 / 79 | 圖 50. 2406호 고인돌 실측도 / 98 |
| 圖 23. 2119호 고인돌 실측도 / 79 | 圖 51. 2408호 고인돌 실측도 / 99 |
| 圖 24. 2120호 고인돌 실측도 / 80 | 圖 52. 2418호 고인돌 실측도 / 100 |
| 圖 25. 2122호 고인돌 실측도 / 80 | 圖 53. 2419호 고인돌 실측도 / 101 |
| 圖 26. 2지구 2·3군 고인돌 분포도 / 81 | 圖 54. 2421호 고인돌 실측도 / 100 |
| 圖 27. 2202호 고인돌 실측도 / 85 | 圖 55. 2426호 고인돌 실측도 / 102 |
| 圖 28. 2210호 고인돌 실측도 / 85 | 圖 56. 2428호 고인돌 실측도 / 103 |

- 圖 57. 2429호 고인돌 실측도 / 102
- 圖 58. 2지구 5군 고인돌 분포도 / 104
- 圖 59. 2509호 고인돌 실측도 / 105
- 圖 60. 2512호 고인돌 실측도 / 106
- 圖 61. 2513호 고인돌 실측도 / 107
- 圖 62. 2지구 6군 고인돌 분포도 / 108
- 圖 63. 2615호 고인돌 실측도 / 106
- 圖 64. 2620호 고인돌 실측도 / 109
- 圖 65. 2621호 고인돌 실측도 / 109
- 圖 66. 도산리 고인돌군 분포도 / 110
- 圖 67. 2443호 고인돌 실측도 / 111
- 圖 68. 2444호 고인돌 실측도 / 112
- 圖 69. 송암 1·2군 고인돌 분포도 / 113

- 圖 70. 2004호고인돌 실측도 / 112
- 圖 71. 송암 3군 고인돌 분포도 / 114
- 圖 72. 3001호 고인돌 실측도 / 115
- 圖 73. 3007호 고인돌 실측도 / 115
- 圖 74. 3017호 고인돌 실측도 / 116
- 圖 75. 3021호 고인돌 실측도 / 116
- 圖 76. 상갑리 M1호분 측량도 / 117
- 圖 77. 상갑리 M1호분 묘실 실측도 / 119
- 圖 78. 죽림리 1호분 측량도 / 118
- 圖 79. 죽림리 2호분 측량도 / 123
- 圖 80. 죽림리 3호분 측량도 / 124
- 圖 81. 죽림리 4호분 측량도 / 125

寫眞目次

- 寫眞 1.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남→북) / 129
寫眞 2.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서→동) / 129
寫眞 3.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동→서) / 130
寫眞 4. 상갑리(1지구) 1군 전경 / 130
寫眞 5.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 131
寫眞 6.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 131
寫眞 7.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 132
寫眞 8. 1101호 고인돌 / 132
寫眞 9. 1102호 고인돌 / 133
寫眞 10. 1103호 고인돌 / 133
寫眞 11. 1104호 고인돌 / 134
寫眞 12. 1105호 고인돌 / 134
寫眞 13. 1106호 고인돌 / 135
寫眞 14. 1107호 고인돌 / 135
寫眞 15. 1108호 고인돌 / 136
寫眞 16. 1109호 고인돌 / 136
寫眞 17. 1109호 묘실 노출상태 / 137
寫眞 18. 1110호 고인돌 / 137
寫眞 19. 1111호 고인돌 / 138
寫眞 20. 1112호 고인돌 / 138
寫眞 21. 1113호 고인돌 / 139
寫眞 22. 1114호 고인돌 / 139
寫眞 23. 1115호 고인돌 / 140
寫眞 24. 1116호 고인돌 / 140
寫眞 25. 1117호 고인돌 / 141
寫眞 26. 1118호 고인돌 / 141
寫眞 27. 1119호 고인돌 / 142
寫眞 28. 1120호 고인돌 / 142
寫眞 29. 1120호 묘실 노출상태 / 143
寫眞 30. 1121호 고인돌 / 143
寫眞 31. 1122호 고인돌 / 144
寫眞 32. 1123호 고인돌 / 144
寫眞 33. 1124호 고인돌 / 145
寫眞 34. 1125호 고인돌 / 145
寫眞 35. 1126호 고인돌 / 146
寫眞 36. 1127호 고인돌 / 146
寫眞 37. 1128호 고인돌 / 147
寫眞 38. 1129호 고인돌 / 147
寫眞 39. 1130호 고인돌 / 148
寫眞 40. 1131호 고인돌 / 148
寫眞 41. 1132호 고인돌 / 149
寫眞 42. 1133호 고인돌 / 149
寫眞 43. 1134호 고인돌 / 150
寫眞 44. 1135호 고인돌 / 150
寫眞 45. 1136호 고인돌 / 151
寫眞 46. 1137호 고인돌 / 151
寫眞 47. 1138호 고인돌 / 152
寫眞 48. 1139호 고인돌 / 152
寫眞 49. 1140호 고인돌 / 153
寫眞 50. 1141호 고인돌 / 153
寫眞 51. 1142호 고인돌 / 154
寫眞 52. 상갑리(1지구) 2군 전경 / 154
寫眞 53. 상갑리(1지구) 2군 근경 / 155
寫眞 54. 상갑리(1지구) 2군 근경 / 155
寫眞 55. 1201호 고인돌 / 156
寫眞 56. 1202호 고인돌 / 156

寫眞 57. 1203호 고인돌 / 157
寫眞 58. 1204호 고인돌 / 157
寫眞 59. 1205호 고인돌 / 158
寫眞 60. 1206호 고인돌 / 158
寫眞 61. 1207호 고인돌 / 159
寫眞 62. 1208호 고인돌 / 159
寫眞 63. 1209호 고인돌 / 160
寫眞 64. 1210호 고인돌 / 160
寫眞 65. 1211호 고인돌 / 161
寫眞 66. 1212호 고인돌 / 161
寫眞 67. 1213호 고인돌 / 162
寫眞 68. 1214호 고인돌 / 162
寫眞 69. 1215호 고인돌 / 163
寫眞 70. 1216호 고인돌 / 163
寫眞 71. 1217호 고인돌 / 164
寫眞 72. 1218호 고인돌 / 164
寫眞 73. 1219호 고인돌 / 165
寫眞 74. 1220호 고인돌 / 165
寫眞 75. 1221호 고인돌 / 166
寫眞 76. 1222호 고인돌 / 166
寫眞 77. 1223호 고인돌 / 167
寫眞 78. 1224호 고인돌 / 167
寫眞 79. 1225호 고인돌 / 168
寫眞 80. 1226호 고인돌 / 168
寫眞 81. 1227호 고인돌 / 169
寫眞 82. 1228호 고인돌 / 169
寫眞 83. 1229호 고인돌 / 170
寫眞 84. 1230호 고인돌 / 170
寫眞 85. 1231호 고인돌 / 171
寫眞 86. 1232호 고인돌 / 171
寫眞 87. 1233호 고인돌 / 172

寫眞 88. 1234호 고인돌 / 172
寫眞 89. 1234호 고인돌 묘실 노출상태 / 173
寫眞 90. 1235호 고인돌 / 173
寫眞 91. 1236호 고인돌 / 174
寫眞 92. 1237호 고인돌 / 174
寫眞 93. 1238호 고인돌 / 175
寫眞 94. 1239호 고인돌 / 175
寫眞 95. 1240호 고인돌 / 176
寫眞 96. 1241호 고인돌 / 176
寫眞 97. 1242호 고인돌 / 177
寫眞 98. 1243호 고인돌 / 177
寫眞 99. 상갑리(1지구) 3군 전경 / 178
寫眞 100.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 178
寫眞 101.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 179
寫眞 102.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 179
寫眞 103. 1301호 고인돌 / 180
寫眞 104. 1302호 고인돌 / 180
寫眞 105. 1303호 고인돌 / 181
寫眞 106. 1304호 고인돌 / 181
寫眞 107. 1305호 고인돌 / 182
寫眞 108. 1306호 고인돌 / 182
寫眞 109. 1307호 고인돌 / 183
寫眞 110. 1308호 고인돌 / 183
寫眞 111. 1309호 고인돌 / 184
寫眞 112. 1310호 고인돌 / 184
寫眞 113. 1311호 고인돌 / 185
寫眞 114. 1312호 고인돌 / 185
寫眞 115. 1313호 고인돌 / 186
寫眞 116. 1314호 고인돌 / 186
寫眞 117. 1315호 고인돌 / 187
寫眞 118. 1316호 고인돌 / 187

寫眞 119. 1317호 고인돌 / 188
寫眞 120. 1318호 고인돌 / 188
寫眞 121. 1319호 고인돌 / 189
寫眞 122. 1320호 고인돌 / 189
寫眞 123. 1321호 고인돌 / 190
寫眞 124. 1322호 고인돌 / 190
寫眞 125. 1323호 고인돌 / 191
寫眞 126. 1324호 고인돌 / 191
寫眞 127. 1325호 고인돌 / 192
寫眞 128. 1326호 고인돌 / 192
寫眞 129. 1327호 고인돌 / 193
寫眞 130. 1328호 고인돌 / 193
寫眞 131. 1329호 고인돌 / 194
寫眞 132. 1330호 고인돌 / 194
寫眞 133. 1331호 고인돌 / 195
寫眞 134. 1332호 고인돌 / 195
寫眞 135. 1333호 고인돌 / 196
寫眞 136. 1334호 고인돌 / 196
寫眞 137. 1335호 고인돌 / 197
寫眞 138. 1336호 고인돌 / 197
寫眞 139. 1337호 고인돌 / 198
寫眞 140. 1338호 고인돌 / 198
寫眞 141. 1339호 고인돌 / 199
寫眞 142. 1340호 고인돌 / 199
寫眞 143. 1341호 고인돌 / 200
寫眞 144. 1342호 · 1343호 고인돌 / 200
寫眞 145. 1344호 고인돌 / 201
寫眞 146. 1345호 고인돌 / 201
寫眞 147. 1346호 고인돌 / 202
寫眞 148. 1347호 고인돌 / 202
寫眞 149. 1348호 고인돌 / 203

寫眞 150. 1349호 고인돌 / 203
寫眞 151. 상갑리(1지구) 4군 전경 / 204
寫眞 152. 상갑리(1지구) 4군 근경 / 204
寫眞 153. 상갑리(1지구) 4군 근경 / 205
寫眞 154. 상갑리(1지구) 4군 근경 / 205
寫眞 155. 1401호 고인돌 / 206
寫眞 156. 1402호 고인돌 / 206
寫眞 157. 1403호 고인돌 / 207
寫眞 158. 1404호 고인돌 / 207
寫眞 159. 1405호 고인돌 / 208
寫眞 160. 1406호 고인돌 / 208
寫眞 161. 1407호 고인돌 / 209
寫眞 162. 1408호 고인돌 / 209
寫眞 163. 1409호 고인돌 / 210
寫眞 164. 1410호 고인돌 / 210
寫眞 165. 1411호 고인돌 / 211
寫眞 166. 1412호 고인돌 / 211
寫眞 167. 1413호 고인돌 / 212
寫眞 168. 1414호 고인돌 / 212
寫眞 169. 1415호 고인돌 / 213
寫眞 170. 1416호 고인돌 / 213
寫眞 171. 1417호 고인돌 / 214
寫眞 172. 1418호 고인돌 / 214
寫眞 173. 1419호 고인돌 / 215
寫眞 174. 1420호 고인돌 / 215
寫眞 175. 1421호 고인돌 / 216
寫眞 176. 1422호 고인돌 / 216
寫眞 177. 1423호 고인돌 / 217
寫眞 178. 1424호 고인돌 / 217
寫眞 179. 1425호 고인돌 / 218
寫眞 180. 1426호 고인돌 / 218

寫眞 181. 1427호 고인돌 / 219
寫眞 182. 1428호 고인돌 / 219
寫眞 183. 1429호 고인돌 / 220
寫眞 184. 1430호 고인돌 / 220
寫眞 185. 1431호 고인돌 / 221
寫眞 186. 1432호 · 1433호 고인돌 / 221
寫眞 187. 1434호 고인돌 / 222
寫眞 188. 1435호 고인돌 / 222
寫眞 189. 1436호 고인돌 / 223
寫眞 190. 1437호 고인돌 / 223
寫眞 191. 1438호 고인돌 / 224
寫眞 192. 1439호 고인돌 / 224
寫眞 193. 1440호 고인돌 / 225
寫眞 194. 1441호 고인돌 / 225
寫眞 195. 1442호 고인돌 / 226
寫眞 196. 1443호 고인돌 / 226
寫眞 197. 1444호 고인돌 / 227
寫眞 198. 1445호 고인돌 / 227
寫眞 199. 1446호 고인돌 / 228
寫眞 200. 1447호 고인돌 / 228
寫眞 201. 죽림리(2지구) 1군 전경 / 229
寫眞 202.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 229
寫眞 203.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 230
寫眞 204.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 230
寫眞 205. 2101호 고인돌 / 231
寫眞 206. 2102호 고인돌 / 231
寫眞 207. 2103호 고인돌 / 232
寫眞 208. 2104호 고인돌 / 232
寫眞 209. 2105호 고인돌 / 233
寫眞 210. 2106호 고인돌 / 233
寫眞 211. 2107호 고인돌 / 234

寫眞 212. 2108호 · 2109호 고인돌 / 234
寫眞 213. 2110호 고인돌 / 235
寫眞 214. 2111호 고인돌 / 235
寫眞 215. 2112호 고인돌 / 236
寫眞 216. 2113호 고인돌 / 236
寫眞 217. 2114호 고인돌 / 237
寫眞 218. 2115호 고인돌 / 237
寫眞 219. 2116호 고인돌 / 238
寫眞 220. 2117호 고인돌 / 238
寫眞 221. 2118호 고인돌 / 239
寫眞 222. 2119호 고인돌 / 239
寫眞 223. 2120호 고인돌 / 240
寫眞 224. 2121호 고인돌 / 240
寫眞 225. 2122호 고인돌 / 241
寫眞 226. 2123호 고인돌 / 241
寫眞 227. 2124호 고인돌 / 242
寫眞 228. 2125호 고인돌 / 242
寫眞 229. 2126호 고인돌 / 243
寫眞 230. 2127호 고인돌 / 243
寫眞 231. 2128호 고인돌 / 244
寫眞 232. 2129호 고인돌 / 244
寫眞 233. 2130호 고인돌 / 245
寫眞 234. 2131호 고인돌 / 245
寫眞 235. 2132호 고인돌 / 246
寫眞 236. 2133호 고인돌 / 246
寫眞 237. 2134호 고인돌 / 247
寫眞 238. 2135호 고인돌 / 247
寫眞 239. 2136호 고인돌 / 248
寫眞 240. 2137호 고인돌 / 248
寫眞 241. 2138호 고인돌 / 249
寫眞 242. 2139호 고인돌 / 249

- 寫眞 243. 2140호 고인돌 / 250
寫眞 244. 2141호 고인돌 / 250
寫眞 245. 죽림리(2지구) 2·3군 전경 / 251
寫眞 246. 죽림리(2지구)2·3군 전경 / 251
寫眞 247.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 252
寫眞 248.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 252
寫眞 249.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 253
寫眞 250.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 253
寫眞 251. 2201호 고인돌 / 254
寫眞 252. 2202호 고인돌 / 254
寫眞 253. 2203호 고인돌 / 255
寫眞 254. 2204호 고인돌 / 255
寫眞 255. 2205호 고인돌 / 256
寫眞 256. 2206호 고인돌 / 256
寫眞 257. 2207호 고인돌 / 257
寫眞 258. 2208호 고인돌 / 257
寫眞 259. 2209호 고인돌 / 258
寫眞 260. 2210호 고인돌 / 258
寫眞 261. 2211호 고인돌 / 259
寫眞 262. 2212호 고인돌 / 259
寫眞 263. 2213호 고인돌 / 260
寫眞 264. 2214호 고인돌 / 260
寫眞 265. 2215호 고인돌 / 261
寫眞 266. 2216호 고인돌 / 261
寫眞 267. 2217호 고인돌 / 262
寫眞 268. 2218호 고인돌 / 262
寫眞 269. 2219호 고인돌 / 263
寫眞 270. 2220호 고인돌 / 263
寫眞 271. 2221호 고인돌 / 264
寫眞 272. 2222호 고인돌 / 264
寫眞 273. 2223호 고인돌 / 265
寫眞 274. 2224호 고인돌 / 265
寫眞 275. 2225호 고인돌 / 266
寫眞 276. 2226호 고인돌 / 266
寫眞 277. 2227호 고인돌 / 267
寫眞 278. 2228호 고인돌 / 267
寫眞 279. 2229호 고인돌 / 268
寫眞 280. 2230호 고인돌 / 268
寫眞 281. 2231호 고인돌 / 269
寫眞 282. 2232호 고인돌 / 269
寫眞 283. 2233호 고인돌 / 270
寫眞 284. 2234호 고인돌 / 270
寫眞 285. 2235호 고인돌 / 271
寫眞 286. 2236호 고인돌 / 271
寫眞 287. 2237호 고인돌 / 272
寫眞 288. 2238호 고인돌 / 272
寫眞 289. 2239호 고인돌 / 273
寫眞 290. 2240호 고인돌 / 273
寫眞 291. 2241호 고인돌 / 274
寫眞 292. 2242호 고인돌 / 274
寫眞 293. 2243호 고인돌 / 275
寫眞 294. 2244호 고인돌 / 275
寫眞 295. 2245호 고인돌 / 276
寫眞 296. 224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276
寫眞 297. 2246호 고인돌 / 277
寫眞 298. 2247호 고인돌 / 277
寫眞 299. 2248호 고인돌 / 278
寫眞 300. 2249호 고인돌 / 278
寫眞 301. 224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279
寫眞 302. 2250호 고인돌 / 279
寫眞 303. 2251호 고인돌 / 280
寫眞 304. 2252호 고인돌 / 280

寫眞 305. 2253호 고인돌 / 281
寫眞 306. 2254호 고인돌 / 281
寫眞 307. 2255호 고인돌 / 282
寫眞 308. 2256호 고인돌 / 282
寫眞 309. 2257호 고인돌 / 283
寫眞 310. 2258호 고인돌 / 283
寫眞 311. 2259호 고인돌 / 284
寫眞 312. 2260호 고인돌 / 284
寫眞 313. 2261호 고인돌 / 285
寫眞 314. 2262호 고인돌 / 285
寫眞 315. 2263호 고인돌 / 286
寫眞 316. 2264호 고인돌 / 286
寫眞 317. 2265호 고인돌 / 287
寫眞 318. 2266호 고인돌 / 287
寫眞 319. 죽림리(2지구) 3군 전경 / 288
寫眞 320. 죽림리(2지구) 3군 전경 / 288
寫眞 321. 죽림리(2지구) 3군 근경 / 289
寫眞 322. 죽림리(2지구) 3군 근경 / 289
寫眞 323. 죽림리(2지구) 3군내 돌무더기 / 290
寫眞 324. 2301호 고인돌 / 290
寫眞 325. 2302호 고인돌 / 291
寫眞 326. 2303호 고인돌 / 291
寫眞 327. 2304호 고인돌 / 292
寫眞 328. 2305호 고인돌 / 292
寫眞 329. 2306호 고인돌 / 293
寫眞 330. 2307호 고인돌 / 293
寫眞 331. 2308호 고인돌 / 294
寫眞 332. 2309호 고인돌 / 294
寫眞 333. 2310호 고인돌 / 295
寫眞 334. 2311호 고인돌 / 295
寫眞 335. 2312호 고인돌 / 296

寫眞 336. 2313호 고인돌 / 296
寫眞 337. 2314호 고인돌 / 297
寫眞 338. 2315호 고인돌 / 297
寫眞 339. 2316호 고인돌 / 298
寫眞 340. 2317호 고인돌 / 298
寫眞 341. 2318호 고인돌 / 299
寫眞 342. 2318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299
寫眞 343. 2319호 고인돌 / 300
寫眞 344. 2320호 고인돌 / 300
寫眞 345. 2321호 고인돌 / 301
寫眞 346. 2322호 고인돌 / 301
寫眞 347. 2322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02
寫眞 348. 2323호 고인돌 / 302
寫眞 349. 2324호 고인돌 / 303
寫眞 350. 2325호 고인돌 / 303
寫眞 351. 232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04
寫眞 352. 2326호 고인돌 / 304
寫眞 353. 2326호 고인돌 묘실 노출상태 / 305
寫眞 354. 2327호 고인돌 / 305
寫眞 355. 2327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06
寫眞 356. 2328호 고인돌 / 306
寫眞 357. 2329호 고인돌 / 307
寫眞 358. 2330호 고인돌 / 307
寫眞 359. 2331호 고인돌 / 308
寫眞 360. 2331호 지석 노출상태 / 308
寫眞 361. 2332호 고인돌 / 309
寫眞 362. 2333호 고인돌 / 309
寫眞 363. 2334호 고인돌 / 310
寫眞 364. 2335호 고인돌 / 310
寫眞 365. 2336호 고인돌 / 311
寫眞 366. 2337호 고인돌 / 311

寫眞 367. 2338호 고인돌 / 312
寫眞 368. 2339호 고인돌 / 312
寫眞 369. 2340호 고인돌 / 313
寫眞 370. 2341호 고인돌 / 313
寫眞 371. 2342호 고인돌 / 314
寫眞 372. 2343호 고인돌 / 314
寫眞 373. 2344호 고인돌 / 315
寫眞 374. 2345호 고인돌 / 315
寫眞 375. 2346호 고인돌 / 316
寫眞 376. 2347호 고인돌 / 316
寫眞 377. 2348호 고인돌 / 317
寫眞 378. 2349호 고인돌 / 317
寫眞 379. 2350호 고인돌 / 318
寫眞 380. 2351호 고인돌 / 318
寫眞 381. 2352호 고인돌 / 319
寫眞 382. 2353호 고인돌 / 319
寫眞 383. 2354호 고인돌 / 320
寫眞 384. 2355호 고인돌 / 320
寫眞 385. 2356호 고인돌 / 321
寫眞 386. 2357호 고인돌 / 321
寫眞 387. 2358호 고인돌 / 322
寫眞 388. 2359호 고인돌 / 322
寫眞 389. 2360호 고인돌 / 323
寫眞 390. 2361호 고인돌 / 323
寫眞 391. 2362호 고인돌 / 324
寫眞 392. 죽림리(2지구) 4군 전경 / 324
寫眞 393. 죽림리(2지구) 4군 전경 / 325
寫眞 394.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 325
寫眞 395.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 326
寫眞 396.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 326
寫眞 397.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 327

寫眞 398. 2401호 고인돌 / 327
寫眞 399. 2402호 고인돌 / 328
寫眞 400. 2403호 고인돌 / 328
寫眞 401. 2404호 고인돌 / 329
寫眞 402. 2405호 고인돌 / 329
寫眞 403. 2406호 고인돌 / 330
寫眞 404. 2406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30
寫眞 405. 2406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31
寫眞 406. 2407호 고인돌 / 331
寫眞 407. 2408호 고인돌 / 332
寫眞 408. 2408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32
寫眞 409. 2408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33
寫眞 410. 2409호 고인돌 / 333
寫眞 411. 2410호 고인돌 / 334
寫眞 412. 2411호 고인돌 / 334
寫眞 413. 2412호 고인돌 / 335
寫眞 414. 2413호 고인돌 / 335
寫眞 415. 2414호 고인돌 / 336
寫眞 416. 2415호 고인돌 / 336
寫眞 417. 2416호 고인돌 / 337
寫眞 418. 2417호 고인돌 / 337
寫眞 419. 2418호 고인돌 / 338
寫眞 420. 2419호 고인돌 / 338
寫眞 421. 2419호 고인돌 상석 췌기흔적 / 339
寫眞 422. 2419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39
寫眞 423. 2420호 고인돌 / 340
寫眞 424. 2421호 고인돌 / 340
寫眞 425. 2421호 고인돌 지식 노출상태 / 341
寫眞 426. 2422호 고인돌 / 341
寫眞 427. 2423호 고인돌 / 342
寫眞 428. 2424호 고인돌 / 342

- 寫眞 429. 2425호 고인돌 / 343
- 寫眞 430. 2426호 고인돌 / 343
- 寫眞 431. 2426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44
- 寫眞 432. 2427호 고인돌 / 344
- 寫眞 433. 2428호 고인돌 / 345
- 寫眞 434. 2428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45
- 寫眞 435. 2429호 고인돌 / 346
- 寫眞 436. 242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46
- 寫眞 437. 2430호 고인돌 / 347
- 寫眞 438. 2431호 고인돌 / 347
- 寫眞 439. 2432호 고인돌 / 348
- 寫眞 440. 2433호 고인돌 / 348
- 寫眞 441. 2434호 고인돌 / 349
- 寫眞 442. 2435호 고인돌 / 349
- 寫眞 443. 2436호 고인돌 / 350
- 寫眞 444. 2437호 고인돌 / 350
- 寫眞 445. 2438~2441호 고인돌 / 351
- 寫眞 446. 죽림리(2지구) 5·6군 전경 / 351
- 寫眞 447. 죽림리(2지구) 5군 전경 / 352
- 寫眞 448. 죽림리(2지구) 5군 전경 / 352
- 寫眞 449.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 353
- 寫眞 450.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 353
- 寫眞 451.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 354
- 寫眞 452.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 354
- 寫眞 453.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 355
- 寫眞 454. 2501호 고인돌 / 355
- 寫眞 455. 2502호 고인돌 / 356
- 寫眞 456. 2503호 고인돌 / 356
- 寫眞 457. 2503호 고인돌 / 357
- 寫眞 458. 2504호 고인돌 / 357
- 寫眞 459. 2504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58
- 寫眞 460. 2505호 고인돌 / 358
- 寫眞 461. 2505호 고인돌 / 359
- 寫眞 462. 2506호 고인돌 / 359
- 寫眞 463. 2507호 고인돌 / 360
- 寫眞 464. 2508호 고인돌 / 360
- 寫眞 465. 2509호 고인돌 / 361
- 寫眞 466. 250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61
- 寫眞 467. 2510호 고인돌 / 362
- 寫眞 468. 2511호 고인돌 / 362
- 寫眞 469. 2512호 고인돌 / 363
- 寫眞 470. 2512호 고인돌 / 363
- 寫眞 471. 2512호 고인돌 지석·개석
노출상태 / 364
- 寫眞 472. 2513호 고인돌 / 364
- 寫眞 473. 2513호 고인돌 / 365
- 寫眞 474. 2513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65
- 寫眞 475. 2514호 고인돌 / 366
- 寫眞 476. 2515호 고인돌 / 366
- 寫眞 477. 2516호 고인돌 훼손상태 / 367
- 寫眞 478. 2517호 고인돌 / 367
- 寫眞 479. 2518호 고인돌 / 368
- 寫眞 480. 2519호 고인돌 / 368
- 寫眞 481. 2520호 고인돌 / 369
- 寫眞 482. 2521호 고인돌 / 369
- 寫眞 483. 죽림리(2지구) 6군 전경 / 370
- 寫眞 484.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 370
- 寫眞 485.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 371
- 寫眞 486.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 371
- 寫眞 487.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 372
- 寫眞 488. 2601호 고인돌 / 372
- 寫眞 489. 2602호 고인돌 / 373

- 寫眞 490. 2603호 고인돌 / 373
寫眞 491. 2604호 고인돌 / 374
寫眞 492. 2605호 고인돌 / 374
寫眞 493. 2606호 고인돌 / 375
寫眞 494. 2607호 고인돌 / 375
寫眞 495. 2608호 고인돌 / 376
寫眞 496. 2609호 고인돌 / 376
寫眞 497. 2610호 고인돌 / 377
寫眞 498. 2611호 고인돌 / 377
寫眞 499. 2612호 고인돌 / 378
寫眞 500. 2613호 고인돌 / 378
寫眞 501. 2614호 고인돌 / 379
寫眞 502. 2615호 고인돌 / 379
寫眞 503. 261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 380
寫眞 504. 2616호 고인돌 / 380
寫眞 505. 2617호 고인돌 / 381
寫眞 506. 2618호 고인돌 / 381
寫眞 507. 2619호 고인돌 / 382
寫眞 508. 2620호 고인돌 / 382
寫眞 509. 2621호 고인돌 / 383
寫眞 510. 2622호 고인돌 / 383
寫眞 511. 2623호 고인돌 / 384
寫眞 512. 2624호·2625호 고인돌 훼손상태 / 384
寫眞 513. 2626호 고인돌 / 385
寫眞 514. 2627호 고인돌 / 385
寫眞 515. 2628호 고인돌 / 386
寫眞 516. 2629호 고인돌 / 386
寫眞 517. 2630호 고인돌 / 387
寫眞 518. 2631호 고인돌 / 387
寫眞 519. 2632호 고인돌 / 388
寫眞 520. 도산리 고인돌군 전경 / 388
寫眞 521. 도산리 고인돌군 근경 / 389
寫眞 522. 도산리 2443호 고인돌 / 389
寫眞 523. 도산리 2443호 노출상태 / 390
寫眞 524. 도산리 2443호 지석 고인 상태 / 390
寫眞 525. 도산리 2444호 고인돌 / 391
寫眞 526. 도산리 2445호 고인돌 / 391
寫眞 527. 도산리 2446호 고인돌 / 392
寫眞 528. 도산리 2447호 고인돌 / 392
寫眞 529. 송암 고인돌군 전경 / 393
寫眞 530. 송암 고인돌군 전경 / 393
寫眞 531. 송암 고인돌 1군 전경 / 394
寫眞 532. 송암 고인돌 1군 근경 / 394
寫眞 533. 송암 1101호 고인돌 / 395
寫眞 534. 송암 1102호 고인돌 / 395
寫眞 535. 송암 1103호 고인돌 / 396
寫眞 536. 송암 1104호 고인돌 / 396
寫眞 537. 송암 고인돌 2군 전경 / 397
寫眞 538. 송암 고인돌 2군 근경 / 397
寫眞 539. 송암 2001호 고인돌 / 398
寫眞 540. 송암 2002호 고인돌 / 398
寫眞 541. 송암 2003호 고인돌 / 399
寫眞 542. 송암 2004호 고인돌 / 399
寫眞 543. 송암 2005호 고인돌 / 400
寫眞 544. 송암 2006호 고인돌 / 400
寫眞 545. 송암 2007호 고인돌 / 401
寫眞 546. 송암 2008호 고인돌 / 401
寫眞 547. 송암 고인돌 3군 전경 / 402
寫眞 548. 송암 고인돌 3군 전경 / 402
寫眞 549. 송암 3001호 고인돌 / 403
寫眞 550. 송암 3002호 고인돌 / 403
寫眞 551. 송암 3003호 고인돌 / 404

寫眞 552. 송암 3004호 고인돌 / 404
寫眞 553. 송암 3005호 고인돌 / 405
寫眞 554. 송암 3006호 고인돌 / 405
寫眞 555. 송암 3007호 고인돌 / 406
寫眞 556. 송암 3008호 고인돌 / 406
寫眞 557. 송암 3009호 고인돌 / 407
寫眞 558. 송암 3010호 고인돌 / 407
寫眞 559. 송암 3011호 고인돌 / 408
寫眞 560. 송암 3012호 고인돌 / 408
寫眞 561. 송암 3013호 고인돌 / 409
寫眞 562. 송암 3014호 고인돌 / 409
寫眞 563. 송암 3015호 고인돌 / 410
寫眞 564. 송암 3016호 고인돌 / 410
寫眞 565. 송암 3017호 고인돌 / 411
寫眞 566. 송암 3018호 고인돌 / 411
寫眞 567. 송암 3019호 고인돌 / 412
寫眞 568. 송암 3020호 고인돌 / 412
寫眞 569. 송암 3021호 고인돌 / 413
寫眞 570. 송암 3022호 고인돌 / 413
寫眞 571. 채석장 / 414
寫眞 572. 채석장 / 414

寫眞 573. 채석장 / 415
寫眞 574. 채석장 / 415
寫眞 575. 채석장 / 416
寫眞 576. 채석장 / 416
寫眞 577. 채석장 / 417
寫眞 578. 운곡리 고인돌 전경 / 417
寫眞 579. 운곡리 고인돌 / 418
寫眞 580. 서산성 전경 / 418
寫眞 581. 상갑리 고분군 전경 / 419
寫眞 582. 상갑리 M1호분 근경 / 419
寫眞 583. 상갑리 M1호분 노출상태 / 420
寫眞 584. 죽림리 고분군 전경 / 420
寫眞 585. 죽림리 1호분 근경 / 421
寫眞 586. 죽림리 2호분 근경 / 421
寫眞 587. 죽림리 2호분 노출상태 / 422
寫眞 588. 죽림리 3호분 근경 / 422
寫眞 589. 죽림리 4호분 근경 / 423
寫眞 590. 죽림리 5호분 근경 / 423
寫眞 591. 죽림리 5호분 노출상태 / 424
寫眞 592. 죽림리 6호분 근경 / 424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그림의 축소 비율은 유구는 1/20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축소 비율을 달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표시를 하였다.
3. 유구의 그림에서는 상석의 경우 단면도와 입면도를 나타내 주었고, 지석의 경우는 단면도와 측면도, 입면도를 나타내 주었으며, 단면도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 측면도를 합성한 것도 있다.
4. 상석의 계측은 장축·단축길이는 가장 긴 부분을 계측하였고, 지석은 지표에 노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계측하였다.
5. 상석의 형태는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로 구분하였다.
평면형태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구형, 방형(장방형, 제형), 타원형, 부정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단면형태는 장축방향의 단면형태를 나타내었고, 타원형, 장방형, 제형, 판석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타원형은 상석의 위면과 아래면이 불룩하고 측면이 둥글거나 뾰족하게 다듬어진 형태, 장방형은 상석의 위면과 아래면이 편평하고 측면이 수직인 것, 제형은 두 변은 평행하고 나머지 두면은 사선을 이루고 있는 것, 판석형은 네면이 잘 다듬어진 널빤지모양인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지석은 형태와 규모에 따라 주형,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였다.¹⁾
6. 고인돌(지석묘)은 용어사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인돌은 꺾돌, 지석묘는 돌을 고인 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조사가 지표조사로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구명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고인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표지사진 : 도산리 탁자식 고인돌

1) 이영문의 분류를 따랐다.

주형 : 높이가 50cm이상으로 대개 사각형으로 다듬은 장주형의 할석이다.

대형 : 길이와 폭이 대개 40~50cm이고 높이가 40cm 정도인 것

소형 : 길이 30cm, 높이 30cm 정도인 것.

I. 머리말

본 보고서는 호남문화재연구원이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사적 제391호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실시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이다.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죽림리·도산리에 분포하고 있는 사적 제391호로 지정된 고인돌군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사적 제391호로 지정된 고인돌군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여 유적의 보존과 정비 방안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6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초자료조사와 현지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기초자료조사는 2000년 4월 6일부터 2000년 4월 13일까지, 현지조사는 2000년 4월 14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윤덕향(호남문화재연구원장)

지도위원 : 전영래(前 원광대학교 교수)

최몽룡(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이건무(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영훈(前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조사위원 : 최성락(목포대학교 박물관장)

이영문(목포대학교 교수)

최완규(원광대학교 교수)

임영진(전남대학교 교수)

김승옥(전북대학교 교수)

책임조사원 : 김건수(호남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진영(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노미선(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수현(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는 이상의 조사단 이외에 박영훈·이태호(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생) 등이 참여하였다. 또, 조사기간 동안 도와주신 지도위원님 및 조사위원님들과 고창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고서 정리작업은 김건수의 책임아래 김진영이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도면정사 : 김진영, 김영훈, 김시원, 박영훈, 장희경
- 편집작업 : 김진영

본문은 김진영이 작성하고, 김건수가 수정·가필하였다. 그리고, 고창 고인돌 유적이 한반도 고인돌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에게 「한국 지식묘의 특징과 그 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문을 의뢰하였고, 고인들이 형성될 당시의 자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4기 지질연구팀에게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 제4기 자연환경분석 연구」를 의뢰하였다.

Ⅱ. 遺蹟 位置 및 環境

1. 遺蹟의 位置 및 自然環境(圖 1)

고창군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정읍군, 동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의 남쪽을 경계로 전라남도 장성군, 서쪽으로 영광군과 서해, 북쪽은 즐포만을 건너 부안군 일부와 서해에 접한다. 지도상의 위치는 동경 126°26"~126°46", 북위 35°18"~35°34"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603.16km²이며, 1읍 13면 189 동리가 있다.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노령산맥이 동쪽의 균계를 남서방향으로 뻗어내려 서부지역에서 부안군과 함께 산지성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쪽과 북쪽의 아산면일대가 높은 편이며, 중앙은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고, 노령산맥의 서사면일대는 대청산 등 600~700m의 주봉으로 연결되고 있다.

고창군의 산들은 대부분 방장산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들로 천태산, 왕륜산, 취령산, 빈월산, 화시산, 소요산, 고성산 등이 있다.

하천은 대부분 북쪽이나 서쪽으로 흐르고, 유역이 가장 넓은 인천강을 비롯하여 주진천, 해리천, 대산천 등과 같은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들 하천유역은 대개 구릉지대로서 관개가 용이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호수로는 동림저수지·조산저수지·궁산저수지가 있는데, 대개 농업관개용으로 이용된다.

지질은 원생대 중기의 변성암류인 편마암류와 판암류의 암석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해안가의 지질구조는 흥덕면, 부안면 등의 해안은 대보화강암이 분포되어 있고 해리면과 상하면의 연안에는 편마암류가 발달되어 있으며, 심원면의 해안선은 안산암이 분포되어 있다.

기후는 연평균기온 12.8°C, 1월 평균기온 -1°C, 8월 평균기온 25°C이며, 연강수량은 1,150mm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리는 10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말에 끝난다.²⁾

2. 歷史的 環境

고창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구석기시대의 유적·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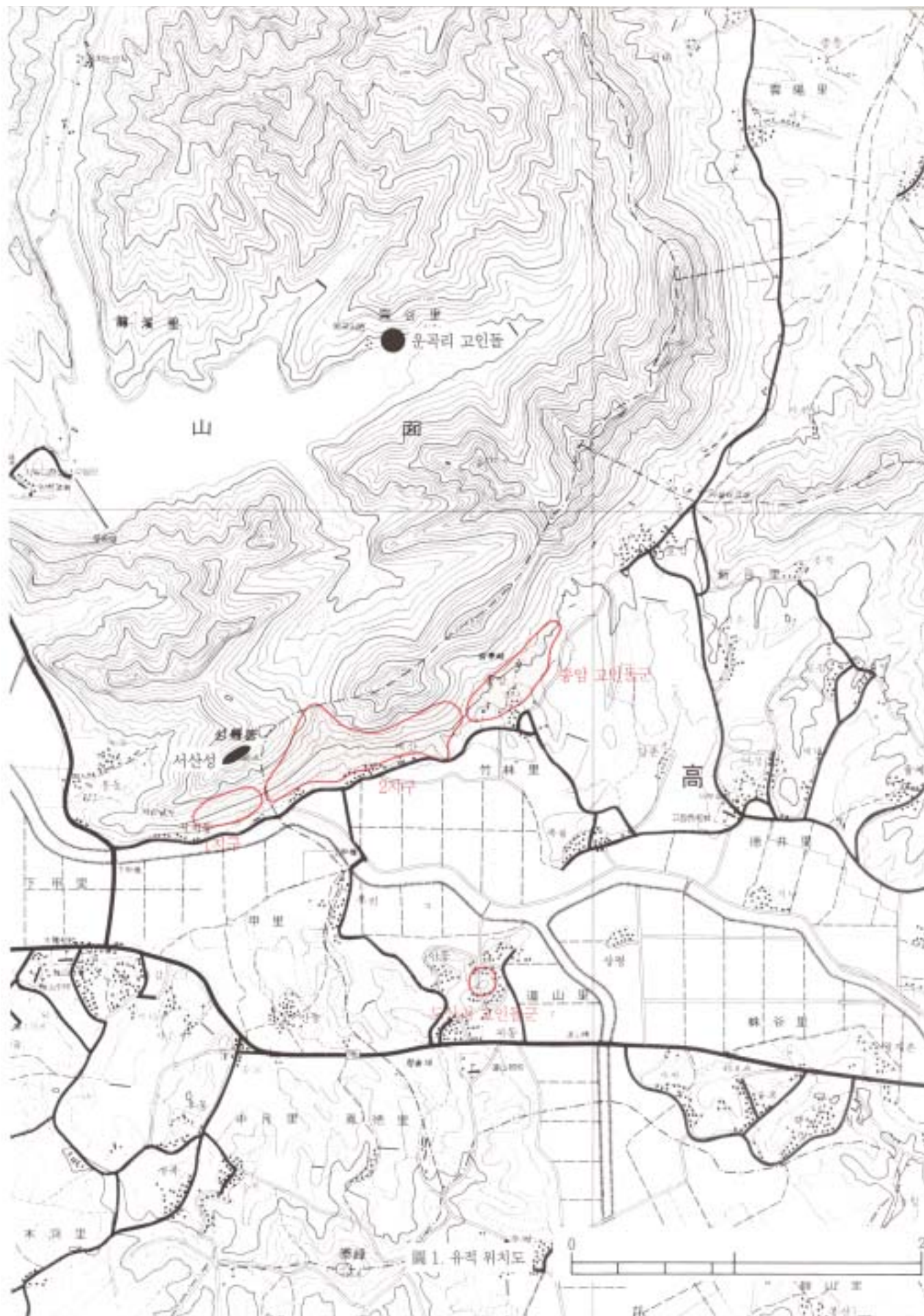


圖 1. 유곡 위치도

신석기시대 유적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 없지만, 인근지역인 변산 대항리에서 패총이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대항리 패총은 1967년에 보고되어³⁾ 그 후 몇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⁴⁾ 패총의 범위는 남북으로 약 14m, 동서로 약 10m정도이며, 50~60cm정도로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타제석기 5점, 즐문토기편,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토로 모로비리국(牟婁卑離國)에 비정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현재의 고창읍이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 흥덕면이 상칠현(上漆縣), 무장면이 송미현(松彌知縣), 공음면이 상노현(上老縣)에 해당되었다.

통일신라시대, 757년(경덕왕16년)에는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을 고창현(高敞縣)으로, 송미지현(松彌知縣)을 무송현(無松縣)으로, 상노현(上盧縣)은 장사현(長沙縣)으로, 상칠현(上漆縣)은 상질현(尙質縣)으로 개칭되었으며, 보리고을을 상징하는 모량부리의 속면인 모양이 이곳의 지명으로 함께 사용되어왔다. 뒤에 고창·무송·장사 3현은 무령현의 명현이 되었고, 상칠현은 고부군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고창이 고창(高敞)·무할(無割)로, 흥덕은 상질(尙質)·좌찬(左贊)·장덕(章德)·창덕(昌德)·흥덕(興德)으로, 무장은 무송(茂松)·장사(長沙)·좌로(左魯)로 불리워졌으나, 구역은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고창, 흥덕, 무장 세 고을로 내려왔고, 1914년에 이 세 고을이 합쳐져서 고창군이 되었으며, 지금의 고창읍이 고창현 자리이다.

고창지역의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간)가 건설되면서 이에 대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⁵⁾

전주대학교박물관에서는 우평리 I 유적과 예지리 유적 2개소를 조사하였다. 우평리 I 유적에서는 철기시대 말기에서 백제 초기에 해당되는 주거지 9기와 조선시대 민묘 15기가 조사되었다. 예지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수혈유구 1기, 야외노지 1기, 고인돌 1기이고, 철기시대 토광묘 10기, 주구묘 6기, 옹관묘 1기, 기타 분묘 7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신덕리 유적 3개소, 신송리유적, 교운리유적, 죽림리 유적,

3) 崔夢龍 1967,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二)』, 『考古美術』8-5(通卷 85호), 考古美術同人會.

4) 國立全州博物館 1999, 『扶安 海岸一帶 遺蹟地表調查 報告』.

李永德 2001, 『扶安 大項里貝塚의 檢討』, 『韓國新石器研究』創刊號, 韓國新石器研究會.

5) 전북대학교박물관·전주대학교박물관·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호남문화재연구원 2000, 『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간)건설구간내 문화유적 약보고서』.

도산리 유적, 우평리Ⅱ 유적, 낙양리Ⅱ 유적, 성남리유적 5개소, 광대리 유적, 산정리유적, 죽림리유적, 운양리 지석묘, 죽림리 지석묘를 조사하였다.

신덕리Ⅰ 유적은 주거지 12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신덕리Ⅱ 유적에서는 주거지 12기가 조사되었다. 신덕리Ⅲ-A유적에서는 옹관 5기, 주구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신덕리Ⅲ-B유적에서는 방형 주거지 5기와 원형 주거지 1기, 석곽묘 3기, 민묘 2기, 용도미상의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신송리유적에서는 주거지 13기와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교운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철기시대 주거지 44기, 통일신라시대 고분 1기, 민묘 27기, 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죽림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굴립주건물지 1기, 잡석유구 5기, 수혈유구 6기, 환호로 추정되는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도산리유적에서는 옹관 1기와 대형옹관편 등이 확인되었다. 우평리Ⅱ 유적에서는 옹관묘 1기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낙양리Ⅱ 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와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성남리Ⅰ 유적에서는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주공 53기,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성남리Ⅲ 유적에서는 주구묘 15기, 옹관묘 3기, 수혈유구 17기, 구상유구 3기, 성격미상의 유구 5기, 민묘 32기가 조사되었다. 성남리Ⅳ 유적에서는 주구묘 2기와 주거지 1기이다. 성남리Ⅴ-A유적에서는 요지 3기, 폐기장 1기, 주거지 3기, 굴립주건물지 4기,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성남리Ⅴ-B유적에서는 주거지 4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굴립주건물지 1기, 성격미상의 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성남리Ⅵ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와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광대리유적에서는 주구묘 14기, 토광묘 1기, 굴립주건물지 3기, 수혈유구 15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산정리유적에서는 주거지 7기, 수혈유구 29기, 굴립주건물지 3기, 주공 60여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고창군 고인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1965년 아산면 상갑리에 위치한 3기의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고, 1983년 고창·아산댐 수몰지구인 아산면 용계리와 운곡리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 상갑리와 죽림리 일대에 분포하는 고인들군이 확인되었으며, 1990년에 상갑리와 죽림리고인들 442기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각 고인들에 대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사적 제391호로 지정되었다.⁶⁾ 1999년에는 전주대학교역사연구소에 의해 상석 채석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성틀봉 주위 능선에 15개소, 중봉 주위 능선에 8개소로 나누어 총 23개소를 조사하였다.⁷⁾

6) 全榮來 1992, 『高敞, 竹林里--帶支石墓群 地表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7) 전주대학교박물관 1999, 『고창지석묘군 상석 채굴지 지표조사 보고서』.

Ⅲ. 調査方法

사적 제391호 고창 고인돌 유적은 행정구역상 고창군 상갑리와 죽림리, 도산리일대에 해당된다 (圖 2. 寫眞 1~3).

고인들의 분포범위는 아산면 소재지에서 하갑교를 지나 상갑리에서 죽림리에 걸쳐 대략 2.5 km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산리 고인돌군은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992년에 보고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442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기존의 문헌기록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기초자료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작업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고인돌과 그 주변지역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다.

고인돌은 성틀봉과 중봉의 남사면에 산의 등고선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일부 고인돌의 번호판이 바뀌어 있는 것이 있어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와 고인돌에 페인팅된 것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유적의 분포범위와 배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유적의 배치도와 등고선측량을 실시하였다. 등고선 측량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작업과정 중에 각각의 기준점을 설치하여 분포도와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유적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상갑리(1지구) 고인돌군에서 14기와 죽림리(2지구) 고인돌군에서 40기, 도산리 고인돌군에서 2기에 대해 1/20으로 평·단면도, 입면도를 작성하였다. 개별 고인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카드 작성과 사진촬영을 하였다.

고인돌군이 분포하는 능선과 연결되어 분포하고 있는 송암마을의 주변 고인돌군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추가확인된 송암 고인돌군은 3개군으로 구분하여 34기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고인돌군의 주변유적으로는 운곡리 고인돌과 서산성, 삼국시대 고분, 고인돌 채석장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였고, 삼국시대 고분은 7기에 대해 분구측량작업을 하였다. 고인돌군이 위치한 산정상부 상석 채석장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상갑리와 죽림리 고인돌군은 1990년 조사시 2지구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1지구는 4개군으로 2지구는 6개군으로 구분하여 각 고인돌에 대한 고유번호가 부여된 상태였다. 유적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 지구와 각 군이 나누어졌고, 고유번호도 부여된 상태였다(예:1지구 1군 1번=1101).

도산리 고인돌군은 조사초기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조사진행과정 중 번호가 부여되어 번호판이 설치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새롭게 조사된 송암마을 고인돌에 대해서는 행정명(마을명)을 이용하여 유적의 명칭을 부가·명명하였다.

고인돌은 구조상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구분하였고, 각 개별 고인돌에 있어서 판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1.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본문 표에 ○로 표기하였다.)

-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것
- 고인돌의 구성요소 중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지석, 묘실 등).

2.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본문 표에 △로 표기하였다.)

- 전체 배치상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정한 방향성과 거리 등).
- 상석의 윗면과 아래면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
- 상석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채석 흔적 등이 관찰되는 것.

이와같은 분류작업을 기초로 하여 각 고인돌에 대한 조사카드를 작성하였고, 전체 배치도를 작성하였다.

IV. 調査内容

1. 상갑리 고인돌군(1지구)

상갑리 고인돌군은 석치동마을 바로 뒷편에 위치하며, 고인돌군 앞으로 고창천이 흐르고 있다. 성틀봉의 남쪽사면에 등고선 방향을 따라 해발고도 20~52m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다.

상갑리 고인돌군(1지구)은 기존 조사에서 4개군으로 나누어, 총 181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으

며,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81기 모두 1990년 조사당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고유번호는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상석에 번호가 페인팅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세부조사는 하지 않았다.

조사된 고인돌 중 외형적인 구조나 특징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16기(1군:3기, 2군:6기, 3군:5기, 4군:2기)를 선별하여 실측하였다.

1) 1군(圖 3~6, 寫眞 4~51)

1군은 석치동마을을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죽림리 고인돌군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고인돌 군에서 직선거리로 서쪽으로 35m쯤 떨어져 상갑리고분 1기가 위치하고 있다.

1군은 총 42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고, 조사결과, 보고된 42기의 고인돌이 모두 확인·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묘실이 노출되어 있거나 외형상 특징적인 고인돌 3기(1109호, 1120호, 1139호)를 선정하여 실측하였다.

고인돌의 분포는 해발고도 20m~48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나 밭개간으로 인해 상석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1142호를 제외하면 25m~48m 사이에 분포한다.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고인돌은 1108호이며, 해발고도 48m 지점에 위치한다.

고인돌의 배치상태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것과 등고선 방향을 따라 배치된 것으로 구분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고인돌은 군 내에서 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능선의 경사방향을 따라 대체적으로 2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고인돌은 일부 열을 이루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산만한 배치를 보인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55~481cm, 단축길이 120~348cm, 두께 43~208cm 범위 내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을 가진 고인돌은 1141호로 장축길이 481cm, 단축길이 297cm, 두께 208cm이고, 가장 작은 상석을 가진 고인돌은 1105호이며, 장축길이 155cm, 단축길이 137cm, 두께 134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 나타나고, 단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등이 나타난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과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돌 2기, 지석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돌 15기,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

인돌 22기,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3기이다.

1군에서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돌은 2기(1109호, 1120호)이고, 지석이 노출된 고인돌은 16기(1103호, 1104호, 1107~1109호, 1111호, 1114호, 1115호, 1117호, 1128호, 1136~1141호)이다.

묘실이 노출된 고인돌은 2기이며, 사면의 경사가 떨어진 쪽(남쪽사면)의 묘실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1109호는 묘실의 일부가 드러나 있으며,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장축길이 172cm, 단축길이 90cm, 노출된 깊이는 32cm이다. 지석이나 뚜껑돌은 없고 벽석위에 바로 상석이 놓여 있다. 동벽은 일부 작은 할석이 보이고 길이 44cm, 너비 42cm 정도의 판석형의 석재가 놓여 있으나 상석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다. 서벽은 길이 34cm, 너비 30cm 정도의 석재 1매로 구성되어 있다. 북벽은 동쪽부분만 노출되어 있는데 길이 34cm, 너비 18cm 정도의 석재 1매를 세우고 20cm규모의 할석을 3~4단 쌓았다. 남벽은 동쪽부분이 유실되어 없고 길이 84cm, 너비 32cm 판석 1매를 사용하였다. 바닥은 완전히 노출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표 1〉 상감리(1지구) 1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101		8	개석식	246	190	165	장방형	제형	N20W				△	
1102		9	개석식	290	159	43	제형	부정형	N40W				△	
1103		10	기반식	230	140	141	장방형	방형	N40E	1	소형	36×15	○	
1104		11	기반식	240	145	75	제형	장방형	N50W	2	?	?	○	
1105		12	개석식	155	137	134	삼각형	부정형	N50E				△	
1106		13	개석식	290	145	46	부정형	장방형	N70W				△	2중으로 겹쳐있음 (상단상석계측)
1107		14	기반식	285	270	149	장방형	제형	W20N	2	?	?	○	
1108		15	기반식	355	230	182	장방형	삼각형	E-W	1	대형	40×32×25	○	
1109	4	16,17	기반식	284	144	118	장방형	제형	N58W	1	?	43×34×25	○	묘실노출
1110		18	개석식	230	155	125	제형	장방형	N60E				△	
1111		19	기반식	185	140	118	장방형	장방형	N60W	1	소형	32×19	○	
1112		20	개석식	240	141	110	부정형	장방형	E-W				△	
1113		21	개석식	203	148	50	부정형	장방형	N30E				△	
1114		22	기반식	206	148	73	부정형	장방형	N70W	2	?	?	○	
1115		23	기반식	347	284	114	제형	타원형	N70W	1	?	28×18×20	○	
1116		24	개석식	182	178	68	부정형	타원형	N40W				△	
1117		25	기반식	365	348	169	장방형	장방형	N-S	5	?	?	○	

1118		26	개석식	245	142	134	삼각형	장방형	N60W									△	
1119		27	개석식	183	161	86	장방형	장방형	N40W									×	
1120	5	28,29	개석식	206	162	174	장방형	삼각형	N72E									○	묘실노출
1121		30	개석식	212	176	176	부정형	부정형	N40W									△	
1122		31	개석식	175	167	117	장방형	장방형	N70W									△	
1123		32	기반식	378	261	186	장타원형	장방형	N60W									△	
1124		33	개석식	254	155	86	부정형	부정형	N70W									△	
1125		34	개석식	220	130	103	부정형	방형	N20W									△	
1126		35	개석식	331	329	208	부정형	제형	N70E									△	
1127		36	개석식	298	266	153	삼각형	제형	N80E									△	
1128		37	기반식	229	182	77	삼각형	장방형	N60W	1	?		?					○	
1129		38	개석식	311	134	87	장방형	장방형	N80W									△	
1130		39	개석식	205	169	106	장방형	제형	N80W									△	
1131		40	개석식	247	205	115	부정형	부정형	N60W									△	
1132		41	개석식	272	260	84	방형	장방형	N-S									△	
1133		42	개석식	248	115	62	장방형	장방형	N40W									×	
1134		43	개석식	260	150	60	장방형	장방형	E-W									△	
1135		44	개석식	189	120	57	?	부정형	E-W									△	
1136		45	기반식	283	181	107	제형	삼각형	E-W	2	?		?					○	
1137		46	기반식	218	160	88	장방형	장방형	E-W	2	?		?					○	
1138		47	기반식	301	262	168	장방형	장방형	N60W	2	?		?					○	
1139	6	48	기반식	260	240	114	장방형	타원형	N30E	1	?		?					○	
1140		49	기반식	214	160	140	장방형	장방형	N-S	1	?		?					○	
1141		50	기반식	481	297	208	부정형	타원형	N-S	3	?		?					○	
1142		51	개석식	211	193	45	장방형	장방형	N60E									×	

1120호는 묘실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길이 122cm, 너비 58cm, 깊이 40cm이다. 지석이나 뚜껑돌은 없고 벽석 위에 바로 상석이 놓여 있다. 동벽은 길이 44cm, 너비 34cm의 판석 1매를 사용하였고, 서벽은 길이 38cm, 너비 32cm 판석 1매가 노출되어 있다. 북벽은 판석과 할석이 노출되어 있다. 남벽은 판석 1매가 남아 있고 유실되었다.

지석이 노출된 고인들은 16기로 지석의 형태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 5기 정도이며, 대형지석과 소형지석 등이 확인되었다.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들은 3기로 1119호와 1133호, 1142호이다. 이는 주변에 소로와 발개간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2) 2군(圖 7~11, 寫眞 52~98)

2군은 1군에서 동쪽으로 17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총 43기의 고인들이 보고되었고, 이번 조사결과 보고된 43기의 고인들이 모두 확인·조사되었다.

2군 고인들은 해발고도 21~31m 사이에 분포하며, 대부분이 해발고도 25m~29m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인들은 1241호이며, 31.5m 지점에 위치한다.

고인들 군이 분포하는 사면의 등고선 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깝고, 고인들의 배치형태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 것과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배치는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며 배치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55~588cm, 단축길이 98~442cm, 두께 35~276cm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은 1239호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588cm, 단축길이 442cm, 두께 185cm이고, 가장 작은 상석은 1211호로 규모는 장축길이 155cm, 단축길이 98cm, 두께 45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 나타나고, 단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등이 나타난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과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남북방향 7기, 동-서방향 6기, 북서-남동방향 8기, 북동-남서방향 22기로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을 취하고 있다.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 7기, 지석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 23기,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 16기, 이동·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들은 2기이다.

묘실이 노출된 고인들은 7기이며, 주로 사면의 경사가 심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다.

1203호는 묘실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상석 아래 지석이나 뚜껑돌이 없이 바로 벽석이 상석을 받치고 있다.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길이 157cm, 너비 70cm, 깊이 50cm이다. 동벽은 길이 94cm, 너비 54cm 정도의 대형석재 1매로 구축되어 있고, 서벽은 길이 54cm, 너비 32cm 정도의 대형할석 1매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남벽은 동쪽부분이 유실되어 있고 판석 3매를 2단으로 쌓아 구축하였다. 1단은 길이 118cm, 너비 18cm 판석 1매로 축조되었으며, 2단은 길이 27cm, 너비 10cm, 높이 10cm, 길이 56cm, 너비 10cm, 높이 15cm 판석 2매를 사용하였다. 북벽의 노출상태는 길이 60cm, 높이 40cm 판석 1매와 소형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출된 묘실 바닥상태는 흙바닥이다.

1206호는 묘실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35cm이다. 동

벽은 길이 70cm, 너비 28cm 규모의 괴석형 판석 1매가 노출되어 있고, 서벽은 길이 70cm, 너비 30cm의 괴석형 판석 1매가 노출되어 있다. 북벽은 2단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1단은 길이 80cm 정도 판석 1매가 노출되어 있고, 2단은 30~50cm정도의 판석과 20cm 정도의 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벽은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남서쪽에 지석 1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규모는 길이 38cm, 너비 28cm, 높이 34cm이다.

1216호는 묘실 남동쪽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축조상태는 1단은 길이 45cm, 높이 16cm의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였고, 2단은 판석 2매를 사용하였다. 노출된 지석은 남동쪽의 지석으로 2중으로 조성되어 있다.

1217호는 상석의 장축 측면은 비교적 정연하게 다듬어져 있으나, 단축 측면은 정연하지 못하다. 5개의 지석이 상석을 지탱하고 있으며, 지석은 1m정도 규모를 가진 대형지석이다. 2군에서 가장 큰 상석을 갖추고 있다.

〈표 2〉 상갑리(1지구) 2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201	8	55	기반석	230	230	122	구형	장방형	N-S	2	소형/ 주형	23×?×16/ 54×34×46	○	
1202	9	56	개석식	259	114	100	장방형	장방형	N80E				△	
1203		57	개석식	368	208	118	장방형	제형	N76E	1	?	?	○	묘실노출
1204		58	기반석	244	162	84	제형	타원형	N80E	1	?	?	△	
1205		59	개석식	275	217	114	부정형	장방형	N-S				△	
1206	10	60	기반석	322	208	118	장방형	장방형	N70E	?	벽석과 접합	?	○	묘실노출
1207		61	개석식	188	128	45	부정형	장방형	N60E				△	
1208		62	개석식	216	108	87	부정형	장방형	N-S				△	
1209		63	기반석	276	186	120	제형	장방형	N40E	2	소형/ 대형	33×19×?/ 37×32×?	○	
1210		64	개석식	193	150	66	장방형	장방형	N70E				△	
1211		65	기반석	155	98	45	장방형	장방형	N70W	2	?/ 소형	?/36×20×?	○	
1212		66	개석식	257	150	92	삼각형	장방형	N80E	1	?	?	○	
1213		67	개석식	436	236	238	장방형	삼각형	N-S				△	
1214		68	기반석	300	198	54~ 160	장방형	부정형	N60E	2	소형	30×19×26/ 32×25×17	○	

1215		69	개석식	224	168	96	장방형	삼각형	N80E	1	?	?	○	
1216		70	기반식	320	245	175	제형	제형	N70E	1	대형	32×25×8/ 45×?×10	○	묘실노출
1217	11	71	기반식	450	404	278	제형	삼각형	N60E	5	주형/ 대형	87×85×55/ 83×64×47/ 71×70×26/ 77×69×33/ 80×48×23	○	묘실노출
1218		72	개석식	215	100	56	장타원형	?	N70E				△	
1219		73	기반식	291	286	180	제형	장방형	N-S	2	?	?	○	
1220		74	개석식	333	253	104	제형	제형	N-S				△	
1221		75	개석식	231	140	118	장방형	제형	N70W	1	?	?	○	
1222		76	기반식	486	268	204	부정형	부정형	N20W	1	?	?	○	
1223		77	기반식	210	176	88	장방형	장방형	N80E	4	주형	60×40×26/ 64×35×39/ 35×?×14/ 58×30×?	○	
1224		78	기반식	393	232	170	부정형	장방형	N40W	4	?	?	○	
1225		79	기반식	251	154	112	부정형	제형	E-W	2	대형	70×33×?/ ?	○	
1226		80	기반식	479	262	170	삼각형	삼각형	N40W	1	?	?	○	
1227		81	개석식	164	132	35	제형	장방형	N50E				△	
1228		82	개석식	228	131	67	장방형	사다리꼴	N60E				△	
1229		83	개석식	176	112	54	삼각형	제형	N40W	1	?	?	○	
1230		84	기반식	268	222	124	부정형	장방형	E-W	1	?	?	○	
1231		85	기반식	287	224	144	부정형	장방형	E-W	1	?	?	○	
1232		86	기반식	181	158	100	장방형	장방형	N-S	1	소형	37×25×15	○	판석형벽석노출
1233		87	개석식	213	175	62	장방형	제형	N50E				△	
1234		88,89	개석식	184	135	64	제형	제형	N80E	2	주형	14×13×?/ 20×14×?	○	묘실노출
1235		90	개석식	304	112	104	장방형	제형	E-W		벽석과 검합		○	묘실노출
1236		91	개석식	232	102	85	부정형	부정형	N40W				△	
1237		92	개석식	257	192	120	부정형	삼각형	N80E				△	
1238		93	개석식	442	330	72	삼각형	제형	E-W				△	
1239		94	개석식	588	442	185	부정형	장방형	N60W				△	
1240		95	개석식	286	234	155	장방형	장방형	N80E				△	
1241		96	개석식	422	336	276	부정형	방형	N50E				△	
1242		97	·	219	215	115	방형	삼각형	N60E				×	
1243		98	·	245	150	97	부정형	제형	E-W				×	

1234호는 묘실의 남쪽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노출된 상태로 보아 뚜껑돌이 없이 묘실 위에 상석이 놓여 있다. 남벽은 유실되었고 동·서·북벽은 판석 1매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길이 53cm, 너비는 단벽석으로 추정해 보면 60cm 정도이다. 지석은 2매가 노출되어 있고 형태는 주형이다.

1235호는 남쪽 부분이 유실되어 묘실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상태로 보아 지석이나 뚜껑돌은 없고 벽석 위에 바로 상석이 놓여 있다. 단벽인 동벽과 서벽은 대형 할석 1매를 이용하였고, 북벽은 할석들이 일부 보이며, 남벽은 유실되었다. 노출된 묘실의 규모는 길이 163cm, 너비 50cm 정도이다.

지석이 노출된 고인돌은 23기이며,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0기 정도이다.

이동·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은 1242호와 1243호이며, 발을 개간하면서 발의 독으로 이용되고 있다.

3) 3군(圖 12~17, 寫眞 99~150)

3군은 2군에서 동쪽으로 13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총 49기 고인돌이 보고되었다. 조사결과 49기 모두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해발고도 28~45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1221호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인돌이 집중분포하는 곳의 해발고도는 28~32m 사이이다.

1220호와 고인돌 집중분포지점 사이에 민묘군이 구성되어 있고, 고인돌 집중분포지점에서 13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1345호, 1346호, 1347호가 위치하고 있다. 민묘군이 조성된 동쪽에 1348호와 1349호, 1350호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고인돌이 위치하는 등고상에는 고인돌이 존재하지 않지만, 민묘조성시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군 전체의 분포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돌의 배치는 가장 큰 상석을 지닌 1321호가 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능선에 등고선방향으로 상석의 장축방향을 따라 2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12~427cm, 단축길이 66~390cm, 두께 22~290cm에 속한다.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은 1321호이고, 장축길이 427cm, 단축길이 390cm, 두께 290cm이며, 가장 작은 고인돌은 1346호로 장축길이 112cm, 단축길이 82cm, 두께 63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 나타나고, 단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등이 나타난다.

〈표 3〉 상갑리(1지구) 3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 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301		103	개석식	219	151	52	장방형	장방형	N76E				△	문혀있음
1302		104	기반식	184	176	143	제형	제형	N80E	1	대형	61×35×?	○	
1303		105	개석식	211	182	101	장방형	제형	N52W				△	
1304		106	기반식	336	237	124	장방형	장방형	N84W	2	대형/ 소형	45×?×?/ 29×31×?	○	
1305	13	107	기반식	290	276	188	제형	제형	N88E	3	대형/ 소형	78×26×?/ 42×?×?/ 26×27×?	○	
1306		108	기반식	230	227	97	제형	삼각형	N72E	3	대형/ 소형	34×33×?/ 47×?×17/ 5×9×?	○	
1307		109	개석식	238	164	82	삼각형	제형	N82E				△	
1308	14	110	기반식	218	112	93	제형	장방형	N72E	3	소형	37×26×25/ 28×24×?/ 18×33×?	○	
1309		111	개석식	203	79	53	삼각형	장방형	N66W				△	
1310		112	기반식	319	182	135	제형	삼각형	N78E	1	대형	42×?×14	○	
1311		113	개석식	362	290	215	장방형	제형	N78E				△	
1312		114	개석식	249	145	45	삼각형?	장방형	N62E				△	
1313		115	개석식	112	108	32	방형	장방형	N78E				△	
1314		116	개석식	202	138	95	제형	제형	N88E				△	
1315		117	개석식	188	161	95	삼각형	제형	N82E				△	
1316		118	기반식	407	273	190	장방형	장방형	N52E	1	?	?	○	
1317		119	개석식	130	143	29	방형	장방형	N14W				△	
1318		120	개석식	194	130	84	장방형	장방형	E-W				△	
1319		121	개석식	324	189	115	제형	장방형	N76E				△	
1320		122	개석식	232	100	30	삼각형	장방형	N78E				△	
1321	15	123	기반식	427	390	290	장방형	장방형	N60E	4	대형	94×66×?/ 59×76×?/ 74×59×?/?	○	
1322		124	기반식	258	217	148	삼각형	제형	N76E	1	?	?	○	
1323		125	개석식	192	155	62	부정형	장방형	N76E				△	
1324		126	개석식	151	132	26	?	?	N60E				△	
1325		127	개석식	267	137	71	?	장방형	N70E				△	일부 문혀있음
1326		128	개석식	185	105	50	제형	제형	N62E				△	
1327		129	개석식	165	126	25	장방형	장방형	N52E				△	
1328		130	개석식	136	101	43	장방형	타원형	N38E					

1329		131	개석식	289	153	96	장타원형	타원형	N76E									△	
1330		132	개석식	182	66	48	장방형	장방형	N62E									△	일부 묻혀있음
1331		133	개석식	169	116	68	제형	장방형	N70E									△	
1332		134	개석식	212	224	198	장방형	방형	N22E									△	
1333		135	개석식	179	96	80	제형	제형	N38E									△	
1334		136	기반식	229	136	119	장방형	사다리꼴	N80E	1	?							△	
1335		137	기반식	184	117	54	제형	장방형	N58E	1	?		?					○	
1336		138	기반식	413	275	243	장방형	장방형	N2E	1	?		?					○	
1337		139	개석식	252	143	97	제형	제형	N62E				?					○	쌓기 흔적
1338		140	개석식	149	73	72	제형	제형	N68E									△	
1339	16	141	기반식	248	134	180	제형	장방형	N26E	3	대형/ 소형		40×15×?/ 60×28×?/ 21×?×9					△	
1340		142	개석식	246	87	42	제형	제형	N30E									△	
1341		143	개석식	174	151	22	제형	?	N68E									△	
1342		144	·	179	112	53	제형	장방형	N72E									×	
1343		144	·	210	110	97	장방형	장방형	N8E									×	
1344		145	·	173	120	63	제형	장방형	N72E									×	
1345		146	개석식	150	100	40	장방형	장방형	N-S			?	?					○	
1346		147	개석식	112	82	63	삼각형	제형	N80W	1	?		?					○	
1347	17	148	기반식	304	250	146	삼각형	제형	N40E	3	대형		62×33×?/ 36×27×?/ 43×35×?					○	
1348		149	개석식	172	121	52	장방형	장방형	N40W	2	?		?					○	
1349		150	개석식	151	89	55	장방형	제형	N40E									△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북동-남서 방향이 많다.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없고, 지석이 노출된 고인들은 17기이며, 지석의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9기 정도이며, 대형지석과 소형지석이 확인되었다.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29기, 이동·파괴된 고인들이 3기이다.

이동·파괴된 고인들은 3기로 1342호, 1343호, 1344호이다.

4) 4군(圖 18~20, 寫眞 151~200)

4군은 1347호에서 동쪽으로 18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7기의 고인들이 보고되었다.

고인들은 해발고도 19~52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집중분포지점은 해발고도 30~33m 정도

이다. 1442호, 1443호, 1444호가 가장 높은 지점(해발고도 52m)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1호가 가장 낮은 지점(19m)에 위치하고 있다.

〈표 4〉 상갑리(1지구) 4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 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401		155	·	176	130	107	제형	장방형	N74W				×	
1402		156	개석식	175	137	68	제형	?	N30W				△	
1403		157	·	145	73	56	삼각형	장방형	N6W				×	
1404		158	·	145	79	52	삼각형	장방형	N20E				×	
1405		159	·	123	82	51	삼각형	장방형	N20E				×	
1406	19	160	기반식	224	164	65	장방형	장방형	N80E	3	벽석과 겸합	?	○	
1407		161	·	166	86	42	삼각형	장방형	N88E				×	
1408		162	개석식	230	215	99	삼각형	제형	N18E				△	
1409		163	개석식	175	74	54	장방형	장방형	N62E				△	
1410		164	개석식	277	136	98	장방형	장방형	N88E				△	
1411		165	기반식	254	151	86	제형	장방형	N80E	有	?	?	○	
1412		166	개석식	312	132	97	제형	장방형	N72E	2	벽석과 겸합		○	
1413		167	개석식	98	96	65	방형	장방형	N-S				△	
1414		168	기반식	155	143	42	방형	장방형	N74E	1	장방형	?	○	
1415		169	기반식	118	66	45	삼각형	제형	N50E	1	?	?	○	
1416		170	개석식	310	184	136	장방형	제형	N86E				△	
1417		171	개석식	241	147	77	제형	장방형	N82W				△	
1418		172	개석식	177	116	59	제형	장방형	N78E				△	
1419	20	173	기반식	324	193	94	장방형	장방형	N70E	2	?	?	○	
1420		174	개석식	138	104	30	제형	장방형	N18W				△	
1421		175	기반식	207	126	47	장방형	장방형	N60E	2	장방형	38×35×?	○	
1422		176	개석식	318	148	90	삼각형	장방형	N32E				△	
1423		177	개석식	192	131	87	장방형	제형	N52E				△	
1424		178	개석식	188	164	80	삼각형	장방형	N30W				△	
1425		179	개석식	324	156	100	제형	장방형	N78E				△	
1426		180	개석식	270	197	112	제형	장방형	N62E				△	
1427		181	개석식	222	217	94	부정형	제형	N70E				△	
1428		182	개석식	159	104	37	?	장방형	N50E				△	
1429		183	기반식	338	319	161	제형	장방형	N50W	1	장방형	49×38×?	○	
1430		184	개석식	163	129	122	장방형	장방형	N42E				△	

1431		185	·	248	137	95	제형	제형	N60W				×	
1432		186	·	103	94	31	장방형	장방형	N88E				×	
1433		186	·	176	95	35	오각형	장방형	N8W				×	
1434		187	개석식	213	77	45	제형	장방형	N68E				△	
1435		188	·	150	114	99	제형	삼각형	N40E				×	
1436		189	·	146	104	62	장방형	장방형	N78W				×	
1437		190	·	134	101	53	제형	장방형	N70E				×	
1438		191	·	152	66	71	제형	제형	N44E				×	
1439		192	개석식	232	147	92	장방형	제형	N10W				△	
1440		193	기반식	147	87	55	장방형	장방형	E-W	1	?	40×?×?	○	
1441		194	·	143	86	127	제형	삼각형	N60E				×	
1442		195	개석식	189	151	149	장방형	제형	N58E				△	일부파괴
1443		196	·	169	151	115	제형	제형	N58E				×	
1444		197	개석식	177	165	105	장방형	장방형	N66E				△	
1445		198	·	158	123	101	제형	장방형	N14E				×	
1446		199	·	141	120	57	삼각형	장방형	N4W				×	
1447		200	·	148	87	82	제형	제형	N82E				×	

고인들의 배치는 상석의 장축방향을 따라 2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의 고인돌 일부는 산만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98~338cm, 단축길이 66~319cm, 두께 30~161cm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은 1419호로 장축길이 324cm, 단축길이 193cm, 두께 94cm 이고, 가장 작은 상석은 1413호로 장축길이 98cm, 단축길이 96cm, 두께 65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부정형 등이 나타나고, 단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등이 나타난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과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은 1439호이다.

묘실이 노출된 고인돌은 없고, 지석 등의 시설물이 노출된 고인돌은 9기, 상석만 노출된 고인돌 21기, 이동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17기이다.

2. 죽림리 고인돌군(2지구)

죽림리 고인돌군은 매산마을과 송암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매산 고인돌군은 성들봉과 중봉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1992년 조사시 2지구에 해당되며, 6개군으로 나누어져 총 263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다.⁸⁾

이번 조사에서는 6개군 263기 중에서 3개군(4군, 5군, 6군)에서 고인돌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군에서는 2438호~2441호 고인돌이 발 개간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5군에서는 2516호 고인돌이 민묘군 조성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군에서는 2624호~2626호 고인돌이 발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따라서, 죽림리 고인돌군(2지구)은 7기 정도의 고인돌이 발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인해 유실된 상태이다.

1) 1군(圖 21~25, 寫眞 201~244)

1군은 1지구 4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총 41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해발고도 19~39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집중분포지점은 해발고도 24~30m 사이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인돌은 2139호로 해발고도 39m 지점에 위치한다.

고인돌의 배치상태는 등고선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며, 2열을 이루며 배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91~468cm, 단축길이 68~302cm, 두께 25~242cm 범위에 속한다. 규모가 가장 큰 상석은 2125호이며, 장축길이 468cm, 단축길이 228cm, 두께 241cm이다. 가장 작은 상석은 2136호로 장축길이 91cm, 단축길이 74cm, 두께 39cm이다.

〈표 5〉 죽림리(2지구) 1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cm)					지 석(규모: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101		205	개석식	268	150	125	장방형	장방형	N50E				△	
2102		206	·	156	81	72	장방형	장방형	N32W				×	
2103		207	개석식	141	80	64	계형	장방형	N58E				△	
2104		208	개석식	173	91	81	장방형	장방형	N60E				△	
2105		209	개석식	131	110	99	장방형	장방형	N58W				△	
2106		210	기반식	172	144	88	계형	계형	N62E	1	대형	57×27×32	○	
2107		211	개석식	149	80	66	삼각형	삼각형	N60E				△	
2108		212	·	181	133	54	장방형	장방형	N70E				×	
2109		212	·	165	130	90	장방형	부정형	N88W				×	

8) 全榮來 1992, 『高敞, 竹林里一帶支石墓群 地表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과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직교하는 것은 2124호와 2125호이다.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없고, 지석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12기로 이중에서 지석의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6기 정도이며, 주형지석과 대형지석 등이 있다.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이 24기이며, 이동·파괴된 고인들은 5기(2102호·2108호·2109호·2132호·2139호)로 상석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2군(圖 26~36, 寫眞 245~318)

2군은 1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군과의 사이에는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성틀봉과 중봉사이의 곡간지로 전체 고인돌 군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북쪽 사면 위쪽으로 3군이 위치한다. 고인돌군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의 동쪽에는 관리사무소와 매산마을이 있다.

총 66기의 고인들이 보고되었으며, 최근까지 일대가 논으로 경작되었으나, 고인돌군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정비되었다. 정비과정에서 일부가 이동·파괴되어 상석이 돌무더기를 형성하고 있다.

고인들은 해발고도 21~35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인들의 배치는 등고선 방향으로 열을 이루는 것과 무질서한 배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08~549cm, 단축길이 68~370cm, 두께 28~238cm 범위에 속한다. 규모가 가장 큰 상석은 2216호로 장축길이 500cm, 단축길이 308cm, 두께 156cm이고, 가장 작은 상석은 2230호로 장축길이 108cm, 단축길이 108cm, 두께 40cm이다.

〈표 6〉 죽림리(2지구) 2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201		251		154	146	102	장방형	장방형	N46W				×	
2202	27	252	기반식	330	254	100	장방형	제형	N50E	4	주형/ 장방형	50×40/ 42×43 45×37/ 55×51	○	
2203		253	개석식	160	121	55	장방형	장방형	N39W					
2204		254	기반식	308	233	183	장방형	장방형	N54E	3	장방형	61×53/ 49×36	○	
2205		255	개석식	297	169	162	장방형	제형	N66E				△	
2206		256	개석식	258	119	112	장방형	장방형	N52W				△	

2207		257	기반식	248	202	122	장방형	제형	N80E	1	?	?	△	
2208		258	개석식	135	98	51	장방형	장방형	N24W				△	
2209		259	개석식	150	107	28	타원형	제형	N32E				△	
2210	28	260	기반식	314	174	70	장방형	장방형	N64E	1	장방형	78×?×?	○	
2211		261	개석식	332	273	138	부정형	삼각형	N76E				△	
2212		262	기반식	239	139	52	삼각형	장방형	N88W	1	괴석형	?	○	
2213		263	기반식	484	249	220	타원형	삼각형	N38W	5	장방형	?	○	개석 있음
2214	29	264	기반식	549	214	190	제형	제형	N82E	2	주형/ 장방형	?	○	
2215	30	265	기반식	302	280	159	방형	제형	N68E	3	장방형	84×?/ 82×40/ 23×17/ 30×25	○	지석이중
2216	31	266	기반식	500	308	156	장방형	장방형	N60E	7	장방형 4/ 판석형 3	45×48/73× 27/76×64/ 69×37/?	○	
2217		267	개석식	130	116	34	장방형	장방형	N56W				△	
2218		268	개석식	214	171	119	제형	제형	N42W				△	
2219		269	개석식	231	126	144	장방형	방형	N18W				△	
2220		270	개석식	166	116	162	장방형	제형	N40W				×	
2221		271	개석식	189	125	58	삼각형	장방형	N10W	1	판석형	?	△	
2222		272	개석식	336	338	172	방형	제형	N80E				△	
2223		273	기반식	378	370	178	제형	장방형	N26W	1	주형	81×61×?	○	
2224	32	274	기반식	428	368	221	장방형	제형	N16E	4	주형/ 장방형	98×95/62× 63/84×77/?	○	
2225		275	개석식	249	173	92	장방형	장방형	N68E				△	이등분, 일부문합
2226		276	기반식	308	282	238	장방형	장방형	N4E	1	?	?	○	
2227		277	개석식	434	349	116	제형	장방형	N58W				△	
2228		278	·	130	111	56	방형	삼각형	N46E				△	
2229		279	·	213	148	146	부정형	부정형	N20W				△	
2230		280	·	108	108	40	방형	장방형	N74E				△	
2231		281	·	168	68	70	장방형	장방형	N36E				△	
2232		282	·	177	176	104	장방형	장방형	N48E				△	
2233		283	·	177	105	89	장방형	장방형	N64W				△	
2234		284	·	196	138	83	장방형	장방형	N64W				×	
2235		285	·	192	77	76	장방형	제형	?				×	
2236		286	기반식	127	120	66	제형	장방형	N60E	1	?	?	△	
2237		287	·	163	140	117	장방형	제형	N42E				△	
2238		288	·	119	112	43	장방형	제형	N38W				△	
2239		289	개석식	380	274	216	제형	장방형	N42W				△	삼등분됨

2240		290	개석식	147	143	91	장방형	장방형	N60W	1	?	?	△	이등분됨
2241	33	291	기반식	341	322	120	장방형	장방형	N12W	3	주형	61×42/56× 41/42×31	○	
2242		292	개석식	230	201	71	제형	장방형	N20W				△	
2243		293	개석식	350	285	133	장방형	장방형	N70E				○	
2244		294	개석식	284	109	53	장방형	장방형?	N86E				△	
2245	34	295 296	기반식	436	280	184	제형	부정형	N50W	2	부정형	?	○	
2246		297	·	190	97	47	제형	장방형	N62E				△	일부문합
2247		298	기반식	281	222	81	장방형	제형	N58E	1	장방형	?	△	기울어짐
2248		299	·	121	85	85	장방형	제형	N60E				×	2247에서 깨져 있음
2249	35	300 301	기반식	262	172	118	장방형	장방형	N10E	3	주형	42×31/ 105×20/?	○	
2250		302	개석식	295	259	100	장방형	제형	N88W				△	
2251		303	개석식	212	122	85	장방형	장방형	N41E	有			○	상석이등분. 하부구조로 쓰인 석재일부노출
2252		304	개석식	159	101	65	장방형	장방형	N80E				×	
2253		305	개석식	204	173	52	장방형	장방형	N60E				○	벽석일부보임
2254		306	·	331	104	61	삼각형	장방형	N86E				×	돌이 걸쳐있음
2255		307	·	209	127	72	제형	장방형	N82W				×	
2256		308	기반식	213	196	56	장방형	장방형	N88W				△	
2257		309	기반식	259	216	66	장방형	장방형	N82E	4	장방형		○	
2258		310	개석식	385	136	51	삼각형	삼각형	E-W				△	
2259		311	개석식	330	222	97	부정형	제형	N68E				○	
2260		312	·	236	184	52	부정형	제형	N76W				×	
2261		313	개석식	185	145	56	장방형	제형	E-W				△	
2262		314	·	238	98	31	부정형	?	N50E				×	
2263		315	·	271	132	78	삼각형	장방형	N18E				△	
2264		316	·	164	135	83	장방형	장방형	N12E				×	
2265		317	개석식	292	150	108	장방형	장방형?	N48E				△	
2266		318	·	139	78	61	장방형	장방형	N46E				×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 나타나며, 단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부정형 등이 나타난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해발고도 21~25m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들의 경우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묘실이 노출된 고인들은 없고, 지석이 노출된 고인들은 19기로 지석의 형태는 주형, 장방형, 판석형 등이 나타난다.

이동·파괴된 고인들은 12기이며, 2201호·2220호·2234호·2235호·2248호·2252호·2254호·2255호·2260호·2262호·2264호·2266호이다.

3) 3군(圖 37~48, 寫眞 319~391)

3군은 2군과같이 성틀봉과 중봉사이의 곡간지에 위치하며, 2군의 북쪽에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다. 전체 고인들군 중 가장 높은 지점까지 분포하고 있다. 고인들군의 정비로 인해 훼손된 고인들이 많고, 이로 인해 상석이 무더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이다. 3군의 동쪽사면에는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몇 년전까지 수십 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밭 개간으로 인해 대부분이 유실되고 몇 기 정도만 남아있다.

3군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들 중 16기(2318호~2333호)를 선정하여, 1991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한 후 복원한 바 있다.⁹⁾

고인들은 해발고도 25~67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고인들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고인들의 배치는 군내에서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2308호부터 2333호까지, 2349호부터 2360호까지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동쪽편에 위치한 고인들들은 산만한 배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수가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05~410cm, 단축길이 67~222cm, 두께 27~168cm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을 가진 고인들은 2308호로 장축길이 410cm, 단축길이 222cm, 두께 168cm이고, 가장 작은 상석을 가진 고인들은 2353호로 장축길이 105cm, 단축길이 79cm, 두께 27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부정형 등이 보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 보인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들 16기, 지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 2기,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 23기, 이동·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들 21기이다.

9) 전영래 1993, 『고창, 죽림리고인들군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표 7〉 죽림리(2지구) 3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301		324	·	131	122	60	부정형	장방형	N46E				×	
2302		325	·	157	133	62	장방형?	장방형	N88W				×	
2303		326	·	278	176	135	장방형	타원형	E-W				×	
2304		327	·	194	146	88	?	삼각형	E-W				×	
2305		328	·	120	139	62	삼각형	장방형	N64E				×	
2306		329	개석식	170	97	62	제형	장방형	N84E				△	
2307		330	개석식	138	137	92	부정형	장방형	N86W				△	
2308	37	331	기반식	410	222	168	장방형	∧형	N4E	4	장방형	43×43/ 36×?/?	○	
2309		332	개석식	230	222	75	제형	장방형	N52W				△	
2310		333	개석식	192	134	77	제형	부정형	N70W				△	
2311		334	기반식	146	96	47	장방형	장방형	N20W				△	
2312		335	·	236	203	62	장방형	제형	N70E				×	
2313		336	·	195	142	77	부정형	?	N84W				×	
2314		337	기반식	210	138	133	장방형	장방형	N20W				△	
2315		338	개석식	232	87	36	제형	장방형?	N14W				△	
2316		339	개석식	181	155	70	제형	삼각형	N70W				△	
2317		340	기반식	252	194	84	제형	타원형	N10E				○	
2318	38	341 342	기반식	268	141	62	제형	장방형	N12E				○	발굴조사됨
2319		343	기반식	165	128	52	제형	장방형	N10W				○	발굴조사됨
2320	39	344	기반식	216	183	77	제형	장방형	N6E				○	발굴조사됨
2321	40	345	기반식	262	112	85	장방형	제형	N6W				○	발굴조사됨
2322	41	346 347	기반식	292	166	88	삼각형	제형	N10E				○	발굴조사됨
2323		348	기반식	244	131	67	제형	제형	N10E				○	발굴조사됨
2324	42	349	기반식	309	158	88	삼각형	장방형	N4E				○	발굴조사됨
2325	43	350 351	기반식	173	110	54	장방형	장방형	N10E				○	발굴조사됨
2326	44	352 353	개석식	325	175	106	삼각형	장방형	N10E				○	발굴조사됨
2327	45	354 355	기반식	229	144	73	장방형	장방형	N12E				○	발굴조사됨
2328	46	356	기반식	372	143	96	장방형	장방형	N12E				○	발굴조사됨
2329		357	개석식	176	122	48	장방형	장방형	N12E				○	발굴조사됨
2330		358	개석식	210	124	48	삼각형	삼각형	N10E				○	발굴조사됨

2331	47	359 360	기반식	262	216	89	원형	삼각형	N18E					○	발굴조사됨
2332		361	개석식	220	105	53	제형	제형	N30E					○	발굴조사됨
2333	48	362	기반식	282	164	82	삼각형	장방형	N10E					○	발굴조사됨
2334		363	기반식	223	144	57	삼각형	제형	N8W					△	
2335		364	·	246	123	72	제형	장방형	N38E					×	
2336		365	개석식	155	117	49	장방형	장방형?	N6E					△	
2337		366	·	163	92	72	삼각형	장방형	E-W					×	
2338		367	개석식	190	101	144	부정형	부정형	N50					△	
2339		368	·	237	?	57	?	장방형	N58E					×	
2340		369	·	153	117	126	장방형	장방형	N48W					×	
2341		370	개석식	241	139	63	삼각형	제형	N46W					△	
2342		371	개석식	216	67	48	삼각형	삼각형?	N48W					△	
2343		372	·	211	113	69	제형	제형	N80E					×	
2344		373	·	174	113	54	제형	장방형	N40E					×	
2345		374	·	130	83	138	방형	제형	N62E					×	
2346		375	개석식	213	159	97	장방형	장방형	N46E					△	
2347		376	·	182	115	57	제형	삼각형	N22W					×	
2348		377	·	147	188	87	장방형	삼각형	N54W					×	
2349		378	개석식	188	134	64	장방형	장방형	N22W					△	
2350		379	·	247	202	173	장방형	제형	N20W					×	
2351		380	개석식	214	109	58	제형	장방형	N4W					△	
2352		381	개석식	255	218	144	장방형	장방형	N84E					△	
2353		382	·	105	79	27	장방형	장방형	N22W					×	
2354		383	개석식	233	139	69	제형	장방형	N-S					△	
2355		384	기반식	353	215	140	장방형	제형	N84W	2	장방형	45×33×?/ 55×46×33		○	
2356		385	개석식	191	124	81	장방형	장방형	N24W					△	
2357		386	개석식	211	184	46	장방형	장방형	E-W					△	
2358		387	개석식	328	?	162	?	장방형	N30W					△	
2359		388	·	167	104	29	제형	제형	N40W					×	
2360		389	개석식	163	133	62	?	장방형	N44E					△	일부문합
2361		390	·	204	166	122	?	장방형	N8W					×	일부문합
2362		391	·	169	129	67	제형	삼각형	N40W					×	

4) 4군(圖 49~57, 寫眞 392~445)

4군은 매산마을 앞 소로를 따라 분포한다. 일부는 밭 개간과 소로건설로 인해 파괴되었고, 일부는 담장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 41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으며, 조사결과 8기가 이동·파괴되어

37기를 조사하였다.

고인들의 분포는 해발고도 26~32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배치는 등고선 방향으로 2열을 이루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10~622cm, 단축길이 82~542cm, 두께 33~354cm 범위에 속한다. 가장 큰 고인들은 2406호이며, 죽림리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상석을 지니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622cm, 단축길이 542cm, 두께 252cm이다. 4군에서 가장 작은 고인들은 2431호로 장축길이 110cm, 단축길이 94cm, 두께 57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등이 보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등이 보인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북서-남동 방향이다.

묘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2428호이며, 묘실은 지상식으로 추정된다. 벽은 잘 다듬어진 판석 1매씩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서벽은 유실되었다. 묘실 위에 상석이 바로 올려져 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형지석 1매가 상석을 받치고 있다.

지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17기이며,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19기이다.

이동된 고인들은 5기로 2409호는 일부가 도로 밑에 묻혀 있고, 2410~2114호는 소로건설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2434호~2437호로 발 개간으로 인해 이동되어져 있다.

파괴된 고인들은 2438호~2441호 4기이며, 발 개간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2지구 4군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401		398	기반석	255	225	78	삼각형	제형	N8E					△	
2402		399	기반석	265	234	134	원형	제형	N70W	1	주형	28×35×43		○	
2403		400		126	82	50	장방형	장방형	N52E					△	
2404		401	기반석	274	312	119	제형	장방형	N70W	2	판석형 /괴석형	82×32×39/?		○	
2405		402		177	122	75	장방형	장방형	N58E					△	
2406	50	403 ~ 405	기반석	622	542	252	장방형	장방형	N76E	4		115×78×? 86×58×? 93×112×?		○	
2407		406	개석식	315	295	134	장방형	제형	N82E			?		○	

2408	51	407 ~ 409	기반식	458	396	354	장방형	장방형	N80W	5	장방형	115×80×80/ 110×80×70/ 107×100×60/ 130×84×53	○	
2409		410	·	210	?	36	?	?	E-W				△	
2410		411	개석식	126	97	77	장방형	제형	N84W				△	
2411		412	개석식	272	159	67	부정형	장방형	N86W				△	
2412		413	·	133	108	39	제형	장방형	N10W				△	
2413		414	·	164	89	33	제형	장방형	N80W				△	
2414		415	개석식	210	123	98	제형	제형	N66E				△	
2415		416	기반식				장방형	제형	E-W	1	?	77×63×58	○	
2416		417	기반식	240	214	126	제형	장방형	N65W	2	주형	27×23×?/ 32×31×?	○	
2417		418	기반식	240	141	55	제형	제형	N86E	1	장방형	20×?×?	○	
2418	52	419	기반식	308	134	158	제형	장방형	N14E	3	판석형/ 장방형/ 소형합석	42×20×?/ ?×15×37/?	○	
2419	53	420 ~ 422	기반식	314	196	162	장방형	장방형	N4W	4	주형	40×63×?/ 39×50×?/ 46×38×?/ 56×32×?	○	
2420		423	개석식	206	171	57	제형	장방형	N70W				○	
2421	54	424 425	기반식	266	194	126	장방형	제형	E-W	2	장방형	51×27×28/ 30×22×18	○	
2422		426	기반식	243	165	112	제형	제형	N70E	1		51×?×?	○	
2423		427	개석식	213	116	65	?	제형	N74E				△	
2424		428	개석식	228	139	114	제형	제형	N68E				△	담장으로 이용
2425		429	개석식	235	134	104	제형	장방형	N70E				○	
2426	55	430 431	기반식	374	230	78	타원형	타원형	N74E	3	주형	25×17×?	○	
2427		432	개석식	196	138	67	제형	제형	N80W				△	
2428	56	433 434	개석식	370	228	82	타원형	제형	N8E	1	주형	25×?×?	○	일부노출
2429	57	435 436	기반식	290	246	114	장방형	장방형	N54E	3	괴석형, 합석	?	○	
2430		437	·	258	189	100	제형	장방형	N60W				△	
2431		438	개석식	110	94	57	방형	제형	N62W				△	
2432		439	기반식	307	292	182	삼각형	제형	N50E	2	장방형	64×40×?	○	
2433		440	기반식	510	350	176	제형	제형	N40E	1	주형	60×32×107	○	
2434		441	·	261	147	66	장방형	제형	N30E				△	
2435		442	·	213	181	57	제형	제형	N2W				△	

2436	443	·	336	190	63	제형	장방형	N-S				△	×
2437	444	·	23	172	91	장방형	장방형	N4E				△	×
2438	445												
2439	445												
2440	445												
2441	445												

5) 5군(圖 58~61, 寫眞 446~482)

5군은 4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 45m의 세장한 구릉의 능선부와 사면부에 21기가 분포하고 있다. 구릉 능선부에 위치한 고인돌(2501호에서 2515호까지)은 구릉의 방향을 따라 2열로 배치되어 있다. 2516호는 구릉의 남쪽사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민묘가 조성되면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2517호~2520호는 구릉의 남쪽에 연결한 지방도 개설시에 이동되어 상석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13~336cm, 단축길이 86~254cm, 두께 41~153cm 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을 지닌 고인돌은 2509호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334cm, 단축길이 254cm, 두께 130cm이며, 가장 작은 상석을 지닌 고인돌은 2515호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113cm, 단축길이 102cm, 두께 57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 등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등이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같은 동-서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상석의 장축방향을 따라 열을 이루며 분포한다.

5군의 가장 큰 특징은 탁자식 고인돌(2509호)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509호는 200cm이상 되는 판석 2매를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상석을 올려놓았다. 판석은 상석과 맞닿는 위부분을 V형의 홈을 내어 전면이 상석과 닿지 않게 하였다. 상석은 밑면의 형태를 정교하게 다듬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묘실이 노출된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인 2509호이고, 지석 등이 노출된 고인돌은 10기에 해당된다.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돌은 9기이며, 파괴된 고인돌은 2516호가 해당된다.

〈표 9〉 죽림리(2지구) 5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501		454	개석식	174	102	46	장방형	장방형	N80E	1	?	31×24×?	○	
2502		455	개석식	141	123	42	부정형	세장방형	N40E				△	
2503		456 457	기반식	336	230	152	장방형	장방형	N60E	2	주형	?	○	
2504		458 459	기반식	285	174	83	장방형	제형	N18W	4	판석/ 주형?	69×20×18/ 30×44×36/ ?/?	○	
2505		460	개석식	240	106	70	타원형	타원형	N-S				△	
2506		461 462	개석식	197	89	41	장타원형	제형	N6W				△	
2507		463	개석식	250	232	92	삼각형	장방형?	N20E				△	
2508		464	기반식	172	149	75	제형	장방형	N62E	2	할석	21×25×?/ 42×28×?	○	
2509	59	465 466	탁자식	334	254	130	제형	삼각형	N44E	2	판석	211×?×26/ 224×?×20	○	
2510		467	개석식	293	207	104	부정형	장타원형	N36E	1	?	?	○	
2511		468	개석식	190	187	53	제형	장방형	N40W	1	?	?	○	
2512	60	469 ~ 471	기반식	322	238	210	장방형	장방형	N58W	4	주형/ 판석/ 장대석/ ?	159×72×16/ 18×30×63/ 103×40×38/ 80×28×?	○	
2513		472 ~ 474	기반식	328	128	128	장방형	장방형	N42W	5	주형	30×52×60/ 39×25×45/ 45×24×39/ 55×29×44/ 56×44×66	○	
2514		475	개석식	150	86	44	장방형	장방형	N80E	1	장방형	?	○	
2515		476	·	113	102	57	장타원형	장방형	N-S				×	
2516		477	파 괴											
2517		478	·	304	118	68	제형	장방형	N62E				△	
2518		479	·	314	160	52	장타원형	장타원형	N30E				△	
2519		480	·	143	121	50	제형	장방형	N80E				△	일부유실
2520		481	·	213	177	117	제형	제형	N40E				△	
2521		482	개석식	242	158	153	장방형	방형	N60E				△	

6) 6군(圖 62~65, 寫眞 483~519)

6군은 5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에 인접한 산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총 32기의 고인들이 보고되었으나 조사결과, 3기(2624호~2626호)가 밭 개간과 민묘조성으로 인해 파괴되어 29기만이 조사하였다.

고인들은 해발고도 28~49m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면부의 등고선 방향을 따라 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19~460cm, 단축길이 79~332cm, 두께 26~198cm에 속한다. 가장 큰 상석을 가진 고인들은 2615호로 장축길이 460cm, 단축길이 332cm, 두께 176cm이고, 가장 작은 상석을 가진 고인들은 2612호로 장축길이 119cm, 단축길이 101cm, 두께 26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등이 보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 부정형의 형태가 보인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과 북동-남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고,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편이다.

6군에서는 묘실이 노출된 것은 없고, 지석 등이 노출된 고인들은 5기이다.

상석만 노출되어 있는 고인들은 19기이며,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들은 3기 정도이다. 파괴된 고인들은 3기가 해당된다.

〈표 10〉 2지구 6군 고인들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601		488	개석식	189	98	80	장방형	제형	N18W				△	
2602		489		150	108	92	제형	장방형	N60W				×	
2603		490	개석식	270	115	79	삼각형	부정형	N50W				△	
2604		491	개석식	147	103	105	장방형	장방형	N88E				△	
2605		492	개석식	142	116	81	제형	장타원형	N40E				△	
2606		493	개석식	204	118	107	제형	제형	N4E				△	
2607		494	개석식	137	109	57	장방형	제형	N6W				△	
2608		495		189	117	116	제형	제형	N70W				×	
2609		496	개석식	138	84	35	제형	장방형	N8E				△	
2610		497	개석식	170	102	43	삼각형	제형	N72E				△	
2611		498	개석식	167	114	38	장방형	장방형	N40E				△	
2612		499	개석식	119	101	26	제형	장방형	N64W				△	
2613		500	개석식	175	142	135	제형	제형	N60E				△	
2614		501	개석식	210	129	92	장방형	장타원형	N40E				△	

2615	63	502 503	기반식	460	332	176	제형	장방형	E-W	1				○	
2616		504	개석식	228	211	133	방형	장방형	N54E					○	
2617		505	기반식	421	332	198	장방형	제형	N60W	1	?	64×35×15	○	상석서쪽모서리 부분유실	
2618		506	기반식	178	117	58	장방형	장방형	N20W	2	?	?	○		
2619		507	기반식	240	164	151	제형	장방형	N-S	1	주형	33×34×54	○		
2620	64	508	기반식	292	222	162	제형	장방형	N40E	4	주형	48×35×36/ 31×49×28/ 24×39×19	○		
2621	65	509	기반식	284	234	168	제형	장방형	N40W	4	주형	28×24×18/ 43×38×38/ 28×35×24/ 38×19×17	○		
2622		510	개석식	256	210	152	제형	장방형	N4W					△	
2623		511	개석식	203	138	98	삼각형	장타원형	N40E					△	
2624		512	밭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파괴												
2625		512	밭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파괴												
2626		513	밭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파괴												
2627		514		138	79	50	삼각형	제형	N74W					×	
2628		515	기반식	301	180	118	제형	삼각형	N4W					△	
2629		516	개석식	249	116	71	삼각형	?	N60E					△	
2630		517	개석식	169	102	56	제형	장방형	N14E					△	밭개간과 민묘 조성으로인해 이동
2631		518	개석식	359	225	92	제형	장방형	N60E					△	
2632		519	개석식	260	120	72	제형	제형	N18E					△	

3. 도산리 고인돌군(圖 66~68, 寫眞 520~528)

도산리 고인돌군은 고창읍에서 아산면소재지 방면으로 796번 지방도를 따라 약 4km쯤 가다보면 오른편 도산리마을에 있고, 고인돌은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 43m 구릉상에 탁자식 고인돌 1기와 기반식 고인돌 2기, 개석식 고인돌 2가 분포하고 있다. 탁자식 고인돌로 인해 장독대 고인돌군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곳은 상갑리 고인돌군과 죽림리 고인돌군과 함께 사적 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 초기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조사 진행 중 고창군에서 번호를 부여하였다. 번호 부여는 2지구의 4군의 연장으로 부여되었으나(2지구 4군의 41번이 끝번호인데, 도

산리 고인돌에는 43번부터 부여됨), 행정단위가 달라 구분하여 기술한다.

고인돌 군의 배치는 기반식과 개석식 고인돌은 등고선 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탁자식 고인돌은 인접하여 위치한다.

탁자식 고인돌(2443번)은 상석의 평·단면형태가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350cm, 단축길이 310cm, 두께 38c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지석과 상석 사이에 길이 20cm내외, 너비 15cm내외 두께 10cm정도의 판판한 돌을 이용해 보강석으로 사용하였으며, 빈 틈사이에 흙이 메워져 있다. 지석은 판석 2매를 사용하였는데 규모는 314×164×30cm, 307×168×26cm이다. 지석과 지석사이의 내부에는 몇 개의 소형 활석이 박혀 있다.

기반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은 상석규모가 장축길이 241~277cm, 단축길이 135~218cm, 두께 9~75cm 에 속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장타원형, 삼각형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표 11〉 도산리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2443	67	522 ~ 524	탁자식	350	310	38	장방형	장방형	N84W	2	판석	314×164×30/ 307×168×26	○	
2444	68	525	기반식	251	218	75	장방형	장방형	E-W	1	장방형	32×21×?	○	
2445		526	개석식	246	142	9	장타원형	장방형	E-W				△	상석일부 문합
2446		527	기반식	241	135	53	장방형	장방형	N80W	1	부정형	36×27×26	○	
2447		528	기반식	277	187	54	삼각형	장방형	E-W	?	?	?	△	

4. 송암 고인돌군(圖 69~75, 寫眞 529~530)

송암 고인돌군은 2지구 6군의 동쪽과 연결된 송암마을 안쪽과 그 주변 밭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총 3개군 34기를 조사하였다.

1) 1군(圖 69, 寫眞 531~536)

1군은 송암마을 민가 뒷마당에 총 4기의 고인돌이 해발고도 34m 정도에 2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65~265cm, 단축 118~169, 두께 57~65cm이고, 상석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마름모형 등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등이다. 지석이 확인된 고인들의 수는 2기로 지석의 형태는 장방형, 방형, 주형 등이다.

〈표 12〉 송암 1군 고인들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		533	기반식	222	151	62	장방형	장방형	N40E	2	장방형	?×22×16/ 58×15×?	○	
2		534	개석식	265	169	65	장방형	장방형	N50E				○	
3		535	기반식	204	174	57	마름모	장방형	N84E	4	방형/ 주형	?×29×15/ 32×28×41	○	
4		536	개석식	166	118	65	장방형	제형	N50E				△	

2) 2군(圖 70, 寫眞 537~546)

2군은 총 8기의 고인들이 해발 40m 정도에 분포하고 있다. 주변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일부 고인들의 묘실이 노출되거나 훼손된 상태였고,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민묘 조성시 대부분의 상석이 이동·피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8기의 고인들이 조사되었으나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11~459cm, 단축 46~285, 두께 31~105c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북동-남서,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장타원형, 삼각형 등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등이다. 지석이 확인된 고인들의 수는 3기로 지석의 형태는 장방형 등이다.

〈표 13〉 송암 2군 고인들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 cm)						지 석(규모 :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		539	개석식	146	92	31	장방형	장방형	N60W				△	
2		540	기반식	459	211	69	장타원형	제형	N60E	1	장방형	178×?×?	○	
3		541	기반식	405	285	102	삼각형	제형	N80E	2	?	?	○	
4	70	542	기반식	397	188	58	제형	제형	N80W	1	장방형	94×?×29	○	지석 일부 묻혀 있음
5		543	개석식	111	102	55	?	?	N53W				△	
6		544	기반식	391	189	105	제형	장방형	N-S				○	
7		545		141	46	31	?	?	N20W				×	
8		546	개석식	372	182	69	장방형	장방형	N10W				○	

3) 3군(圖 71~75, 寫眞 547~570)

3군은 총 22기의 고인들이 해발고도 45m의 구릉 정상부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주변에 민묘가 조성되면서 이동된 것이 있다. 기반식 고인돌 9기와 개석식 고인돌 12기, 구조를 알 수 없는 것 1기로 총 22기가 조사되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길이 130~346cm, 단축길이 83~257, 두께 43~195cm에 속한다. 장축방향은 대부분이 북서-남동, 북동-남서 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방형 등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방형 등이다. 지석 등이 확인된 고인들의 수는 10기 정도로 지석의 형태는 장방형, 방형 등이다.

〈표 14〉 송암 3군 고인돌 현황표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구조	상 석(규모: cm)						지 석(규모: cm)			상 태	비 고
				장축	단축	두께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수	형태	규 모		
1	72	549	기반식	265	257	195	방형	장방형	N40W	4	방형	48×42×?/ 80×53×43/ 79×60×38/ 48×54×33	○	
2		550	기반식	295	213	114	삼각형	장방형	N-S	2	장방형	100×41×?/?	○	일부 묻힘
3		551	개석식	313	197	104	제형	장방형	N20W				△	
4		552	기반식	314	186	101	삼각형	장방형	N40W	2	제형	29×36×?	○	
5		553	개석식	263	137	75	삼각형	제형	E-W				△	
6		554	개석식	144	83	43	제형	장방형	N80E				△	
7	73	555	기반식	321	194	151	제형	제형	N40W	4	장방형 /방형/ 삼각형 /?	77×29×?/ 44×?×32/ 33×35×23/ ?	○	
8		556	기반식	211	136	72	삼각형	제형	N22W	2	장방형 /방형	64×48×15/ 33×26×30	○	
9		557		130	121	65	오각형	제형	N20E				×	상석일부 훼손 및 이동
10		558	개석식	284	170	193	제형	장방형	N20W				△	
11		559	개석식	290	256	134	제형	장방형	N20W				△	
12		560	개석식	218	149	57	제형	장방형	N80E				△	
13		561	기반식	273	254	76	삼각형	제형	N84W	1	?	41×45×?	○	지석 묻혀있음
14		562	개석식	168	124	51	제형	장방형	N10W				△	
15		563	개석식	182	114	70	제형	장방형	N40W				△	이동
16		564	기반식	230	123	91	장방형	장방형	N-S	2	제형/?	38×30×48/?	○	상석 일부 훼손

17	74	565	기반식	250	222	121	제형	제형	N86E	3	장방 2/?	39×27×43/ 26×34×30/?	○	
18		566	개석식	202	124	83	장방형	장방형	N80E				△	
19		567	개석식	254	182	74	제형	제형	N10W				△	
20		568	개석식	154	144	105	제형	장방형	N10W	1	장방형	46×?×30	○	
21	75	569	기반식	260	230	182	방형	방형	N-S	4	?	55×43×29/ 44×46×25/ 47×45×28/?	○	
22		570	개석식	346	177	171	장방형	제형	N60E				△	

5. 주변 유적

· 채석장(寫眞 571~577)

상갑리 고인돌군과 죽림리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는 성틀봉과 중봉에 채석장이 있다. 이 채석장은 전주대학교에서 조사한 바 있다.¹⁰⁾ 조사지역은 총 23개소로 가군(성틀봉쪽)과 나군(중봉쪽)으로 구분한 뒤 각각 15개소, 8개소로 나누고, 계곡이나 능선을 경계로 하여 6개 군락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채석장이 위치하는 지점의 해발고도는 가군의 경우 해발고도 60~115m 사이이고, 나군의 경우는 70~130m 사이이다. 채석장의 면적은 가군 50~2500㎡ 사이, 나군 150~1200㎡ 사이이다. 채석지는 채석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여 산의 능선방향을 따라 이동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석장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화산암에 대비되는 안산암질응회암, 데사이트질응회암, 안산반암과 제 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 운곡리 고인돌(寫眞 578~579)

운곡리 고인돌군은 1983년 고창·아산댐수몰지구 조사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돌 앞에는 「한국 최대 지석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서산성(寫眞 580)

서산성은 삼국시대 석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틀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1990년 조사당시 실측조사를 한 바 있다. 길이 70m, 너비 40m 정도의 규모이다.

10) 전주대학교박물관 1999, 『고창고인돌군 상석 채굴지 지표조사 보고서』.

· 고분(圖 76~81, 寫眞 581~592)

고분군은 상갑리에서 1기와 죽림리에서 6기를 조사되었다. 상갑리 1기와 죽림리 4기에 대해서 측량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상갑리 고분군(圖 76~77, 寫眞 581~583)

상갑리 고분은 상갑리 산 1번지에 위치한다. 1990년 조사시에 2기가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M1호분에 대해서 분구측량을 하였다.

M1호분은 서당마을 265번지 민가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조사시에는 묘실이 노출되어 있어 내부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¹¹⁾ 현재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메워져 내부구조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노출된 부분의 너비는 110cm정도이고, 석재의 크기는 186×84×20cm이다. 분구크기는 동서 15.61m, 남북 16.12m이고,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② 죽림리 고분군(圖 78~81, 寫眞 584~592)

고분군 2지구 2군과 3군의 동쪽 사면부에 위치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도굴되어졌고, 1955년에서 60년대 초반 밭으로 개간되면서 수 기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현재 주변이 밭으로 개간되고 있다. 6기의 고분을 조사하였고 4기에 대해 분구를 측량하였다.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표 15〉 죽림리 고분군 현황표

호 수	직경	봉분형태	비 고
1호분	?	원형분추정	파괴심함
2호분	9.5m	원형분	일부
3호분	10.98m	원형분	
4호분	14.14m	원형분	
5호분	10.90m	원형분	
6호분	14.15m	원형분	

11) 圖 77은 『고창, 죽림리일대 지석묘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면을 정사한 것이다.

V. 調查結果

이번 지표조사는 사적 제 391호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군의 보존과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인돌은 상갑리와 죽림리, 도산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2지구 10개군으로 나뉘어져 437기가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조사는 437기 고인돌의 현황과약과 고인돌의 배치상태, 고인돌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에 대한 정밀측량, 대표적인 고인돌에 대한 개별실측, 고인돌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국시대 고분의 분구측량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인돌군과 연결한 송암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34기를 확인하여 3개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1기의 고인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각 군별 현황표

구 분 \ 군 명	1 지구				2 지구						송암			도산리	합 계
	1군	2군	3군	4군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1군	2군	3군		
묘실노출된것	2	6	5	1	·	·	·	·	·	·	·	·	·	·	14
지석노출된것	14	17	10	0	7	20	12	16	10	5	2	3	10	4	130
고인돌추정	22	18	30	29	27	24	29	11	5	21	2	4	11	1	234
이동된 것	4	2	4	17	5	22	21	10	5	3	·	1	1	·	95
파괴된 것	·	·	·	·	·	·	·	4	1	3	·	·	·	·	8
합 계	42	43	49	47	39	66	62	41	21	32	4	8	22	5	481
	181				261						34				

1. 입지 및 분포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입지 지형은 평지, 구릉, 고개마루, 산기슭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동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석묘가 밀집된 지형은 산과 근접한 곳으로 주변은 평지가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대부분이다. 산기슭에 위치한 지석묘는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경사면 또는 산중턱에 형성된 대지상에 분포하고 있다. 산줄기 아래의 사면은 평지와 유사한 지형이지만 전체적으로 경사져 있는 점이 다르고, 산기슭 아래 대지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지만 평지보다 높은

지형이다.¹²⁾

고창군은 비교적 높은 산과 산상의 계곡이 발달된 지형으로 계곡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와 저평한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지석묘 주변에는 산자락의 말단부를 개간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저평한 구릉과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고창 고인돌유적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입지조건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산기슭에 위치하면서 산의 능선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고인돌 군은 성틀봉과 중봉의 남쪽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등고선 방향으로 2~3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유적의 주변에 위치한 고창천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고인돌은 해발고도 20~65m 사이에 분포하며, 해발고도 25m 정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2. 구조 및 형식

지석묘의 외형적인 분류기준은 지역적인 분포, 발굴지역, 외형적인 형태, 매장주체부인 묘실의 위치, 그리고 전형과 변형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구조나 특징은 같으나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석묘의 형식은 1차기준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과 2차 기준으로 상석 아래의 하부구조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분류된다.¹³⁾ 고창 고인돌유적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고인돌의 외형적인 구조는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구분되며, 각 군별 분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각 군별 고인돌의 외형구조 현황표

군 명 구 분	1 지구				2 지구						송암			도산리	합계
	1군	2군	3군	4군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1군	2군	3군		
탁자식	1	1	2
기반식	16	17	14	8	10	19	18	16	5	7	2	4	9	3	148
개석식	26	24	32	22	26	27	23	11	9	19	2	3	12	1	237
기타	.	2	3	17	3	20	21	14	6	6	.	1	1	.	94
합 계	42	43	49	47	39	66	62	41	21	32	4	8	22	5	481
	181				261						34				

12)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3)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탁자식 고인들은 잘 다듬어진 판석을 2~4매를 이용하여 지상에 묘실을 축조하고 그 위에 판상석의 상석을 올려놓은 구조이다. 분포범위는 대체로 요령지방과 북한지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고창 고인돌유적에서는 2지구 5군(2509호)과 도산리 고인돌군(2443호)에서 각 1기씩 존재하고 있다.

기반식 고인들은 판석이나 활석 등의 석재를 이용하여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그 주위로 수개의 지석을 놓고, 그 위에 상석을 올려놓은 구조이다. 분포범위는 주로 남한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고창 고인돌유적에서는 모두 148기가 확인되었다.

개석식 고인들은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상석을 올려놓은 구조이다. 무지석식, 뚜껑식, 대석개묘라고도 한다. 고창 고인돌유적에서는 모두 237기가 확인되었다.

3. 상석

상석의 형태는 하나의 군집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단면형태가 평면형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⁴⁾

고창 고인돌유적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장방형이 수적으로 많다.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 삼각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평면형태와 마찬가지로 장방형이 많은 편이다.

상석의 획득은 인력동원과 석재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상석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조건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지석묘의 축조자들은 상석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과 노동력의 동원이 가능하였으므로 거석을 이용한 묘제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석이 피장자의 사회적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상석의 장축길이는 가장 짧은 고인들은 2136호로 91cm이고, 가장 긴 고인들은 2406호로 622cm이다. 길이가 150cm미만이 68기로 14.1%를 차지하고, 150~250cm미만의 것이 230기로 47.8%에 해당되며, 250~350cm미만은 125기로 26%에 해당된다. 350~450cm미만은 32기로 6.7%에 해당되며, 450cm이상은 15기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길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8기 정도이다.

14)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5) 金珍英 2001, 『麗水半島 支石墓 研究』, 木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상석의 단축길이는 가장 짧은 고인들은 1130호로 66cm이고, 가장 긴 고인들은 2406호로 542cm이다. 100cm미만이 62기로 13%에 해당되며, 100~200cm미만은 294기로 61.1%에 해당되며, 200~300cm미만은 90기로 18.7%에 해당된다. 300~400cm미만은 16기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400cm이상되는 것은 3기로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길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11기 정도이다.

4.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고창 고인돌 유적이 위치하는 상갑리와 죽림리 일대의 자연환경과 식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적이 위치하는 주변의 논바다 하부의 충적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하상이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기도 하는 망상하천과 충적 선상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천유수작용으로 특징지워진다.

주변 화분분석결과, 약 5,500년(홀로세 중기 기후최적기) 이전의 고창천 일대에는 저습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당시 기후는 현재보다 다소 온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주기적인 하천범람으로 인해 퇴적물의 유입양이 많아지면서 배후습지는 점차 패쇄되어 간다. 이후 약 4,500년 전부터는 양치류 포자대가 발달하였으며, 당시 기후는 현재보다 온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2,000년전을 기점으로 인간에 의해서 이 지점이 매립되면서 경작지로 변화하였으며, 침엽수림으로 바뀌었다.

인위적 지층의 분포는 중립질 모래층과 사력층은 홀로세 초기(약 9,000년)에 형성되었다. 홀로세 초기 이후에는 기후온난화에 따라 하천작용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력층이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 현재, 안내소 부근에서는 구하상 사력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하도는 구릉지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약 4,700~5,200년전에는 하천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하여 제방 위에는 니사질 퇴적층이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산화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하상의 위치변화에 따른 폐쇄된 하도나 배후습지에는 니사질층이 퇴적되었다.

(金珍英)

Ⅵ.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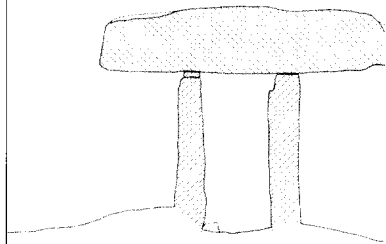
이번 지표조사는 사적 제391호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사는 기존에 조사된 고인돌 447기를 포함하여 송암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34기를 새로이 조사함으로써 총 481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인돌군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채석장과, 서산성, 고분군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과 분포형태, 형식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조사된 지역이외의 주변부에 상당수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창 고인돌유적은 단일지역내에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최대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조사가 지표조사라는 점으로 인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획득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따라서, 유적의 정확한 성격구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金建洙)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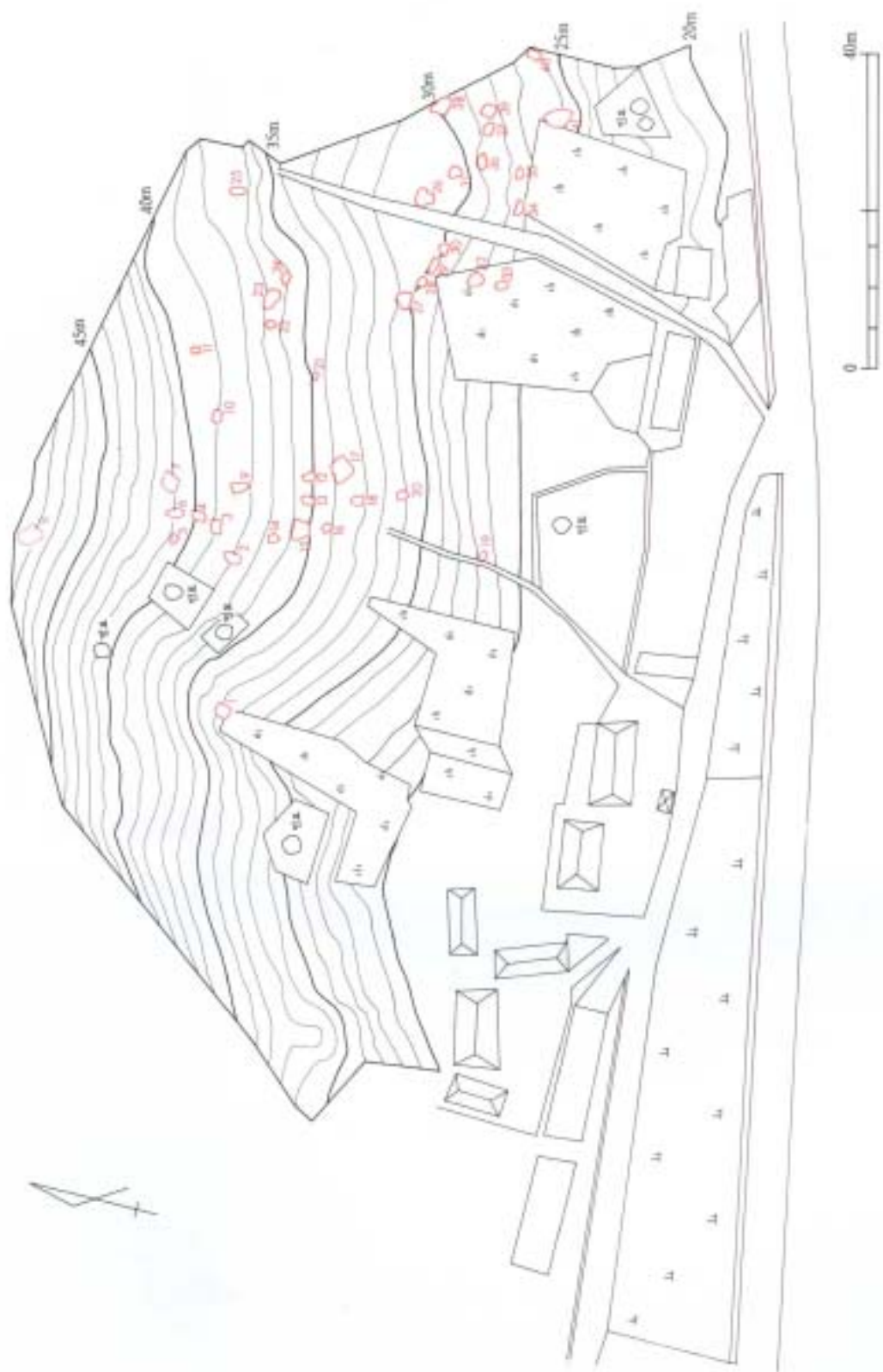


圖 3. 1지구 1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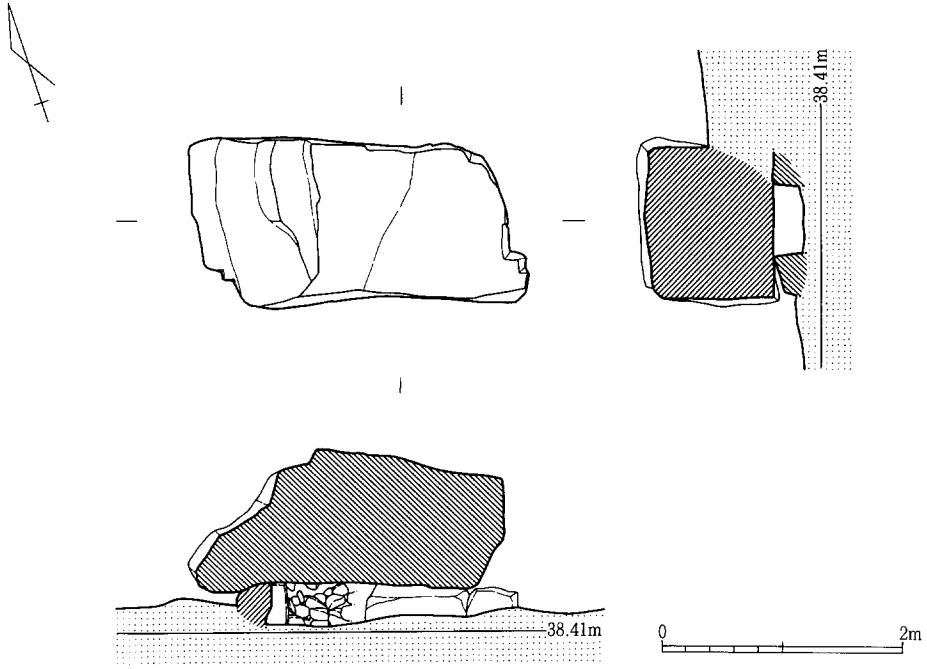


圖 4. 110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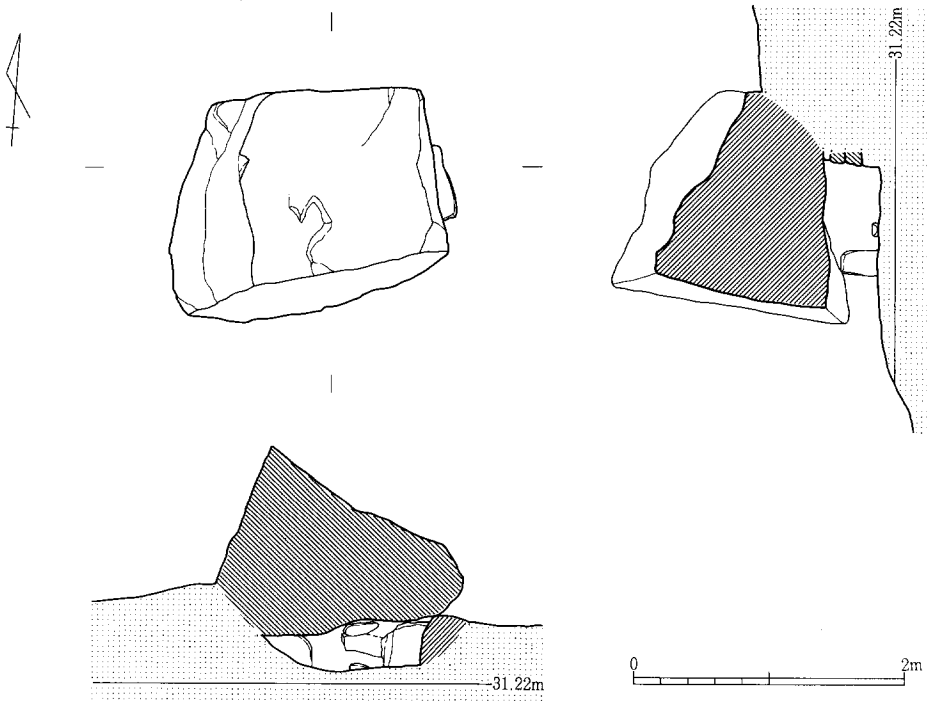


圖 5. 1120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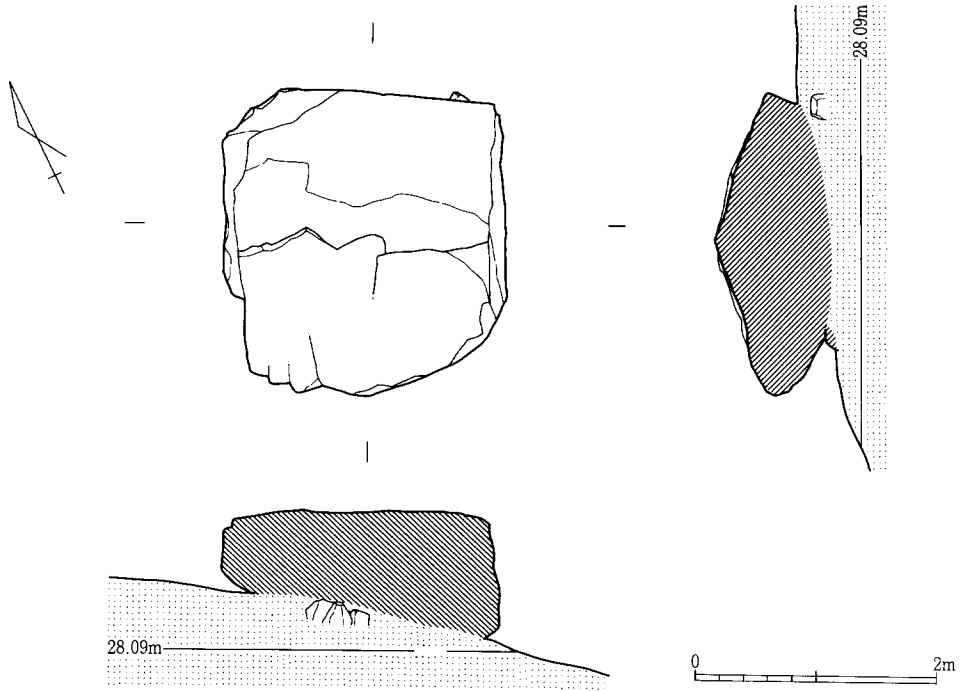


圖 6. 113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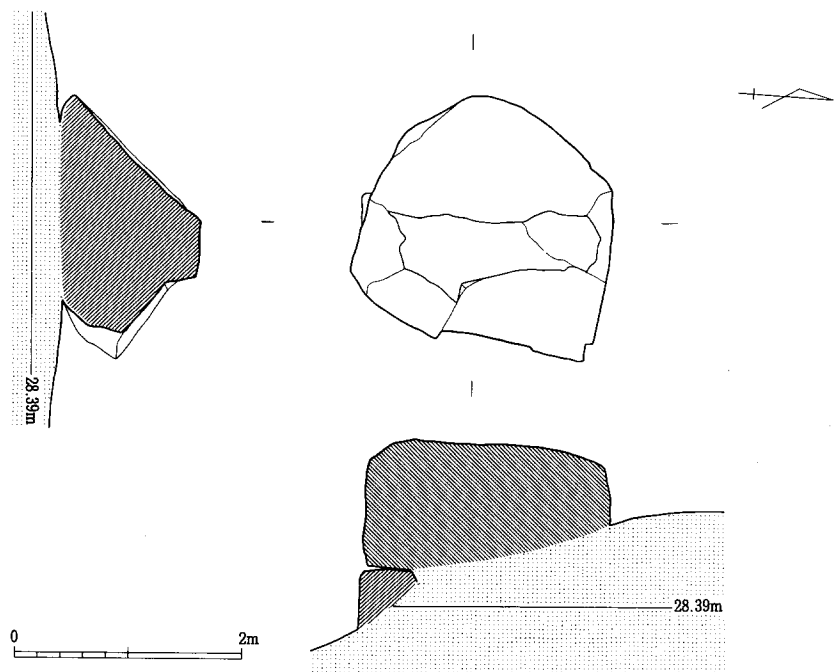


圖 8. 120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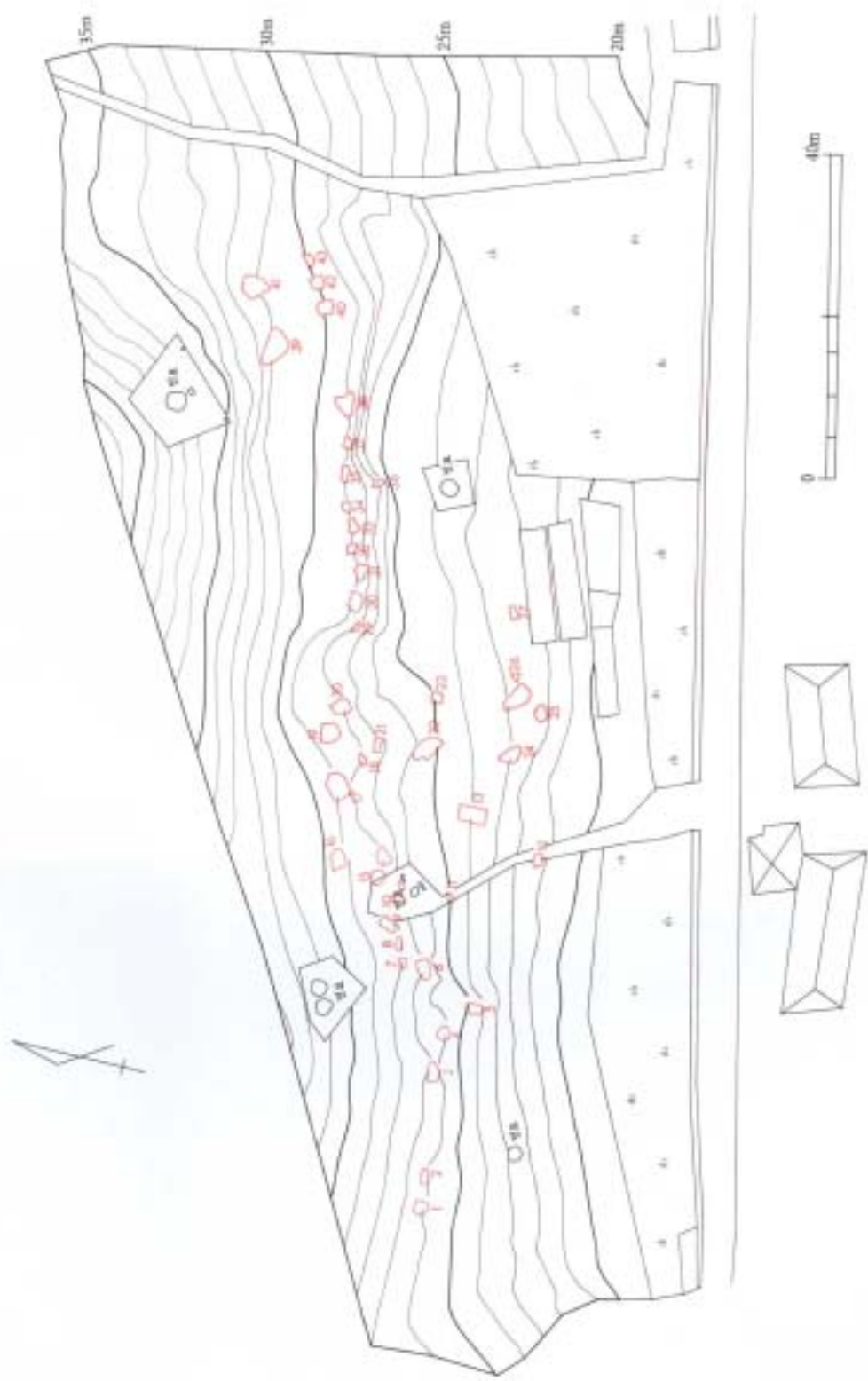


圖 7. 1지구 2군 교인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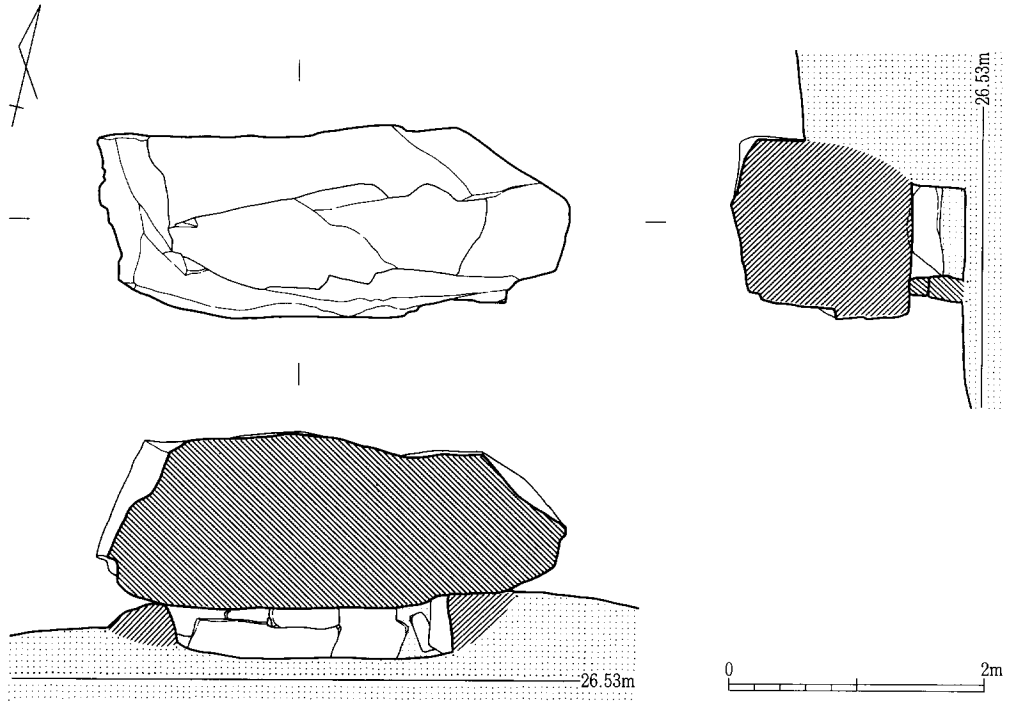


圖 9. 1203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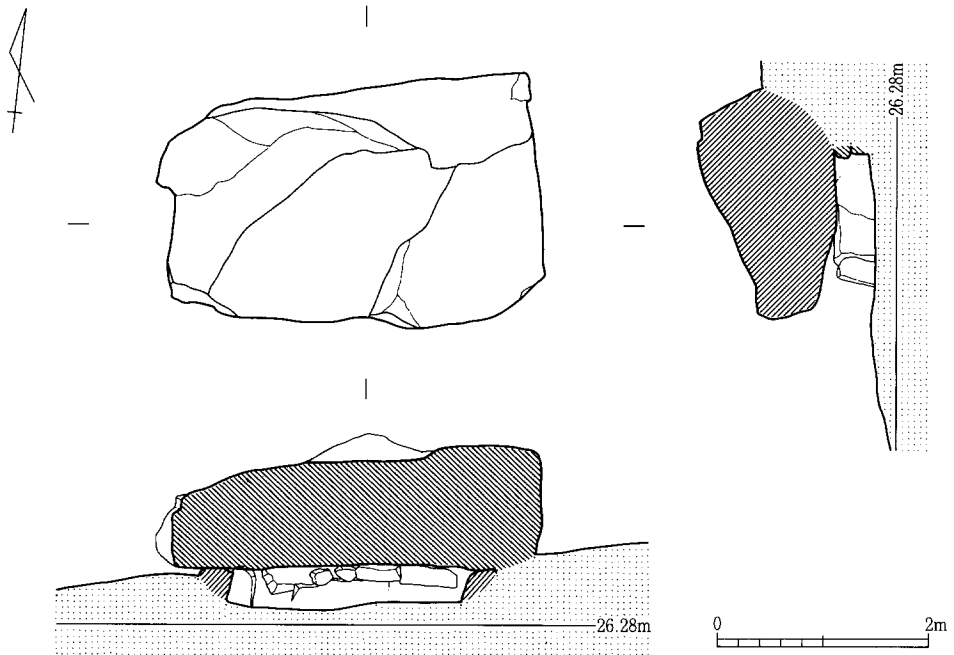


圖 10. 120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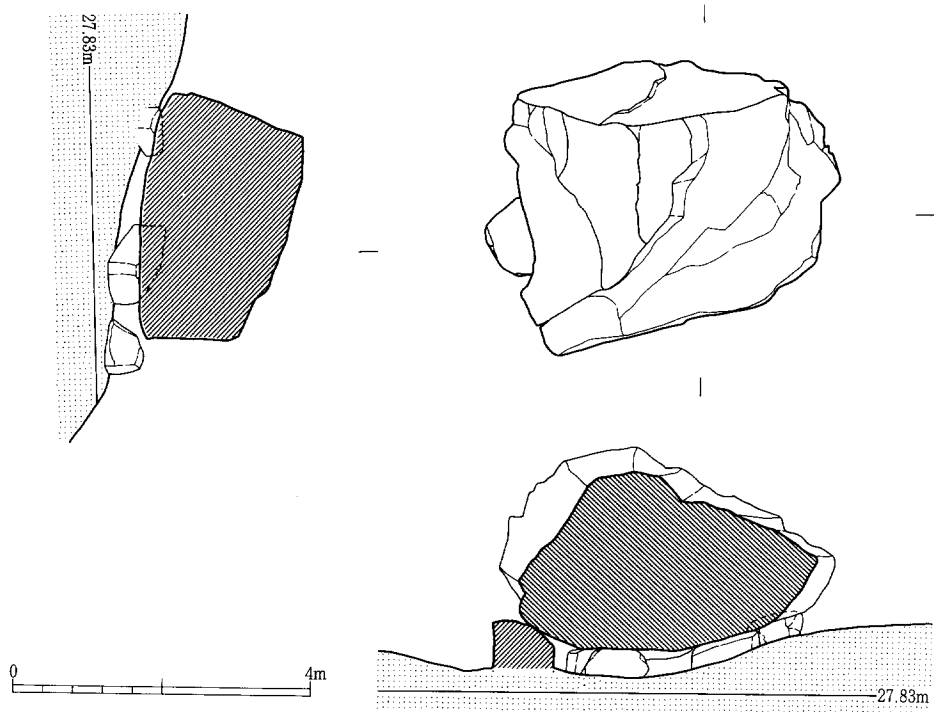


圖 11. 121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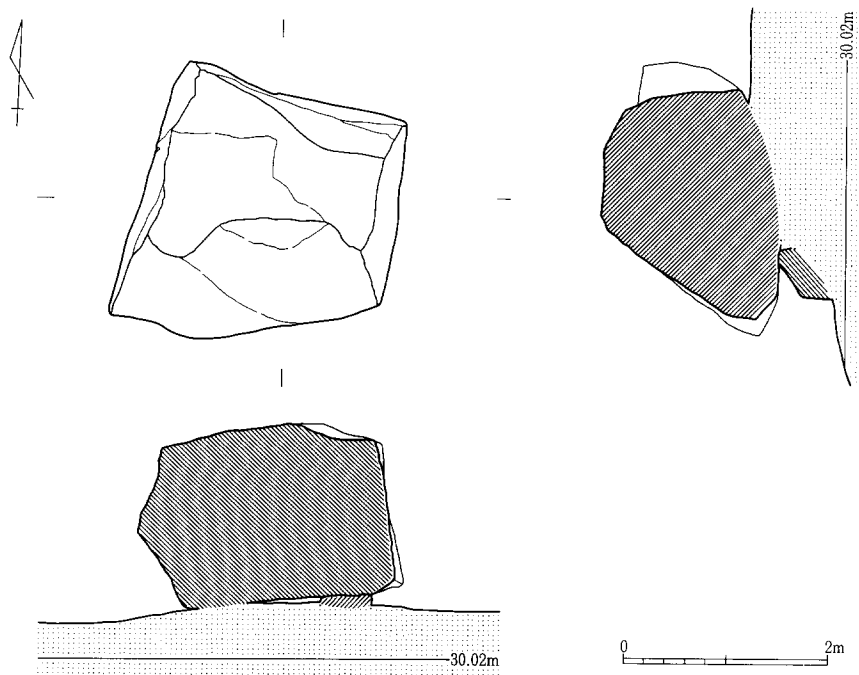


圖 13. 1305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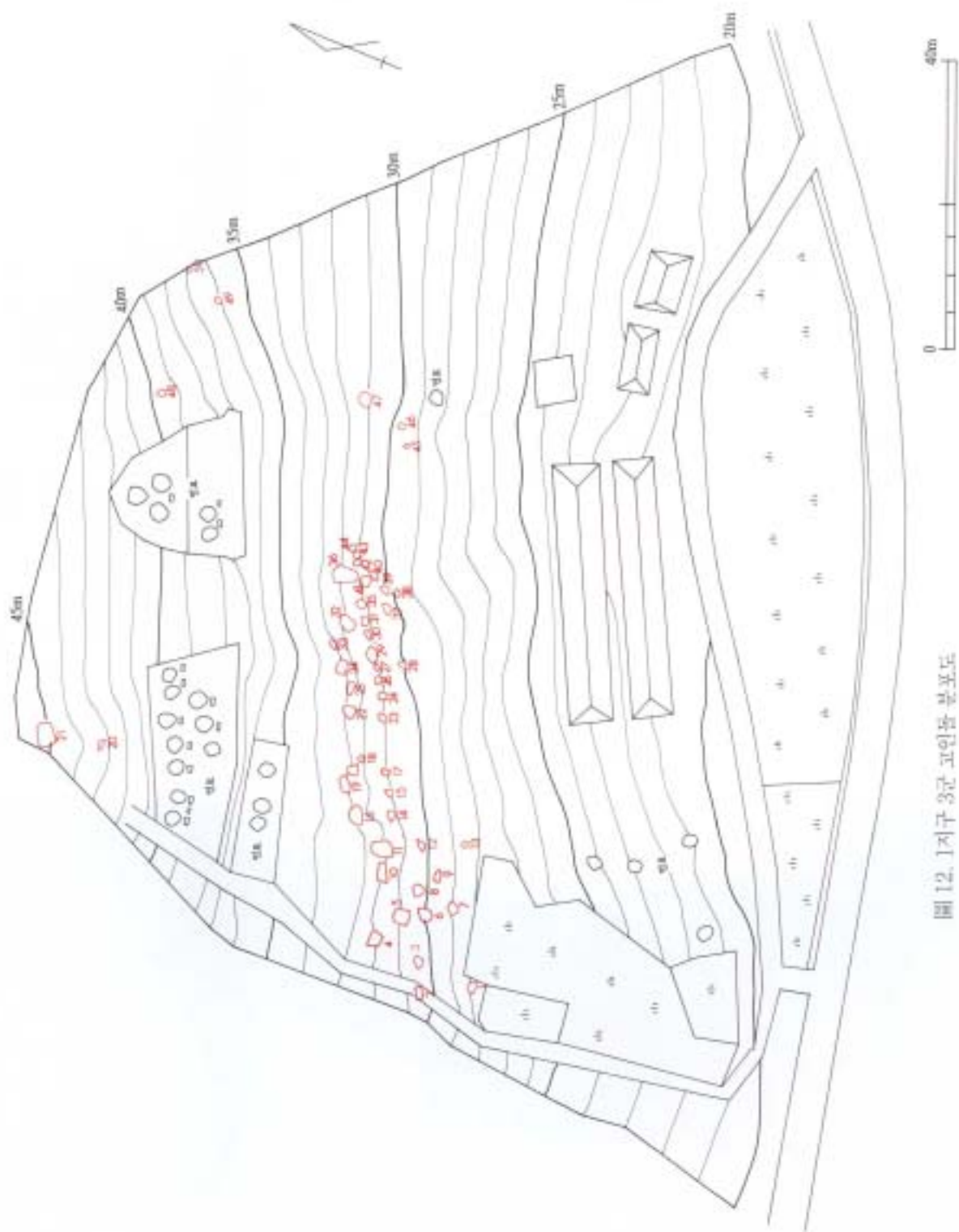


圖 12. 1지구 3층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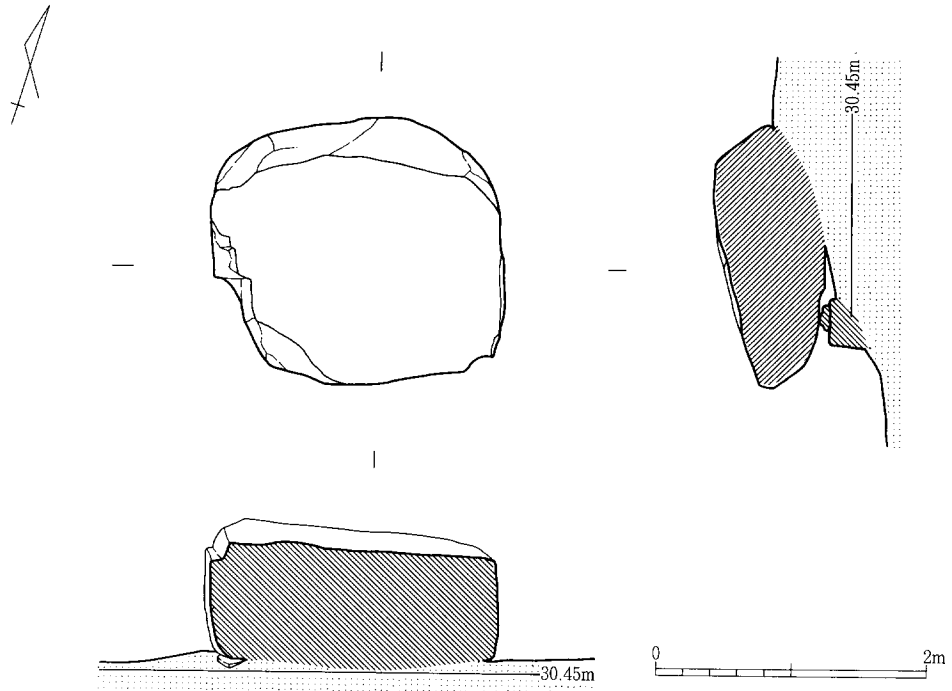


圖 14. 130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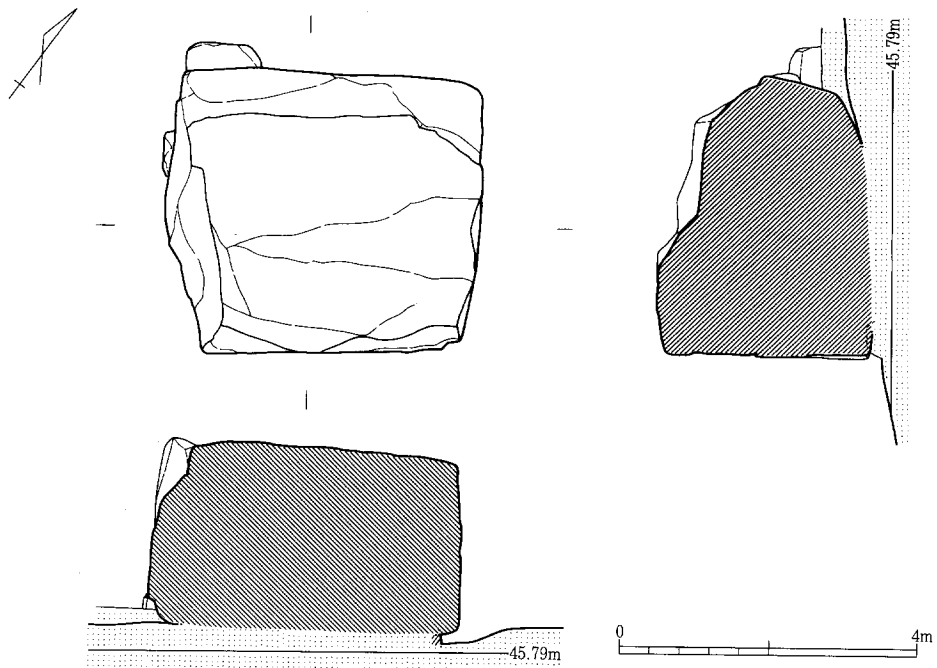


圖 15. 132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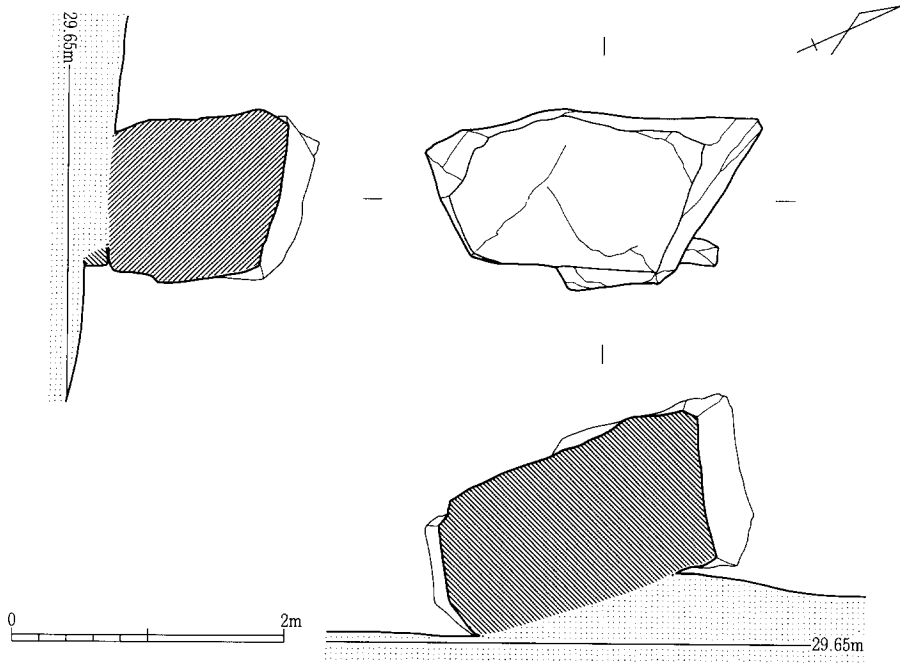


圖 16. 133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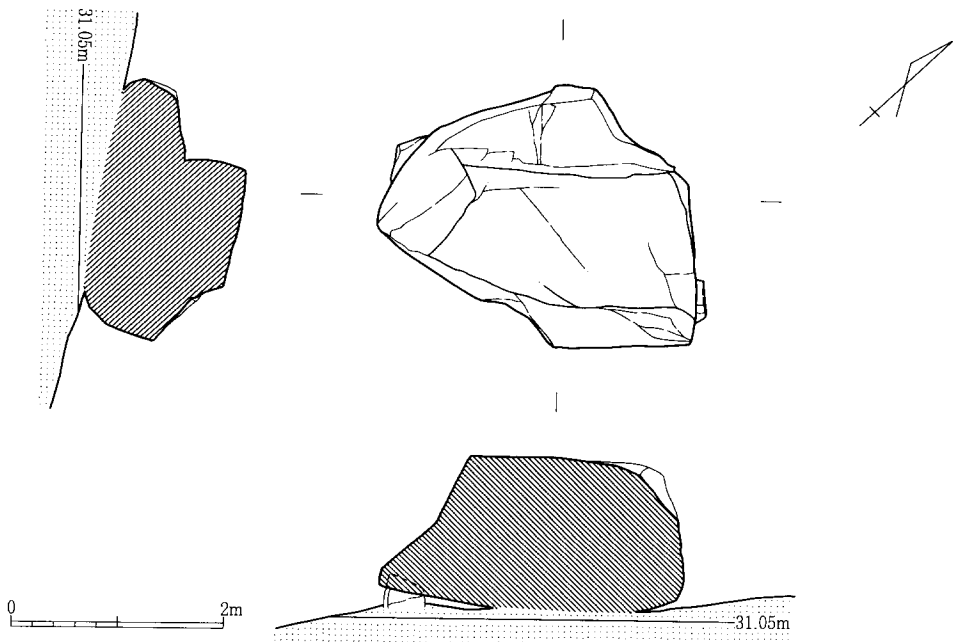


圖 17. 134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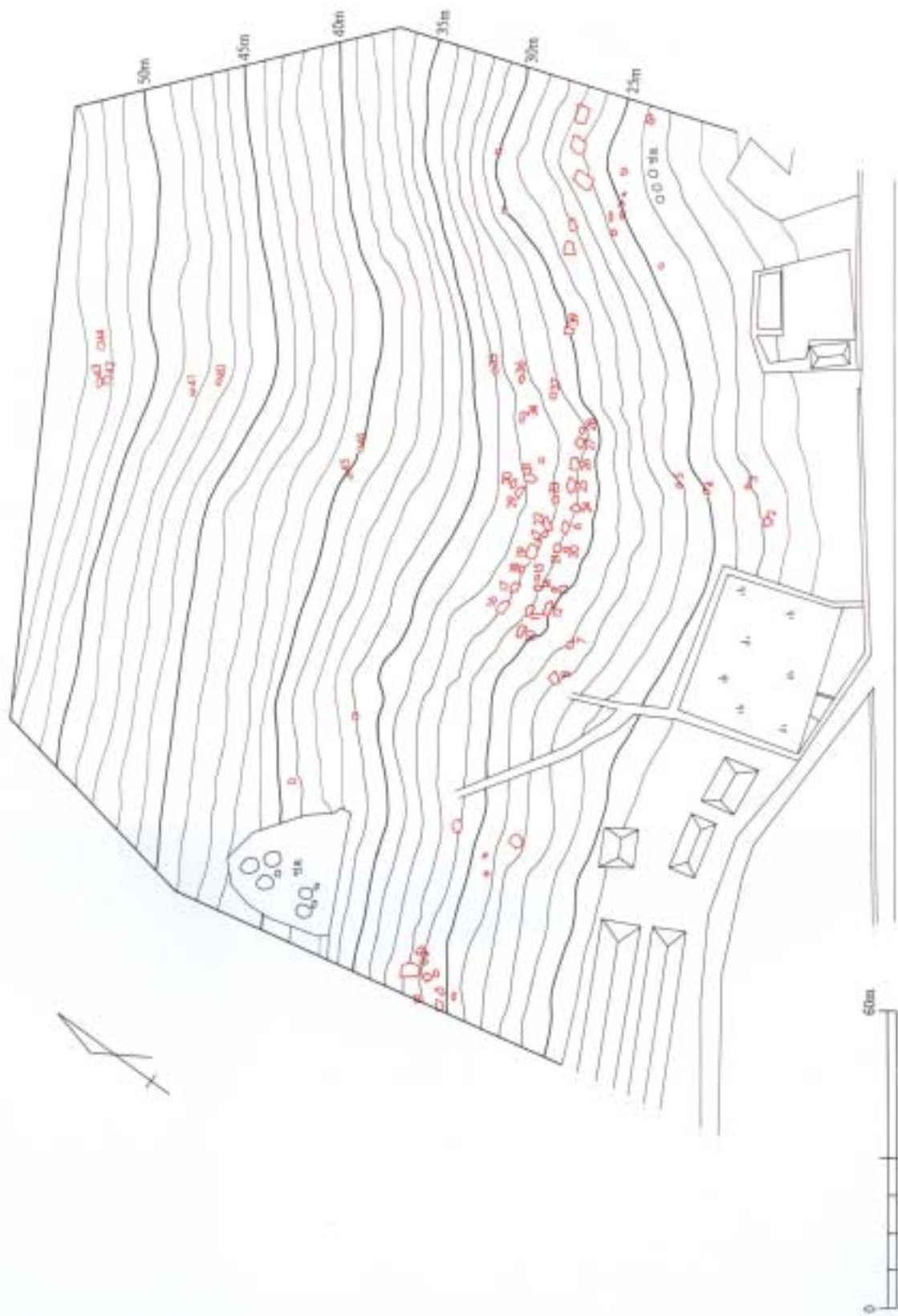


圖 18. 1지구 4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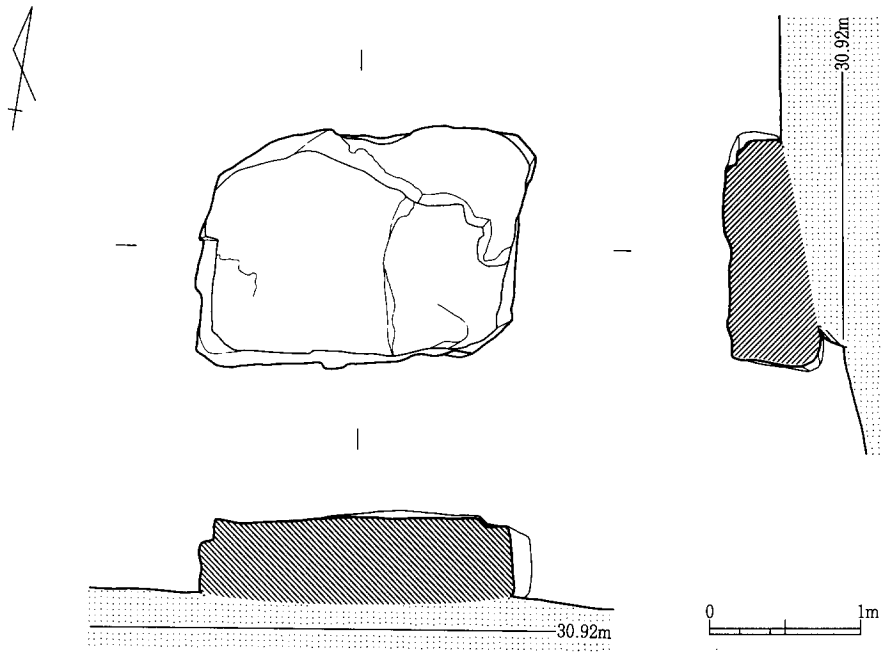


圖 19. 140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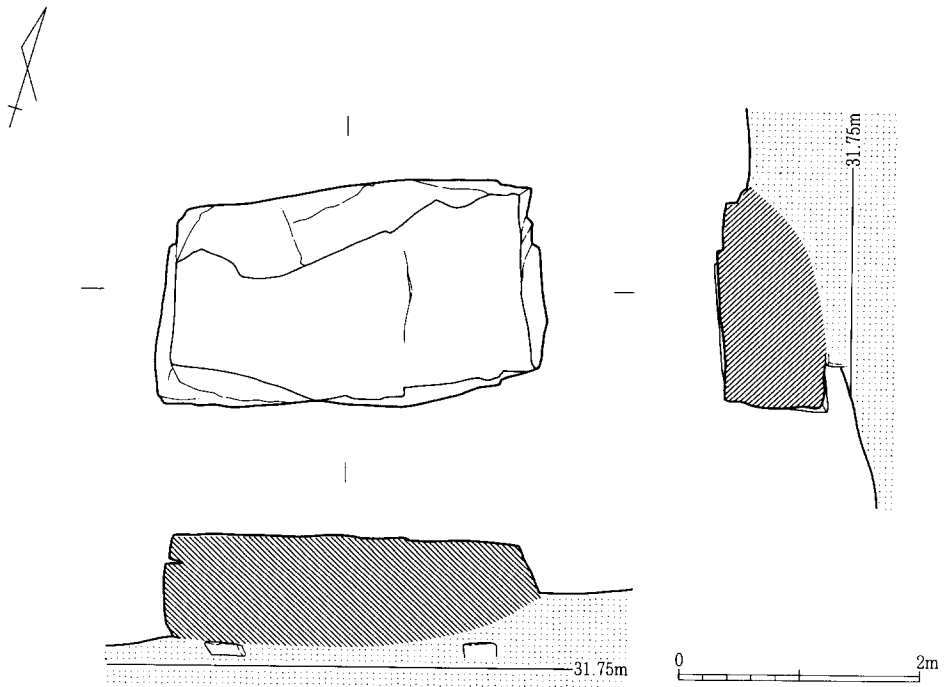


圖 20. 1419호 고인돌 실측도



圖 21. 2지구 1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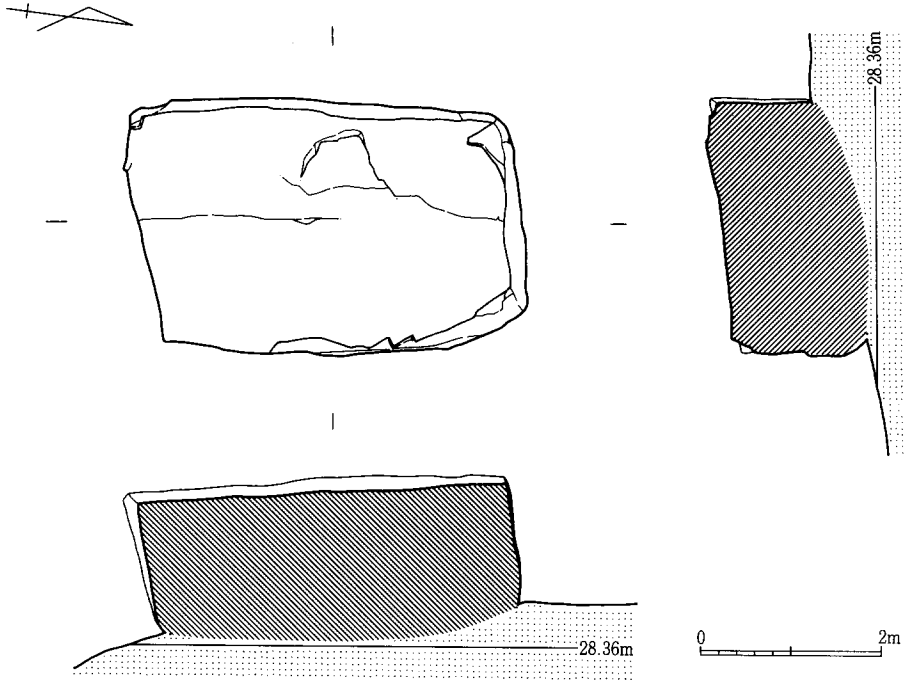


圖 22. 211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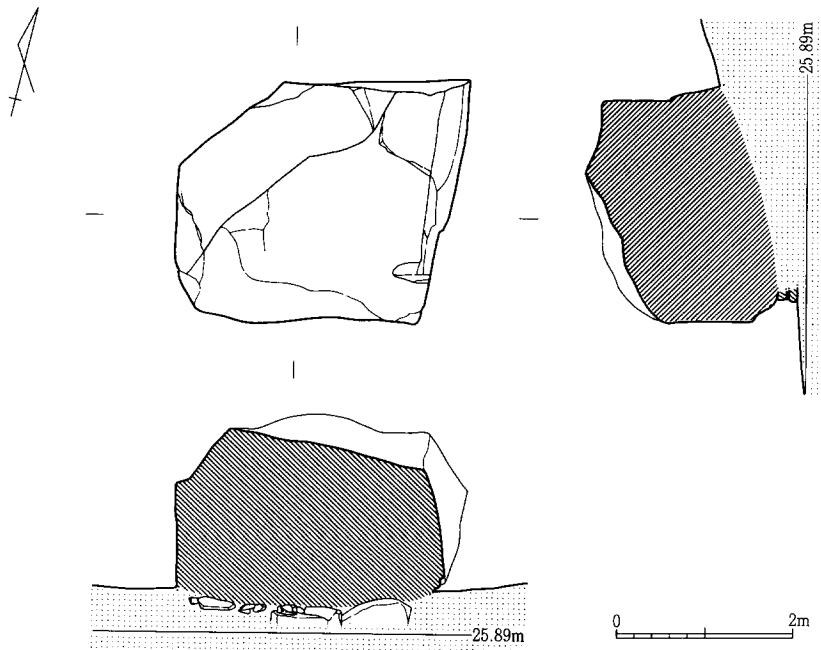


圖 23. 211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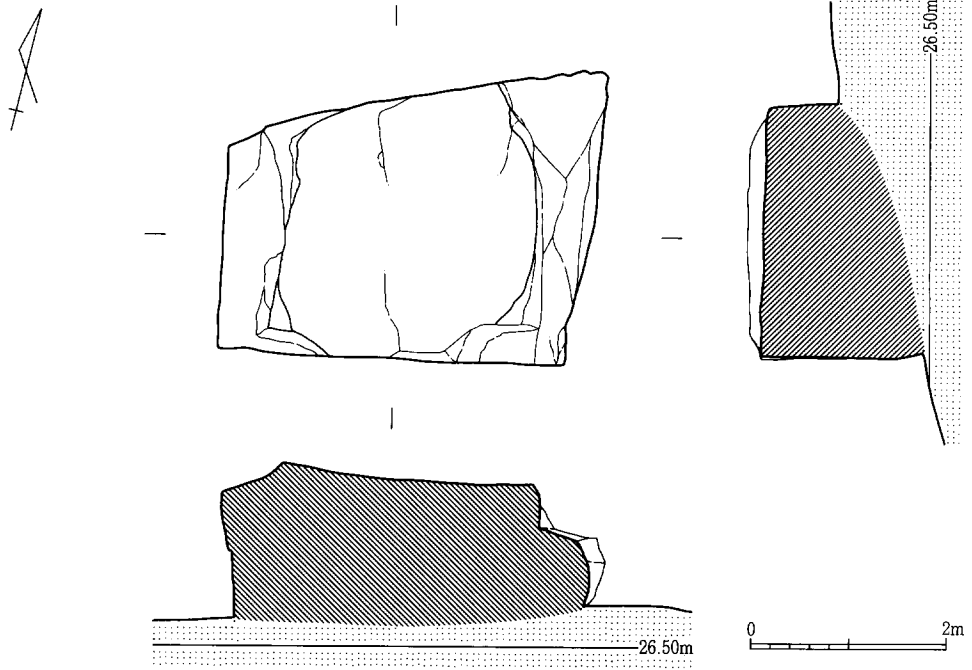


圖 24. 2120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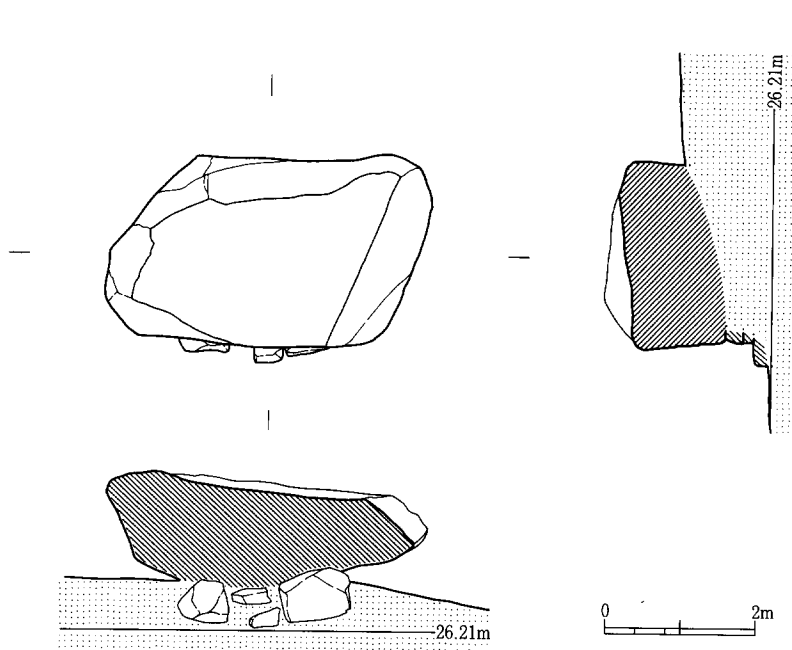


圖 25. 2122호 고인돌 실측도



圖 26. 2지구 2·3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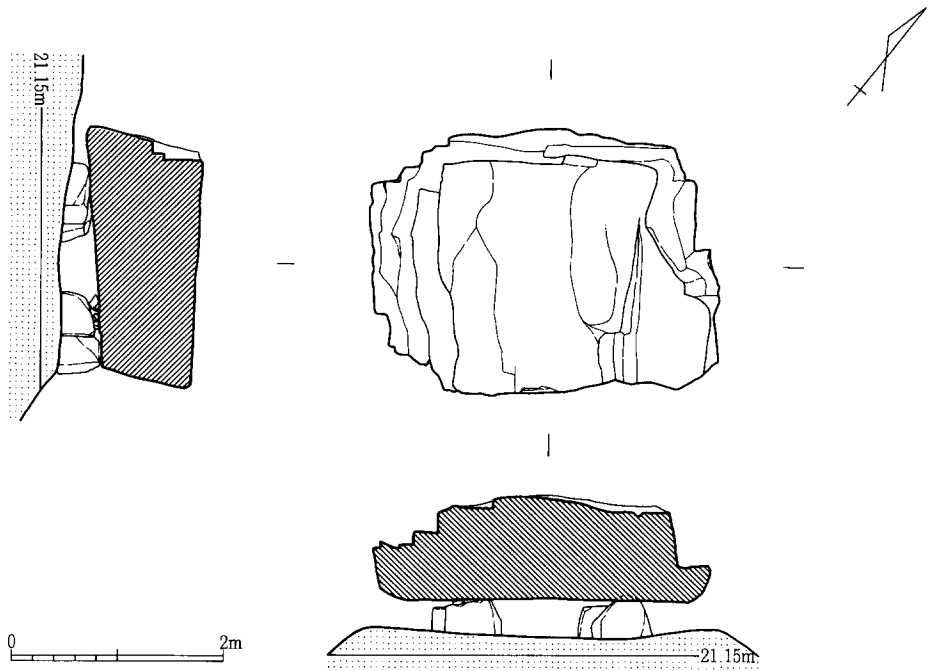


圖 27. 2202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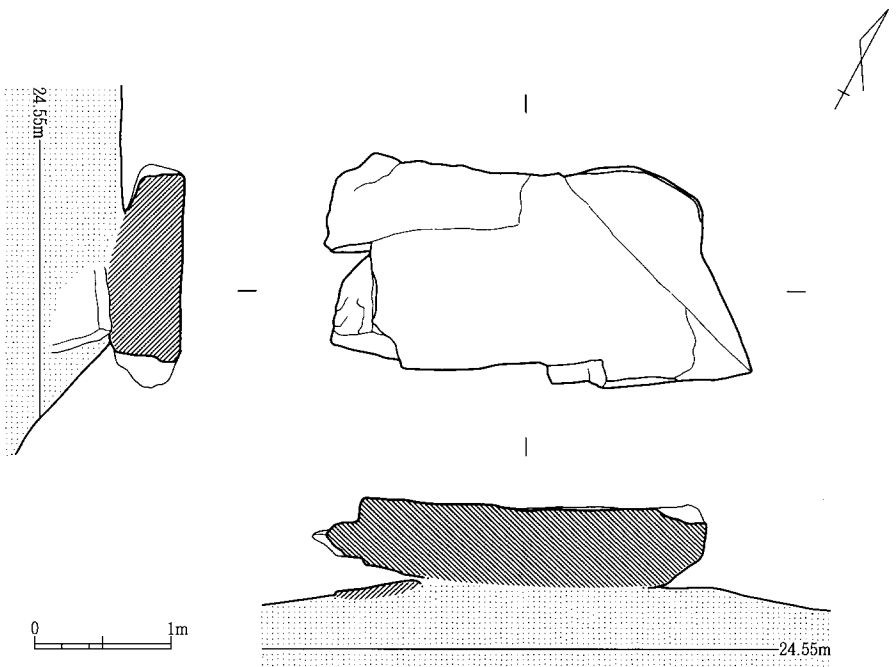


圖 28. 2210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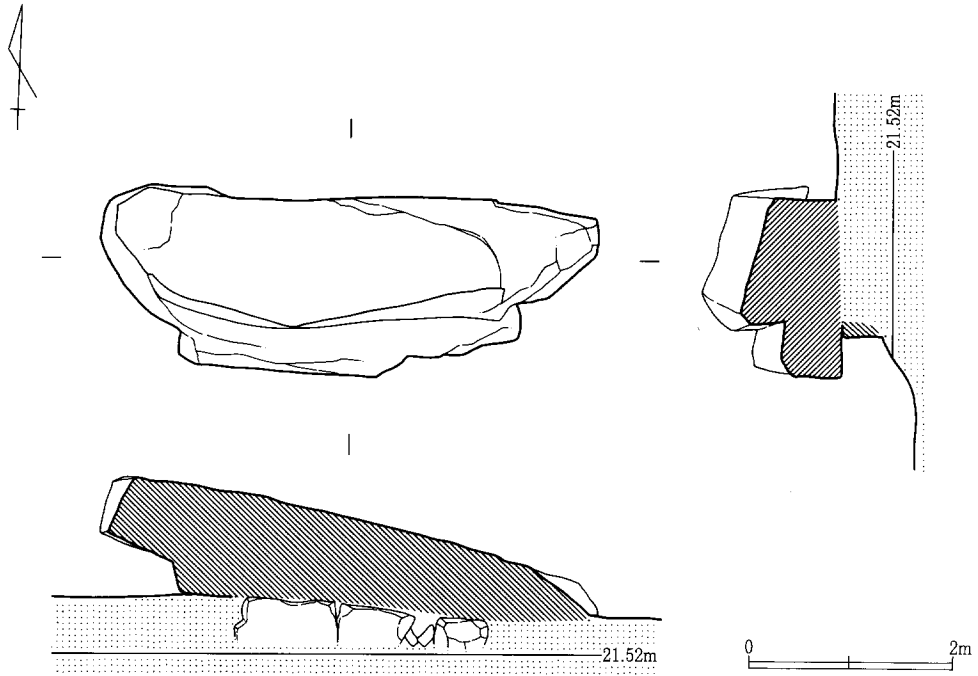


圖 29. 2214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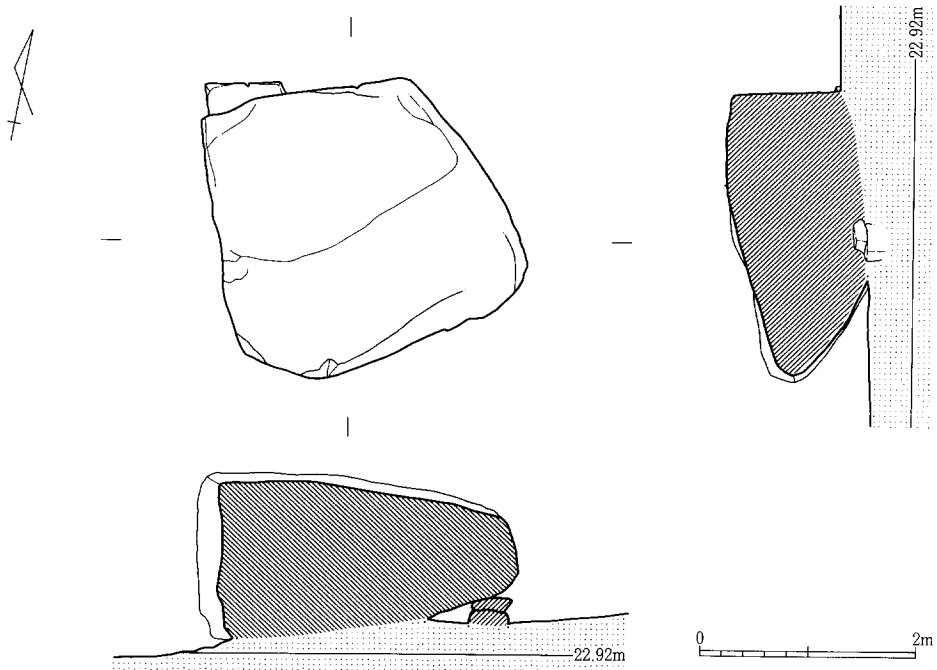


圖 30. 2215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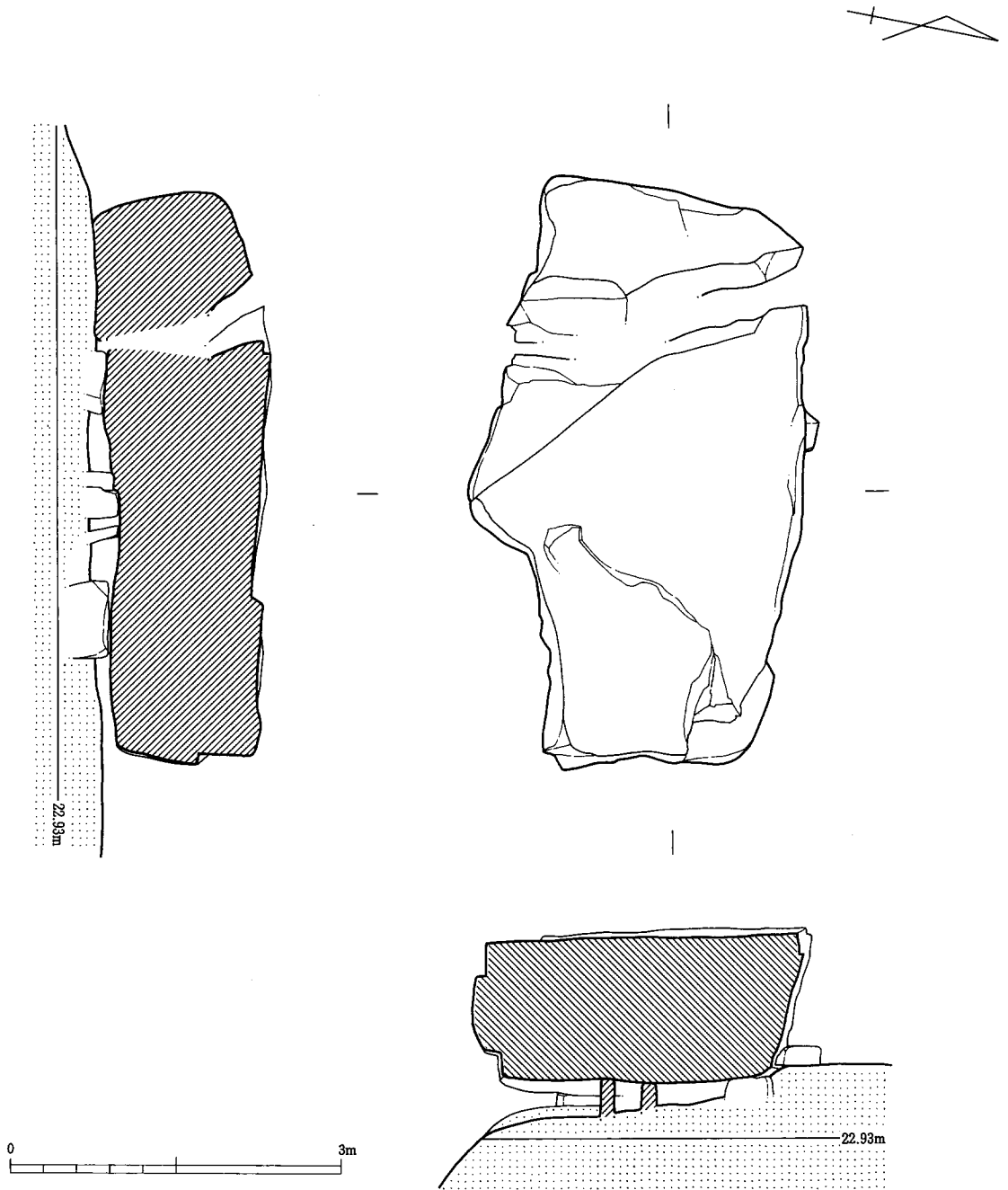


圖 31. 221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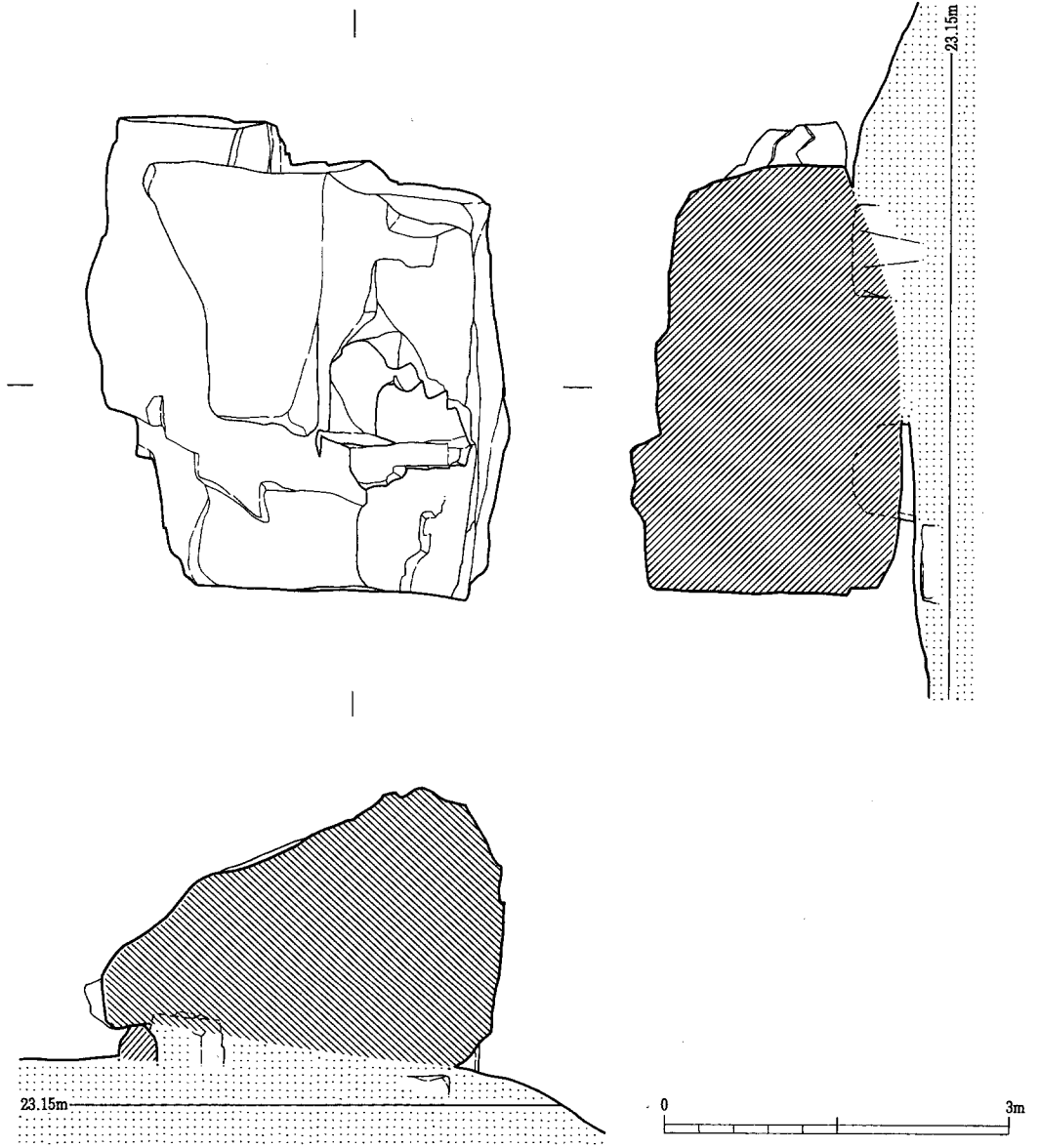


圖 32. 2224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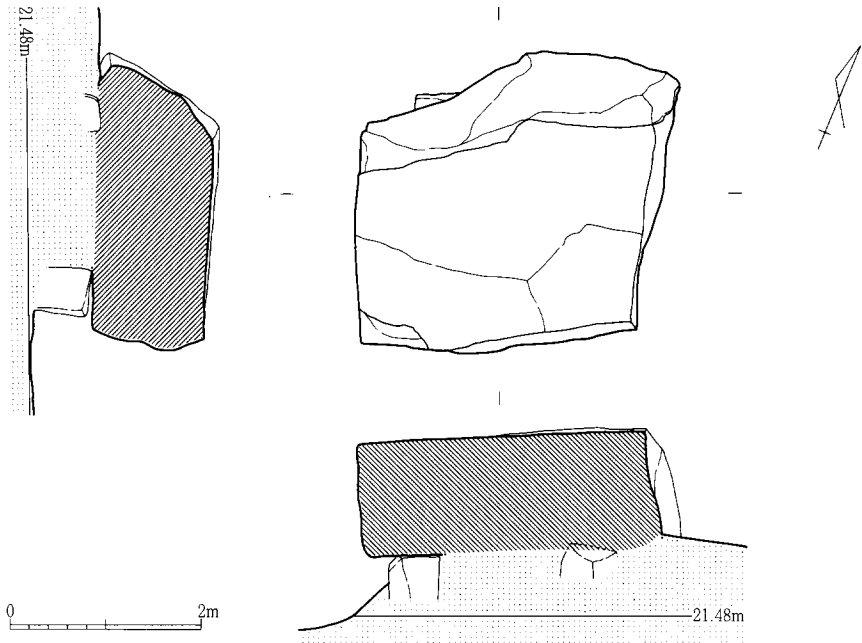


圖 33. 224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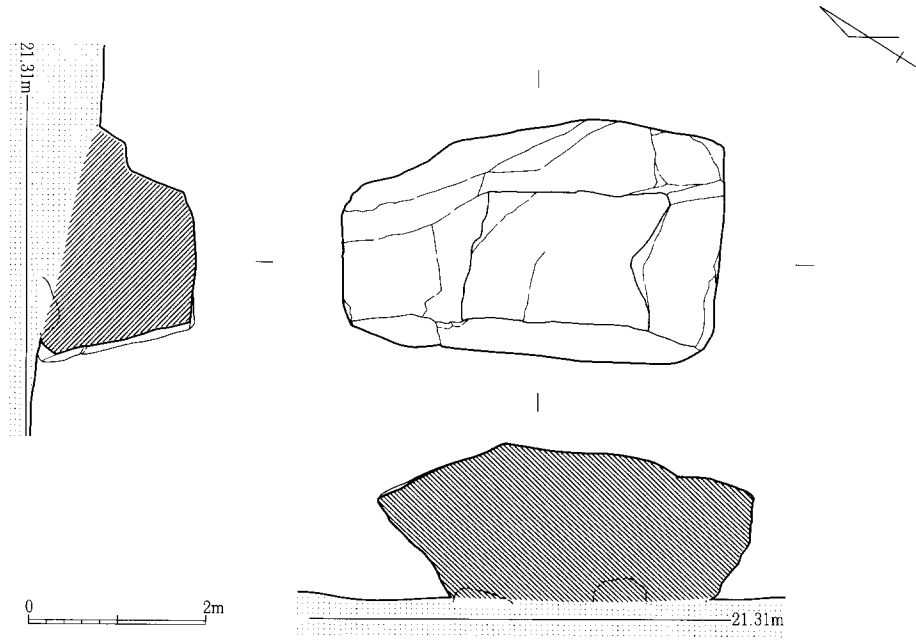


圖 34. 2245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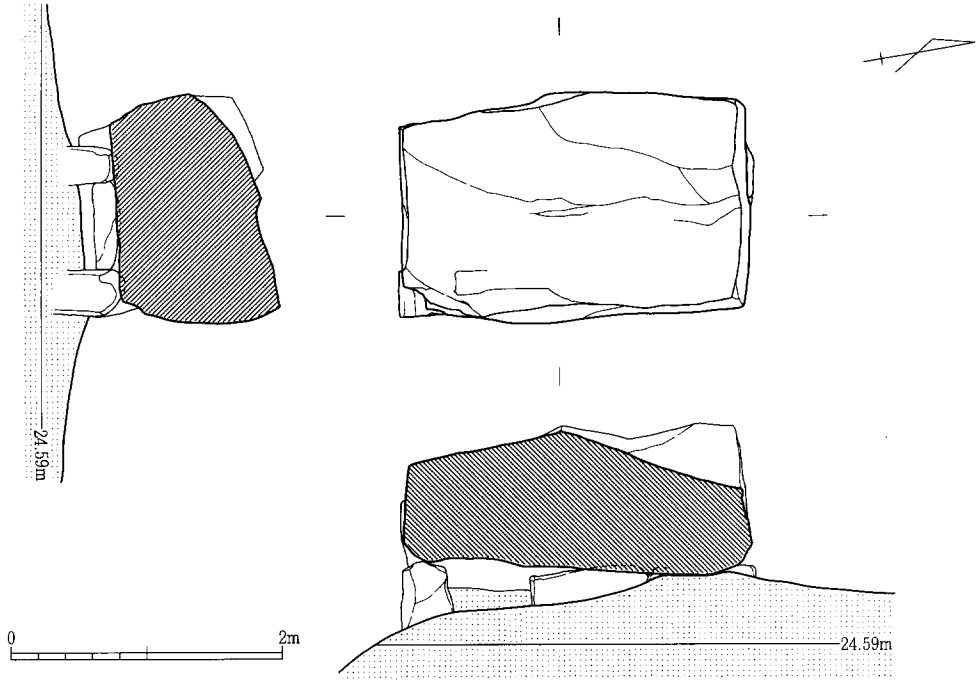


圖 35. 224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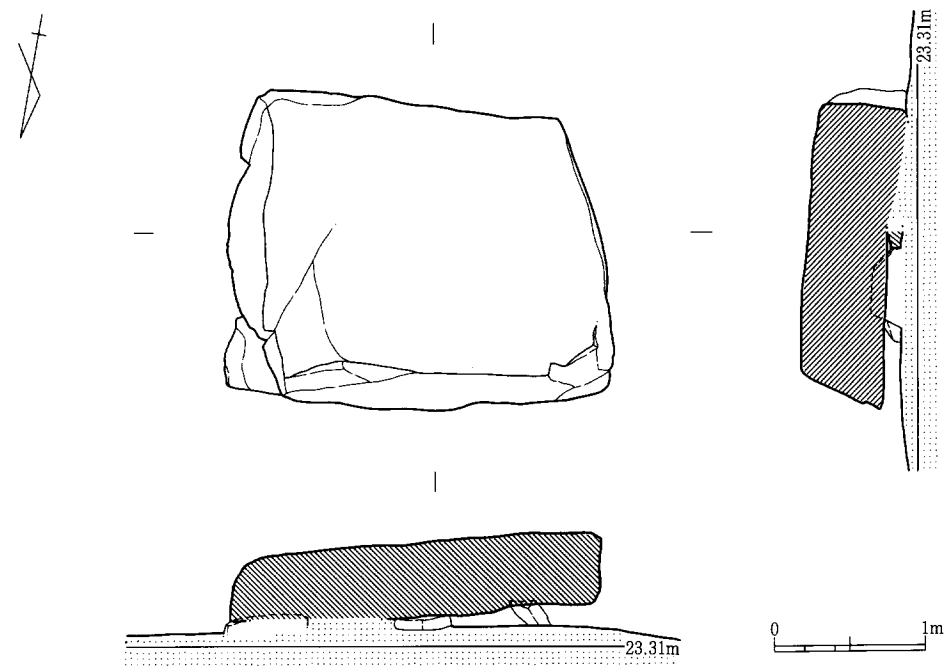


圖 36. 225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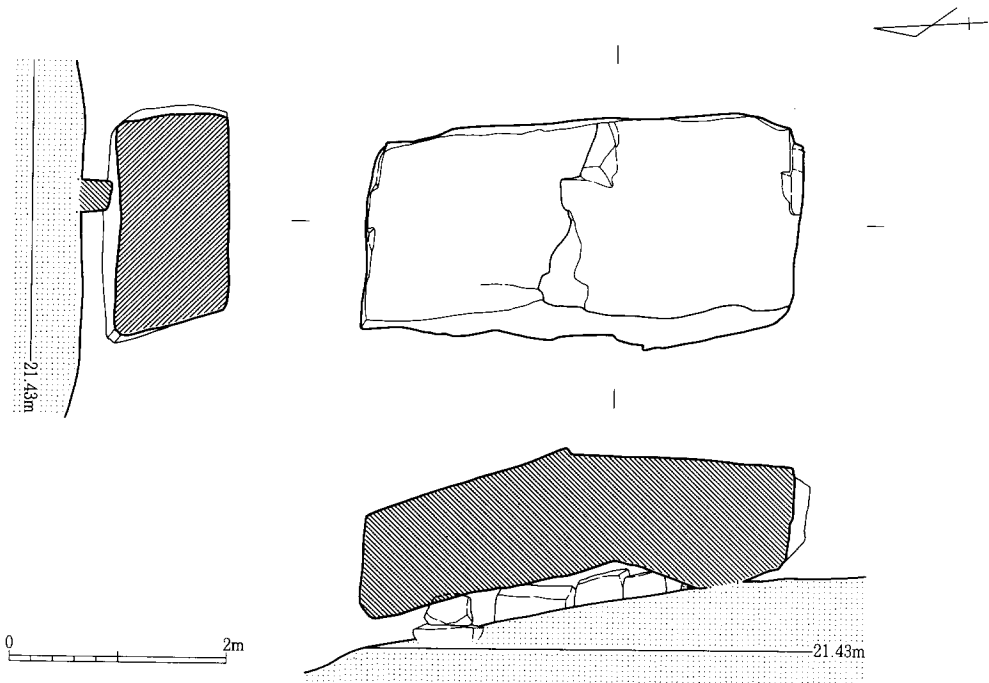


圖 37. 230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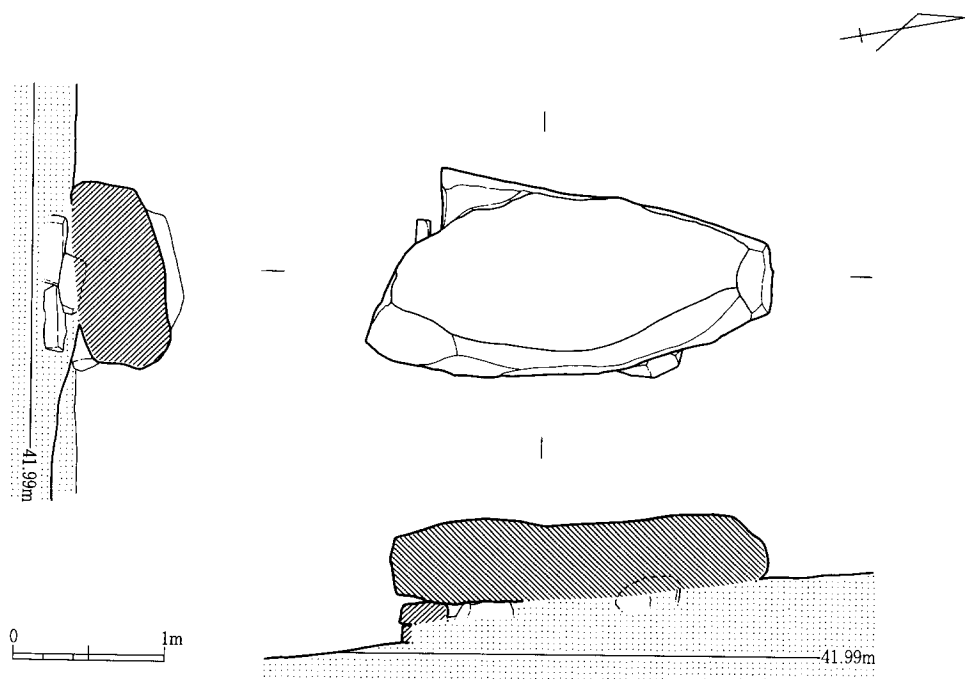


圖 38. 231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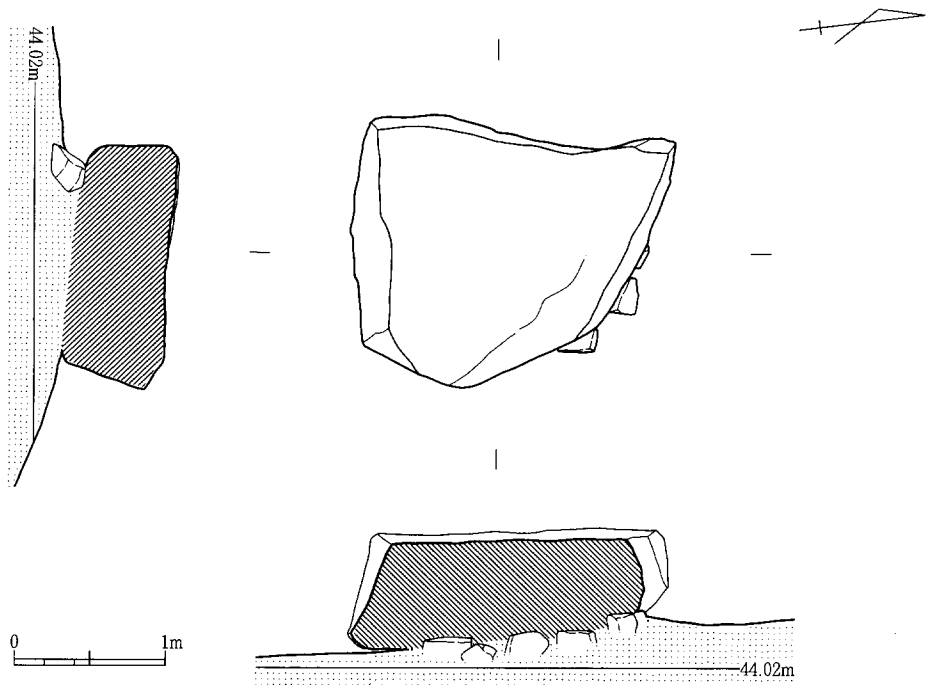


圖 39. 2320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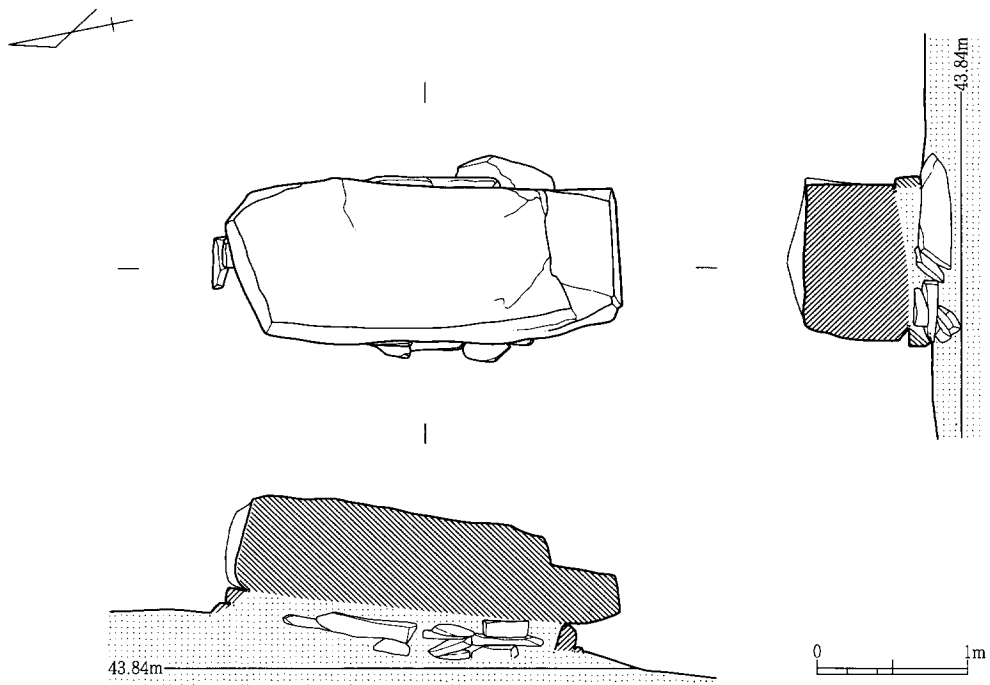


圖 40. 232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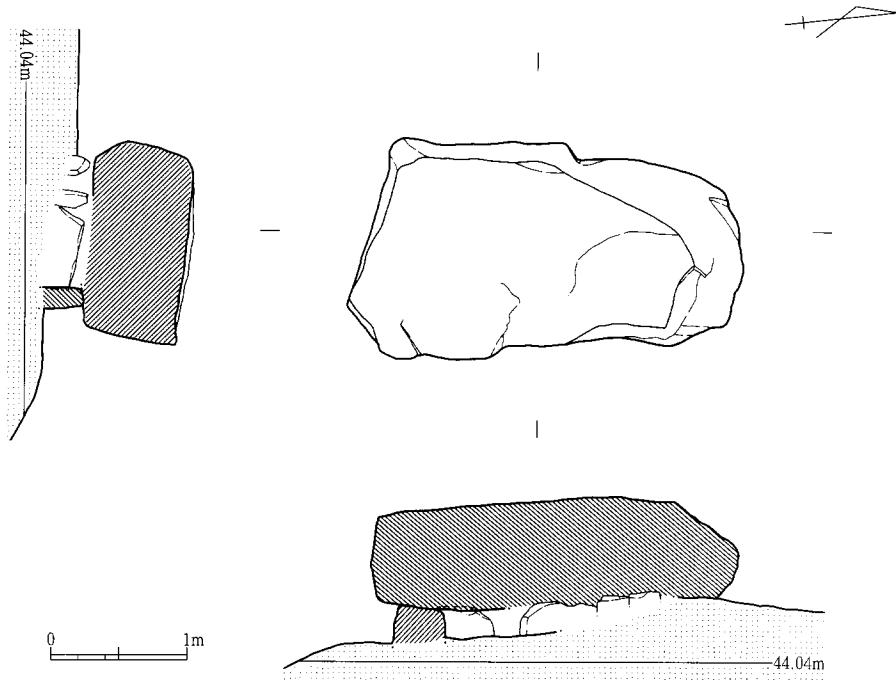


圖 41. 2322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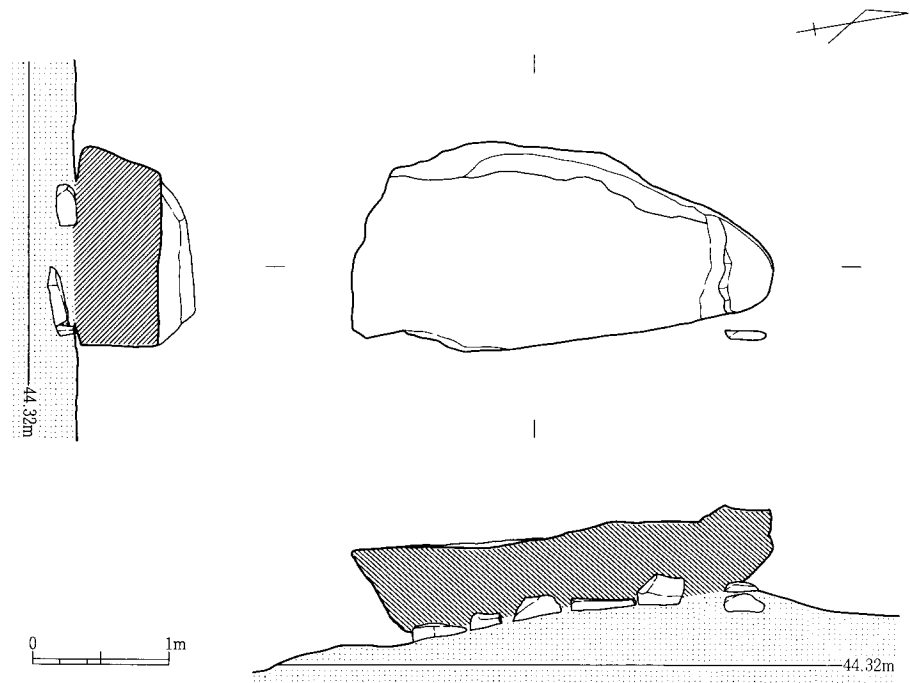


圖 42. 2324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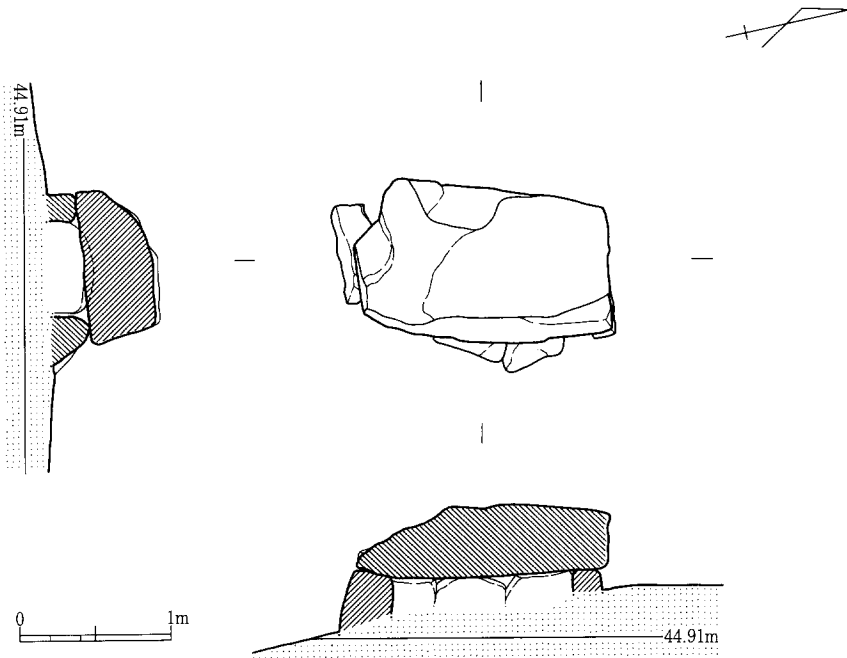


圖 43. 2325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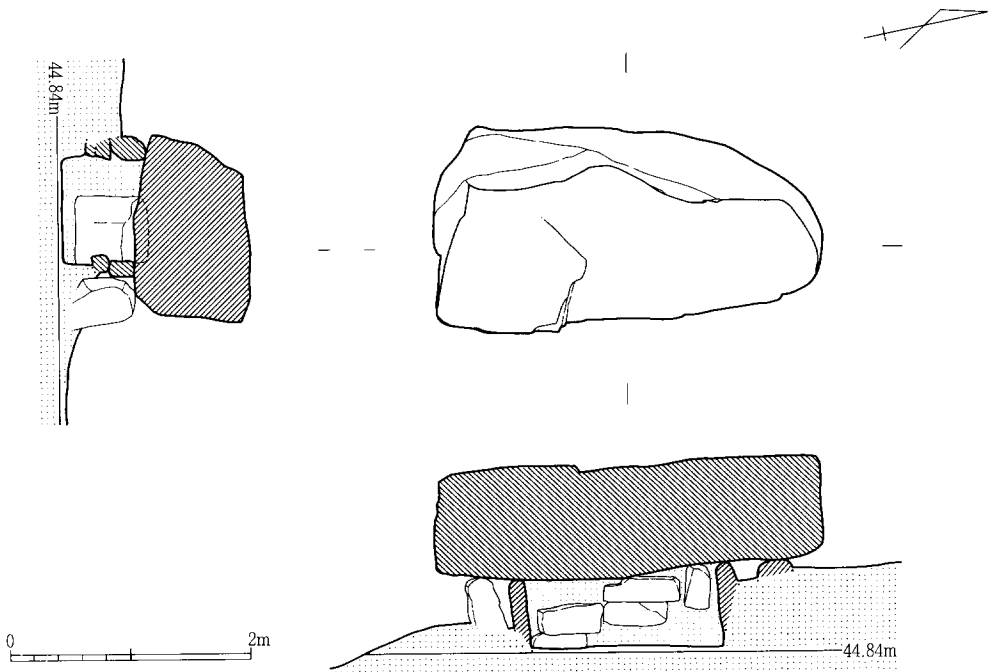


圖 44. 232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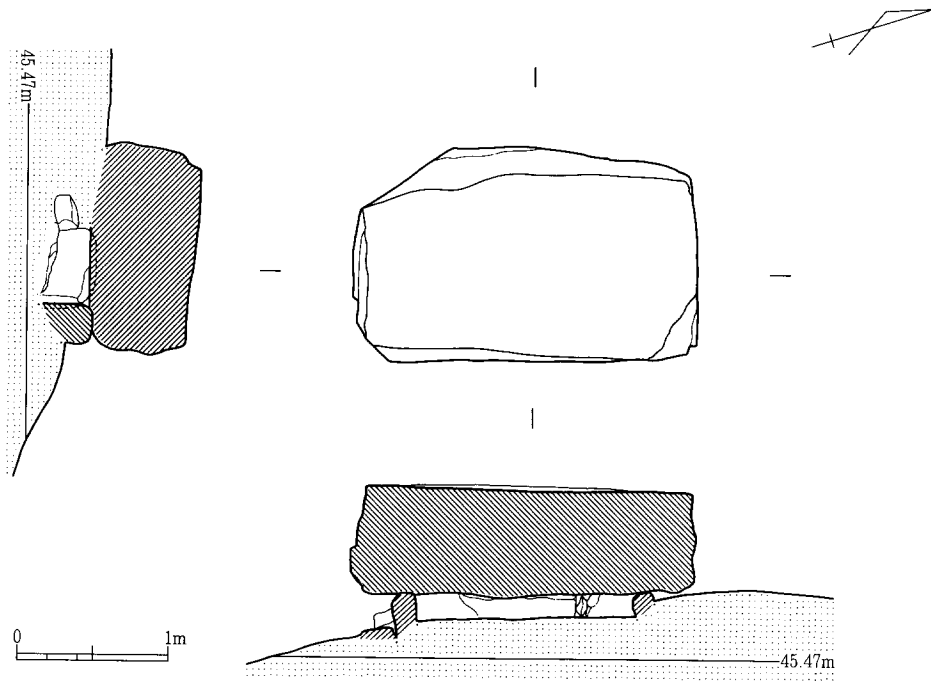


圖 45. 232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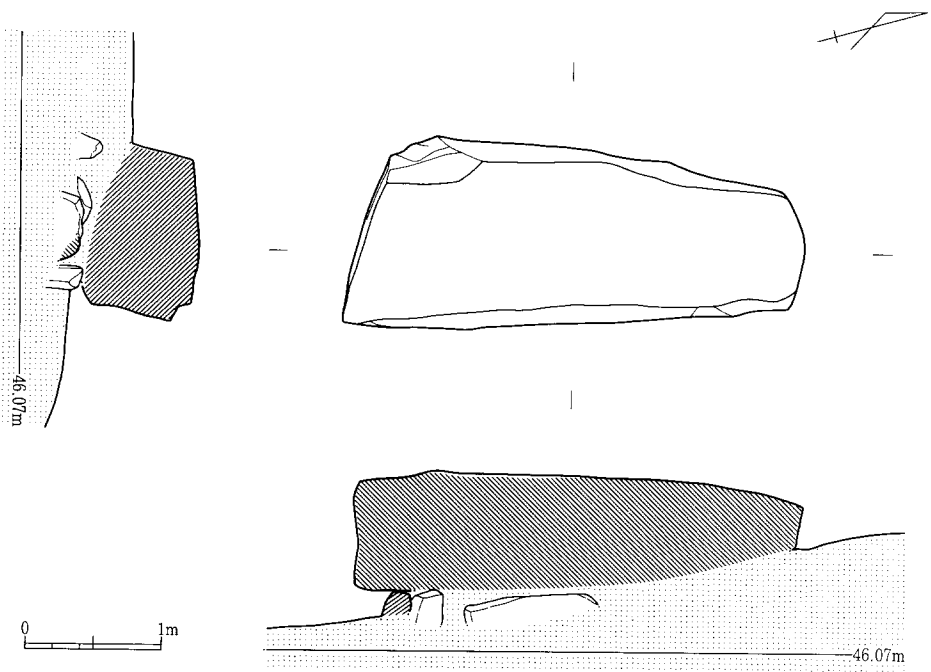


圖 46. 232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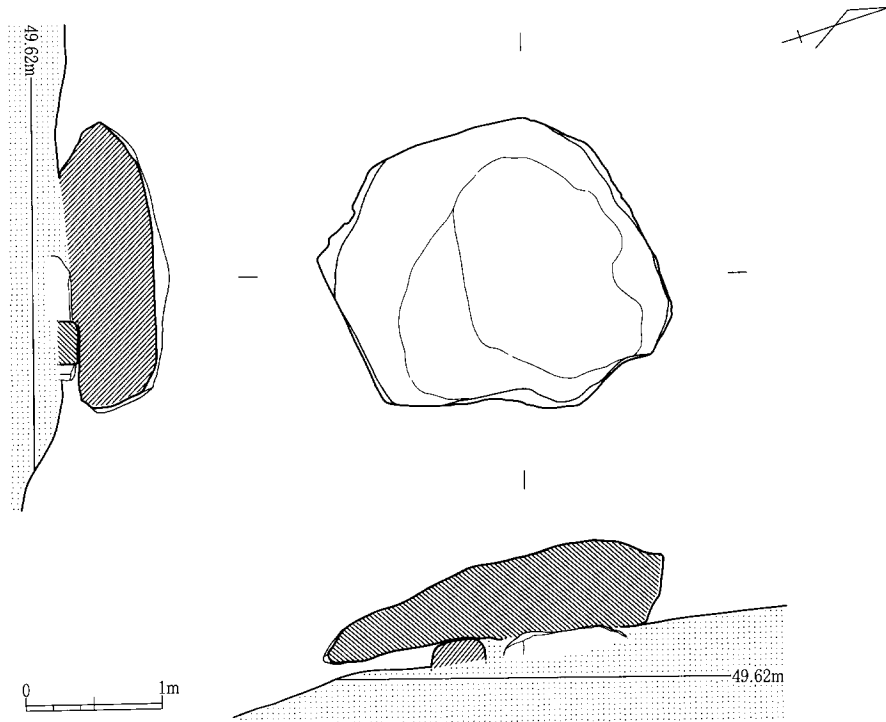


圖 47. 233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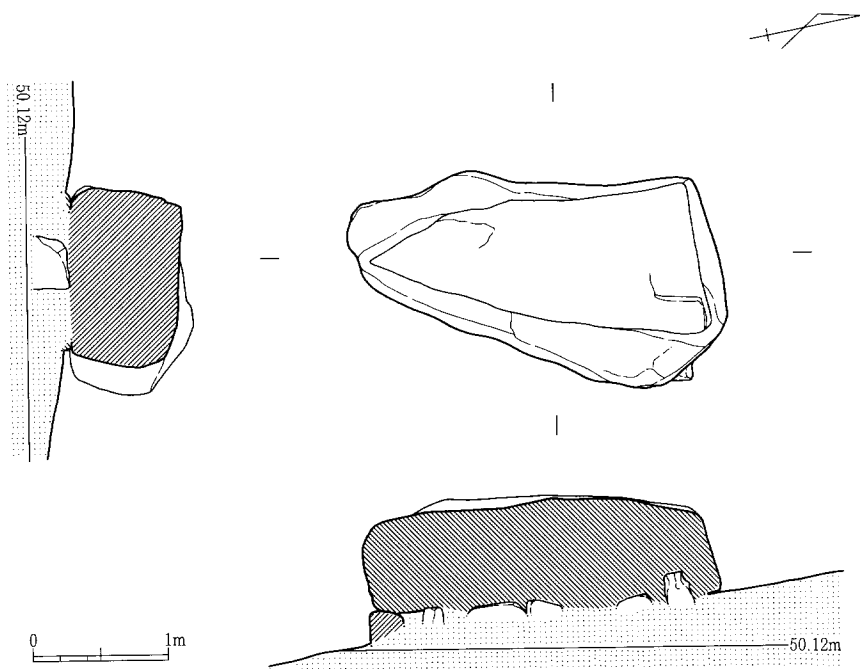


圖 48. 2333호 고인돌 실측도



圖 49. 2지구 4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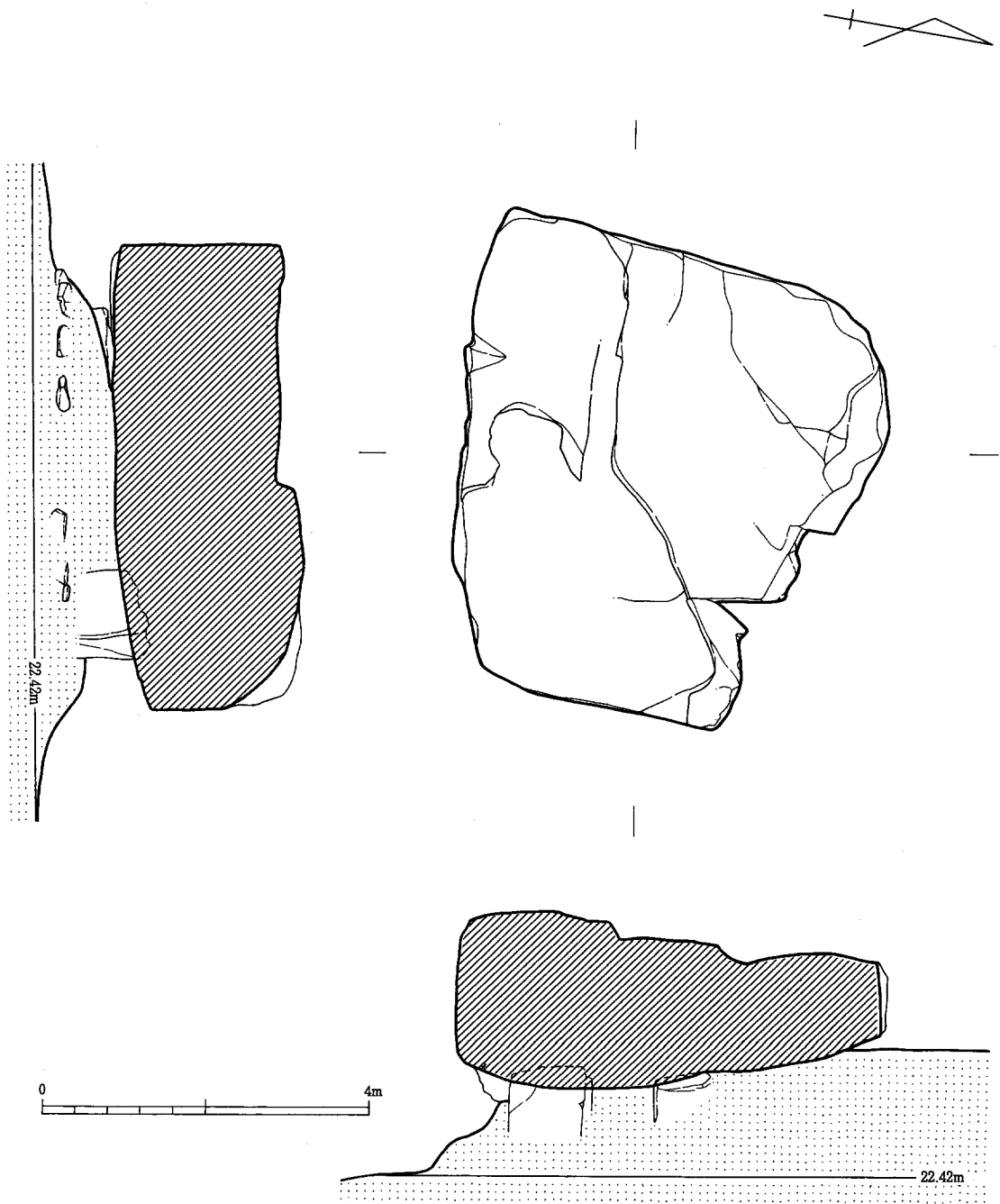


圖 50. 240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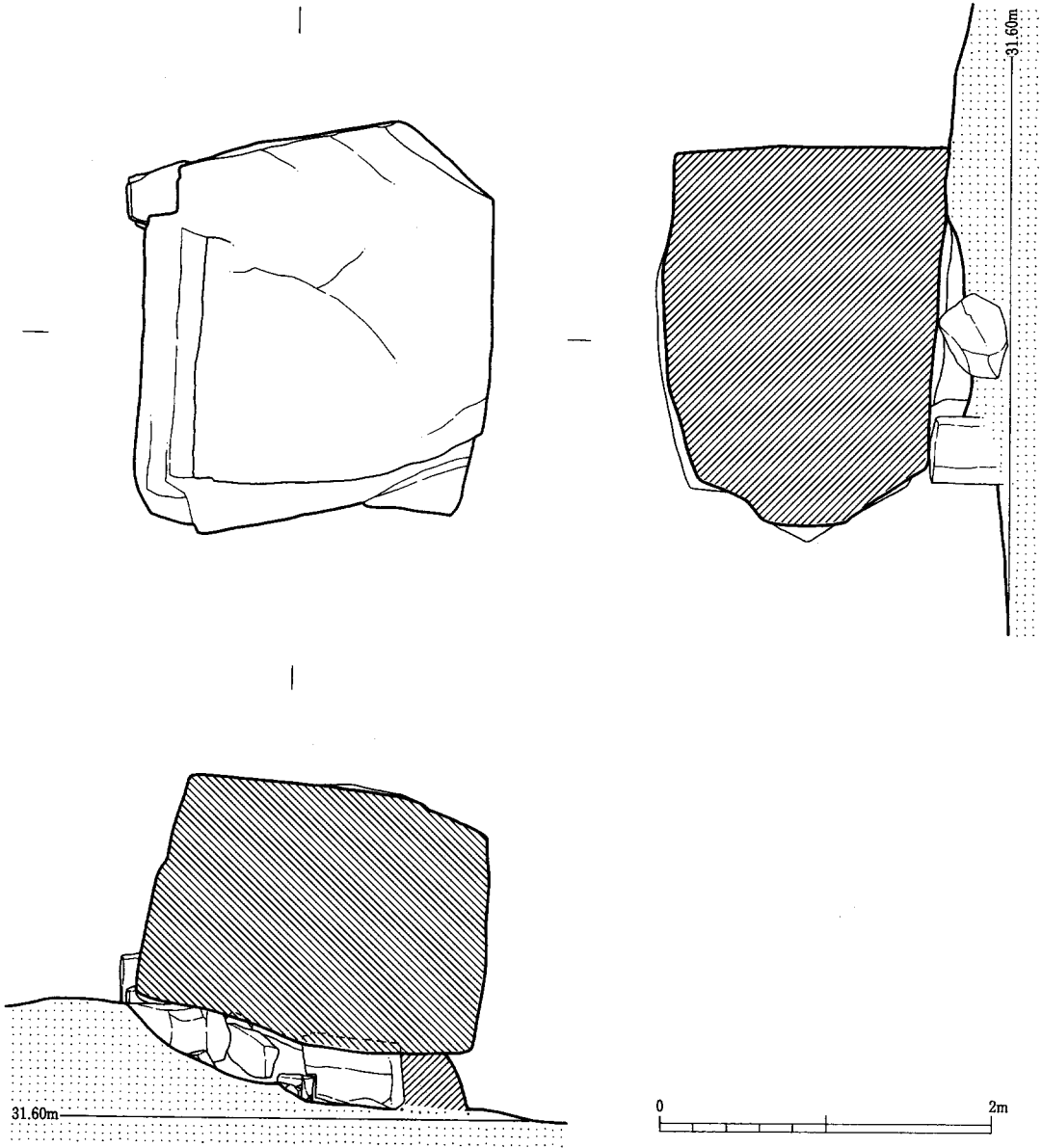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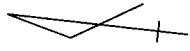


圖 51. 240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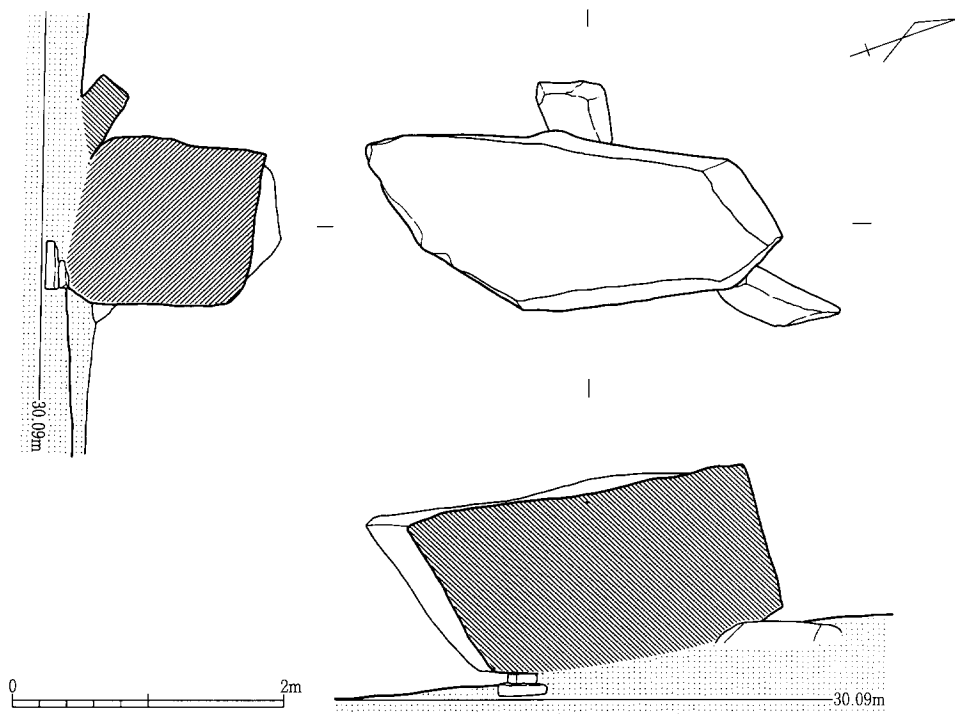


圖 52. 241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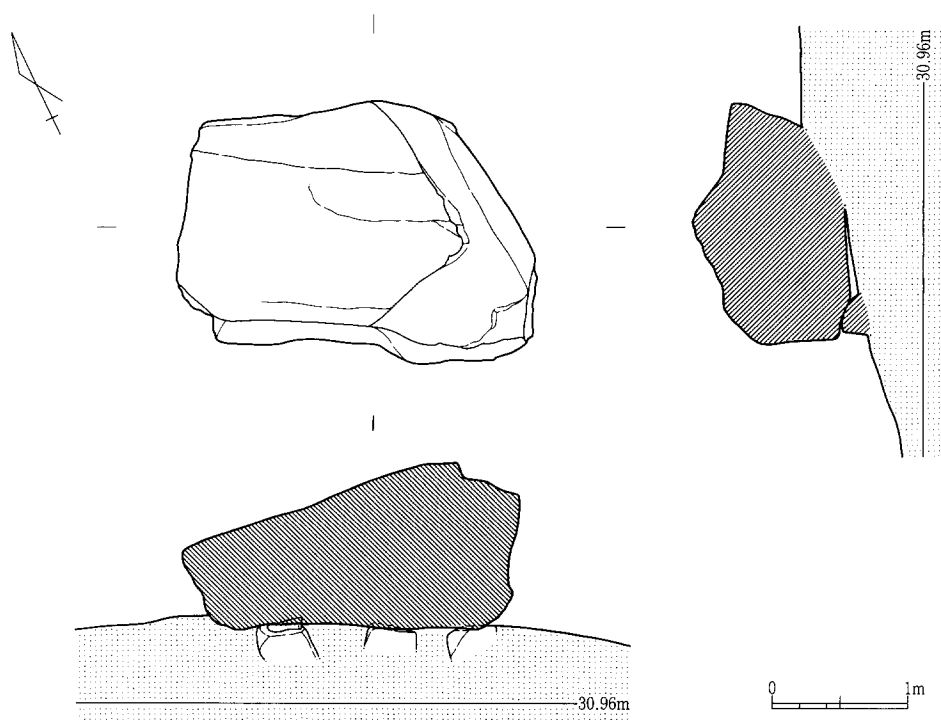


圖 54. 242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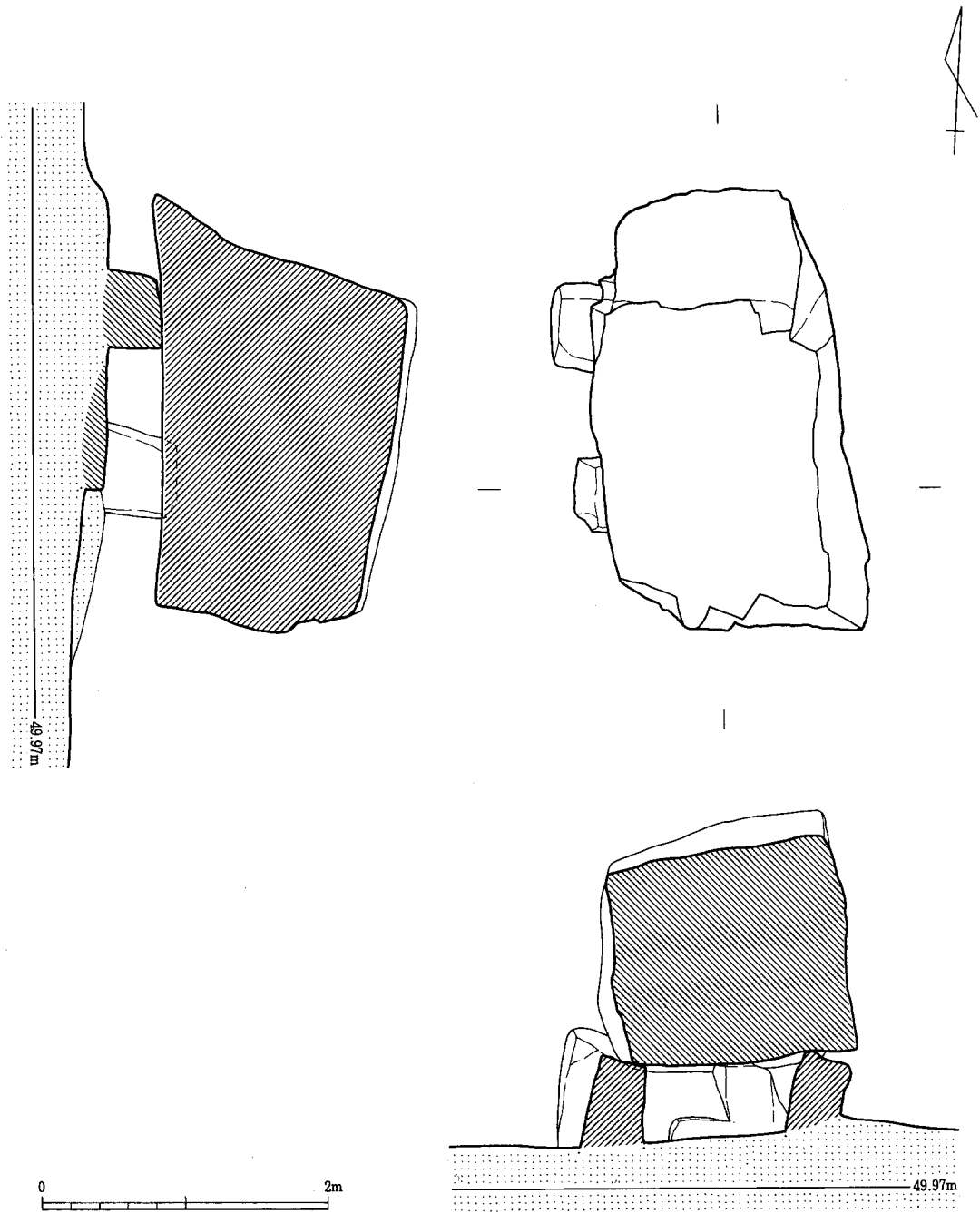


圖 53. 241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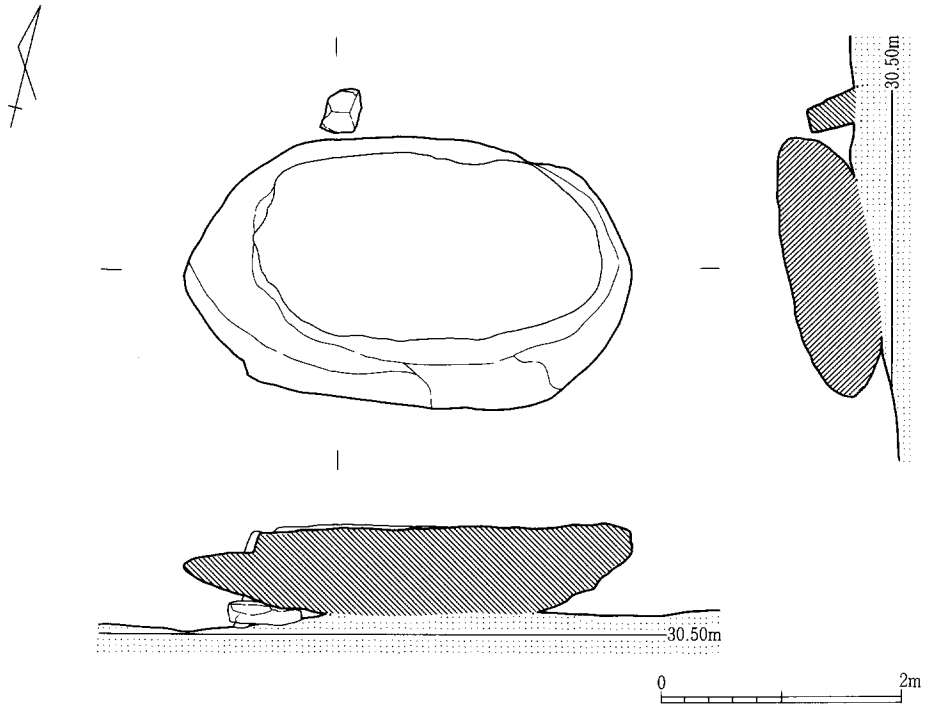


圖 55. 2426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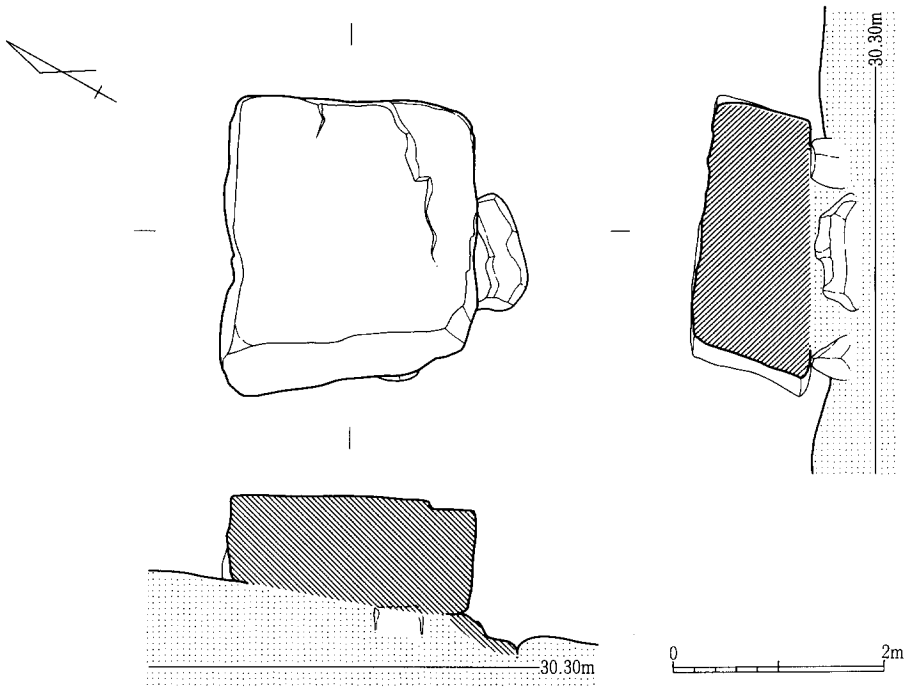


圖 57. 242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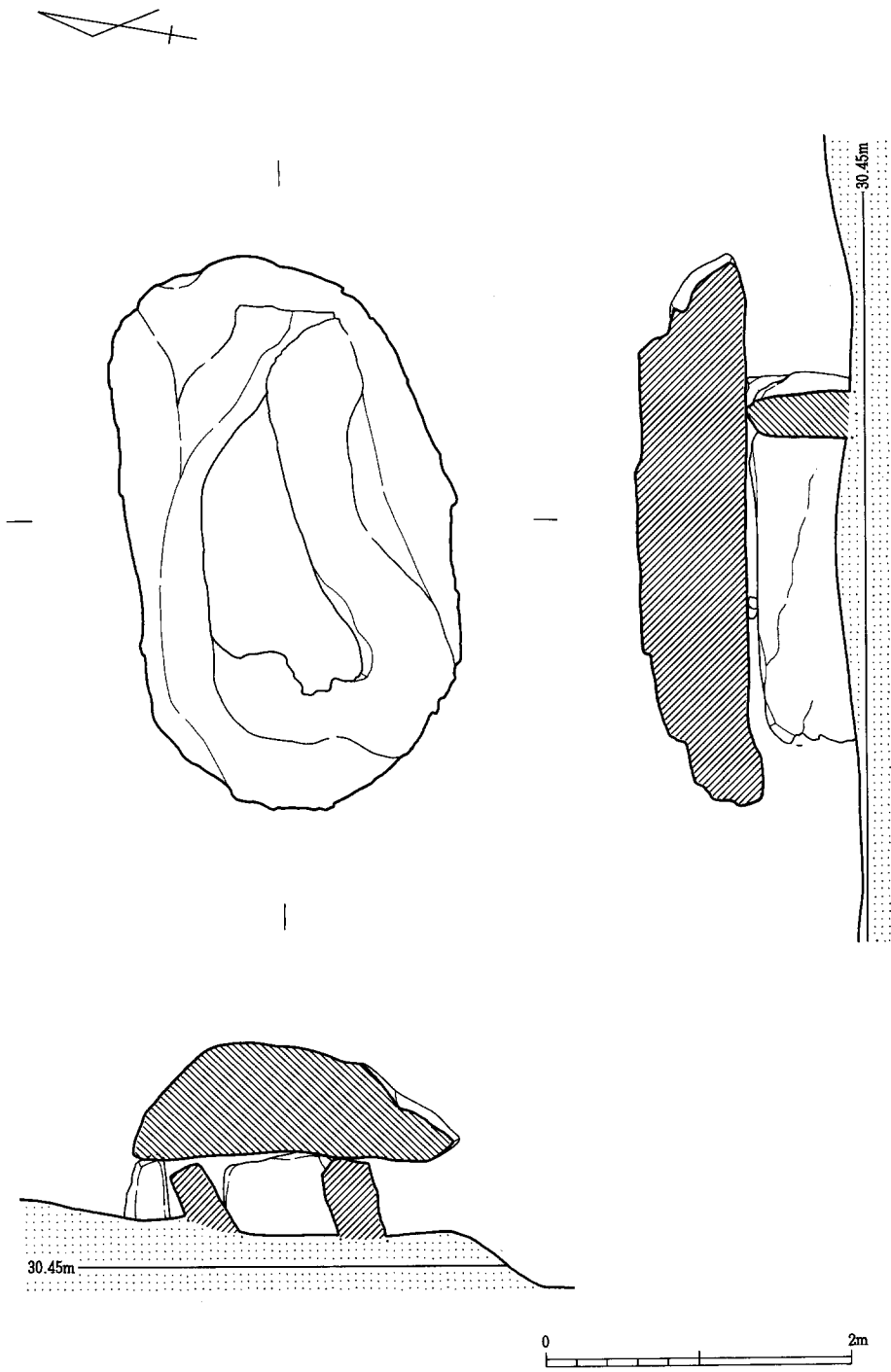


圖 56. 2428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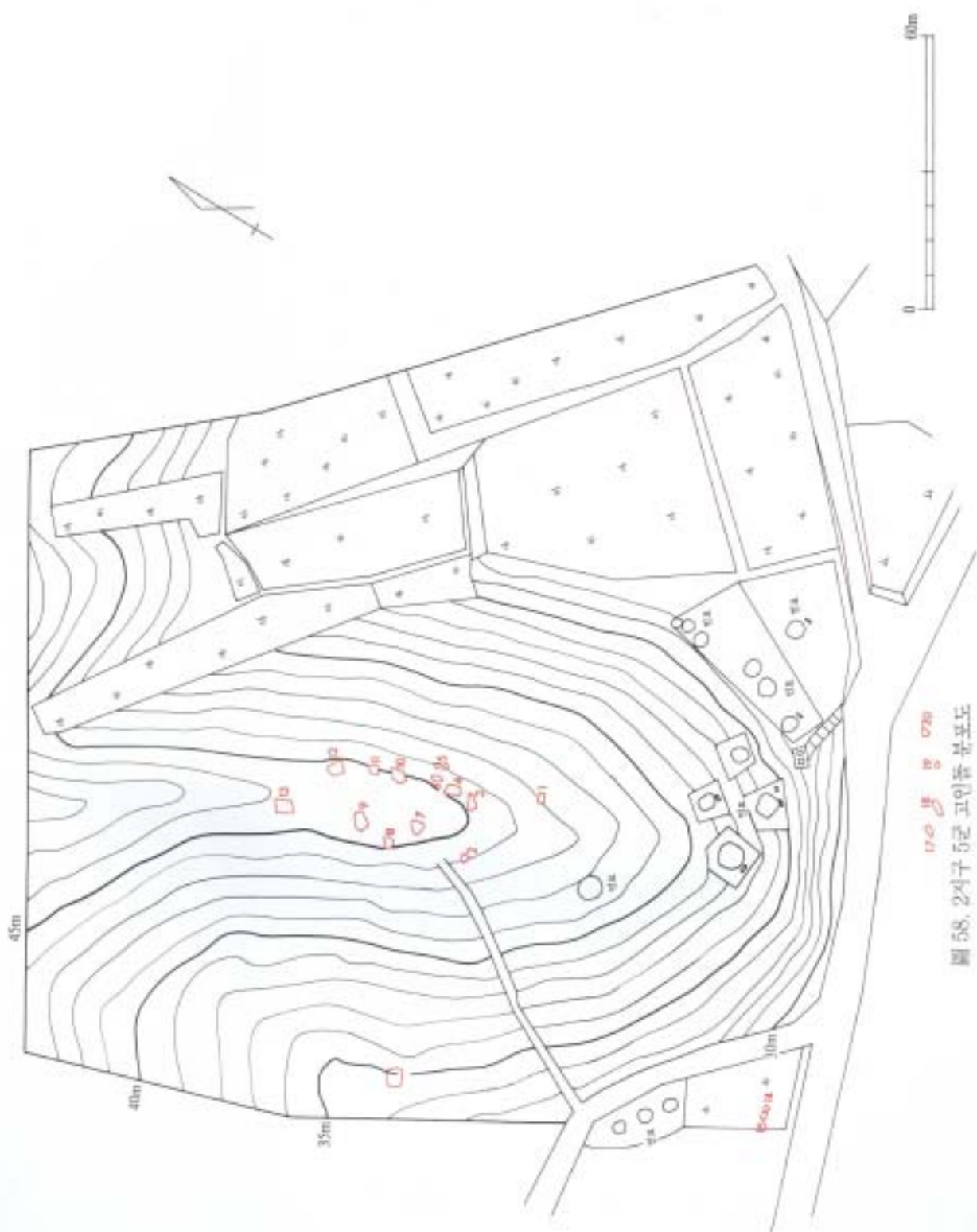


圖 58. 2세기 5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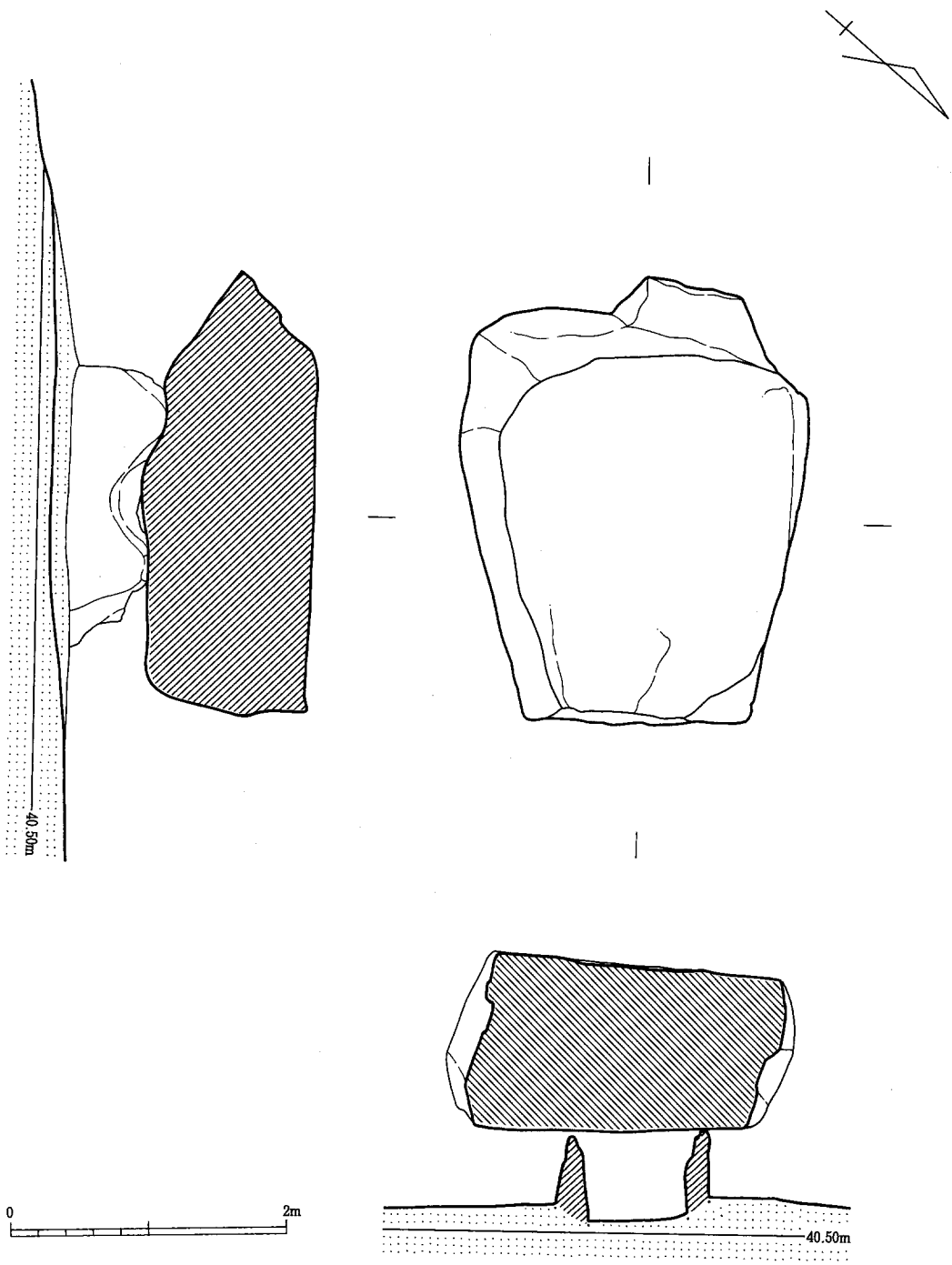


圖 59. 2509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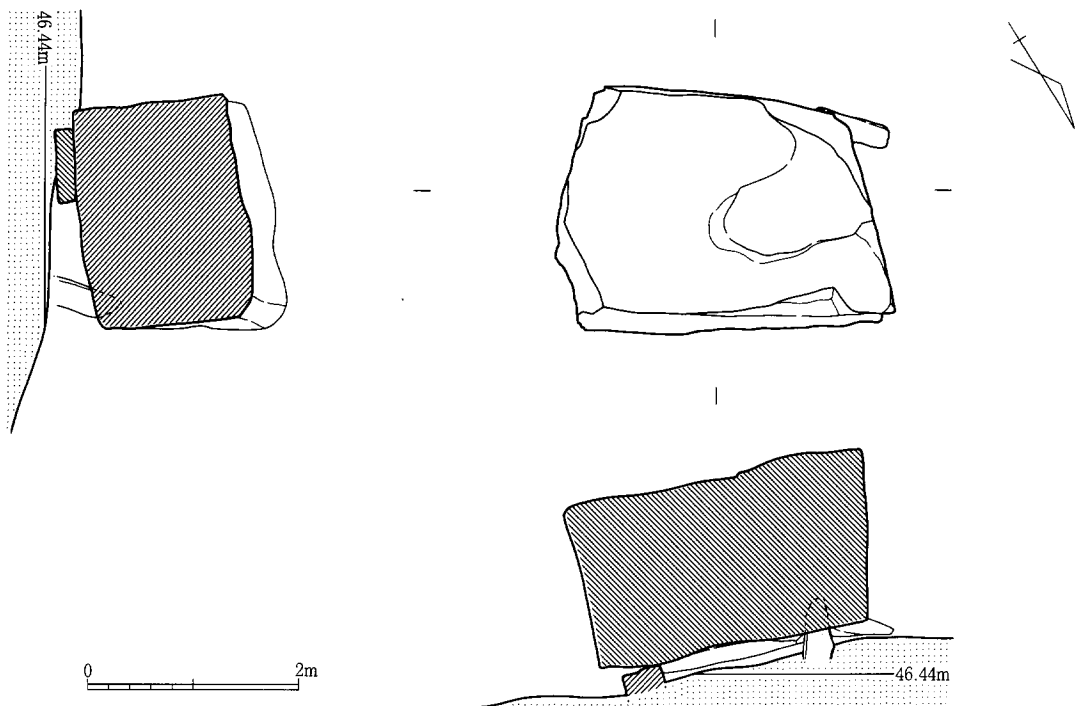


圖 60. 2512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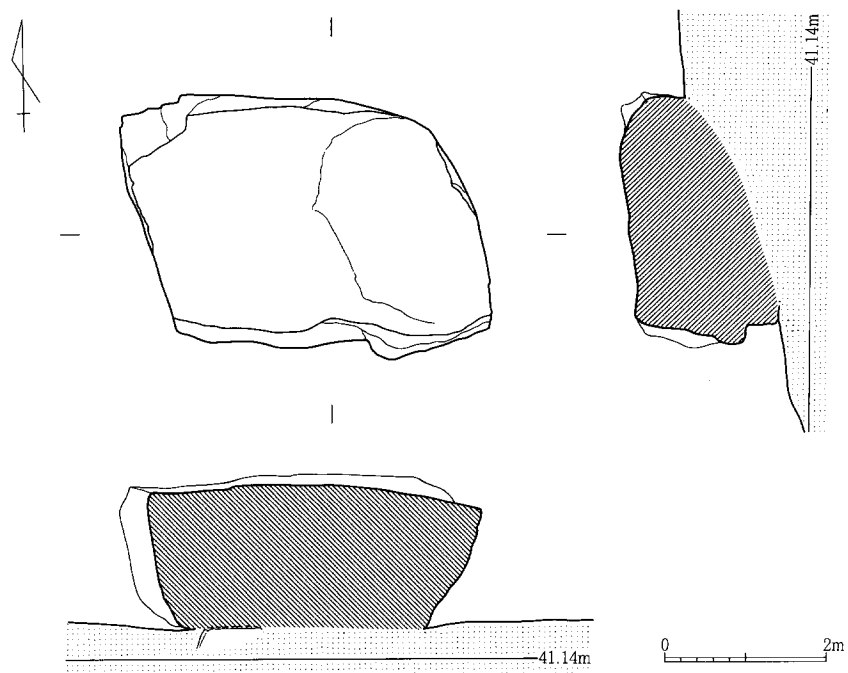


圖 63. 2615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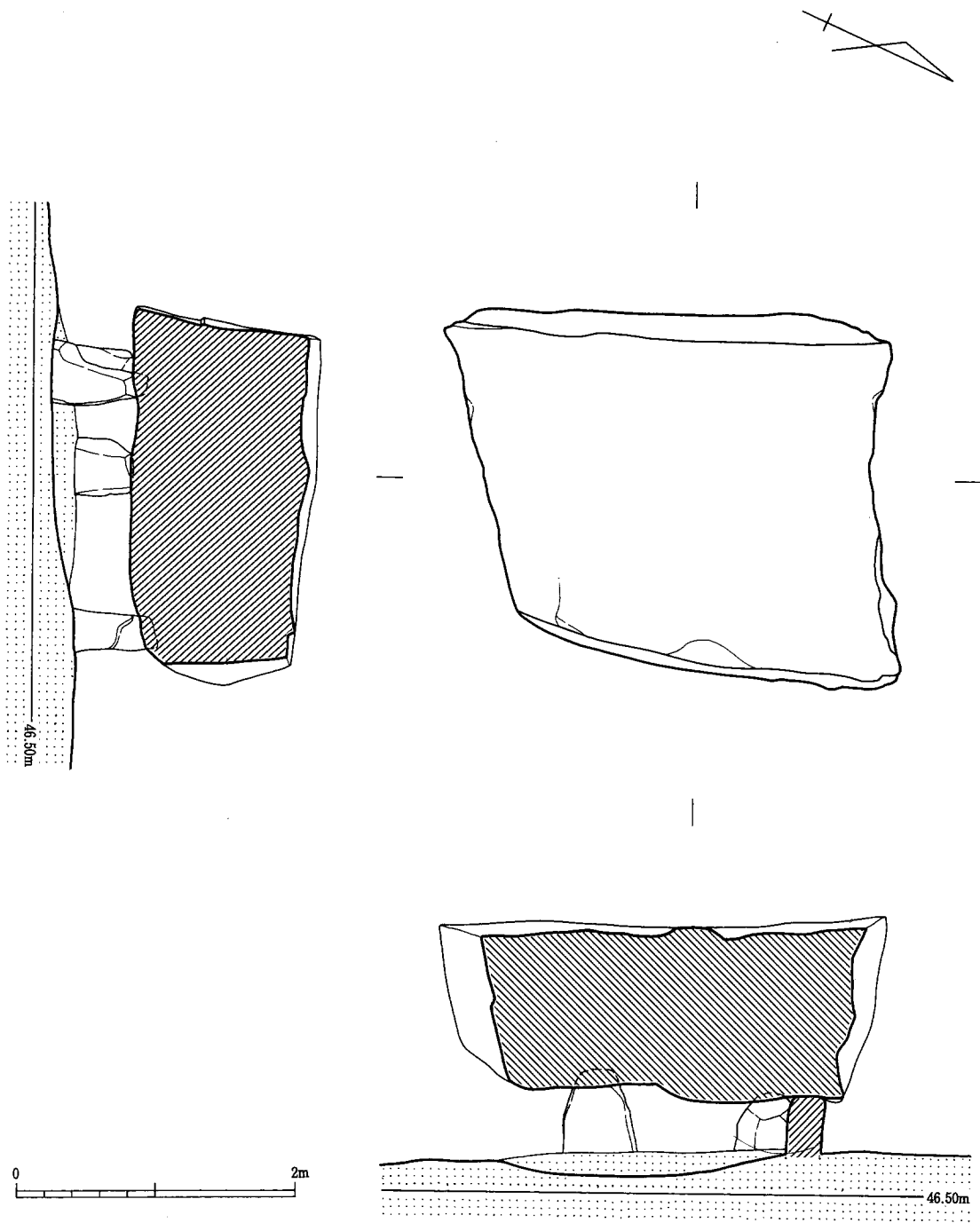


圖 61. 2513호 고인돌 실측도



圖 62. 2지구 6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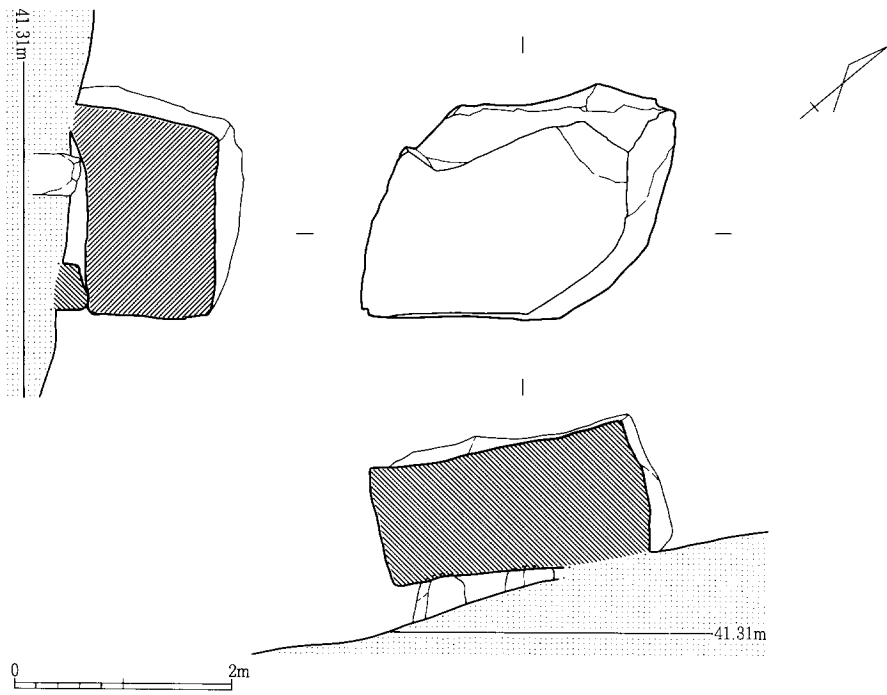


圖 64. 2620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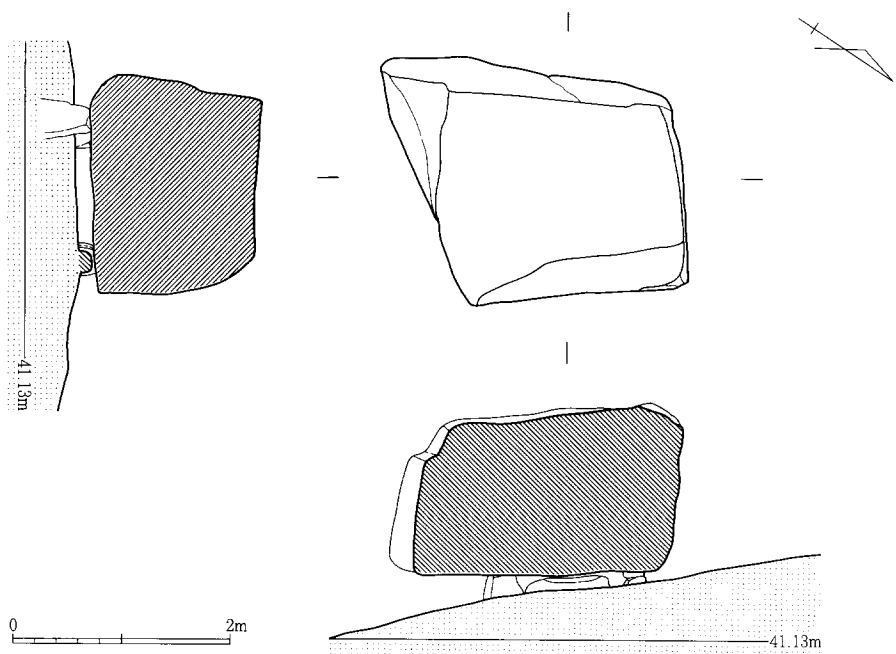


圖 65. 262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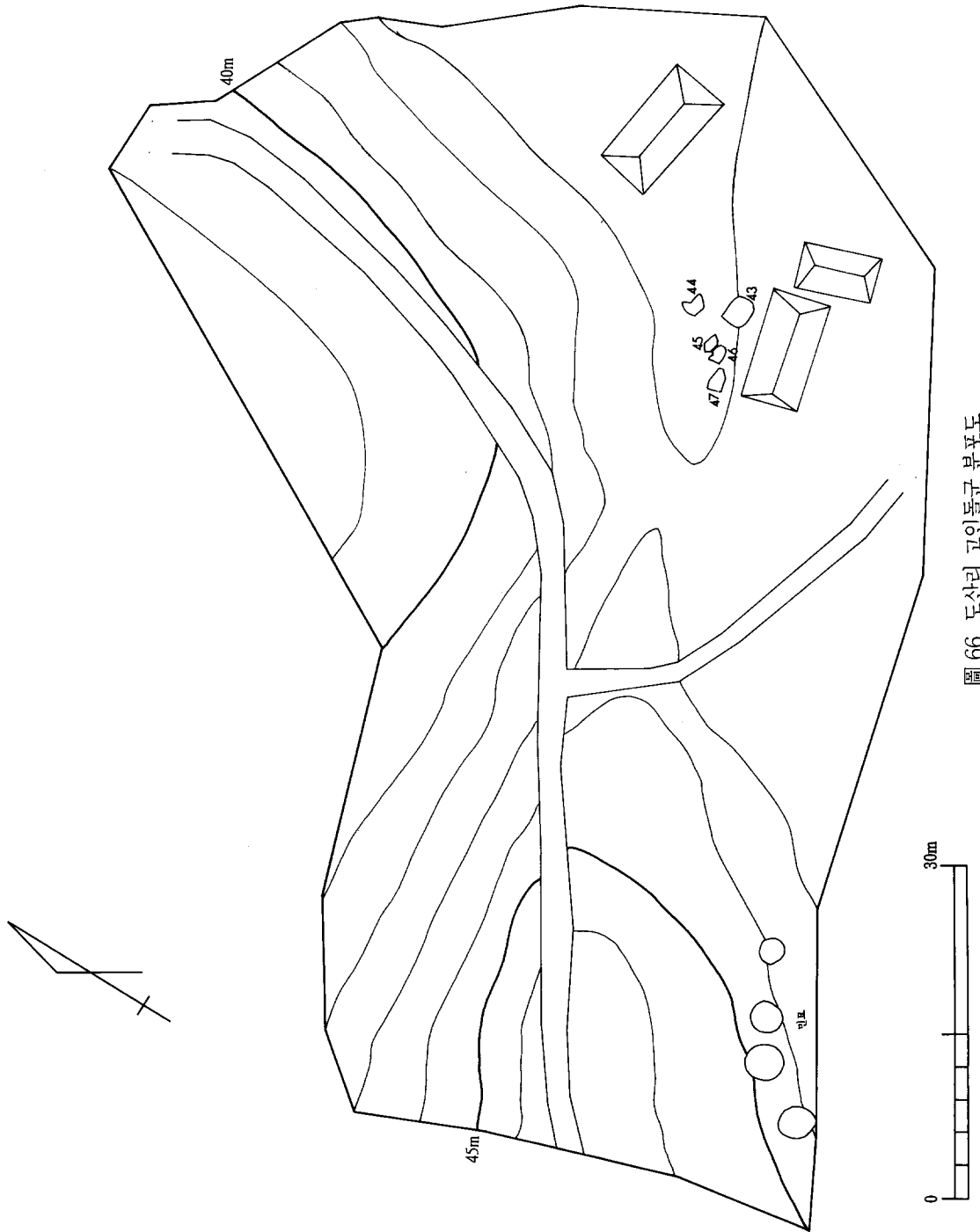


圖 66. 도산리 고인돌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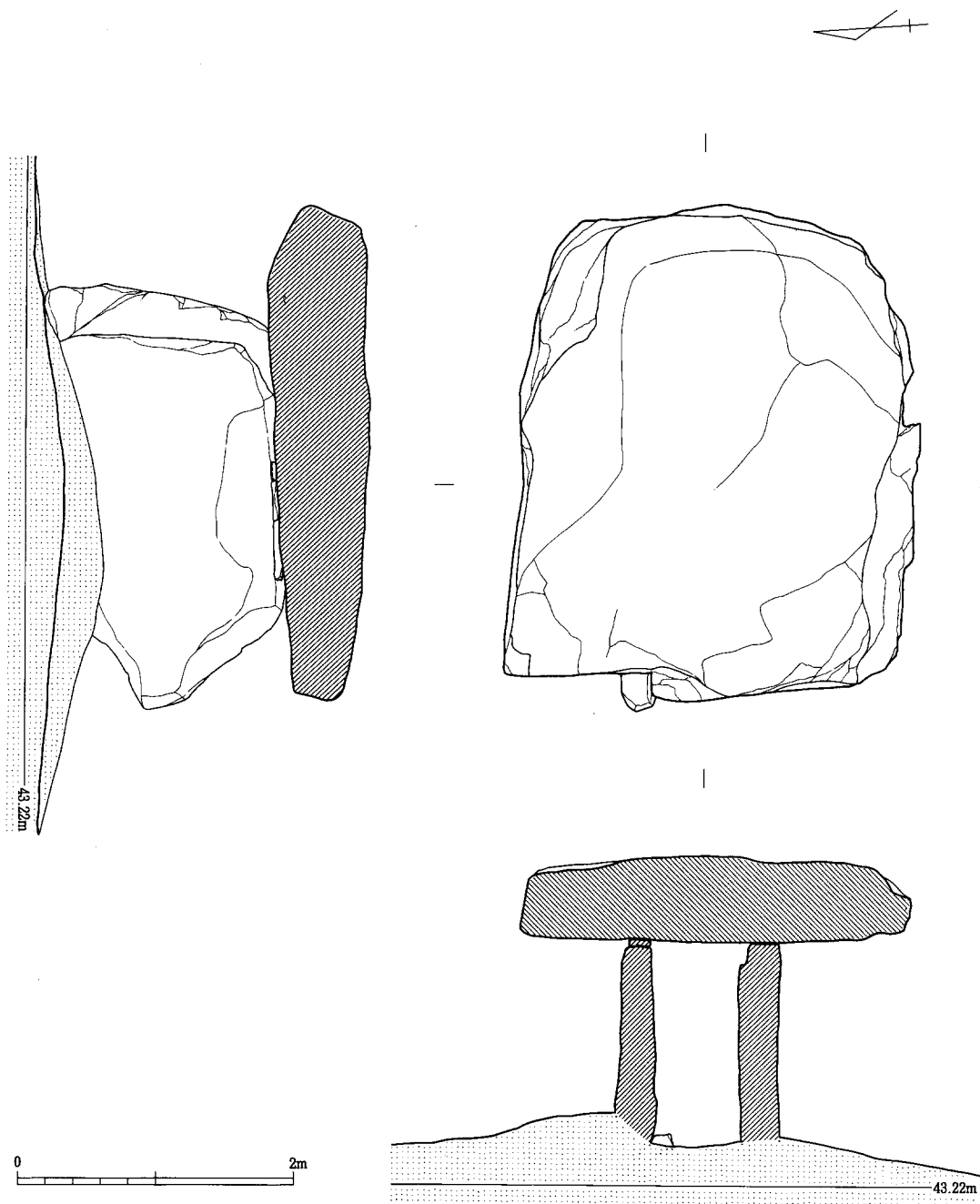


圖 67. 2443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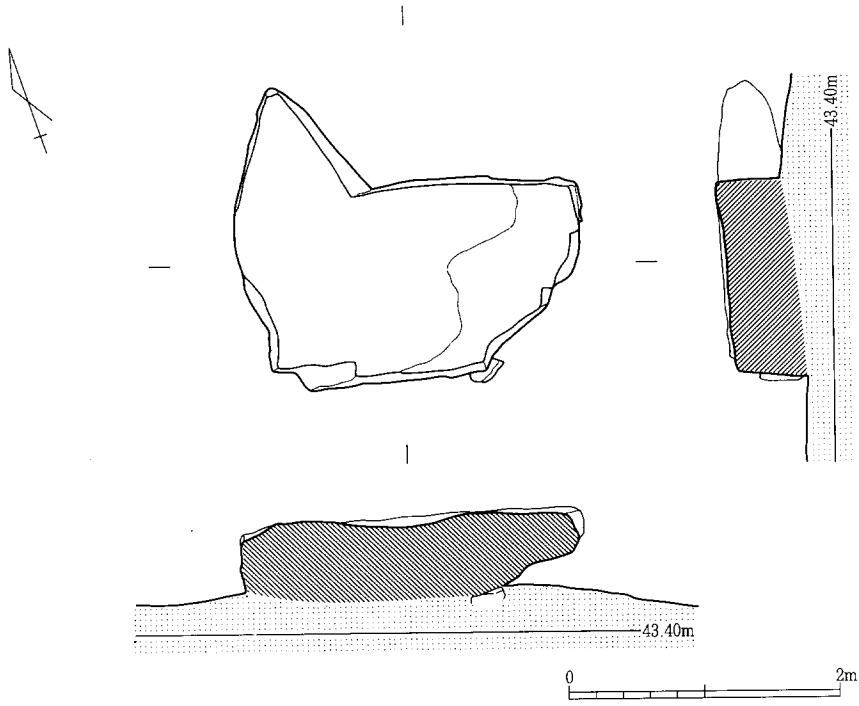


圖 68. 2444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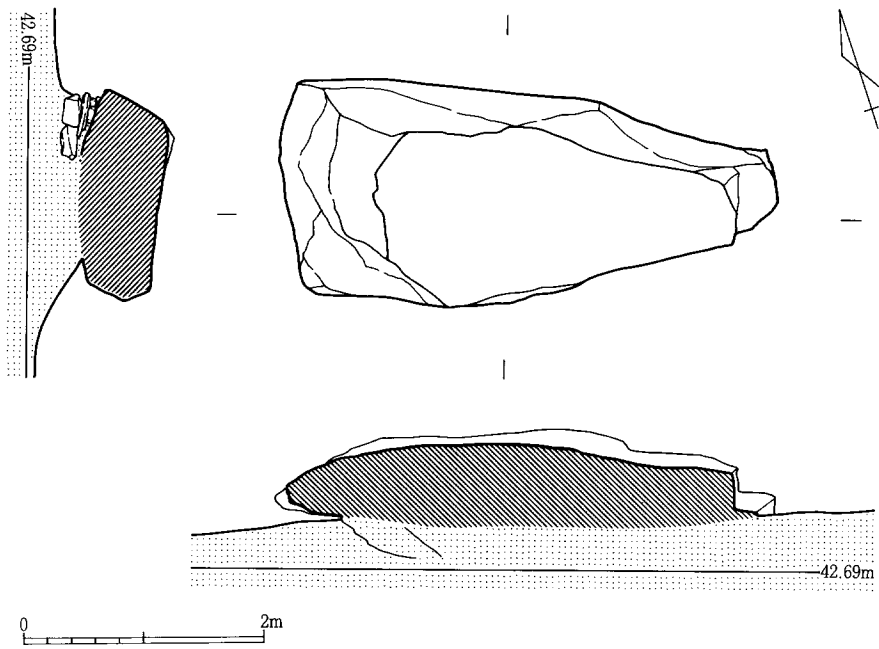


圖 70. 2004호고인돌 실측도



圖 69. 송암 1·2군 고인돌 분포도

30
40
50



圖 71. 忠安 3군 고인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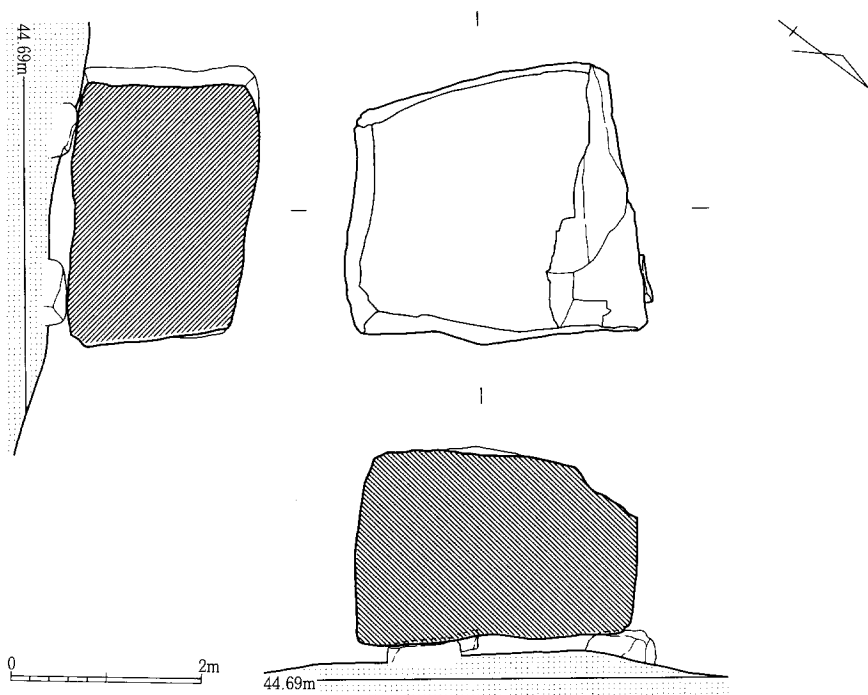


圖 72. 300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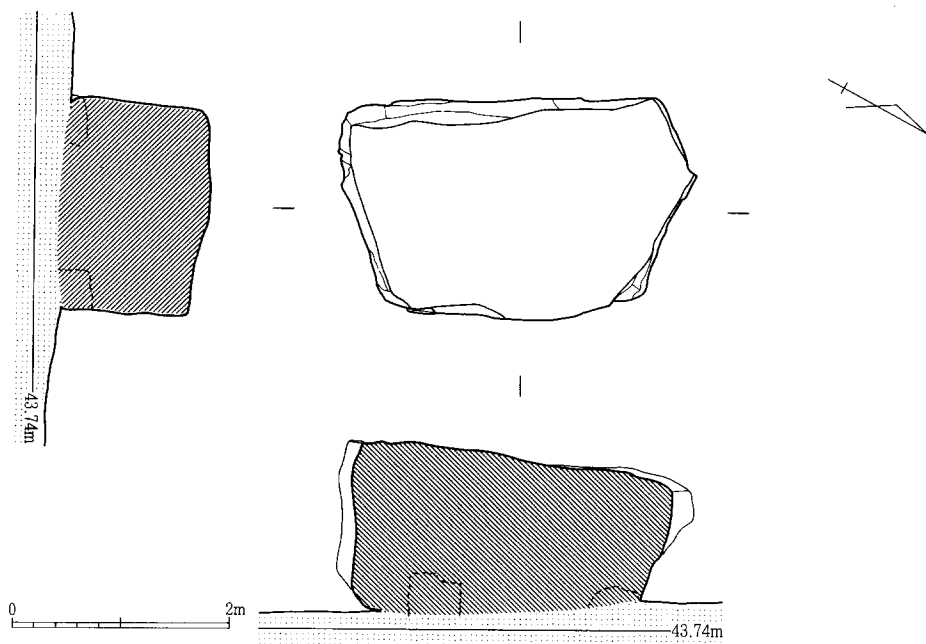


圖 73. 300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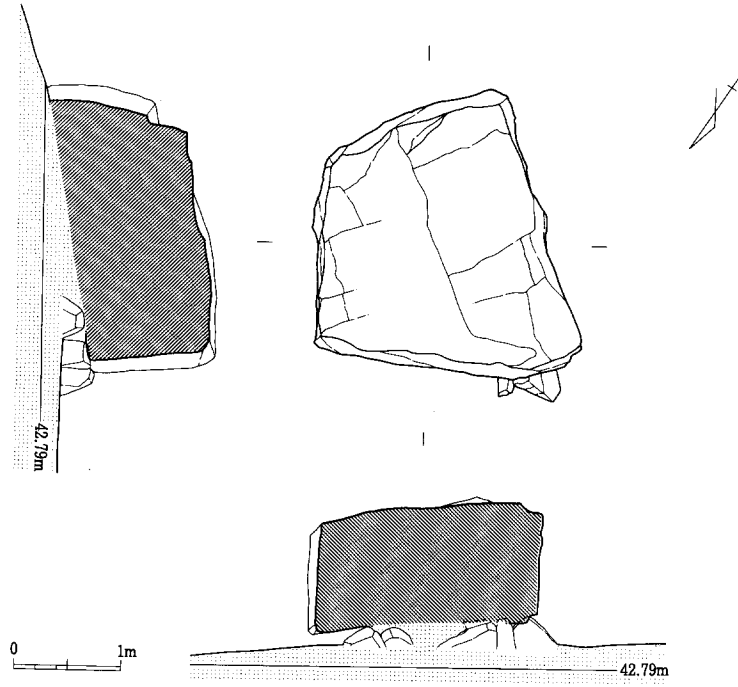


圖 74. 3017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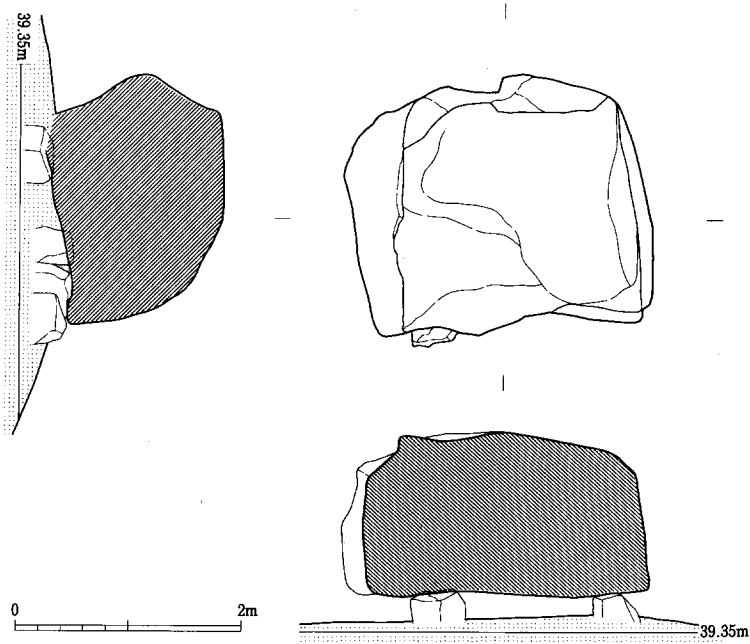


圖 75. 3021호 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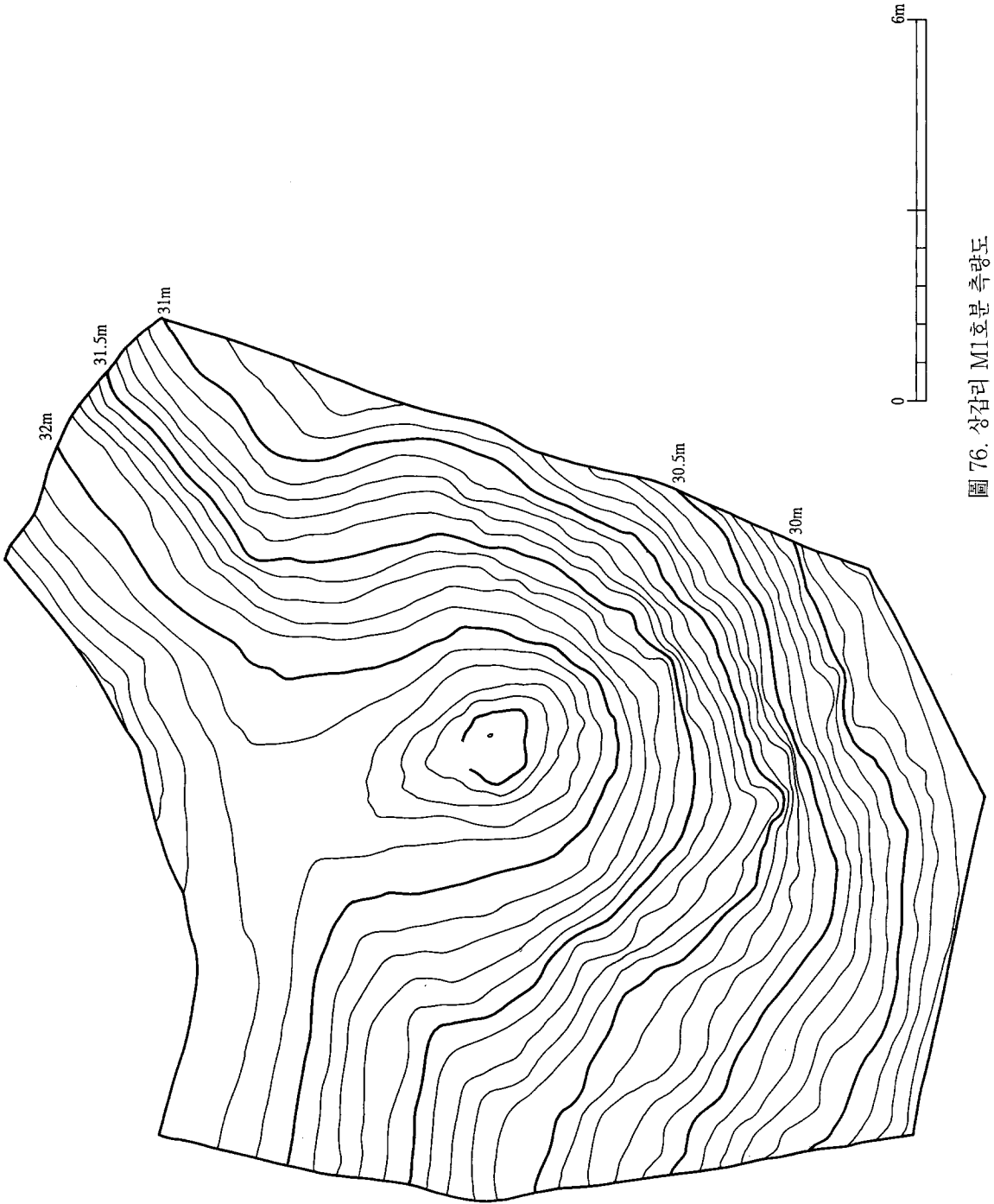


圖 76. 상갑리 M1호분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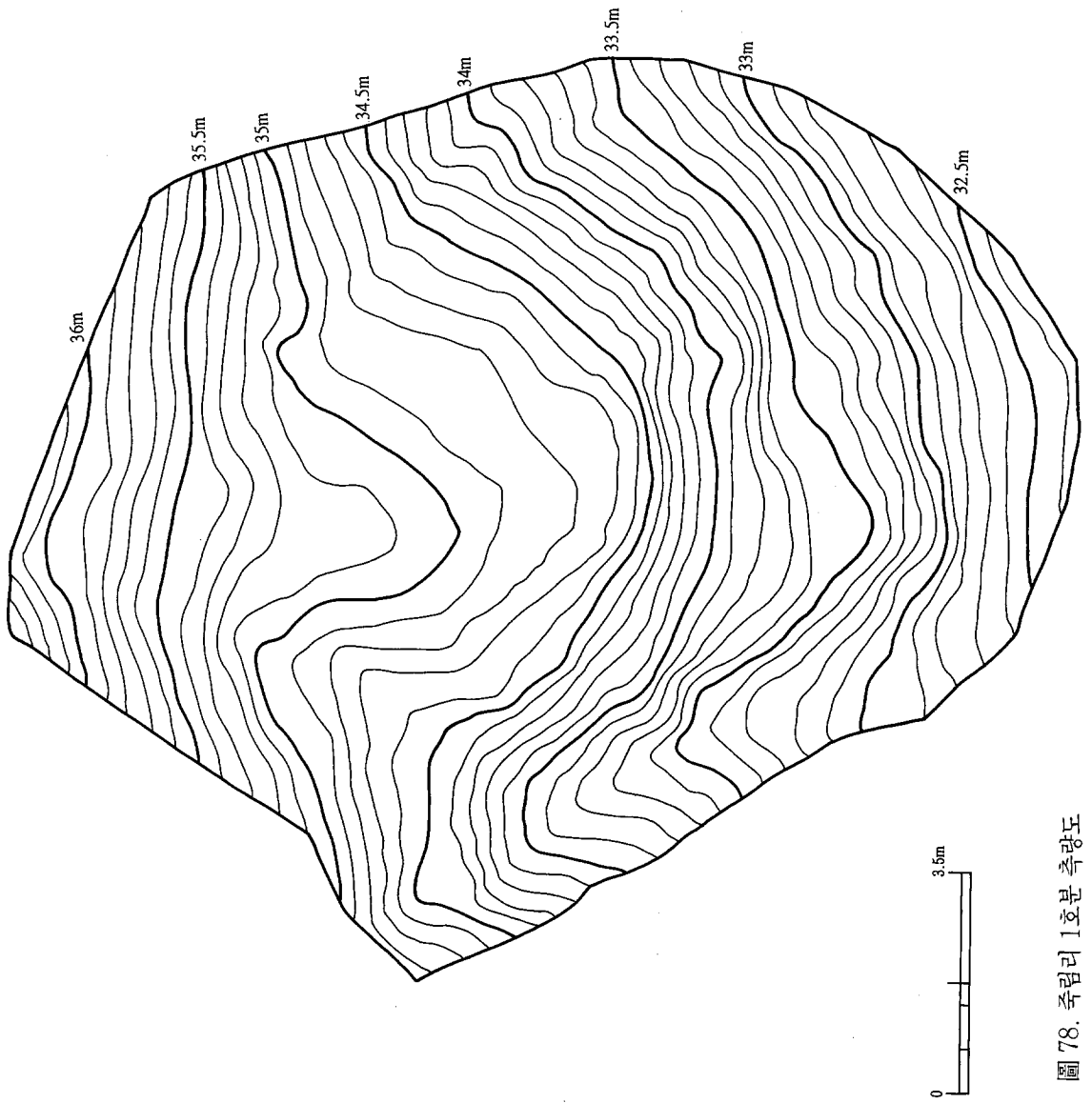


圖 78. 죽림리 1호분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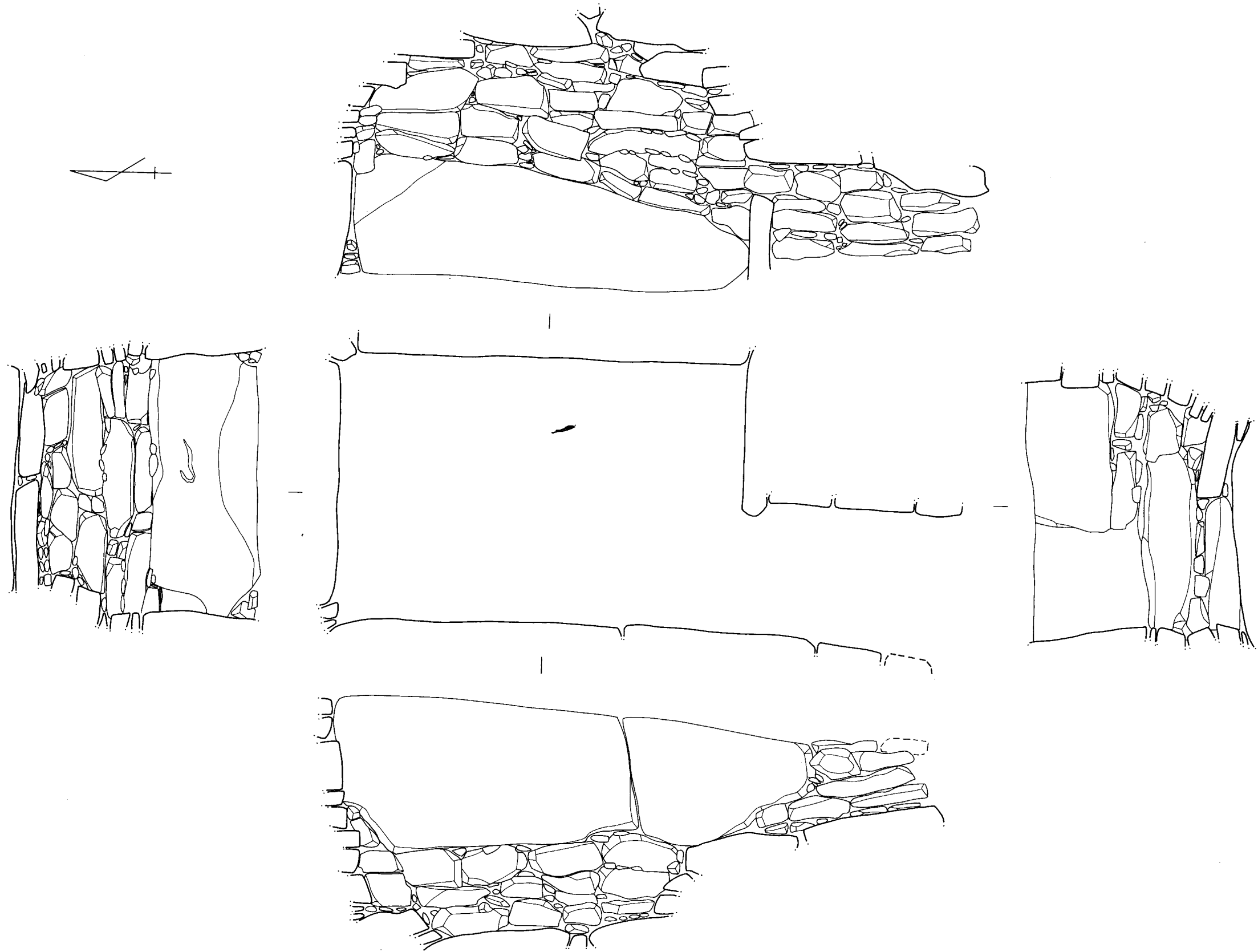


圖 77. 상갑리 M1호분 묘실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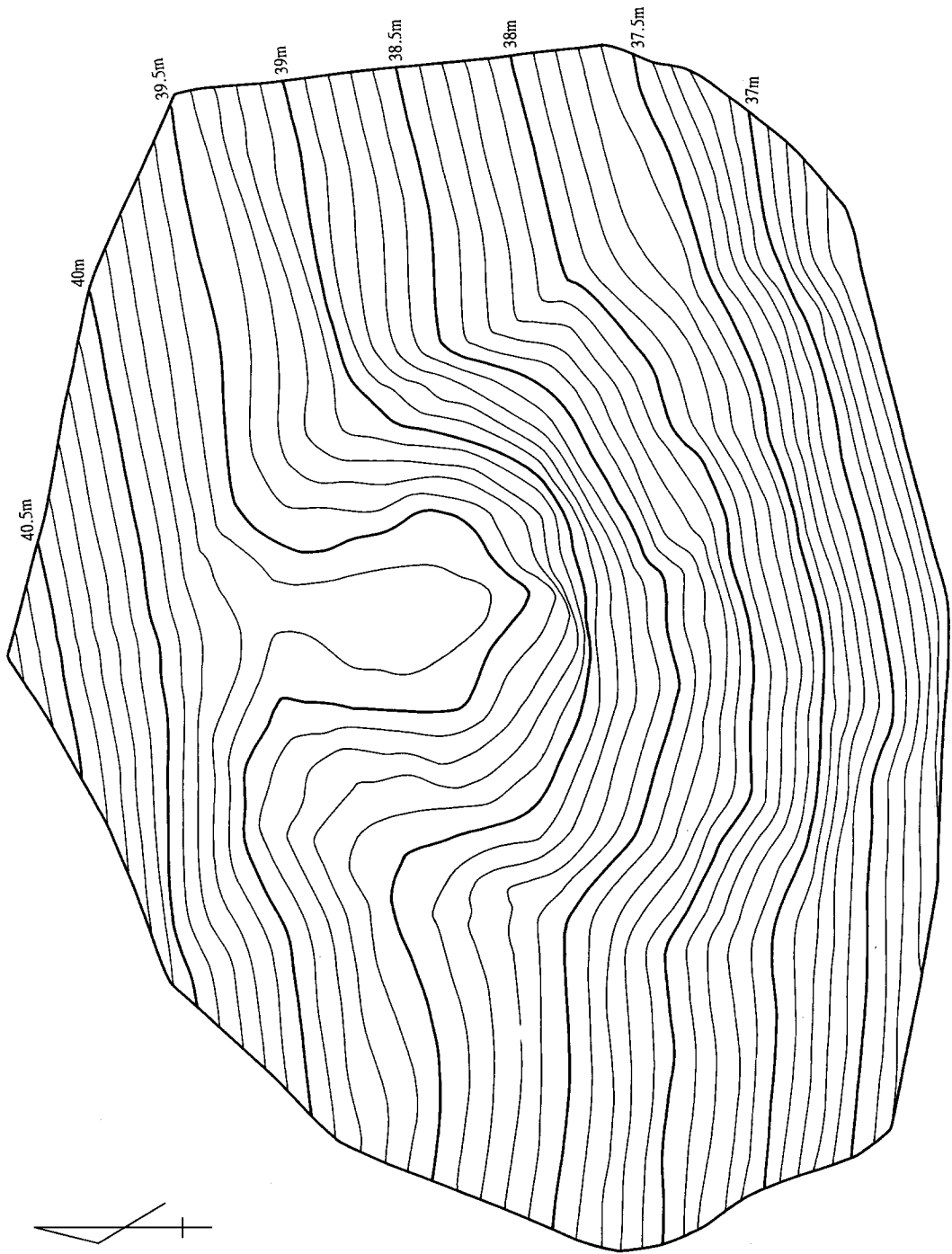


圖 79. 죽림리 2호분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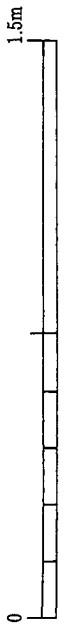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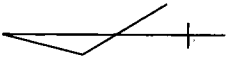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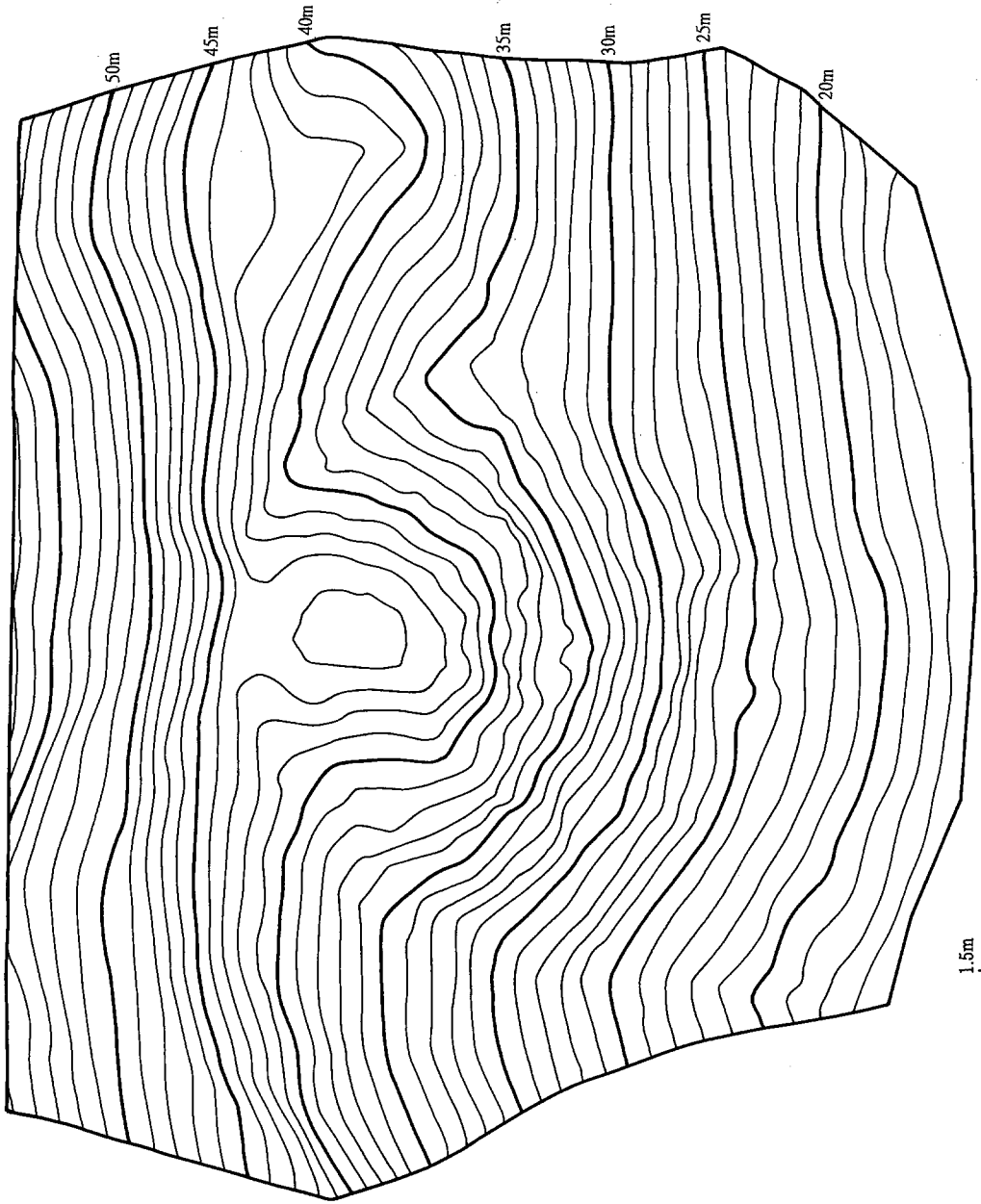


圖 80. 죽림리 3호분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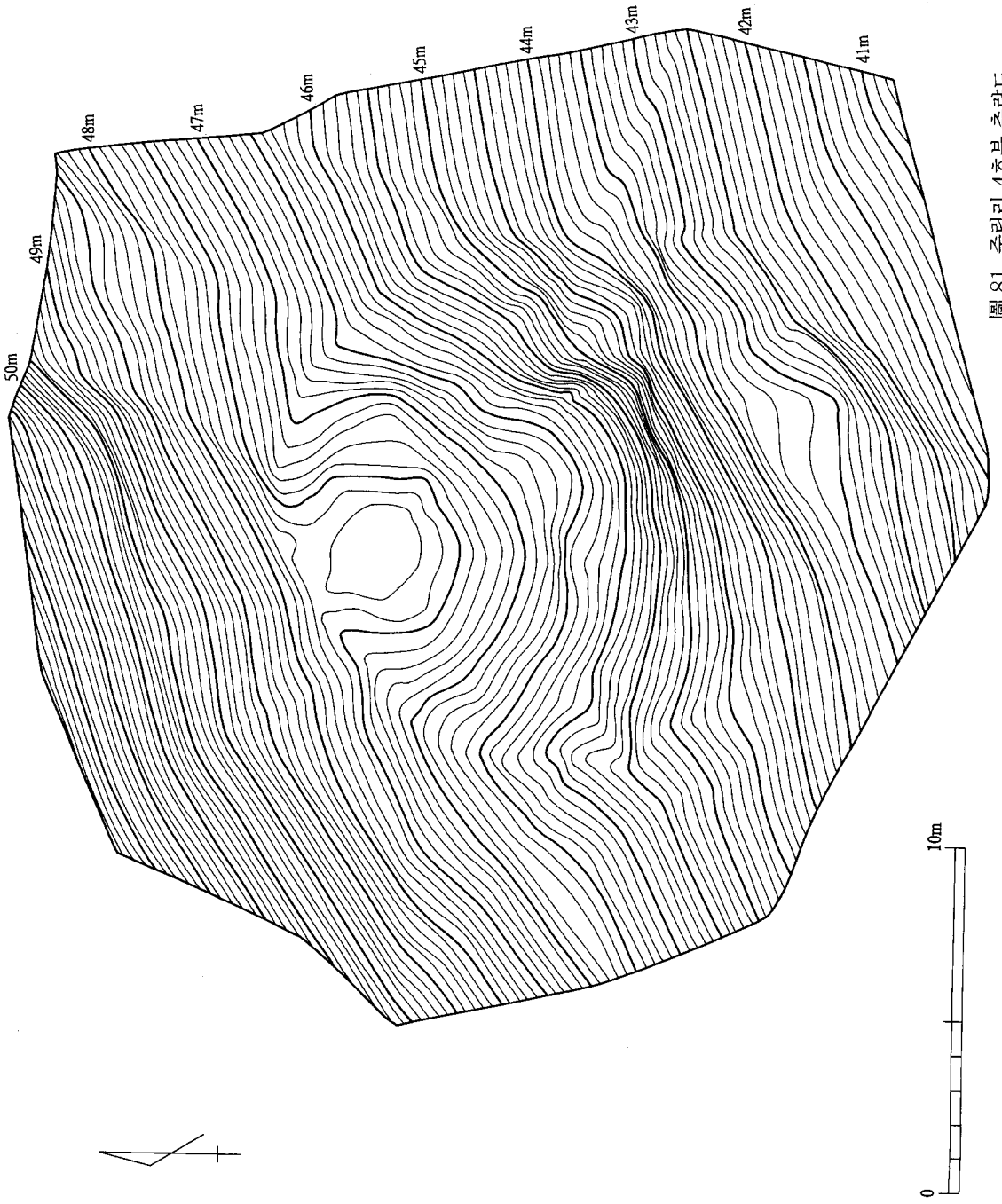


圖 81. 주립리 4호분 측량도

Dolmen

寫真





寫眞 1.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남→북)



寫眞 2.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서→동)



寫眞 3. 고창 고인돌유적 전경(동-서)



寫眞 4. 상감리(1지구) 1군 전경



寫眞 5.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寫眞 6.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寫眞 7. 상갑리(1지구) 1군 근경



寫眞 8. 1101호 고인돌



寫眞 9. 1102호 고인돌



寫眞 10. 1103호 고인돌



寫眞 11. 1104호 고인돌



寫眞 12. 1105호 고인돌



寫眞 13. 1106호 교인들



寫眞 14. 1107호 교인들



寫眞 15. 1108호 고인돌



寫眞 16. 1109호 고인돌



寫眞 17. 1109호 묘실 노출상태



寫眞 18. 1110호 고인돌



寫眞 19. 1111호 고인돌



寫眞 20. 1112호 고인돌



寫眞 21. 1113호 고인돌



寫眞 22. 1114호 고인돌



寫眞 23. 1115호 고인돌



寫眞 24. 1116호 고인돌



寫眞 25. 1117호 고인돌



寫眞 26. 1118호 고인돌



寫眞 27. 1119호 고인돌



寫眞 28. 1120호 고인돌



寫眞 29. 1120호 묘실 노출상태



寫眞 30. 1121호 고인돌



寫眞 31. 1122호 고인돌



寫眞 32. 1123호 고인돌



寫眞 33. 1124호 고인돌



寫眞 34. 1125호 고인돌



寫眞 35. 1126호 고인돌



寫眞 36. 1127호 고인돌



寫眞 37. 1128호 고인돌



寫眞 38. 1129호 고인돌



寫眞 39. 1130호 고인돌



寫眞 40. 1131호 고인돌



寫眞 41. 1132호 고인돌



寫眞 42. 1133호 고인돌



寫眞 43. 1134호 교인돌



寫眞 44. 1135호 교인돌



寫眞 45. 1136호 고인돌



寫眞 46. 1137호 고인돌



寫眞 47. 1138호 고인돌



寫眞 48. 1139호 고인돌



寫眞 49. 1140호 고인돌



寫眞 50. 1141호 고인돌



寫眞 51. 1142호 고인돌



寫眞 52. 상감리(1지구) 2군 전경



寫眞 53. 상감리(1지구) 2군 근경



寫眞 54. 상감리(1지구) 2군 근경



寫眞 55. 1201호 고인돌



寫眞 56. 1202호 고인돌



寫眞 57. 1203호 고인돌



寫眞 58. 1204호 고인돌



寫眞 59. 1205호 고인돌



寫眞 60. 1206호 고인돌



寫眞 61. 1207호 고인돌



寫眞 62. 1208호 고인돌



写真 63. 1209호 교인돌



写真 64. 1210호 교인돌



寫眞 65. 1211호 고인돌



寫眞 66. 1212호 고인돌



寫眞 67. 1213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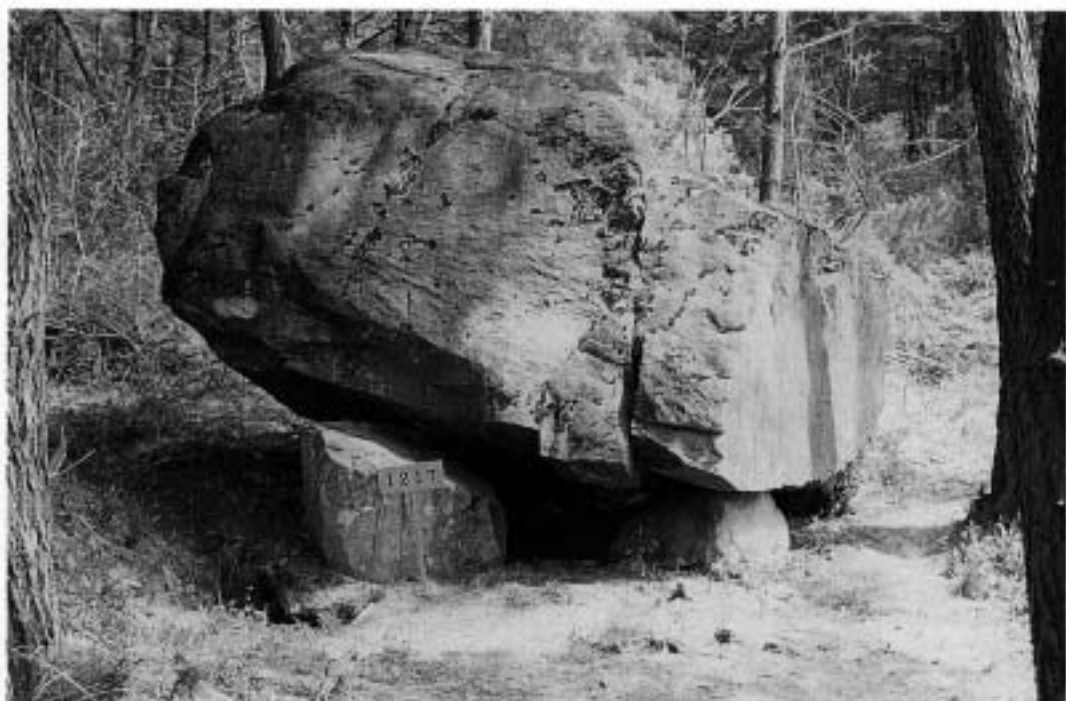
寫眞 68. 1214호 고인돌



寫眞 69. 1215호 고인돌



寫眞 70. 1216호 고인돌



寫眞 71. 1217호 교인돌



寫眞 72. 1218호 교인돌



寫眞 73. 1219호 고인돌



寫眞 74. 1220호 고인돌



寫眞 75. 1221호 고인돌



寫眞 76. 1222호 고인돌



寫眞 77. 1223호 고인돌



寫眞 78. 1224호 고인돌



寫眞 79. 1225호 고인돌



寫眞 80. 1226호 고인돌



寫眞 81. 1227호 고인돌



寫眞 82. 1228호 고인돌



寫眞 83. 1229호 고인돌



寫眞 84. 1230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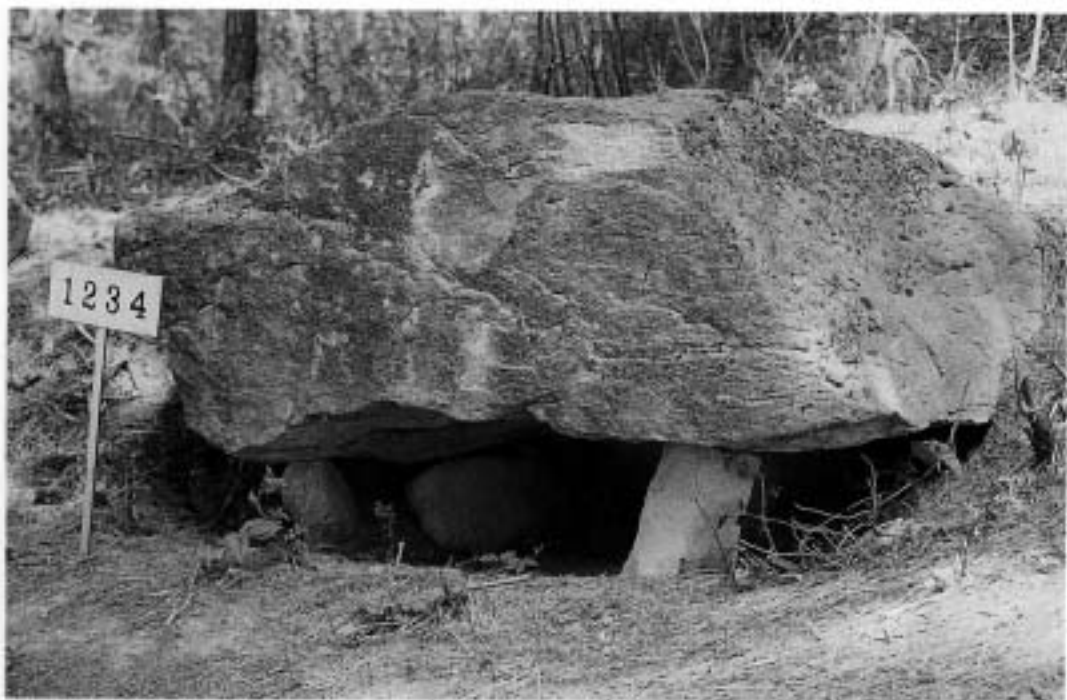
寫眞 85. 1231호 고인돌



寫眞 86. 1232호 고인돌



寫眞 87. 1233호 고인돌



寫眞 88. 1234호 고인돌



寫眞 89. 1234호 고인돌 묘실 노출상태



寫眞 90. 1235호 고인돌



寫眞 91. 1236호 고인돌



寫眞 92. 1237호 고인돌



寫眞 93. 1238호 고인돌



寫眞 94. 1239호 고인돌



寫眞 95. 1240호 고인돌



寫眞 96. 1241호 고인돌



寫眞 97. 1242호 고인돌



寫眞 98. 1243호 고인돌



寫眞 99. 상갑리(1지구) 3군 전경



寫眞 100.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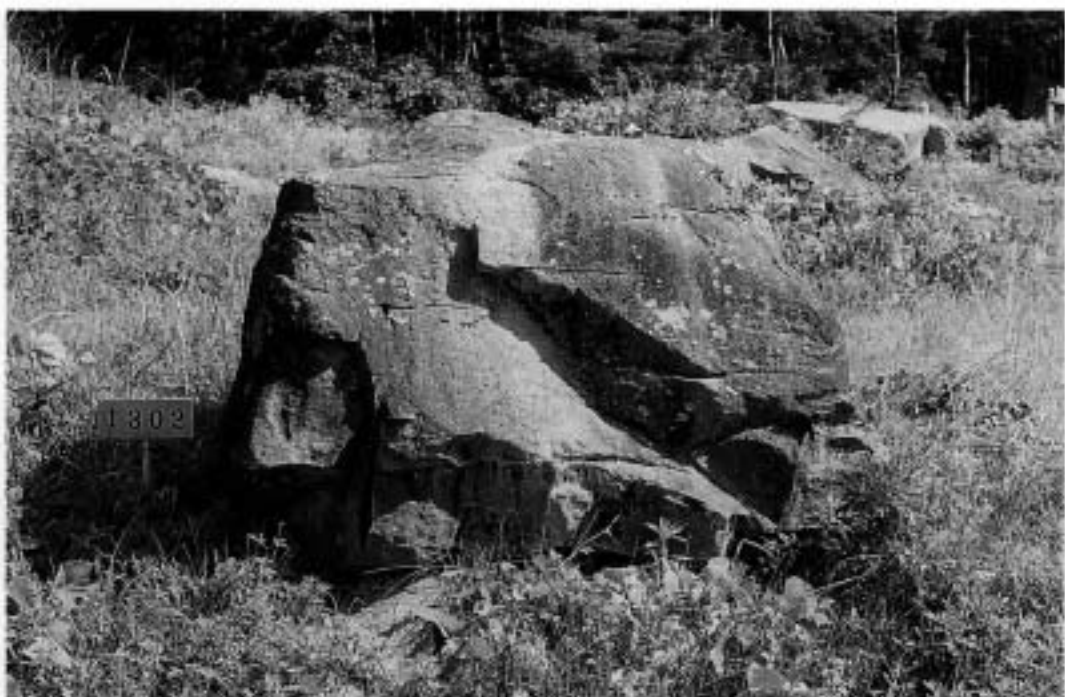
寫眞 101.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寫眞 102. 상갑리(1지구) 3군 근경



寫眞 103. 1301호 고인돌



寫眞 104. 1302호 고인돌



寫眞 105. 1303호 고인돌



寫眞 106. 1304호 고인돌



寫眞 107. 1305호 교인돌



寫眞 108. 1306호 교인돌



寫眞 109. 1307호 교인돌



寫眞 110. 1308호 교인돌



高英 111. 1309호 교인돌



高英 112. 1310호 교인돌



寫眞 113. 1311호 교인돌



寫眞 114. 1312호 교인돌



寫眞 115. 1313호 고인돌



寫眞 116. 1314호 고인돌



寫眞 117. 1315호 고인돌



寫眞 118. 1316호 고인돌



寫眞 119. 1317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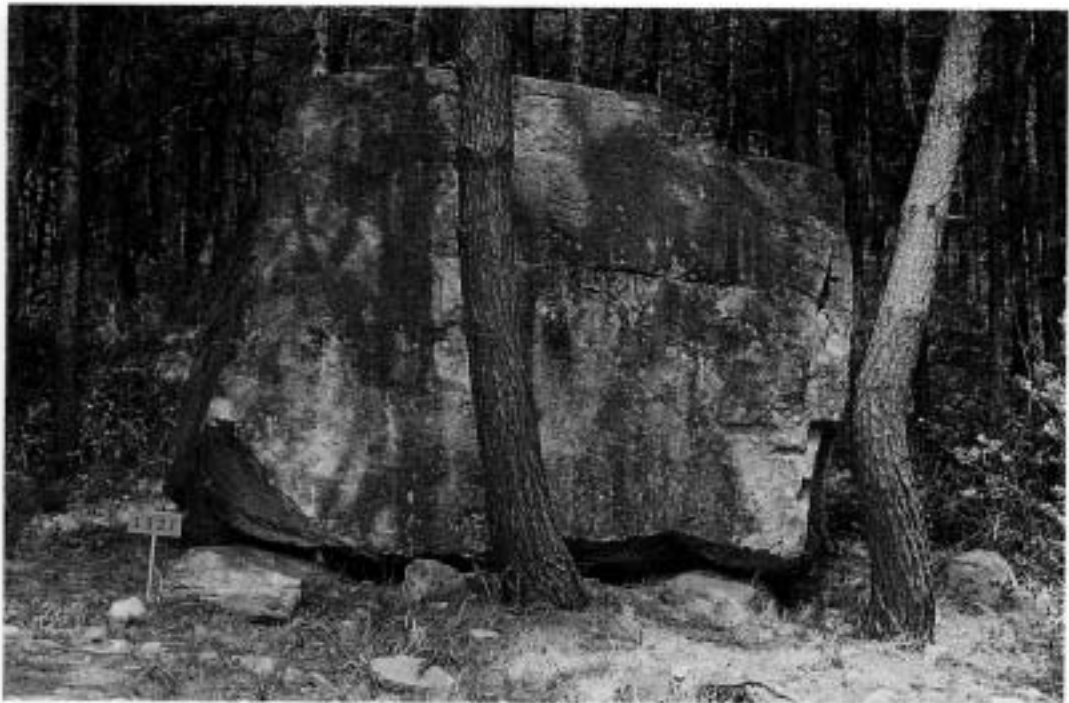
寫眞 120. 1318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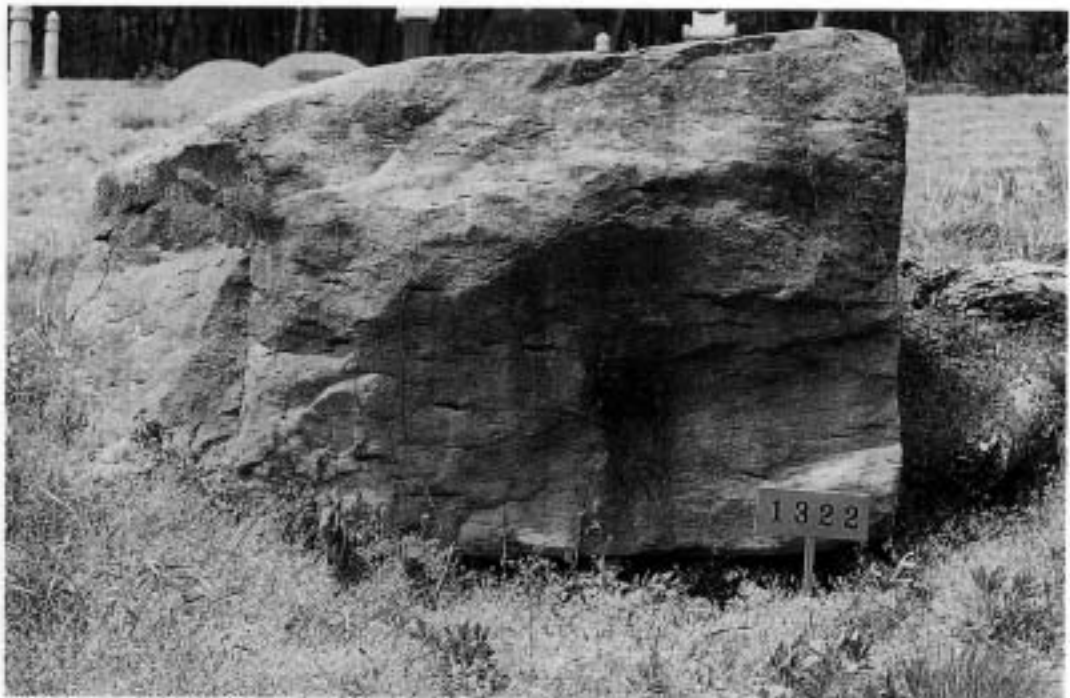
寫眞 121. 1319호 고인돌



寫眞 122. 1320호 고인돌



寫眞 123. 1321호 고인돌



寫眞 124. 1322호 고인돌



寫眞 125. 1323호 고인돌



寫眞 126. 1324호 고인돌



寫眞 127. 1325호 고인돌



寫眞 128. 1326호 고인돌



寫眞 129. 1327호 교인돌



寫眞 130. 1328호 교인돌



寫眞 131. 1329호 고인돌



寫眞 132. 1330호 고인돌



寫眞 133. 1331호 고인돌



寫眞 134. 1332호 고인돌



寫眞 135. 1333호 고인돌



寫眞 136. 1334호 고인돌



寫眞 137. 1335호 교인돌



寫眞 138. 1336호 교인돌



高英 139. 1337호 코인돌



高英 140. 1338호 코인돌



寫眞 141. 1339호 고인돌



寫眞 142. 1340호 고인돌



高英 143. 1341호 교인돌



高英 144. 1342호 · 1343호 교인돌



寫眞 145. 1344호 고인돌



寫眞 146. 1345호 고인돌



寫眞 147. 1346호 고인돌



寫眞 148. 1347호 고인돌



寫眞 149. 1348호 고인돌



寫眞 150. 1349호 고인돌



寫眞 151. 상감리(1지구) 4군 전경



寫眞 152. 상감리(1지구) 4군 근경



寫眞 153. 상갑리(1지구) 4군 근경



寫眞 154. 상갑리(1지구) 4군 근경



寫眞 155. 1401호 고인돌



寫眞 156. 1402호 고인돌



寫眞 157. 1403호 고인돌



寫眞 158. 1404호 고인돌



寫眞 159. 1405호 고인돌



寫眞 160. 1406호 고인돌



寫眞 161. 1407호 고인돌



寫眞 162. 1408호 고인돌



寫眞 163. 1409호 고인돌



寫眞 164. 1410호 고인돌



寫眞 165. 1411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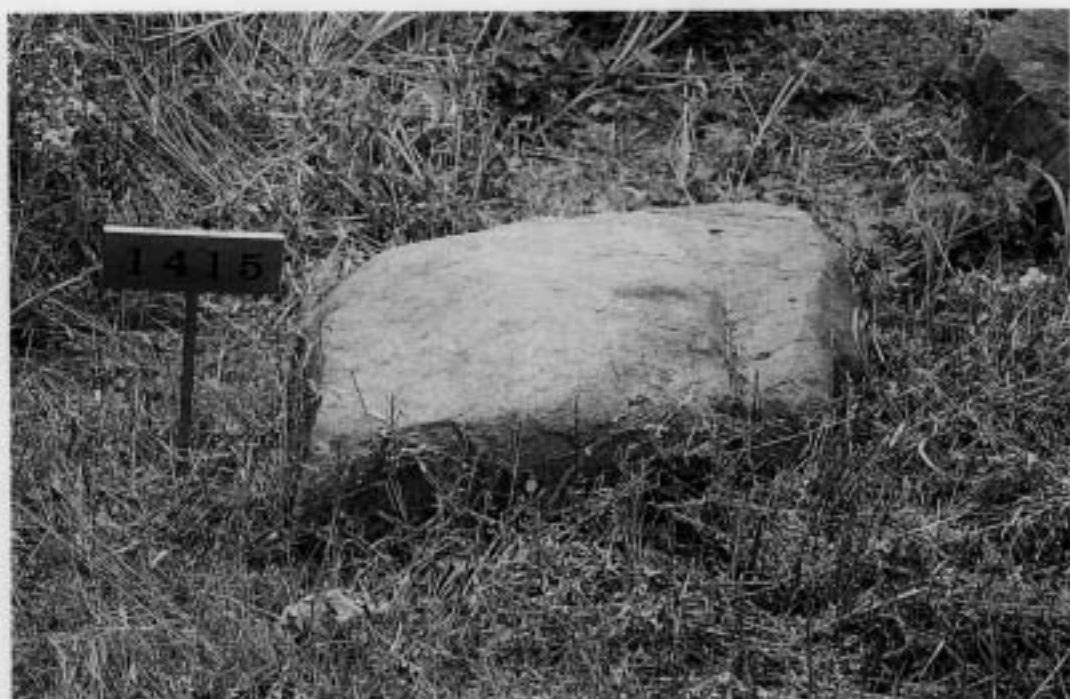
寫眞 166. 1412호 고인돌



寫眞 167. 1413호 고인돌



寫眞 168. 1414호 고인돌



寫眞 169. 1415호 고인돌



寫眞 170. 1416호 고인돌



寫眞 171. 1417호 고인돌



寫眞 172. 1418호 고인돌



寫眞 173. 1419호 교인돌



寫眞 174. 1420호 교인돌



寫眞 175. 1421호 고인돌



寫眞 176. 1422호 고인돌



寫眞 177. 1423호 고인돌



寫眞 178. 1424호 고인돌



寫眞 179. 1425호 고인돌



寫眞 180. 1426호 고인돌



高眞 181. 1427호 코인돌



高眞 182. 1428호 코인돌



高眞 183. 1429호 교인돌



高眞 184. 1430호 교인돌



寫眞 185. 1431호 고인돌



寫眞 186. 1432호 · 1433호 고인돌



寫眞 187. 1434호 코인돌



寫眞 188. 1435호 코인돌



寫眞 189. 1436호 고인돌



寫眞 190. 1437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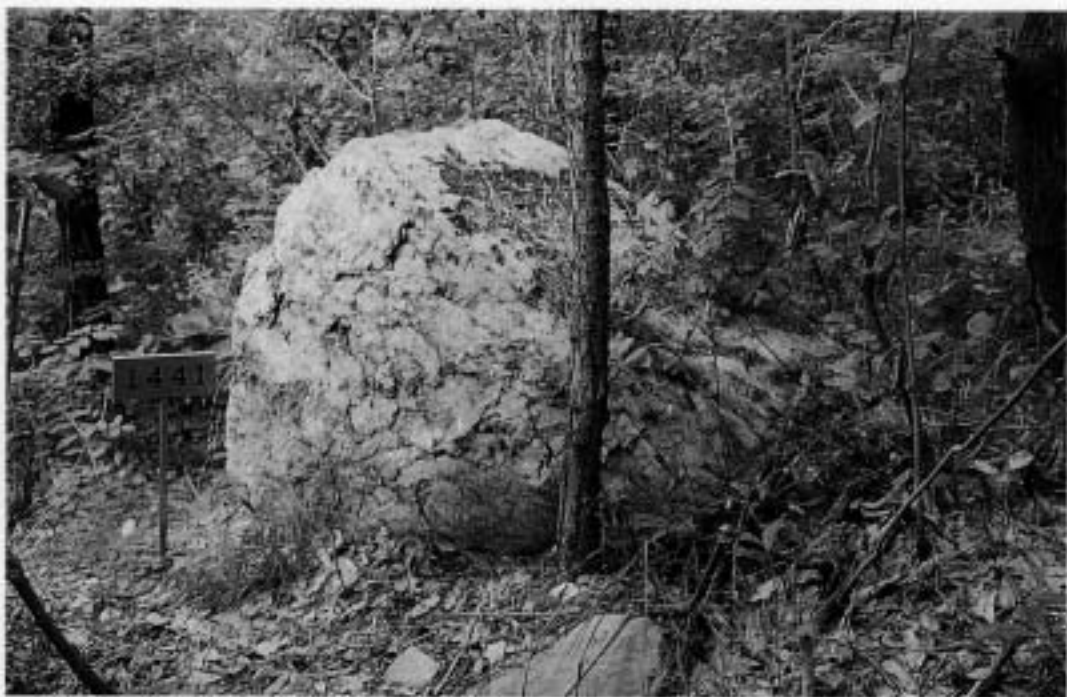
寫眞 191. 1438호 고인돌



寫眞 192. 1439호 고인돌



寫眞 193. 1440호 교인돌



寫眞 194. 1441호 교인돌



寫眞 195. 1442호 고인돌



寫眞 196. 1443호 고인돌



寫眞 197. 1444호 고인돌



寫眞 198. 1445호 고인돌



寫眞 199. 1446호 고인돌



寫眞 200. 1447호 고인돌



寫眞 201. 죽림리(2지구) 1군 전경



寫眞 202.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寫眞 203.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寫眞 204. 죽림리(2지구) 1군 근경



寫眞 205. 2101호 고인돌



寫眞 206. 2102호 고인돌



寫眞 207. 2103호 고인돌



寫眞 208. 2104호 고인돌



寫眞 209. 2105호 고인돌



寫眞 210. 2106호 고인돌



寫眞 211. 2107호 고인돌



寫眞 212. 2108호 · 2109호 고인돌



寫眞 213. 2110호 교인물



寫眞 214. 2111호 교인물



寫眞 215. 2112호 코인돌



寫眞 216. 2113호 코인돌



寫眞 217. 2114호 고인돌



寫眞 218. 2115호 고인돌



寫眞 219. 2116호 고인돌



寫眞 220. 2117호 고인돌



寫眞 221. 2118호 고인돌



寫眞 222. 2119호 고인돌



寫眞 223. 2120호 고인돌



寫眞 224. 2121호 고인돌



寫眞 225, 2122호 고인돌



寫眞 226, 2123호 고인돌



寫眞 227. 2124호 고인돌



寫眞 228. 2125호 고인돌



寫眞 229. 2126호 고인돌



寫眞 230. 2127호 고인돌



寫眞 231. 2128호 고인돌



寫眞 232. 2129호 고인돌



寫眞 233. 2130호 고인돌



寫眞 234. 2131호 고인돌



寫眞 235. 2132호 고인돌



寫眞 236. 2133호 고인돌



寫眞 237. 2134호 고인돌



寫眞 238. 2135호 고인돌



寫眞 239. 2136호 고인돌



寫眞 240. 2137호 고인돌



寫眞 241. 2138호 고인돌



寫眞 242. 2139호 고인돌



寫眞 243. 2140호 고인돌



寫眞 244. 2141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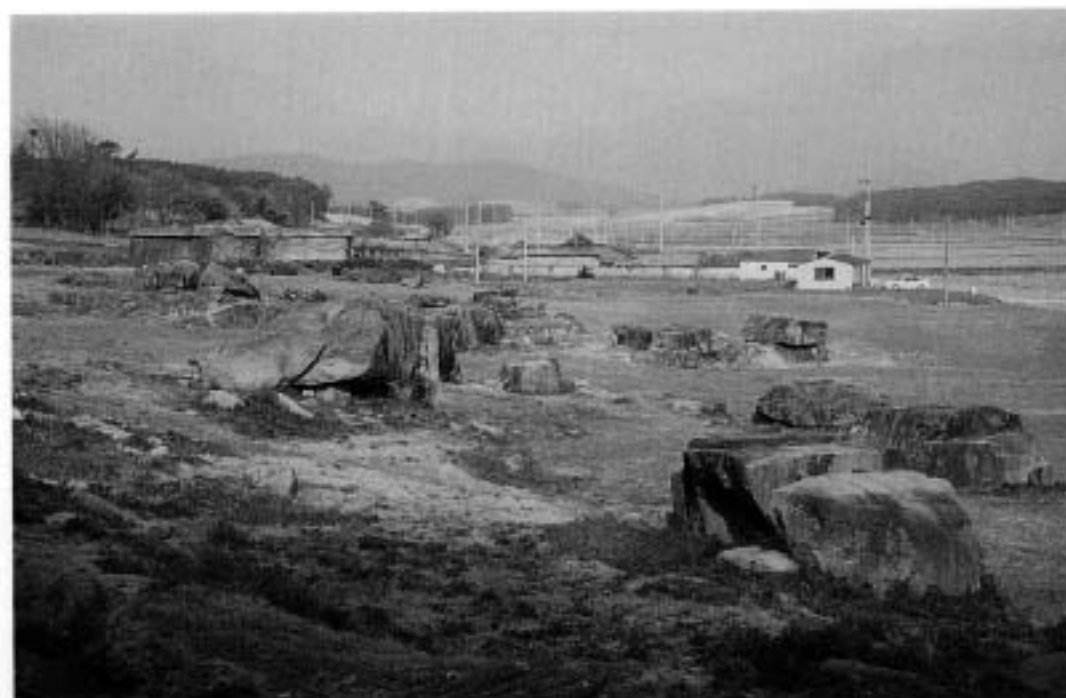
寫眞 245. 죽림리(2지구) 2·3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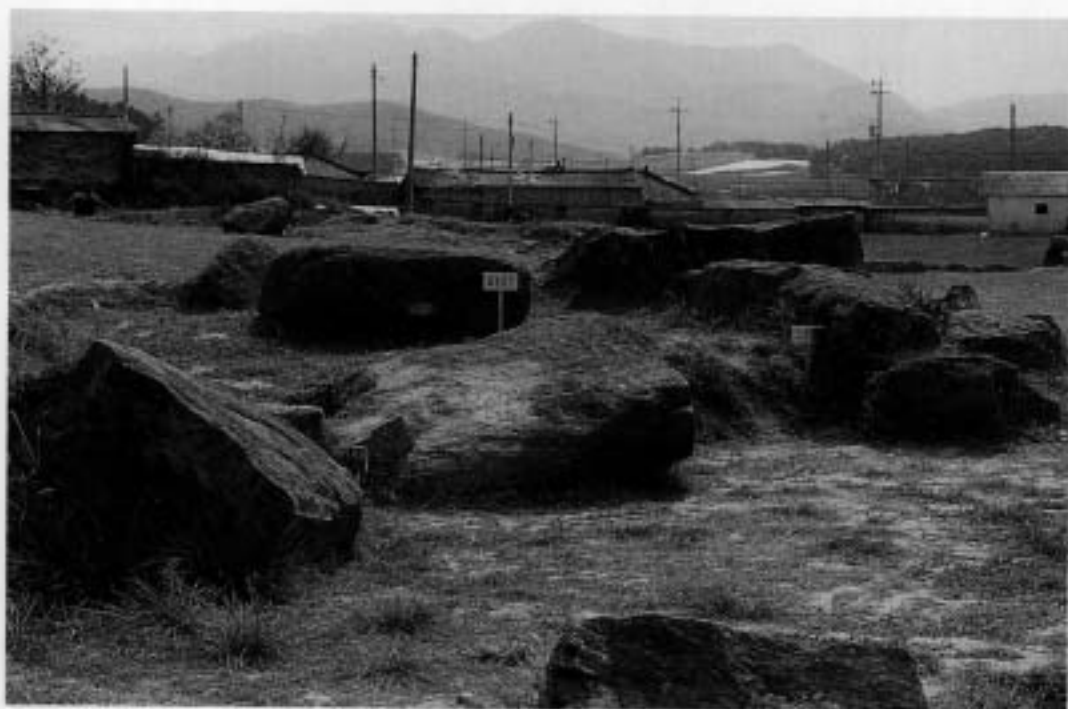
寫眞 246. 죽림리(2지구)2·3군 전경



寫眞 247.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寫眞 248.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寫眞 249.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寫眞 250. 죽림리(2지구) 2군 근경



寫眞 251. 2201호 고인돌



寫眞 252. 2202호 고인돌



寫眞 253. 2203호 고인돌



寫眞 254. 2204호 고인돌



寫眞 255. 2205호 교인돌



寫眞 256. 2206호 교인돌



寫眞 257. 2207호 고인돌



寫眞 258. 2208호 고인돌



寫眞 259. 2209호 고인돌



寫眞 260. 2210호 고인돌



寫眞 261. 2211호 고인돌



寫眞 262. 2212호 고인돌



寫眞 263. 2213호 고인돌



寫眞 264. 2214호 고인돌



寫眞 265. 2215호 고인돌



寫眞 266. 2216호 고인돌



寫眞 267. 2217호 고인돌



寫眞 268. 2218호 고인돌



寫眞 269. 2219호 교인돌



寫眞 270. 2220호 교인돌



寫眞 271. 2221호 고인돌



寫眞 272. 2222호 고인돌



寫眞 273. 2223호 고인돌



寫眞 274. 2224호 고인돌



寫眞 275. 2225호 고인돌



寫眞 276. 2226호 고인돌



寫眞 277. 2227호 교인돌



寫眞 278. 2228호 교인돌



寫眞 279. 2229호 고인돌



寫眞 280. 2230호 고인돌



寫眞 281. 2231호 교인돌



寫眞 282. 2232호 교인돌



寫眞 283. 2233호 고인돌



寫眞 284. 2234호 고인돌



寫眞 285. 2235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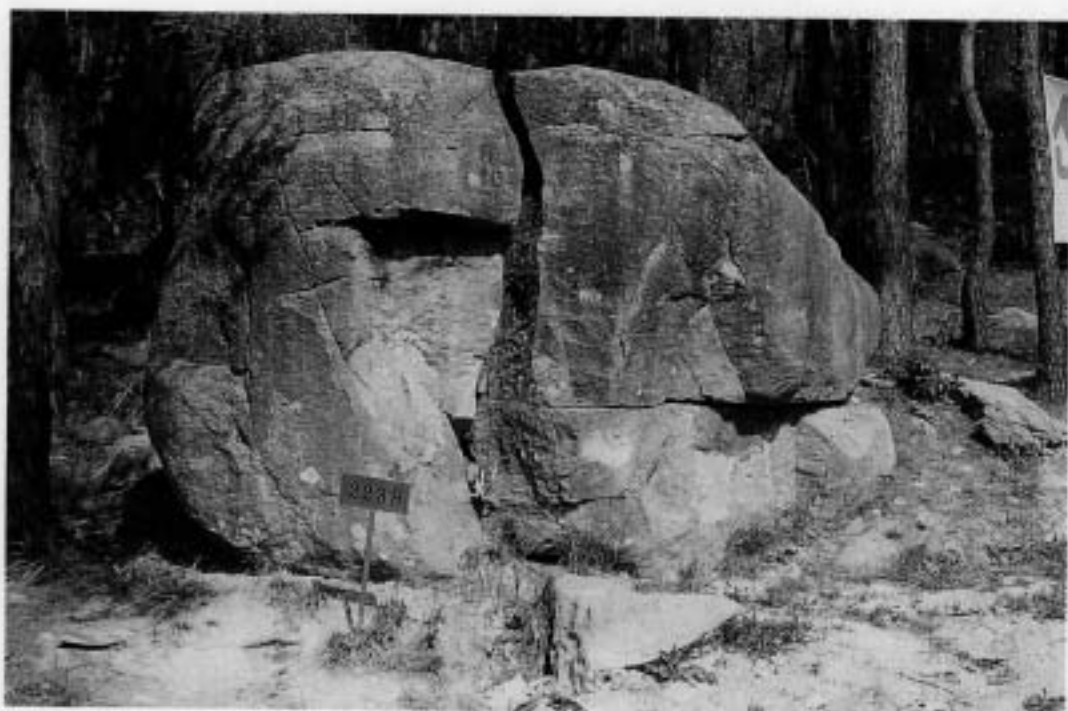
寫眞 286. 2236호 고인돌



寫眞 287. 2237호 고인돌



寫眞 288. 2238호 고인돌



寫眞 289. 2239호 고인돌



寫眞 290. 2240호 고인돌



寫眞 291. 2241호 교인돌



寫眞 292. 2242호 교인돌



寫眞 293. 2243호 고인돌



寫眞 294. 2244호 고인돌



寫眞 295. 2245호 고인돌



寫眞 296. 224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297. 2246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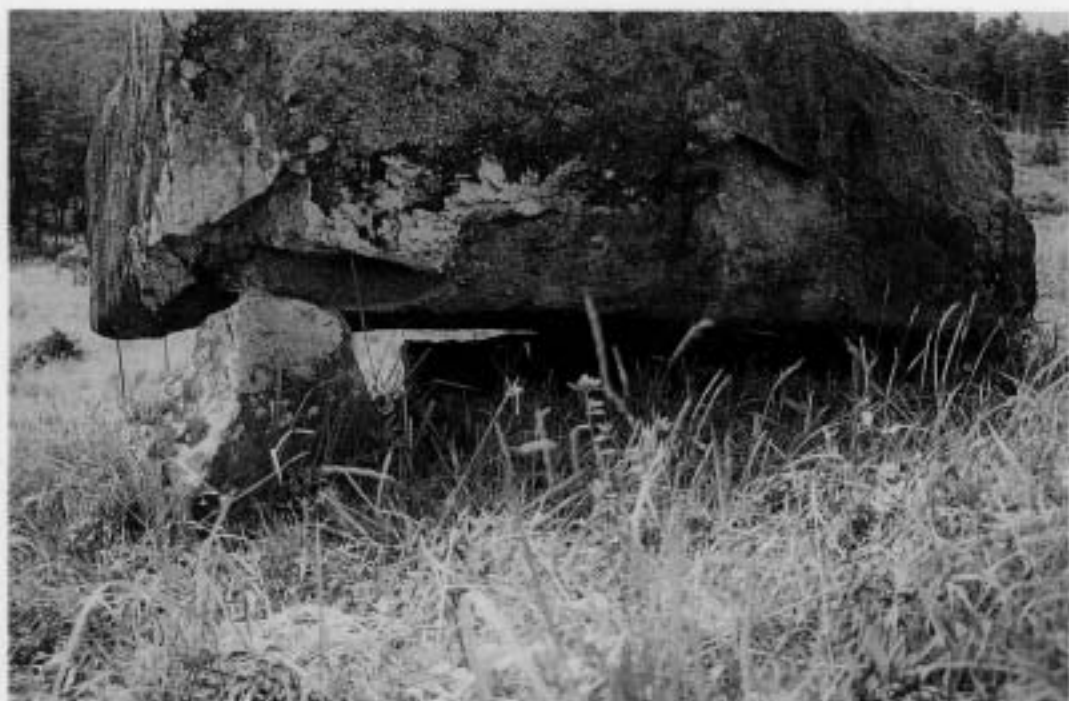
寫眞 298. 2247호 고인돌



寫眞 299. 2248호 교인돌



寫眞 300. 2249호 교인돌



寫眞 301. 224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대



寫眞 302. 2250호 고인돌



高眞 303. 2251호 교인돌



高眞 304. 2252호 교인돌



寫眞 305. 2253호 고인돌



寫眞 306. 2254호 고인돌



寫眞 307. 2255호 고인돌



寫眞 308. 2256호 고인돌



寫眞 309. 2257호 고인돌



寫眞 310. 2258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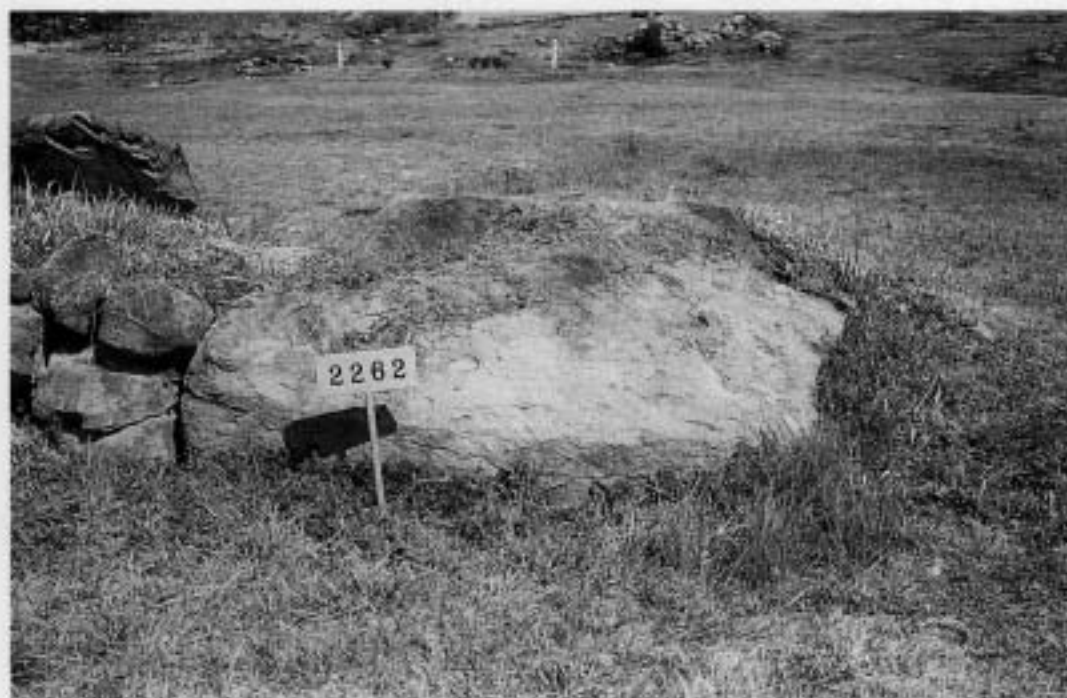
寫眞 311. 2259호 고인돌



寫眞 312. 2260호 고인돌



高眞 313. 2261호 고인돌



高眞 314. 2262호 고인돌



寫眞 315. 2263호 고인돌



寫眞 316. 2264호 고인돌



寫眞 317. 2265호 고인돌



寫眞 318. 2266호 고인돌



寫眞 319. 죽림리(2지구) 3군 전경



寫眞 320. 죽림리(2지구) 3군 전경



寫眞 321. 죽림리(2지구) 3군 근경



寫眞 322. 죽림리(2지구) 3군 근경



寫眞 323. 죽림리(2지구) 3군내 돌무더기



寫眞 324. 2301호 고인돌



寫眞 325. 2302호 고인돌



寫眞 326. 2303호 고인돌



寫眞 327. 2304호 고인돌



寫眞 328. 2305호 고인돌



寫眞 329. 2306호 고인돌



寫眞 330. 2307호 고인돌



寫眞 331. 2308호 고인돌



寫眞 332. 2309호 고인돌



寫眞 333. 2310호 교인돌



寫眞 334. 2311호 교인돌



寫眞 335. 2312호 고인돌



寫眞 336. 2313호 고인돌



寫眞 337. 2314호 고인돌



寫眞 338. 2315호 고인돌



寫眞 339. 2316호 고인돌



寫眞 340. 2317호 고인돌



写真 341. 2318호 교인돌



写真 342. 2318호 교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343. 2319호 고인돌



寫眞 344. 2320호 고인돌



寫眞 345. 2321호 고인돌



寫眞 346. 2322호 고인돌



寫眞 347. 2322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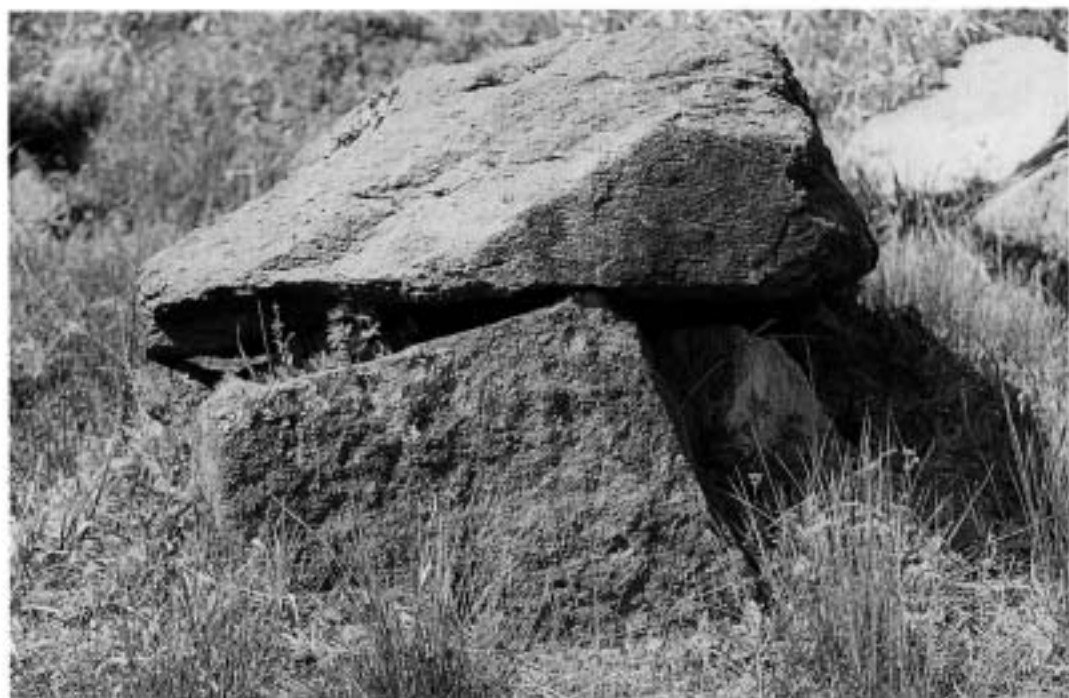
寫眞 348. 2323호 고인돌



真眞 349. 2324호 교인돌



真眞 350. 2325호 교인돌



寫眞 351. 232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352. 2326호 고인돌



寫眞 353. 2326호 고인돌 묘실 노출상태



寫眞 354. 2327호 고인돌



寫眞 355. 2327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356. 2328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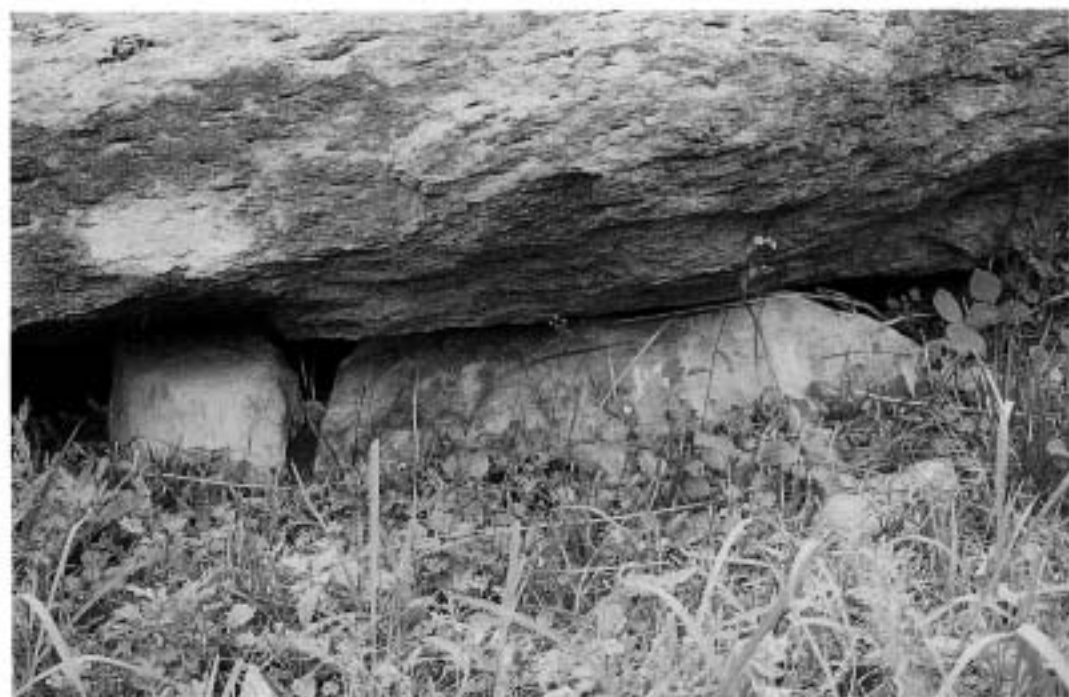
寫眞 357. 2329호 고인돌



寫眞 358. 2330호 고인돌



寫眞 359. 2331호 고인돌



寫眞 360. 2331호 지석 노출상대



寫眞 361. 2332호 고인돌



寫眞 362. 2333호 고인돌



寫眞 363. 2334호 고인돌



寫眞 364. 2335호 고인돌



寫眞 365. 2336호 고인돌



寫眞 366. 2337호 고인돌



寫眞 367, 2338호 고인돌



寫眞 368, 2339호 고인돌



寫眞 369. 2340호 고인돌



寫眞 370. 2341호 고인돌



寫眞 371. 2342호 교인돌



寫眞 372. 2343호 교인돌



寫眞 373. 2344호 고인돌



寫眞 374. 2345호 고인돌



寫眞 375. 2346호 고인돌



寫眞 376. 2347호 고인돌



寫眞 377. 2348호 고인돌



寫眞 378. 2349호 고인돌



寫眞 379. 2350호 고인돌



寫眞 380. 2351호 고인돌



寫眞 381. 2352호 고인돌



寫眞 382. 2353호 고인돌



寫眞 383. 2354호 고인돌



寫眞 384. 2355호 고인돌



寫眞 385. 2356호 고인돌



寫眞 386. 2357호 고인돌



寫眞 387. 2358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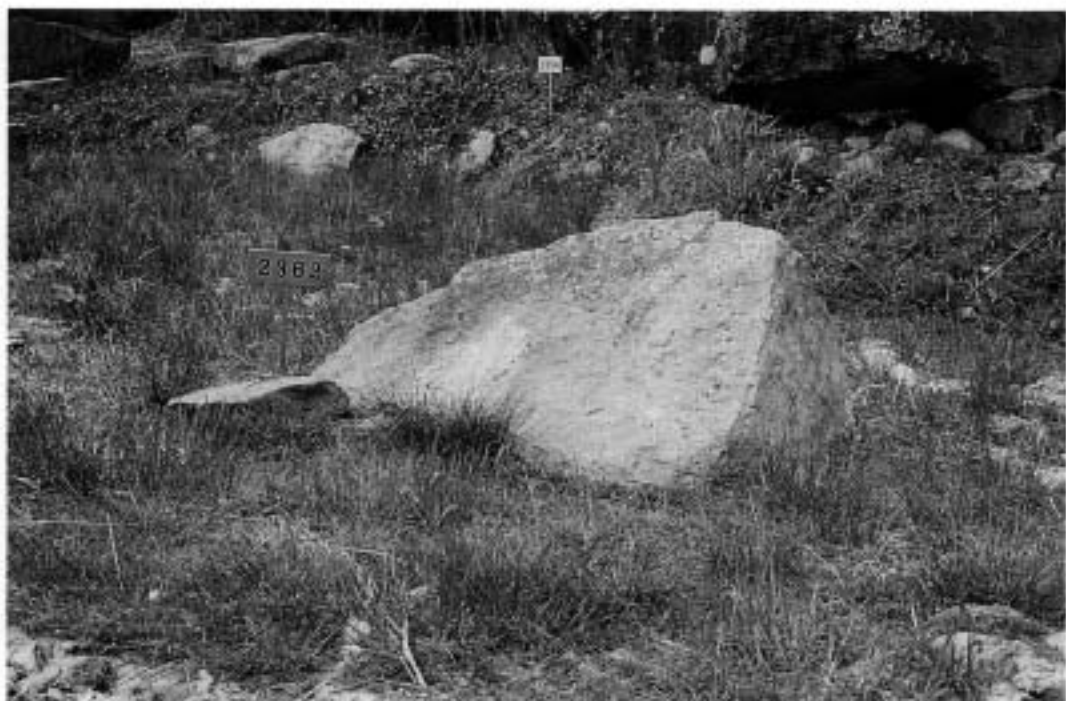
寫眞 388. 2359호 고인돌



寫眞 389. 2360호 고인돌



寫眞 390. 2361호 고인돌



寫眞 391. 2362호 고인돌



寫眞 392. 죽림리(2지구) 4군 전경



寫眞 393. 죽림리(2지구) 4군 전경



寫眞 394.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寫眞 395.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寫眞 396.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寫眞 397. 죽림리(2지구) 4군 근경



寫眞 398. 2401호 고인돌



寫眞 399. 2402호 고인돌



寫眞 400. 2403호 고인돌



高溪 401. 2404호 교인돌



高溪 402. 2405호 교인돌



寫眞 403. 2406호 고인돌



寫眞 404. 2406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05. 2406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06. 2407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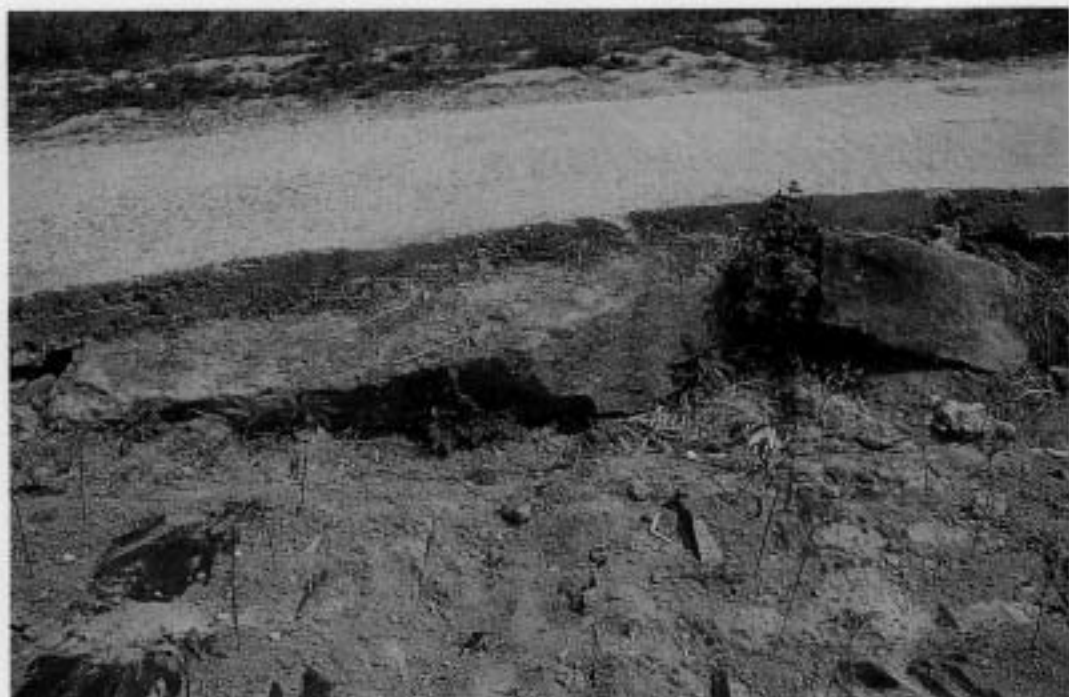
寫眞 407. 2408호 고인돌



寫眞 408. 2408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09. 2408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10. 2409호 고인돌



寫眞 411. 2410호 고인돌



寫眞 412. 2411호 고인돌



高眞 413. 2412호 고인돌



高眞 414. 2413호 고인돌



寫眞 415. 2414호 고인돌



寫眞 416. 2415호 고인돌



寫眞 417. 2416호 고인돌



寫眞 418. 2417호 고인돌



寫眞 419. 2418호 고인돌



寫眞 420. 2419호 고인돌



寫眞 421. 2419호 고인돌 상석 폐기흔적



寫眞 422. 241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23. 2420호 고인돌



寫眞 424. 2421호 고인돌



寫眞 425. 2421호 고인돌지석 노출상태



寫眞 426. 2422호 고인돌



寫眞 427. 2423호 고인돌



寫眞 428. 2424호 고인돌



寫眞 429. 2425호 고인돌



寫眞 430. 2426호 고인돌



寫眞 431. 2426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32. 2427호 고인돌



寫眞 433. 2428호 고인돌



寫眞 434. 2428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35. 2429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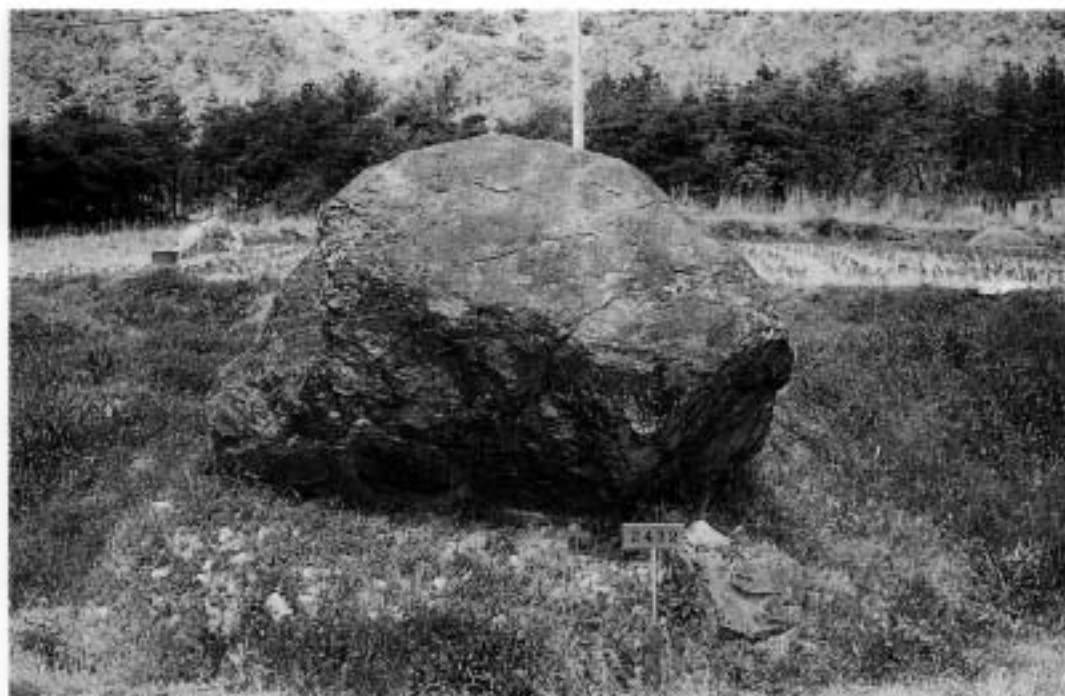
寫眞 436. 242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37. 2430호 고인돌



寫眞 438. 2431호 고인돌



寫眞 439. 2432호 고인돌



寫眞 440. 2433호 고인돌



寫眞 441. 2434호 교인돌



寫眞 442. 2435호 교인돌



寫眞 443. 2436호 고인돌



寫眞 444. 2437호 고인돌



寫眞 445. 2438-2441호 고인돌



寫眞 446. 죽림리(2지구) 5·6군 전경



寫眞 447. 죽림리(2지구) 5군 전경



寫眞 448. 죽림리(2지구) 5군 전경



寫眞 449.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寫眞 450.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寫眞 451.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寫眞 452.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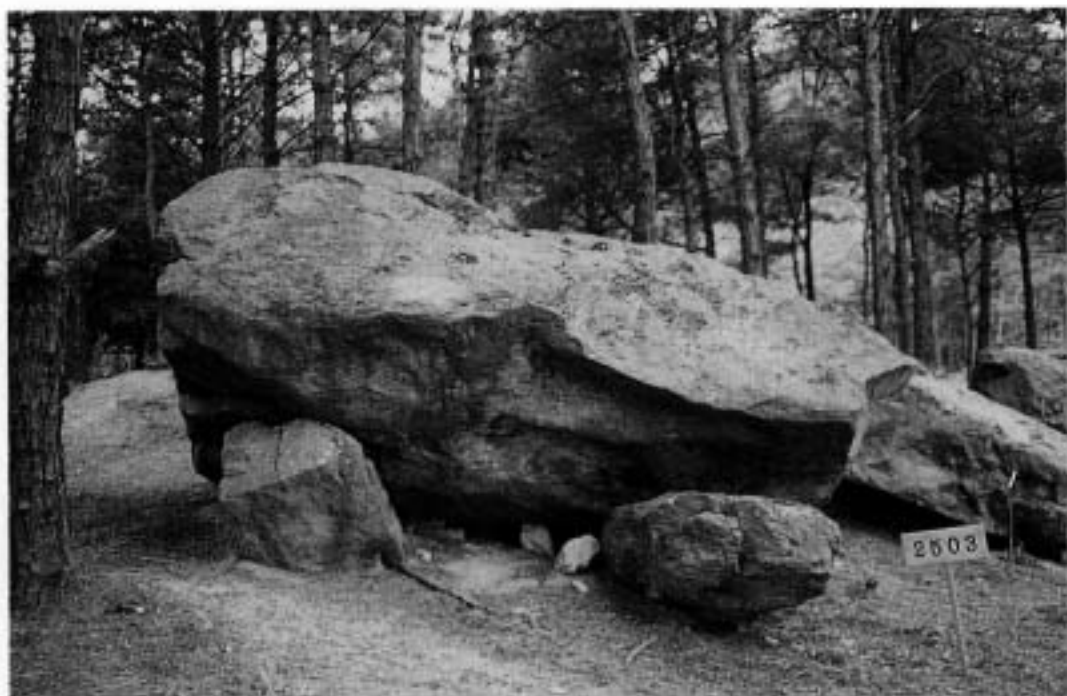
寫眞 453. 죽림리(2지구) 5군 근경



寫眞 454. 2501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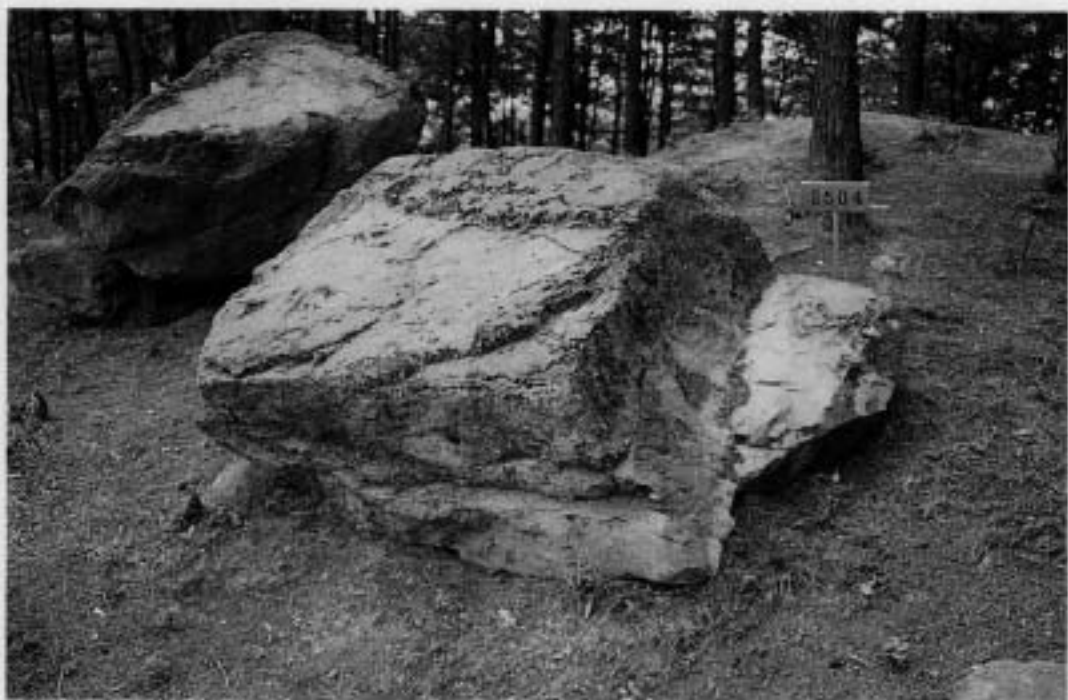
寫眞 455. 2502호 고인돌



寫眞 456. 2503호 고인돌



寫眞 457. 2503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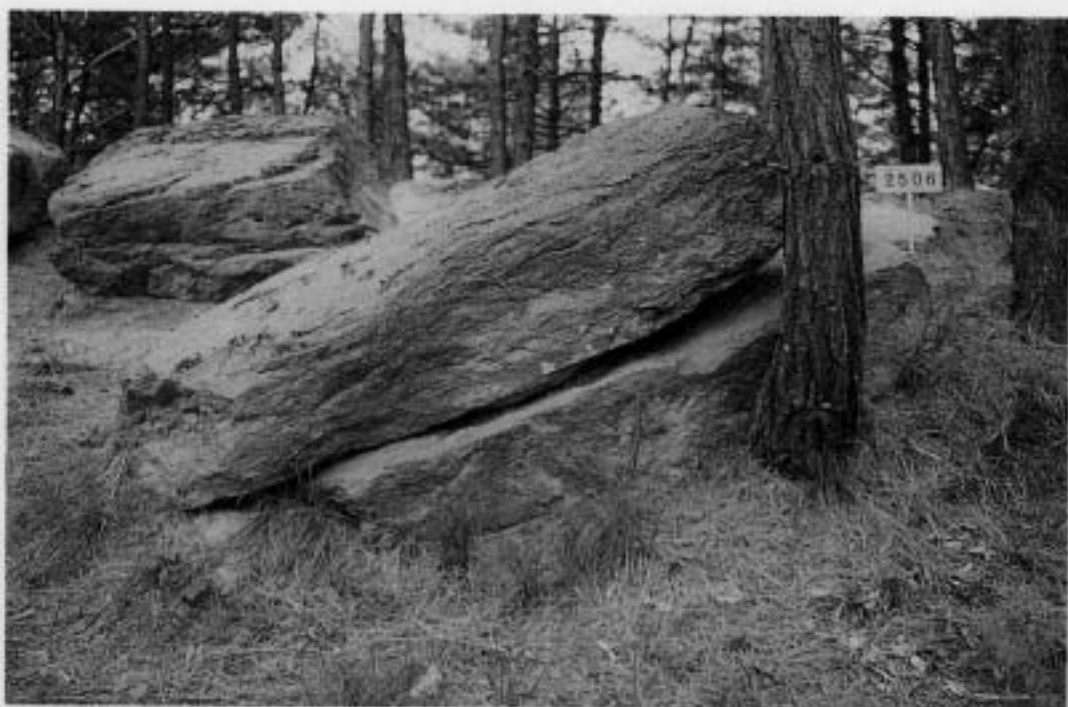
寫眞 458. 2504호 고인돌



寫眞 459. 2504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60. 2505호 고인돌



寫眞 461. 2505호 고인돌



寫眞 462. 2506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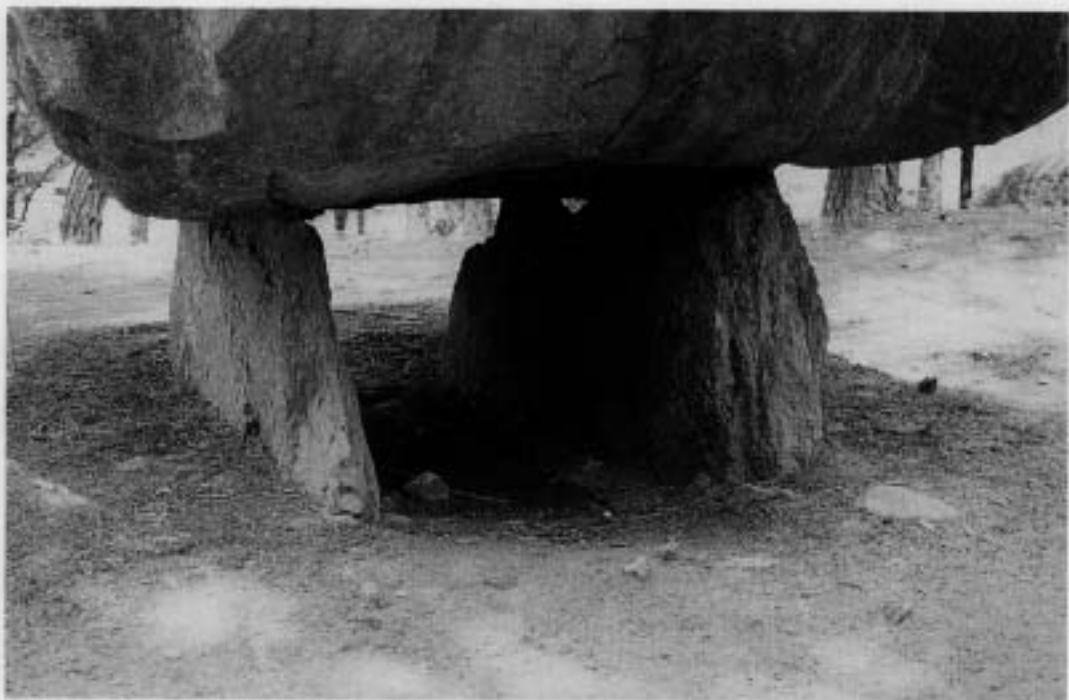
寫眞 463. 2507호 고인돌



寫眞 464. 2508호 고인돌



寫眞 465. 2509호 고인돌



寫眞 466. 2509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67. 2510호 고인돌



寫眞 468. 2511호 고인돌



寫眞 469. 2512호 교인돌



寫眞 470. 2512호 교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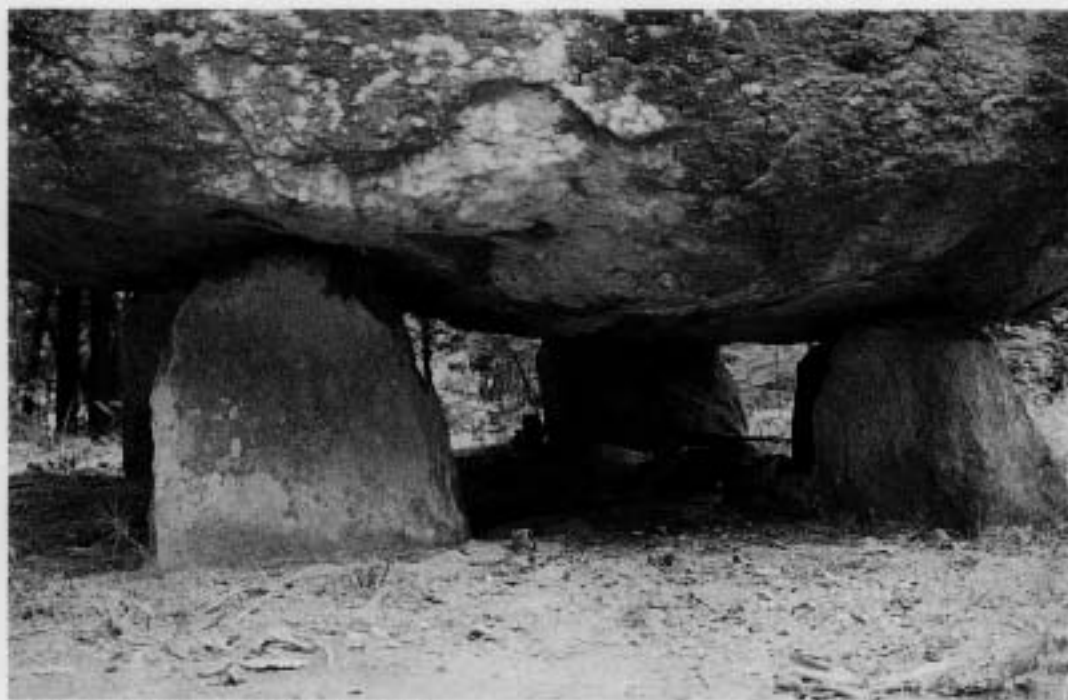
寫眞 471. 2512호 고인돌 지석·개석 노출상태



寫眞 472. 2513호 고인돌



寫眞 473. 2513호 고인돌



寫眞 474. 2513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475. 2514호 고인돌



寫眞 476. 2515호 고인돌



寫眞 477. 2516호 고인돌 훼손상태



寫眞 478. 2517호 고인돌



寫眞 479. 2518호 고인돌



寫眞 480. 2519호 고인돌



寫眞 481. 2520호 교인돌



寫眞 482. 2521호 교인돌



寫眞 483. 죽림리(2지구) 6군 전경



寫眞 484.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寫眞 485.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寫眞 486.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寫眞 487. 죽림리(2지구) 6군 근경



寫眞 488. 2601호 교인돌



寫眞 489. 2602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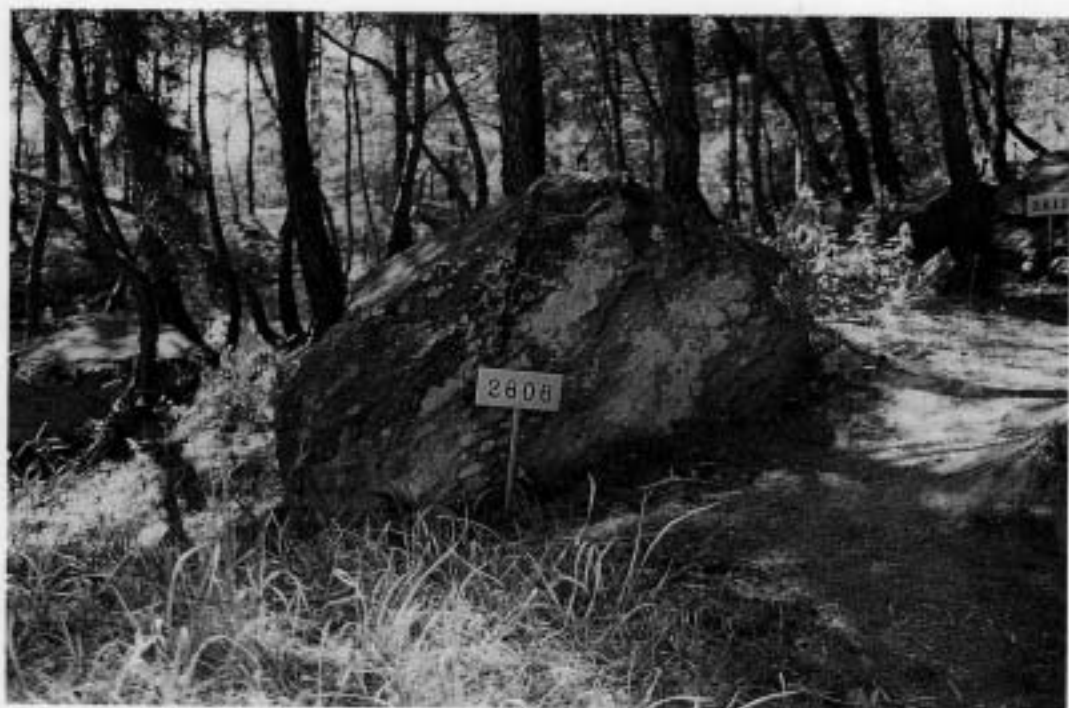
寫眞 490. 2603호 고인돌



寫眞 491. 2604호 고인돌



寫眞 492. 2605호 고인돌



寫眞 493. 2606호 고인돌



寫眞 494. 2607호 고인돌



寫眞 495. 2608호 고인돌



寫眞 496. 2609호 고인돌



寫眞 497. 2610호 고인돌



寫眞 498. 2611호 고인돌



寫眞 499. 2612호 고인돌



寫眞 500. 2613호 고인돌



寫眞 501. 2614호 교인돌



寫眞 502. 2615호 교인돌



寫眞 503. 2615호 고인돌 지석 노출상태



寫眞 504. 2616호 고인돌



寫眞 505. 2617호 고인돌



寫眞 506. 2618호 고인돌



寫眞 507. 2619호 고인돌



寫眞 508. 2620호 고인돌



寫眞 509. 2621호 고인돌



寫眞 510. 2622호 고인돌



寫眞 511. 2623호 고인돌



寫眞 512. 2624호·2625호 고인돌 훼손상태



寫眞 513. 2626호 고인돌



寫眞 514. 2627호 고인돌



寫眞 515. 2628호 고인돌



寫眞 516. 2629호 고인돌



寫眞 517. 2630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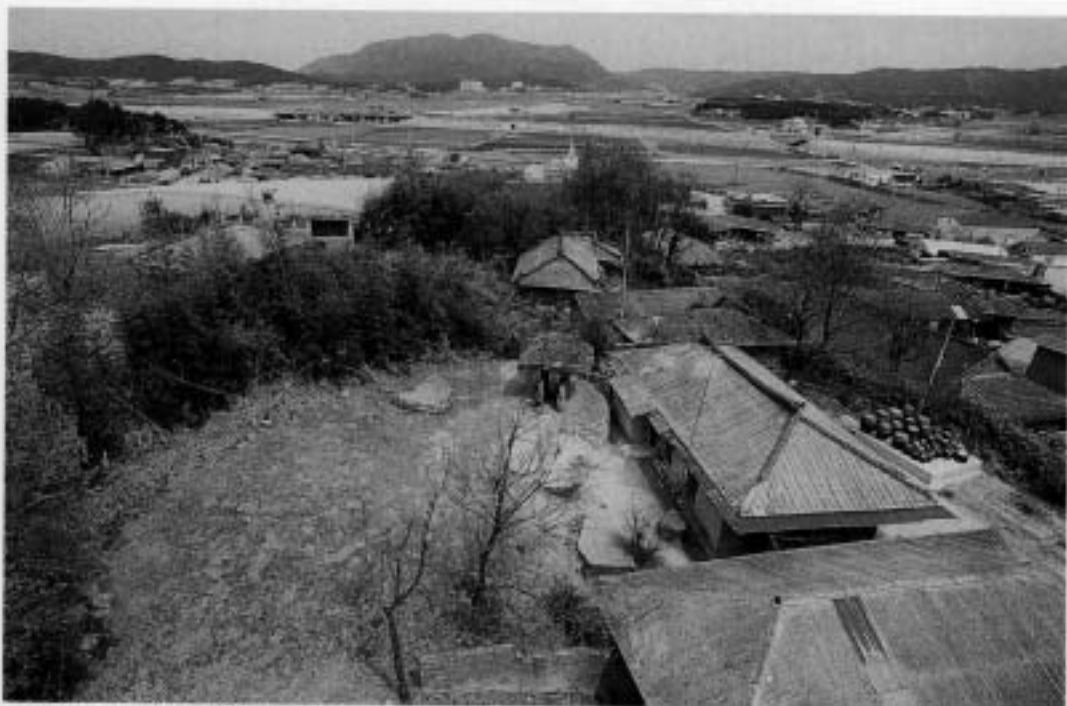
寫眞 518. 2631호 고인돌



寫眞 519, 2632호 고인돌



寫眞 520, 도산리 고인돌군 전경



寫眞 521. 도산리 고인돌군 근경



寫眞 522. 도산리 2443호 고인돌



寫眞 523. 도산리 2443호 노출상태



寫眞 524. 도산리 2443호 지석 고인 상태



寫眞 525. 도산리 2444호 고인돌



寫眞 526. 도산리 2445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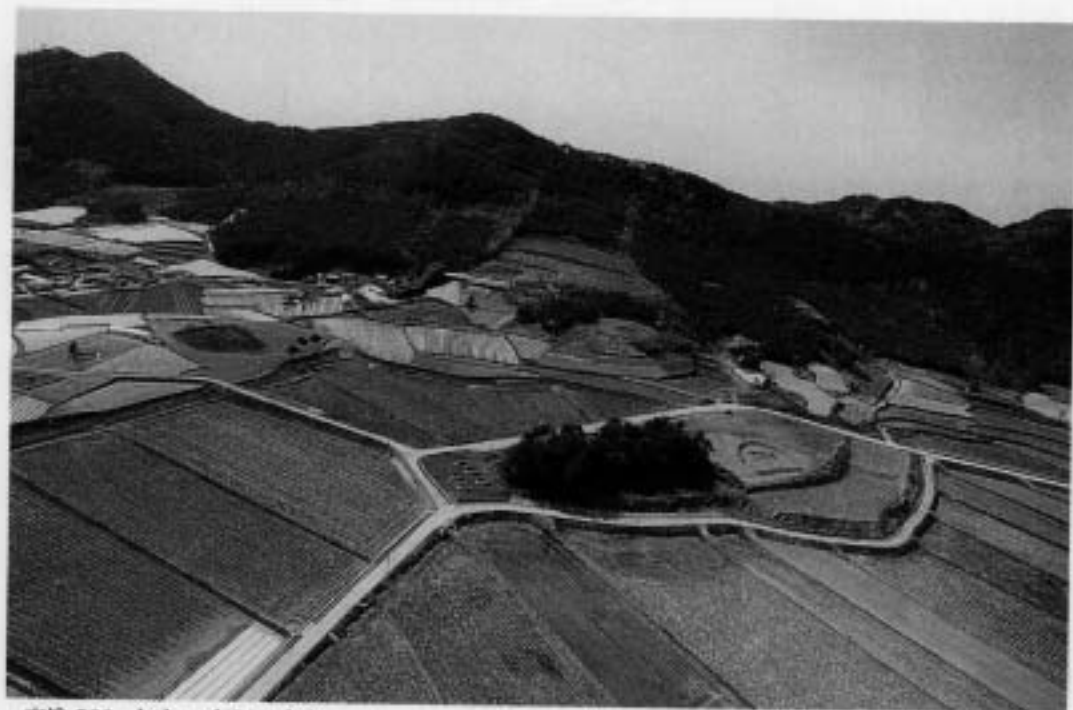
寫眞 527. 도산리 2446호 고인돌



寫眞 528. 도산리 2447호 고인돌



寫眞 529. 송암 고인돌군 전경



寫眞 530. 송암 고인돌군 전경



寫眞 531. 송암 고인돌 1군 전경



寫眞 532. 송암 고인돌 1군 근경



寫眞 533. 송암 1101호 고인돌



寫眞 534. 송암 1102호 고인돌



寫眞 535. 송암 1103호 고인돌



寫眞 536. 송암 1104호 고인돌



寫眞 537. 송암 고인돌 2군 전경



寫眞 538. 송암 고인돌 2군 근경



寫眞 539. 송암 2001호 고인돌



寫眞 540. 송암 2002호 고인돌



寫眞 541. 송암 2003호 고인돌



寫眞 542. 송암 2004호 고인돌



寫眞 543. 송암 2005호 고인돌



寫眞 544. 송암 2006호 고인돌



寫眞 545. 송암 2007호 고인돌



寫眞 546. 송암 2008호 고인돌



寫眞 547. 송암 고인돌 3군 전경



寫眞 548. 송암 고인돌 3군 전경



寫眞 549. 송암 3001호 고인돌



寫眞 550. 송암 3002호 고인돌



寫眞 551. 송암 3003호 고인돌



寫眞 552. 송암 3004호 고인돌



寫眞 553. 송암 3005호 고인돌



寫眞 554. 송암 3006호 고인돌



寫眞 555. 송암 3007호 고인돌



寫眞 556. 송암 3008호 고인돌



寫眞 557. 송암 3009호 고인돌



寫眞 558. 송암 3010호 고인돌



寫眞 559. 송암 3011호 고인돌



寫眞 560. 송암 3012호 고인돌



寫眞 561. 송암 3013호 고인돌



寫眞 562. 송암 3014호 고인돌



寫眞 563. 송암 3015호 고인돌



寫眞 564. 송암 3016호 고인돌



寫眞 565. 송암 3017호 고인돌



寫眞 566. 송암 3018호 고인돌



寫眞 567. 송암 3019호 고인돌



寫眞 568. 송암 3020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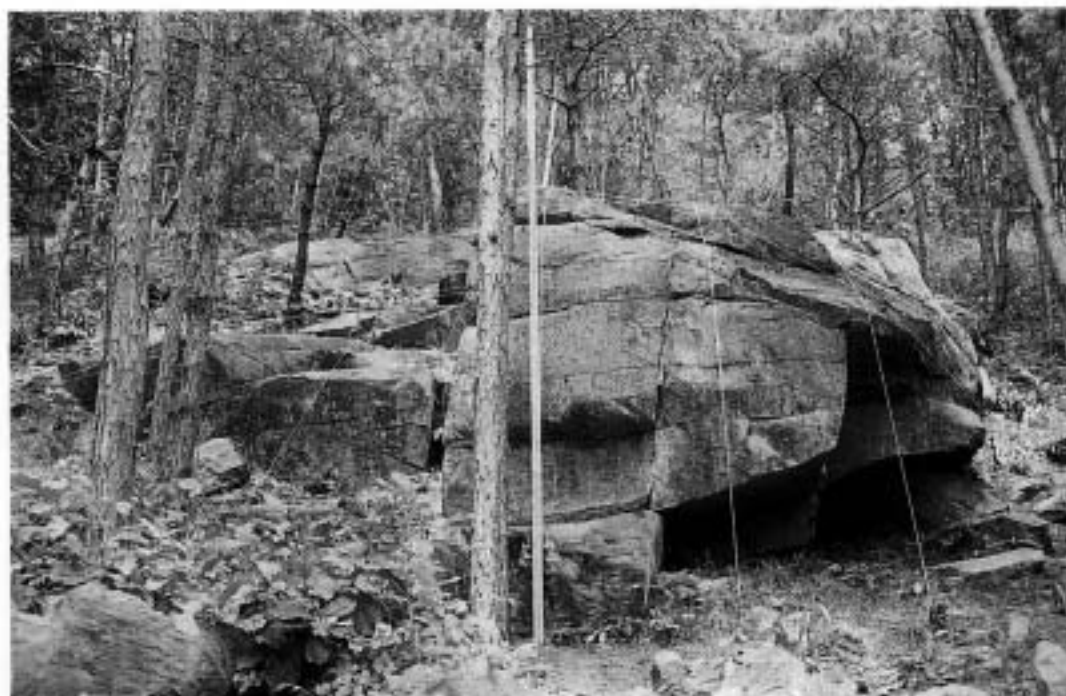
寫眞 569. 송암 3021호 고인돌



寫眞 570. 송암 3022호 고인돌



寫眞 571. 채석장



寫眞 572. 채석장



寫眞 573. 세석장



寫眞 574. 세석장



寫眞 575. 채석장



寫眞 576. 채석장



寫眞 577. 채석장



寫眞 578. 운곡리 고인돌 전경



寫眞 579. 운곡리 고인돌



寫眞 580. 서산성 전경



寫眞 581. 상갑리 고분군 전경



寫眞 582. 상갑리 M1호분 근경



寫眞 583. 상갑리 M1호분 노출상태



寫眞 584. 죽림리 고분군 전경



寫眞 585. 죽림리 1호분 근경



寫眞 586. 죽림리 2호분 근경



寫眞 587. 죽림리 2호분 노출상태



寫眞 588. 죽림리 3호분 근경



寫眞 589. 죽림리 4호분 근경



寫眞 590. 죽림리 5호분 근경



寫眞 591. 죽림리 5호분 노출상대



寫眞 592. 죽림리 6호분 근경

附 錄

韓國 支石墓의 特徵과 그 社會의 性格 / 427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 제4기 자연환경분석 연구 / 457

韓國 支石墓의 特徵과 그 社會의 性格

李榮文*

목 차

- I. 머리말 - 무덤의 의미
- II. 한국 지석묘의 특징
- III. 한국 지석묘 사회의 성격
- IV. 맺음말

I. 머리말 - 무덤의 의미

人間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通過하는 죽음은 生命의 斷絶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여러 儀式 行爲가 따르게 된다. 이는 通過儀禮 중 자신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치러진다. 被葬者에 대한 哀悼와 恭敬, 죽음에 대한 恐怖와 敬畏 등 살아있는 사람의 대처 방법이 행위 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社會的인 意味를 가지게 된다. 이 행위가 葬送儀禮이다. 이 의례는 時代·民族·地域·文化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時代와 民族의 死生觀과 祖靈觀 등 精神 生活과 社會相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덤은 被葬者가 속한 집단의 埋葬 風習과 함께 社會相이나 文化相 등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의 思想, 社會, 文化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墓制는 당시의 사람들의 信仰에 기초를 둔 社會的인 慣習의 하나이어서 保守的이고 끈질긴 傳統을 지니고 있어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무덤은 被葬者의 屍身이 묻힌 무덤의 표시로, 幽宅

* 木浦大學校 歷史文化學部 考古學專攻 教授

또는 聖域으로 생각하는 來世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무덤은 新石器時代부터 나타나지만 靑銅器時代에 와서 定形化되고 集團의으로 造營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靑銅器時代가 血緣을 중심으로 墓域을 造成하였기 때문에 祖上 崇拜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물증이기도 하다. 특히 支石墓의 축조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差別化를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協同精神에 의한 共同體社會였음을 말해준다. 支石墓의 上石에 대한 採石이나 運搬, 屍身이 安置되는 石室의 구축, 石室을 보호하기 위한 支石이나 墓域施設, 上石을 石室위로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支石墓가 축조된다. 이러한 각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儀禮行爲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儀禮行爲와 葬禮 節次에 대한 古代 文獻資料는 매우 빈약하여, 이를 考古學 資料를 활용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고고학 자료도 유구와 유물의 잔존 여부와 행위 지역의 추정 등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잔존된 물증으로는 파악되지만 有機物의 경우 殘存이 매우 어렵고, 人間 行爲와 精神의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잔존된 고고학 자료도 儀禮와 관련된 유물이 일상 生活用具와 구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동일 유물이라도 의례에 따라 그 用途가 달리 사용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무덤은 社會構造를 밝힐 수 있는 遺蹟이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人骨이나 石室 수와 구조, 출토 유물에 대한 研究는 당시 사람들의 키(身長), 家族構成員의 數, 무덤의 變遷을 통한 社會構造의 變化狀, 埋葬風習이나 葬法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思考方式이나 信仰體系 등 구체적인 사실들을 유추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무덤 연구는 주로 靑銅器時代 무덤 중 支石墓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石棺墓나 甕棺墓, 土壙墓는 거의 자료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곳에서 지식묘 이외의 다른 무덤들도 발굴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무덤은 住居址나 生活空間 등 生活遺蹟이나 논·밭자리, 사냥과 고기잡이 같은 生産遺蹟, 豐饒와 多産을 바라거나 의례 행위의 所産인 祭祀遺蹟과 함께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先史時代의 埋葬 風習은 人骨 출토로 알 수 있는데, 人骨 자료를 통해 埋葬方法 뿐 아니라 性別, 나이, 營養 및 疾病 상태 등을 推論할 수 있다. 人骨의 분석으로 種族이나 血緣, 親疎關係 등을 규명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당시의 社會 性格을 아는 데 중요한 端緒가 된다. 즉, 주로 埋葬遺蹟에서 출토되는 人骨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當時人들의 營養狀態와 食糧供給에 관한 證據들을 찾아낼 수 있고, 人骨 출토 遺構와 遺蹟을 통해 社會制度의 性格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土壤이 대부분 酸性을 띠고 있기 때문에 人骨의 잔존한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러나 알카리성을 띤 貝塚 안에서는 人骨이 酸性 땅과의 融和作用으로 인하여 비교적 잘 保存되어 있다. 이 경우와 江邊의 건조한 모래땅이나 砂漠, 항상 濕氣가 있으면서 密閉된 공간이 마련된 灰隔墓 같은 遺構, 수분이 늘 유지되는 늪지에서도 人骨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先史時代의 무덤에서의 人骨의 출토 예가 극히 일부 자료만 알려지고 있어, 무덤의 構造와 立地, 群集狀態, 出土遺物 등을 주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Ⅱ. 韓國 支石墓의 特徵

1. 支石墓의 立地 地形

支石墓는 강가의 平地나 丘陵, 산기슭, 고개마루 頂上部 등 모든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우리 生活과 밀접한 곳에 만들었다. 하지만 무거운 돌을 運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위를 구하기 容易한 곳에 자리하며, 사람들이 活動하는 範圍안에서 자주 오가는 길목에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위에 山이 있고 그 사이에 비교적 넓은 平地가 있는 盆地形인 곳에 많이 보이고 있어 先史人들도 일정한 生活領域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 平地 立地

支石墓가 평지에 분포한 경우는 넓은 平野地帶의 평지나 하천을 낀 山岳地帶의 협소한 溪谷平地 또는 강변 堆積平地에 분포되어 있다. 주변에 廣闊한 평지나 低平한 구릉이 전개된 평야지대의 평지에 분포된 支石墓는 그리 많지 않고, 山과 隣接된 구릉의 斜面아래 평지나 산기슭하의 평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峽谷 平地는 평야지대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형성된 계곡 평지와 산악지대의 강변 퇴적평지로 나누어지는데, 평지에 위치한 支石墓들은 대부분 협곡평지에 분포하고 있다. 입지 지역 중에서 평지가 가장 많은 墓地로 택하였는데, 支石墓는 江이나 河川의 흐름과 나란하게 列지어 있다. 이는 당시 사회가 農耕地나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그들의 住居 領域을 마련하고 그와 가까운 곳에 墓를 조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평지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支石墓 상

석을 구하기 쉽고 또 上石 運搬 등 축조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산에 인접된 平地나 丘陵과 인접한 곳을 택하였다.

2) 丘陵 立地

丘陵上에 分布된 支石墓는 산줄기에서 細長하게 뺀내린 구릉과 평야지대의 低平한 구릉으로 나눌 수 있다. 細長한 丘陵은 대개 山岳地帶나 산에서 뺀은 地形에 많고, 臺地上 구릉은 산기슭하의 평탄면을 이룬 河岸段丘上과 주변 평지 보다 한 단 높은 저평한 구릉이나 산기슭하 扇狀地와 같은 넓은 평탄면을 이룬 곳이다. 支石墓의 분포는 低平한 구릉지대에서는 그리 많이 發見되지 않고, 대부분 山과 隣接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구릉에 위치한 支石墓의 群集 配置는 구릉 方向으로 열을 지어 있는 것과 反對 方向으로 열을 지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 丘陵方向이다.

3) 고개마루

支石墓가 고개마루에 있는 경우는 山마루와 丘陵마루로 나누어진다. 산마루는 비교적 높은 地形으로 양쪽의 傾斜가 심하며, 구릉마루는 세장한 구릉의 끝에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으로 밋밋한 傾斜面을 이루고 있다. 이의 지형은 모두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주 通行하던 交通路 역할을 한 길목에 해당된다. 이 支石墓群들이 있는 고개 양쪽지역의 평지나 구릉상에 支石墓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支石墓 집단들의 활동지역에 그들의 墓域을 조성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立地 選定에서 그들의 活動 領域안에서 일정한 입지를 묘역으로 택한 것을 의미하며, 생활과 밀접한 곳에 支石墓를 축조하였던 것이다.

4) 산기슭

산기슭에 위치한 支石墓는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傾斜面 또는 산중턱과 산기슭에 형성된 臺地上에 분포하고 있다. 산줄기하의 사면은 평지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전체적으로 경사져 있으며, 산기슭하 대지상은 구릉 잔등이 없이 평탄면을 이루고 있지만 평지보다 한 단 높은 지형이다. 산기슭에 위치한 支石墓들은 산줄기 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입지에서는 1기만 存在한 경우도 있다. 이 支石墓 주변에서 보이는 支石墓와는 달리 규모가 큰 碁盤式으로 잘 정제되어 있고, 약간 높은 대지상에 조성한 것은 무덤이라기 보다는 祭壇의 性格이 강한 느낌을 준다.

2. 支石墓의 外形의 形態와 構造

1) 外形의인 分類

支石墓의 모양은 각 地域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이는 각 지역마다 傳統과 獨自의인 文化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支石墓의 외형적인 형태는 크게 卓子式, 碁盤式, 蓋石式 등 3종류가 있다. 이 形態는 地域의인 名稱인 北方式과 南方式 또는 오덕형과 침촌형, 목방형으로, 形態上으로는 卓子式과 碁盤式, 石室의 位置로는 地上形과 地下形으로 대별하고, 碁盤式은 支石의 有無로 支石式과 無支石式, 또 上石이 石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서 들린형과 놓인형 또는 離地形과 接地形으로 분류하는 등 학자들마다 달리하여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1) 卓子式 支石墓

卓子式 支石墓는 잘 다듬어진 判釋 3매 또는 4매로 ㄷ자나 ㄱ자로 짜맞춘 石室을 地上에 축조하고 그 위에 扁平하고 거대한 板石狀의 上石을 얹어놓은 마치 卓子나 책상모양 形態이다. 이는 遼寧地方과 北韓地域에 많이 보이는 형태이어서 北方式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發掘地域의 名을 따라 오덕형이라 하며, 中國에서는 石棚이라 부른다. 卓子式 중 길이가 8m 이상이고 폭이 5m 이상, 높이 2m 이상인 超大型級의 支石墓는 遼東半島와 韓國 大洞江流域에서만 나타나고 丘陵이나 산중턱에 1기씩만 있는 것이 特徵이다. 黃海 恩栗의 관산리 支石墓는 표고 80m의 野山 頂上部에 1기만 있고 支石墓 주위를 사방 3.5m 너비로 65cm 정도 돌운 위에 築造하였다. 이 支石墓의 上石은 길이 8.75m, 너비 4.5m, 두께 0.31m이며, 지상의 石室은 길이 330cm, 너비 140cm, 높이 215cm이다. 이 支石墓는 3매의 板石만으로 石室을 지상에 만들어 上石을 받치고 있고, 한쪽 면은 出入이 용이하게 組立한 構造이다. 南韓地域의 卓子式은 長壁石 2개만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한쪽 또는 양쪽 마구리 역할을 한 板石은 무너져 있거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石室을 이룬 판석은 위의 上石을 支撐할 수 있는 두께가 20cm 이상으로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의 卓子形 支石墓는 대개 3~4m의 크기의 上石 밑의 石室 높이도 1m 이내로 낮아지고, 上石도 1m이상으로 두터워지며, 약간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있다. 즉 支石墓의 규모가 작고 石室 폭도 좁아지고 있다. 南韓地方에서는 江華 부근리 卓子式이 최대의 규모인데, 上石 크기는 길이가 650cm, 너비가 520cm, 두께가 120cm이며, 지상에서의 전체 높이는 260cm이다. 支石은 양쪽 장벽만 남아있고 현재 양끝의 마감돌은 없어지고 좌우만 남아 있다. 全北 高敞 道山里 卓子式 支石

墓는 북한지역의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 支石墓는 길이 3.5m, 너비 3.1m, 두께 38cm로 두께가 매우 얇은 板狀石의 上石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 2개의 長壁石이 지상에서 1.8m 높이로 고인 형태이다. 全南 羅州 會津 支石墓는 會津土城 안의 조그마한 盆地地形 계곡 끝 사면에 위치하며, 현재 3개의 壁石만 남아있고, 영산강이 바라다 보이는 앞쪽 1매가 開放되어 있다. 上石은 길이 4.1m, 너비 2.4m, 두께 0.9m이며, 石室은 길이 2.0m, 너비 1.0m, 지상의 높이가 0.85m이다. 이러한 卓子式 支石墓는 남쪽으로 올수록 分布 양상이 稀薄해지고, 上石도 碁盤式과 같이 두터워지며 支石도 1m 이내로 매우 낮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南限界線은 慶南 거창과 全南 영암·강진을 이은 선이다.

(2) 碁盤式 支石墓

碁盤式 支石墓는 板石을 세우거나 割石, 自然石으로 쌓은 石室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支石을 4개에서 8개정도 놓고 그 위에 커다란 上石로 덮어 마치 바둑판모양의 형태이다. 外形上 지표면에서 들려져 있어 雄壯하게 보인다. 이 碁盤式 支石墓는 上石이 거대하고 괴석상을 한 大形들은 湖南과 嶺南地方에서만 보이고 뚜렷한 石室이 없는 것이 많다. 북한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형식이다. 그래서 南方式 支石墓라고 한다. 규모가 큰 碁盤式 支石墓는 산기슭이나 구릉상, 계곡 끝 평지에서 1기씩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支石墓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가운데에 있거나 얼마간 떨어져 獨立인 位置에 있다. 이런 支石墓는 대개 길이가 3~6m, 두께도 2~4m에 속한 上石이 달걀처럼 둥그스런 형태와 각 면들이 반듯하게 잘려진 直六面體의 외형을 보이고 있다. 큰 것은 全南 和順 대신리처럼 길이가 7m 이상에 두께와 너비가 4m 이상으로 上石 위가 人字形을 하여 마치 지붕을 연상케 하는 형태도 있다. 이런 支石墓는 거의 石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集團의 公共 目的으로 建立된 祭壇과 같은 紀念物로 보고 있다. 全南 麗水 적량동이나 慶南 昌原 덕천리처럼 石室이 나타난 경우는 靑銅器나 石劍, 石鏃 등 身分을 象徵하는 유물이 副葬되기도 하여, 당시의 支配者級의 무덤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上石 길이가 1~2m의 소형으로 수개의 支石이 고이고 있는 支石墓는 큰 碁盤式이나 蓋石式 支石墓 주위에 있으면서 뚜렷한 石室을 갖추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有溝石斧나 三角形石刀, 돌 漁網錘 등이 부장된 경우가 많다. 이 형태의 支石墓는 支石의 배치상에서 소위 圍石形 石室으로 보고 있다. 소형의 上石 규모면이나 支石의 배치 등은 日本의 支石墓와 매우 흡사하다.

(3) 蓋石式 支石墓

蓋石式 支石墓는 지하에 만든 石室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이다. 支石이 없이 바로 石室을 덮은 것에서 蓋石式을 無支石式, 뚜껑식, 大石蓋墓 등으로도 불리운다. 이 형식에서는 거의 돌로 만든 石室이 확인되고 있어 원래 무덤의 機能으로 축조된 것이다. 遼東半島, 韓半島, 日本 九州地域 등 널리 분포하고 있어 支石墓 형태 중에서도 가장 普遍的인 무덤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上石의 형태에 있어서도 板石形, 직육면체인 長方形, 볼록렌즈형태의 長橢圓形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북쪽 지역에서는 上石 두께가 얇으나 남쪽에서는 얇은 판상석도 있지만 대체로 두터워지는 傾向이 있다. 支石墓에서 출토되는 遺物도 대부분 이 형태에서 出土된 것들이다.

(4) 濟州式 支石墓

위의 세가지 형태 이외에 濟州式이라 할 수 있는 濟州地域에서만 나타난 獨特한 構造를 가진 支石墓가 있다. 이 형태는 石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10여 매 내외의 板石이 上石의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진 세워진 형식이다. 地上에 드러난 板石들의 수가 적게는 6매 이상으로 上石의 平面 형태와 유사하게 石室형태를 하고 있어 대개 橢圓形이나 方形에 가까운 石室형태가 특징이다. 이는 長方形이 기본 형태인 다른 地上 石室과는 根本的인 差異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濟州 용담동(오라리) 4호 支石墓로, 板石 11매가 上石을 따라 타원형상으로 둘러져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제주도에서만 보이는 형태이나 全南·北 또는 中國 浙江省地域에서도 유사한 石室 구조가 발견되고 있다.

2) 下部構造의 類型과 그 特性

支石墓의 上石 아래의 下部構造는 支石·墓域施設(積石)·蓋石·石室·바닥석(屍床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支石

支石은 上石을 받치고 있으면서 下部構造가 破壞되는 것을 防止해 주고, 上石을 더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外形的인 형식 分類의 대상으로 碁盤式 支石墓의 기본 요소이다. 支石은 上石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이 형태는 기둥모양을 한 柱形과 등글거나 입방체를 한 塊石形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柱形 支石은 높이가 50cm 이상으로 3~6개가 있지

만 기본이 4개가 上石을 고이고 있다. 이 형태의 支石은 全北 高敞地方과 全南의 靈光, 咸平 등 주로 전남 西北部에서 유행하는 地域的인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이 支石을 한 支石墓에서는 石室이나 유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무덤 이외의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塊石形 支石은 모나지 않은 둥그스런 球形에 가까운 자연석과 다듬어진 입방체 형태를 한 것이 있는데, 대형인 것과 소형인 것으로 구분된다. 소형에서는 모두 자연석을 이용하고 있다. 支石의 크기는 上石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塊石形과 長橢圓形의 한 거대한 上石에는 대형만을 고이고 있어 上石의 무게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支石을 택하였다. 그리고 형태상에서도 上石의 형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支石의 수는 4~6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7~14개까지 보이고 있다. 支石 수가 많은 것은 沖積 臺地로 基盤이 단단하지 않는 지형에서 나타나고, 모두 石室이 확인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 墓域施設

墓域施設은 石室 주위에 長方形이나 橢圓形 또는 圓形으로 납작한 돌을 깔거나 작은 할석들을 쌓은 것이다. 이는 무덤의 領域을 區劃한 것으로 墓域 役割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埋葬主體部인 石室을 무거운 上石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조성된 方法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납작하고 편평한 자연석이나 편석을 정연하게 깎은 것(數石)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석 또는 할석으로 두겹 이상 쌓은 것(積石)이 있다. 數石施設은 石室 주위에 편평한 돌을 長方形이나 圓形으로 한 겹으로 깔아놓아 묘역을 구획하였음을 보여준다. 가장자리의 돌은 크기나 형태에서 차이나게 정제된 돌이나 좀더 큰 돌로 처리하였다. 이 시설은 주로 全南과 慶南 등 南部地域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土器 조각들이 흩어진 상태로 收拾되고 있어, 支石墓가 축조한 후에도 地上에 드러나 있었으며, 支石墓에 대한 祭儀 行爲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積石施設은 石室 주위에 넷돌이나 조그만 할석들로 쌓아 축조한 것이다. 이 형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여러 기의 石室을 하나의 積石으로 넓은 범위를 이룬 것인데, 遼東半島地域과 北韓, 漢江流域, 洛東江流域, 慶南 南海岸地域, 錦江 상류의 용담댐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北韓에서 침촌형 支石墓의 가장 큰 특징이다. 南韓地方에서는 각각 石室에 墓域施設한 것을 連接한 경우가 많다. 다른 것은 하나의 石室 주위에만 넷돌과 割石으로 된 積石이 있는 것으로, 그 가장자리에 보다 큰돌로 長方形으로 區劃한 후에 石室쪽이 약간 높게 쌓은 것이다. 이러한 墓域施設들은 모든 支石墓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만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支石墓는 石

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뚜껑돌 주위에 간단히 둘러놓은 것들이다. 묘역시설 중 두개의 支石墓의 묘역시설이 서로 잇대어 있는 것은 각각에 묻힌 被葬者들이 血緣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형태 중 주목되는 것이 全南 宝城 시천리 支石墓로 서로 잇대어 8자형 楕圓形 묘역을 조성하고 그 안에 3기의 石室을 만들었다.

(3) 뚜껑돌(蓋石)

뚜껑돌은 長方形의 石室 위를 덮은 시설인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모두 板狀石을 같은 돌만이 남아 있다. 이는 埋葬 空間을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石室과 被葬者의 屍身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모든 石室 위에 뚜껑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나무뚜껑(木蓋) 등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일부 石室 상면에 짙은 통나무를 가로지른 흔적이 보이는 것도 있다. 뚜껑돌은 4~6매의 板狀石의 돌을 덮은 것과 1매의 板石으로 덮은 것이 있다. 대부분의 뚜껑돌은 수 매의 판상석을 겹치고 그 빈공간을 잔돌들로 밀폐시켜 놓은 형태이다. 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漢江 以南地域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뚜껑돌 頻度數가 높아지며 전남 宝城江流域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다. 나무뚜껑으로 추정되는 양상은 石室 내부 상층에서 잔자갈이나 할석들이 다수 나타난 경우인데, 나무널 또는 나무뚜껑이 부식되면서 위를 덮어진 돌들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石室(墓室)

石室은 支石墓 하부구조 중에서 被葬者가 직접 안치되는 埋葬主体部를 이룬다. 이는 支石墓의 형식을 세분할 때 基本이 되고 있다. 石室도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石棺形(돌널형), 石槨形(돌덧널형), 圍石形(돌돌림형), 土壙形(구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石棺形은 長方形의 石室을 5cm 내외의 얇은 板石 수매로 짜 맞춘 형식으로, 각 壁石을 1매씩 한 것과 長壁石을 2매 또는 그 이상 판석을 잇대어진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石棺墓(돌널무덤)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무덤간에 親緣性은 매우 깊다. 規模는 보통 길이가 140~150cm, 너비가 40~50cm로 屈葬(굽혀묻기)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人骨이 출토된 경우도 屈葬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길이가 1cm 미만인 소형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地域的으로 유행도의 차이가 있다. 즉 平安·黃海道地方의 蓋石式 支石墓의 石室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漢江流域과 全南 榮山江流域, 全北 高敞, 慶北地方 등지에서도 상당수의 支石墓 석실로 축조된다. 하지만 慶南地方과 전남의 宝城江流域·南海岸地域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다. 이러한 석관형 석실중에서도 副葬遺物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즉 漢江流域과 경북 洛東江流域에서는 유물이 副葬되나 全北·全南地方에서는 유물이 副葬되는 예가 드문 것이 特徵이다.

석곽형은 할석이나 납작한 자연석 등을 쌓아서 축조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목방형의 기본 요소이다. 이 석곽형은 크기가 석관형과 같은 규모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넓고 길이가 긴 것도 많이 있다. 대개 길이가 150cm 이상이 많고, 너비는 40~50cm 정도가 주를 이룬다. 큰 것은 길이가 2m 넘는 것도 있고, 너비도 1m 정도여서, 그 안에 따로 屍身을 안치한 棺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 慶南 昌原 덕천리에서 木棺 흔적이 발견된 예가 있다. 이 석곽형은 遼東地域을 포함한 韓半島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전남 寶城江流域과 洛東江流域, 南海岸地域에서 그 빈도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른 石室 보다는 副葬遺物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南海岸地域과 寶城江流域에서는 靑銅器나 玉, 石劍 등 身分을 象徵할 수 있는 유물은 대부분 이 형태에서 출토되고 있다.

圍石形은 上石 밑에 자연적으로 된 支石이 둘러져 그 자체가 石室을 겸한 형태이나 外形적으로는 支石이 上石을 고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형상 碁盤式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石室을 구성한 것은 蓋石式으로 보아야 한다. 그 構造는 支石이 上石 밑에 6~12매가 둘러져 있는데, 支石이 잇대어져 있는 것과 支石 사이의 틈을 작은 돌로 쌓아 매꾸어 놓은 것이 있다. 그 內部에서는 아무런 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석실의 평면이 長方形인데 반해 이 형태는 方形이나 橢圓形 등으로 일정치 않으며, 바닥도 바닥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支石墓가 群集을 이룬 곳에서 1기씩만 보이고 있는 것은 上石 규모가 크지만 여러 기가 발견된 곳은 小形 上石인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위석형 石室에서는 副葬遺物이 매우 貧弱하나 慶北 安東 지례동에서는 上石 밑에 돌을 깎아 시설물 위에 石劍을 副葬한 예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上石 바로 밑이나 支石 사이에서 有溝石斧, 三角形石刀, 漁網錘 등 儀禮用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土壙形은 上石 밑에 아무런 石室 흔적이 없는 형식이다. 支石이나 墓域施設, 뚜껑돌이 있는 支石墓에도 그 內部에 구덩이만 確認되고 아무런 돌로 된 施設이 없는 것도 있다. 토광형의 대표적인 예는 全南 順天 우산리 내우 19호를 들 수 있다. 이 支石墓는 길이 2.5m, 너비 2.0m, 두께 1.0m의 上石 하에 4개의 支石이 고이고, 그 주위에 長方形 墓域施設을 한 가운데에 4매의 板狀石으로 된 뚜껑돌까지 있으나 뚜껑돌 하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이처럼 完璧한 下部構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副葬用이나 儀禮用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주변의 여타 支石墓에서는 石槨形 石室에서 石劍이 부장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長方形의 土壙形 墓室을 한 忠南 扶餘 비당

리에서는 石劍이 바닥에 副葬된 예도 있다.

이외 石室 형태에는 板石과 割石을 혼합하여 축조한 混築形, 日本에서만 보이는 항아리를 이용한 甕棺形 등이 있다.

(5) 바닥시설(屍床臺)

바닥시설은 被葬者의 주검을 올려놓은 施設이다. 바닥을 나무 등으로 고르게 한 것도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板石, 납작한 자연석, 작은 割石이나 잔자갈을 깔 것 등이 있다. 이는 다시 간부위에 따라 全面에 板石이나 扁平石, 잔자갈을 깔 것, 머리 허리 다리쪽 세 部分만 扁平石이나 板石편으로 깔 것, 머리와 다리쪽 두 部分에만 있는 것, 허리부근의 中央에만 있는 것, 아무런 바닥시설이 없는 것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바닥시설 중 바닥 全面에 바닥석을 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맨바닥, 세 부분, 두 부분, 한 부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바닥시설과 石室 구조로 보면 石槨形에는 거의 대부분 바닥석을 板石이나 板石片들로 깔고 있으며, 石槨形에도 바닥석을 상당 수 깔고 있으나 석관형보다는 다양한 바닥시설을 하여 위의 5가지 類型이 모두 보인다. 하지만 위석형과 토광형에서는 바닥시설이 거의 없다. 바닥시설에서도 地域적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副葬遺物은 바닥석을 깔 것에서 주로 출토된다. 바닥석의 유형에 따라 부장 유물의 확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전면에 깔 것, 3부분에 깔 것, 두 부분에 깔 것, 중앙에 깔 것, 없는 것 순이다.

3. 支石墓 出土遺物의 種類와 그 性格

1) 副葬用과 儀禮用 遺物

支石墓에서 出土되는 遺物은 크게 石室 안에 넣어둔 副葬用 유물과 石室 주변에서 발견되는 儀禮用 유물이 있다.

(1) 副葬用 遺物

副葬用 유물들은 武器類, 貢獻土器類, 裝身具類 등이다. 부장용은 유물의 형태가 완전한 것이 대부분이며, 被葬者와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유물들이다. 被葬者가 所有했거나 그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들을 주검과 함께 石室에 넣어준 유물이다. 이를 통해 被葬者의 性別, 身分, 머리 方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支石墓 부장유물에서 가장 많은 것은 武器類인 石劍과 石鏃이다. 石劍은 보통 1점씩 부장시키고 있으나, 石鏃은 여러 점씩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石劍은 자루가 달린 有柄式과 자루가 없는 有莖式이 있다. 有柄式 石劍은 자루에 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홈이 있는 것이 이른 시기 것이다. 이 형식의 石劍은 遼寧地域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 北韓에서 극히 일부 출토되며, 漢江以南 지역에서 副葬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錦江과 寶城江, 洛東江流域, 南海岸地域 등의 支石墓에서 여러 形態의 副葬 位置로 발견되고 있다. 有莖式 石劍은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면 有柄式이 된다. 이런 形態는 忠南 扶餘 송국리 住居址에서 木炭화된 자루가 有莖式石劍에 附着된 채 발견되어, 石槨으로 보기도 한 것이 원래는 石劍으로 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有莖式 石劍은 莖部の 형태에 따라 區分되고, 또한 地域性을 보이기도 한다. 細長한 莖部に 홈이 있는 것은 주로 北韓地域에서, 짧고 莖部 양쪽에 홈이 있는 것은 全南 寶城江流域에서 집중 발견되나 西海岸과 南海岸地域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이와 같은 石劍은 被葬者의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부분, 다리쪽, 머리쪽, 가슴위 등 여러 부장 위치를 보여주지만 오른쪽 엉덩이부근에 있는 것이 가장 많다.

石鏃은 스펀지가 있는 有莖式과 없는 無莖式이 있다. 莖部는 時期와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빠른 것은 二段으로 된 莖部와 끝이 오목하게 들어간 三角灣入形이 있다. 鏃身이 세장하면서 길고 경부가 뾰족한 것은 錦江과 寶城江, 南海岸地域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洛東江과 漢江을 포함하여 이북에서는 二段의 莖部가 많다. 支石墓에서 발견된 石鏃은 부장품인 경우 石鏃만 있는 것이 많지만 共伴된 경우는 주로 石劍과 같이 나오며, 보통 3~5점이 배부근에서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全南 寶城 덕치리에서는 石劍, 靑銅鏃과 함께 29점이, 慶南 거창 대야리에서는 石劍과 함께 28점과 42점이 각각 한 石室안에 副葬되어 있는 예도 있다. 副葬品인 경우는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石室 주위나 위에서 나온 것은 깨진 半破品이 대부분이다.

副葬品 중 당시에 稀貴하고 特殊階層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靑銅器는 琵琶形銅劍이 대부분이다. 이외의 琵琶形銅矛, 銅斧와 銅鏃, 細形銅劍(韓國式銅劍)도 있다. 琵琶形銅劍은 옛 악기인 琵琶모양에서 붙여진 명칭인데, 中國 遼寧地方에서 집중 출토되어 출토지 명을 따라 遼寧式銅劍으로도 불리운다. 支石墓에서 주로 출토되는 琵琶形銅劍은 錦江流域도 있지만 대부분 韓半島 南海岸地域 특히 全南 南海岸인 麗水半島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半破品이거나 부러진 것을 再加工한 것이 많다. 北韓에서는 1990년에 와서 靑銅器 출토 支石墓가 많아지고 있는

데, 상원 용곡리 支石墓에서 靑銅단추와 琵琶形銅矛가, 상원 장리 支石墓에서 靑銅방울과 靑銅끝, 靑銅2人교예장식품이, 성천 백원노동자지구 支石墓에서 細形銅劍과 靑銅손칼, 청동장식품이 출토된 바 있으나 琵琶形銅劍은 아직 없다. 銅矛는 全南 麗水 적량동에서 琵琶形銅劍과 함께 나온 것이 유일하다. 銅斧도 江原 束草 조양동 支石墓가 있다. 細形銅劍은 京畿 양평 상자포리와 全南 靈岩 장천리 支石墓에서 출토된 바 있다.

副葬된 토기는 紅陶와 彩文土器가 있다. 북한에서는 표주박의 한쪽이 잘린 형태인 墨房里形土器가 있다. 紅陶는 고운 粘土를 이용해 빚은 후 表面에 酸化鐵을 발라 문질러 光澤이 나게 하여 구운 토기이다. 붉은 色을 띠고 있어 붉은간토기, 丹塗磨研土器라고도 한다. 紅陶는 목이 달린 등근 바닷을 한 단지모양이 무덤에서 副葬用으로 출토되며, 항아리나 바리형, 굽달린 컵형 등은 住居址에서 출토되어 祭器用 그릇으로 보고 있다. 무덤에 副葬될 때 被葬者의 다리쪽에 부장된 것도 있지만 머리쪽에 부장된 것이 많다. 이 土器는 南漢江流域과 錦江, 洛東江, 宝城江, 南海岸地域 등 남한지역 支石墓에서만 출토되나 주로 南海岸地域에서 많이 나온다. 彩文土器도 紅陶와 형태는 같지만 灰白色을 띠고 있고, 어깨부근에 黑色 가지문이 있는 것으로 南海岸地域 지석묘에서 주로 副葬되어 出土된다.

부장된 裝身具는 天河石製 曲玉과 碧玉製 管玉, 丸玉, 小玉이 있다. 曲玉은 푸른바탕에 흰 斑點이 있는 天河石製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한쪽 머리부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것이다. 形態에 따라 반달모양, 반원에 홈이 있는 것 등 다양하다. 허리가 굽어져 있는 것이 많고, 구멍이 있는 머리쪽이 좀 넓다. 이 曲玉은 石室의 한쪽에 치우쳐 雙으로 발견되고 있고, 忠北 堤原 황석리에서 머리쪽에서 출토되어 귀걸이로 裝飾한 것이다. 管玉은 푸른빛이나 짙은 灰色을 띤 碧玉製를 이용해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貫通되어 있어 연결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점만 출토된 경우도 있지만 수점 또는 수십점이 被葬者의 목부근이나 가슴부근에서 발견된다. 全南 麗水 평여동에서는 한 石室안에서 29점과 36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丸玉은 雙으로, 小玉은 수점 또는 수십점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丸玉은 垂飾玉으로, 小玉은 裝飾玉으로 생각된다. 全南 麗水 평여동 支石墓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小玉과 管玉은 목걸이와 옷에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馬韓에 대한 기록 중 '馬韓人은 金 銀보다 玉을 더 貴히 여기고, 이를 귀나 목에 걸거나 옷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 馬韓以前에 이미 支石墓사회에서도 玉을 裝飾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儀禮用 遺物

儀禮用 遺物은 石室 주위나 墓域施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被葬者를 哀悼하는 의미의 葬送用이나 죽음에 따른 祭祀 饗宴과 관련된 祭儀用, 支石墓 축조에 따른 生活用 유물들이 있다. 葬送用 遺物은 石劍을 세조각을 깨서 포개 놓은 것이든가, 石室 옆이나 뚜껑돌 사이에서 출토된 生活用具들이 있다. 祭儀用은 祭儀를 지낸 후 일부러 깨서 주위에 뿌린 石器나 土器片이 있고, 生活用은 支石墓 築造時에 사용했던 유물들로 砥石이라든가 工具用 石器들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破損된 것들로 깨진 파편인데, 형태상 완전하지만 일부를 깨서 넣어준 것도 있다. 이 破損品은 죽음과 관련된 破儀式의 所產物이다.

儀禮用에는 武器類, 收穫具, 木工具, 威儀具, 生活用具 등이 있다. 武器類는 石劍이나 石鏃이 있으나 모두 깨진 일부만이 있다. 石鏃 중에 완전한 형태는 작고 실용적인 것들이다. 收穫具는 石鎌과 石刀가 있다. 石鎌은 등이 휘어 있고 안쪽에 날이 세워져 오늘날 낫과 비슷하다. 石刀는 등가까이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아래부분에 날이 세워져 있어, 穀物 採取用具로 쓰인 것이다.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 유물은 일부가 깨져 있거나 半破品이며, 支石墓의 뚜껑돌이나 支石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몇 예는 石室안의 가슴부위에서 출토되어, 구멍뚫린 유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던 모습대로 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漁網錘나 紡錘車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재를 가공할 때 쓰이던 工具류는 石斧·有溝石斧·有段石斧·石鑿·돌대패 등이 있다. 이들도 石室 근처나 墓域안에서 발견되며, 半破品이거나 일부를 破損한 것들이다. 이런 유물은 儀禮에 사용된 것도 있겠지만 支石墓을 축조하고 饗宴에 사용하였던 유물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지휘봉의 끝을 장식한 것으로 생각되는 環狀石斧, 고기잡이 때 쓰이던 漁網錘, 당시에 실을 뽑아 옷을 해 입었음을 보여주는 紡錘車, 무딘 석기의 날을 세우거나 석기 제작에 쓰인 砥石, 곡물을 빻거나 껍질을 벗길 때 쓰인 갈판과 갈돌(碾石)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다양한 석기들이 깨진 채로 발견된 경우가 많다. 토기들은 모두 깨서 버린 조각들만이 발견된다. 石室안에서도 일부 조각이 나오지만 주로 墓域施設내에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곳에 集中되어 발견되고 있어, 祭儀를 지내고 나서 廢棄 處分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支石 밑에서 紅陶 조각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祖上의 무덤을 지켜주고 保護해 주고, 잘 保存되기를 바라는 地鎮具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의례용 유물은 被葬者에 대한 哀悼의 情表나 儀禮行爲의 소산물이다. 실제 石器를 깨서

주위에 던지거나, 土器片을 깨서 뿌린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당시 葬送儀禮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2) 遺物の 副葬 位置

副葬된 遺物들의 놓인 位置는 부장유물의 種類에 따라 차이가 있다. 紅陶 등 貢獻 土器는 대부분 한쪽 短壁쪽에 치우쳐 있다. 대개 모서리 부근에 副葬하고 있으며, 石棺墓의 경우 石室 한쪽 밖에 따로 副葬한 것도 있다. 한 石室에 1점만 있으나 2점을 부장하기도 한다.

石劍의 경우는 매우 多樣하다. 石劍은 바닥석 위에 놓여있는 것이 보통이나 바닥석 위 5~10cm 위에서 발견된 경우는 石室 中央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어 被葬者의 가슴과 배 위에 올려 副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石室의 한쪽 壁石에 기대어 세워진 것이든지 꽂혀진 것은 주검을 안치한 棺이 따로 마련되었음을 암시한다. 石劍이 副葬된 위치는 石室 바닥에서도 오른쪽 허리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 被葬者가 평소에 오른쪽에 차고 다녔던 것을 生前대로 副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被葬者의 허리 왼쪽, 벽석 틈, 石室 모서리에 꽂혀져 나온 예도 있다. 石鏃은 석실 중앙부로 被葬者의 배부근에 많고, 종종 石劍과 함께 부장되고 있다. 靑銅劍은 石劍과 같은 위치로 대개 오른쪽 허리부근이나 왼쪽 발 부근에 副葬하여 놓고 있다. 裝身具인 玉類들은 얼굴부근 양쪽, 목, 가슴부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귀고리나 목걸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出土遺物로 보아 石劍이나 石鏃 등 무기류는 男子에, 土器나 玉들은 女子 무덤에 부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忠北 堤原 황석리에서는 男子의 귀걸이로 曲玉이 사용되어, 남녀의 구분이 없었던 것 같다. 人骨 出土時 女子 무덤에서는 遺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이 부장된 石室들은 伸展葬할 수 있는 規模나 石室의 깊이가 깊은 것에서 많이 出土되는 傾向을 보인다.

3) 副葬遺物の 象徴的 意味

支石墓에서 나온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道具들이다. 그 도구들은 각각 쓰임새가 있다. 그런 遺物을 被葬者의 곁에 부장한 것은 죽음과 關聯되어 一生의 마지막 通過儀禮이어서 被葬者에 대한 哀悼와 尊敬 등의 표시로 나타난 結果物이다. 이에는 당시의 來世觀이나 現世觀이 反影된 것이다.

유물 중 武器類는 현세에서 자기를 保護하는 機能과 상대방을 制壓하는 기능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權威의 象徴物과 社會的 地位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石劍이나 靑銅劍 등 劍은 一次的으로 武器로서의 機能이다. 하지만 石劍이 住居址 등에서 나오고 있어서 칼과 같은 기능을 한 生活用具로도 쓰였으며, 무덤에서 나온 것은 副葬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바다나 산기슭 같은 遺構

가 없는 곳에 나온 것은 集團의 安寧과 豊饒를 기원하는 儀禮 行爲 후 따로 묻어 둔 埋納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이외에 支石墓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支石墓가 축조되는 시기는 靑銅器時代이다. 이 시기의 靑銅劍은 일반인보다는 有力한 小數集團의 支配者만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石劍이 靑銅劍과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또 石劍과 靑銅劍이 支石墓에 副葬될 때 副葬位置가 같다. 이것은 서로간의 같은 기능 즉 象徵的인 意味가 같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靑銅劍이 稀貴하고 소유하기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이를 대신하여 石劍을 代用品으로 支石墓에 副葬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靑銅劍이 당시 身分을 象徵하는 最高의 玉物이라 할 때 石劍도 이와 동등한 代用品의 役割을 하였을 것이다. 즉 被葬者 身分을 상징하는 儀器的인 性格을 띤 기능이다.

麗水 오리동 支石墓 上石에 石劍을 새겨놓고 이를 향해 祈願하는 人物像이 있다. 이것은 被葬者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로 解釋된다. 石劍에 향해 祈願하는 모습은 祖上에게 무언가 바치면서 所願을 비는 모습이다. 당시 石劍 崇拜信仰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어 身分 象徵的인 의미와도 通한다. 그래서 支石墓에 副葬된 石劍은 살았을 당시의 社會的 權威와 身分을 죽은 후에도 그 지위를 지키면서 누리라는 念願에서 주검 곁에 넣어 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죽은 후에 또 다른 世界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의 祖上을 崇拜하는 思想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裝身具인 玉의 부장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자기 조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心情이 內包되어 있다. 즉 被葬者의 靈魂이 種族이나 家族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이다.

支石墓의 부장품으로 石劍 이외에 紅陶가 있다. 조그마한 단지로 祭儀에 쓰인 祭器用 그릇으로 貢獻土器이다. 표면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 붉은색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또 피와 같은 색이다. 이 紅陶는 現生과 來世를 연결하여 永遠한 生命力을 갖도록 한 宗教的인 儀式으로 사용되었다. 즉 죽음 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당시의 來世觀에서 보면 被葬者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儀式으로 볼 수 있다. 支石墓의 石室에 安置된 주검의 위나, 아래에 황토흙을 뿌린 경우가 있고, 붉은 돌을 石室 옆에 놓아두기도 한다. 붉은색은 내세에서 再生과 復活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붉은색이 民間에서 惡鬼와 惡靈을 물리친다고 하여 堂山祭를 지내는 나무밑에 황토흙을 쌓아놓기도 한다.

Ⅲ. 韓國 支石墓 社會의 性格

1. 支石墓의 築造 背景과 그 時期

1) 支石墓 築造 背景

先史時代 사람들은 주변 自然環境에 의존하면서 주로 생활하였다. 주변의 環境과 氣候 變化에 의해 그들의 生死가 좌우되는 時期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보다 주변 環境의 變化에도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잔존하고 있는 巨木이나 巨石에 대한 숭배는 자연 발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靈魂不滅한 자연의 事物에 대한 崇拜나 信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바위나 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은 우리에게 堅固함과 不滅性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바위에는 靈驗과 生命力을 가진 象徴性을 지닌다. 그리고 古代 神話에서 보이는 誕生 神話는 바위가 生命 탄생의 象徴적인 意味와 함께 生産力이나 創造力도 賦與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共同體 意識을 돈독히 하는 神秘로운 凝集力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象徴성과 의미를 지닌 바위를 이용한 支石墓는 죽은 사람의 魂靈의 상징적인 安息處로 여겼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被葬者의 魂령이 끼칠지도 모를 危害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주검로 取扱하기도 하였으나, 주검을 대하는 姿勢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주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活動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주검을 埋葬한 뒤 그 위에 큰돌을 올려놓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검을 保護한다기 보다는 靈魂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支石墓의 부장품으로 石劍이나 石鏃 등 무기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죽은 사람의 靈魂을 지켜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생에서 누리던 생활을 저승에서도 그 身分과 地位를 보장해 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麗水 오림동 支石墓 上石의 측면에 陰刻된 石劍의 岩刻畫도 支石墓 자체나 죽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觀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支石墓들은 거의 수기 내지는 수 십기가 무리지어 있는데, 이것은 핏줄이 같은 集團의 무덤임을 보여준다. 이런 것은 청동기시대에 와서 血緣으로 이어지는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핏줄을 기반으로 하는 祖上崇拜思想에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 조상 숭배는 生命力과 不滅性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巨石 즉 支石墓를 자기 先祖의 무덤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支石墓을 축조하려면 거대한 바위를 採石, 運搬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수톤 내지는 수십 톤에 이르는 巨石을 채석해서 운반하는데,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대규모의 勞動力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勞動力을 動員할 수 있는 社會는 移動生活을 하는 遊牧民集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定着生活을 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에 安定的인 食糧을 確保할 수 있는 農耕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여야 한다. 그래서 支石墓는 벼농사(稻作)를 위시한 農耕과 일정한 領域圈이 형성된 定着生活, 血緣을 중심으로 한 共同體 집단의 儀禮 행위로서 축조되었다. 이와 같은 社會 背景에는 안정적인 生計資源의 前提가 되는 農耕地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이 농경지의 확보에는 農耕地 開墾이나 인근 지역의 農耕地의 占有 등이 있다. 농경지의 개간에는 많은 人力이 消耗되며, 개간할 수 있는 땅은 限界가 있다. 더 많은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隣近 집단간의 競爭이 不可避하였을 것이다. 농경지 확보를 위한 集團間的 競爭은 共同體間的 領域 設定이 요구되며, 이 영역의 占有 표시로서 조상 무덤을 支石墓로 축조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런 支石墓의 축조는 一定한 지역을 基盤으로 하는 地緣的인 집단간의 領域의 확보와 함께 土地의 緣故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이는 人口 증가와 더불어 농경지의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여야 한다. 이러한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집단의 凝集과 結束이 필연적인 일이다. 많은 사람의 動員을 필요로 하는 支石墓 축조 집단은 協同과 團結力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支石墓를 축조하던 사회에서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共同體社會가 형성되어야 한다. 古代社會에서 보이는 두레와 같은 協同 組織이 형성된 공동체 社會를 배경으로 한 血緣集團間的 舉族的인 行爲의 일환으로 자기 조상의 무덤 뿐 아니라 集團의 紀念物인 支石墓가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行爲는 共同體社會의 힘의 結集과 협동 團結을 이루는데, 큰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2) 支石墓의 築造 時期

支石墓에서 측정된 絶代年代를 보면, 京畿 양평 양수리 기원전 1950년, 忠南 大田 비래동 기원전 1145~900년, 全南 麗水 화장동 기원전 910~740년 · 기원전 1012~802년 · 770~600년, 全南 和順 대신리 기원전 720~390년, 京畿 파주 옥석리 기원전 900~740년, 忠北 堤原 황석리 기원전 930~A.D 10년, 京畿 양평 상자포리 기원전 410~170년 등이 있다. 이 자료 중에서 信憑性이 가장 많은 大田 비래동 支石墓에서 측정된 絶대연대이다. 이 年代는 기원전 1145~900년으로 적어도 紀元前 10세기 이상 올라가는 연대이다. 그리고 測定된 연대치에서 기원전 11세기에서 9세기에

속한 資料가 많은 것으로 볼 때 支石墓의 上限을 설정하는데 有用하고 중요한 根據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支石墓에서 출토된 遺物과 그와 관련 絶代年代 자료에서 본 支石墓의 축조 연대는 빠르게 紀元前 12~9세기라는 공통된 測定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11~10세기경에는 支石墓가 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琵琶形銅劍 시기 이전부터 支石墓가 築造되었다고 보는 일반적인 見解라든지 일부 측정치 가운데는 기원전 11세기 이상도 있어 앞으로 조사 결과에 의해 그 시기는 더 소급될 것이다.

최근 北韓에서는 종전의 紀元前 12세기 설에서 檀君陵 발견 이후 支石墓을 檀君朝鮮과 관련지어 絶代年代에 의해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나 紀元前 24~26세기경의 資料가 많다. 이 연대는 전자상자성공명법(ESR), 열형광법(TL), 핵분열흔적법(FT) 등을 이용한 절대연대 資料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放射性炭素 연대에 의하면 기원전 13~8세기에 集中되고 있어 試料의 선택에 커다란 誤差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支石墓는 紀元前 12세기 무렵부터 築造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無難하다고 생각된다.

3) 支石墓의 消滅 背景

支石墓의 消滅 과정은 당시 社會의 變化와도 密接한 관계를 가진다. 당시 社會는 首長層의 登場과 外部로부터 先進文化의 受容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首長層의 登場은 기존의 각 地域을 배경으로 한 支配集團間의 離合集散에 의해 急激한 統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農耕地 확보를 위한 戰爭에서 얻어진 所產物로, 사람들의 身分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集團안의 사람들간에 支配와 被支配層으로 다양한 階層이 분화되면서 권력의 中央 集中化가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合法的으로 征服 戰爭이 수행된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支石墓보다는 封墳이 있는 木棺墓가 登場하게 된다. 이 무덤에서는 다량의 靑銅器가 副葬되어 있다. 이 청동기 중에는 武器類, 儀器類가 대부분이다. 이 유물은 靑銅製 武器로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強制的으로 制壓하는 것으로, 儀器類는 집단의 모든 儀式 行爲를 執行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즉 政治와 祭祀를 관장하는 祭政一致의 社會의 최고의 지배자임을 과시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支石墓와는 다른 무덤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先進文化의 受容이다. 선진문화는 鐵器文化이다. 支石墓가 축조되는 시기의 靑銅器는 武器類가 주를 이루고 있고, 誇張되거나 커져서 儀器化되는 반면에 鐵器는 무기보다는 農耕具 등 實生活用具들을 많이 제작하게 된다. 이 철제 農耕具는 석기로 하던 작업양보다는 3~4배 가량의 能率을 올릴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농경구를 이용한 農耕地의 擴張은 필연적으로 많은 勞動力을

요구하게 된다. 支石墓 축조에 따른 많은 人力 動員과 勞動力의 損失은 당시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支石墓란 무덤의 축조보다는 農業生産에 치중한 首長層에게는 더 많은 生産力이 요구되었고, 그에 剩餘生産物을 축적해야 하였다. 이런 社會的인 배경에서 支石墓 축조는 浪費이고 消耗的인 일이었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支石墓 축조에 동원된 人力이 生産活動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木棺墓나 土壙墓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인 변화는 考古學 編年上 기원전 200년을 전후한 시기이어서 支石墓의 消滅時期는 기원전 3~2세기경으로 推定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支石墓 築造 集團과 被葬者의 身分

支石墓에 묻힌 사람의 身分은 族長과 같은 支配者의 무덤이라는 설, 支配者와 그 家族의 무덤이라는 설, 血緣 共同體 集團의 공동무덤이라는 설, 戰爭에서 희생된 戰死者의 무덤이라는 설 등이다.

1) 支配者의 무덤

支石墓에 묻힌 被葬者를 支配者로 보는 측면은 거대한 외형적인 형태에서 일반인들이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데서이다. 支石墓를 축조하려면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政治的인 힘을 가져야 하고, 이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보상할 수 있는 經濟的인 富의 蓄積이 있어야 한다. 또 거대한 支石墓를 축조해야 하는 社會的인 배경과 文化的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支石墓를 축조할 수 있는 것이다. 支石墓의 규모에서 넓은 지역에 墓域施設을 한 慶南 昌原 덕천리의 경우 중심에 거대한 支石墓가 있고, 주변에 작은 규모의 支石墓와 석관묘, 토광묘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支配者의 무덤을 시사하는 유적이다. 그리고 單獨으로 묘역시설을 한 곳에서는 石劍, 石鏃, 琵琶形銅劍 등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일반적인 支石墓과는 差別化되어 있다. 또 북한에서 발견된 한 支石墓에 여러 石室이 있는 곳에서는 支配者와 그에 따른 殉葬으로 보고 있다. 즉 奴隸主와 노예를 묻는 殉葬風習으로 설명한다. 이 石室에서는 支配者가 묻힌 중심 石室은 구조상 규모가 크고 더 정교하게 축조하였으며, 副葬品의 종류와 수량에서 身分的인 差異를 보이고, 人骨도 한 사람이다. 다른 石室에서는 3~4명의 뼈가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支石墓가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靑銅器時代 최고의 신분 상징물인 琵琶形銅劍 출토를 보면 군집 안에 있는 것과 군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 全南 麗水 적

량동 7호와 全南 宝城 덕치리 1호처럼 支石墓 군집과는 독립된 위치에 있는데, 이곳에는 完形の 琵琶形銅劍이 副葬되어 있었다. 그리고 大田 비래동 支石墓처럼 獨立된 묘역을 하고 부러진 것을 다시 加工하여 만든 琵琶形銅劍과 石鏃, 紅陶가 세트를 이루어 부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支石墓의 주인공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던 指導者級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支配者와 그 家族의 무덤

支配者와 그 家族의 무덤이라는 것은 支石墓가 무리지어 있어 모두 支配者의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支石墓가 떼를 지어 있기 때문에 血緣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공동 墓域으로 보는 것이다. 발굴된 支石墓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부장품이 출토되는 양상은 일부의 石室에서만 출토되고 있고 대부분은 生活用具들만이 출토되고 있다. 石室의 群集性에서 1기를 중심으로 적게는 2~3기, 많게는 4~6기가 주변에 배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支石墓 石室의 配置上에서 構造나 築造上에서 크고 더 정교한 무덤에서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石劍 1점씩 부장되고 있어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全南 麗水 적량동 支石墓에서는 石室 4~6기가 군집성을 보이는데, 한 石室에서만 琵琶形銅劍이 발견되었다. 이는 琵琶形銅劍이라는 신분 상징물로 볼 때 지배자와 그와 가까운 가족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全南 麗水 평여동에서도 管玉과 小玉, 丸玉 등이 무더기로 나온 石室은 정교하게 축조되었으며, 석실 주위에 판석편으로 갓들을 세워 墓域을 區劃하였다.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石室이 배치되어 있고, 遺物이 없거나 管玉이나 小玉 몇 점이 출토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石室의 배치나 출토된 유물의 양상에서 琵琶形銅劍이나 石劍, 玉이 나온 무덤을 支配者級으로, 그 주변의 石室을 그와 가까운 家族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血緣集團의 公同 무덤

支石墓가 떼를 지어 있고, 대부분 열을 지어 나타나고 있다. 열을 지어 있는 것은 血緣을 기반으로 한 集團의 묘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支配者 集團의 묘역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앞의 지배자와 그 가족 무덤과는 달리 石室의 構造나 遺物上에서 큰 차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와 개인 墓域 施設이 잇대어져 있거나 한 묘역시설에 여러 기의 石室이 있는 것들로 想定된다. 支石墓에서 묘역 시설을 한 갓돌이 잇대어 있는 것은 石室이 대부분 伸展葬이나 屈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石室의 주인공은 적어도 夫婦사이이거나 그에 가까운 血緣關係로 볼 수 있다. 全南 宝城 시천리 支石墓처럼 한 묘역시설 안에 3개의 石室이 나타난 경우 夫婦나 子女關係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리고 한 支石墓에서 2개의 石室이 있는 경우와 큰 石室 주변에 소형 石室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伸展葬할 수 있는 규모의 石室 주변에서는 屈葬나 二次葬, 幼兒葬이 가능한 石室이 적지 않게 보이나 유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도 身分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支石墓가 기본적으로 血緣을 중심으로 한 묘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처럼 家族 단위의 무덤으로 支石墓가 축조되었고, 어린아이까지 成人과 같은 무덤을 쓰고 있다.

4) 戰死者의 무덤

支石墓의 後期社會에서는 農耕地나 勞動力 확보에 따른 집단간의 戰鬥가 頻繁한 시기이다. 이에 는 집단의 組織的인 勢力의 존재를 의미한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防禦施設이 많은 마을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防禦施設은 마을 주위에 도랑을 파 외부와 境界짓고, 侵入을 방지하기 위한 環壕라든지 통나무를 이용해 울타리를 만든 木柵시설이 있다.

支石墓의 石室안에 石劍이나 石鏃 鋒部片들이 발견된 例가 많다. 그 출토위치가 머리쪽에 많으나 배부분도 있어, 집단간의 戰爭에서 犧牲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支配者級과 같은 무덤을 쓴 점에서 집단에서 處刑받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토된 遺物과 人骨에 박힌 考古學的 자료를 근거로 戰鬥的인 任務를 수행하다 전사한 사람의 功勳墓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없는 人骨의 發見이나 일본에서 머리에 박힌 靑銅과 石劍편이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배부분에서 수 점의 石鏃이 발견된 예도 있다. 이것은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한 사람이나 戰鬥 중 상대방 집단에 의해 처형된 후 주검을 收去해 성대하게 葬禮를 치루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집단의 사기 진작과 힘의 결집을 가져다 주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경이 발달한 사회로 각 집단들간의 농경지 확보를 위한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단위로 점차 地域聯盟체가 형성하게 되고 결국 지역 단위의 小國家들이 出現할 수 있었던 社會的 背景이 되었던 것이다.

3. 支石墓 社會의 性格

支石墓를 축조하던 靑銅器時代 사회는 平等社會에서 階級社會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한 有力者 出現과 支配集團의 形成, 지역을 바탕으로 한 首長層의 登場으로 이해된다.

1) 集團間 葛藤의 深化

靑銅器時代 대표적인 支石墓는 축조에 있어서는 거대한 바위를 採石, 運搬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수톤 내지는 수십 톤에 이르는 거석을 채석해서 운반하는데, 대규모의 勞動力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는 定着生活이 필수적이며, 이에는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여야 한다. 그래서 支石墓는 稻作農耕, 定着生活, 共同體의 집단 儀禮 行爲로서 축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배경에는 안정적인 생계자원을 확보의 전제가 되는 農耕地의 확대에 따른 집단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農耕地 확보를 위한 집단간의 競爭은 공동체간의 領域 設定이 요구되며, 이 영역의 점유 표시로서 조상 무덤을 支石墓로 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각 地緣인 집단간의 영역의 확보와 함께 토지의 연고가 확립되었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住居址가 火災에 의해 廢棄된 경우가 많아 집단간 葛藤이 매우 심화된 사회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戰死者의 무덤으로 支石墓가 쓰여지기도 하였다.

2) 專門集團의 登場과 交易의 存在

청동기시대의 專門集團의 존재와 활발한 交易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專門人은 특수한 技術的인 능력을 소유해야 하며, 支配層과 密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身分의 所有者이다. 支石墓의 축조와 관련하여 上石의 채석에 專門匠人의 존재를 논하고 있다. 유물 중 靑銅劍과 石劍은 支配階層 무덤의 副葬遺物로 사용되기 때문에 熟練된 전문인에 의해 製作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靑銅劍은 아직 鑄範(거푸집)이 발견되지 않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全南 麗水 적량동에서 발견된 7점 모두 서로간의 형태적인 차이가 있어 滑石製 鑄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琵琶形銅劍에 대한 非破壞 형광 X-선 분석에서 같은 成分 계열은 한 석실에서 共伴된 유물이거나, 서로 인접된 石室에서 발견되는 경우 외에 인접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全南 麗水 적량동 출토 청동기가 鑄造時 성분 비율을 달리하였다고 보면 적어도 3번에 걸쳐 製作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支石墓 축조 집단들이 동일한 鑄物에 의해 제작된 靑銅器를 소유하고 있다가 支石墓에 副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靑銅器는 납동위원소 분석에 의해 南韓產으로 판명되었고, 또 수 차례에 주조가 이루어진 점들은 청동기를 제작하던 專門 集團이 남한지역에 存在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면에서 完形으로 출토된 夫餘 송국리, 麗水 적량동 7호, 昌原 진동리 출토 琵琶形銅劍은 길이가 32.8~33.4cm, 경부 길이 2.7~3.3cm, 劍身 길이 30.1~30.5cm, 劍身 下段 길이 15.2~15.6cm, 隆起部 두께 1.4~1.5cm로 크기가 거의 같아 동일한 틀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적어도 제작하고자 하

는 銅劍의 기본적인 틀이 있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突起部가 밋밋한 曲線을 이루고 있는 점 또한 그러하다. 즉 위 세 점은 細部の 크기에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틀 또는 동일한 製作集團에 의해 鑄造되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石器 중 石劍의 제작은 형태가 複雜하고 두께가 1cm 내외로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技術을 요구하는 作業이다. 石劍은 일정한 石質을 사용하고 있어 석재의 購入과 숙련된 제작 技術자가 필요하고, 제작하고자 하는 형태를 製圖해야 한다. 이것은 石劍들이 서로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定型化된 점에서 어떤 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石劍에 사용된 석질은 粘板岩, 頁岩, 片麻巖, 泥岩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질이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석질이 있어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석재 구입이 필수적이다. 한편 石劍 제작에 있어 석질에 대해 識見이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좌우 대칭으로 뚜렷한 무늬를 살릴 수 있는 石劍은 宝城江流域이나 慶南 昌原 진동리와 金海 무계리 石劍에서도 보이고 있어 양 지역간 동일한 전문인에 의한 제작이거나 동일 지역 출토 석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石劍 제작에 따른 專門人과 交易의 존재를 시사한다. 그리고 完製品의 석기들이 쌓여있는 예가 住居址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는 석기 제작 전문집단에 의해 제작된 석기가 주변의 집단들에 分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지역 支石墓에서 많은 양의 天河石製 玉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옥은 慶南 南江댐 유적에서 많은 玉石製와 함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역을 통해 얻어진 옥을 裝身具로 사용하거나 副葬遺物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支石墓를 축조한 靑銅器時代에는 다양한 전문 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집단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3) 支石墓集團의 領域圈

支石墓 社會의 領域圈은 住居址 등 문화적으로 同質性이 인정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된 遺蹟間的 先後關係나 조사 예의 빈약함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쉽게 띄고, 많은 수의 조사와 분포가 밝혀진 支石墓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全南地方에서 조사된 支石墓는 그 分布狀과 群集數를 통해 당시의 文化領域이나 生活圈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활동영역 안에 그들의 무덤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혈연집단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支石墓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支石墓가 密集分布된 地域은 山과 인접된 곳에 축조되었지만 주위 地形은 평지가 전개되어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形 지형이 대부분이다. 이는 海岸지역과 內陸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는 다시 해안지역은 海岸분지와 灣邊분지로, 내륙지역은 丘陵분지와 溪谷분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곳에 많게는 600여 기에서 200여 기가 대개 직경 4~6km 내외의 범위를 이루고 있다. 이 소밀집지역은 86개로 나타나며, 분지형 지형으로 10km²에서 20~30km² 정도의 범위를 가진 지형에 밀집 분포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支石墓 축조집단들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地域的인 領域圈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小密集地 3~6개가 모여 하나의 密集分布圈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분포권을 이룬 지역의 범위는 직경 6km에서 22km이나 직경 18~22km가 주를 이룬다. 소밀집지역의 支石墓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개 1~2km가 대부분이지만 獨立的인 分布狀을 보이는 곳들은 4~7km정도이다. 소밀집지의 中心地間의 직선거리는 7~13km이고 독립적인 분포를 보이는 곳들은 10~13km 정도이다.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의 중심지간에는 20~26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漢江유역의 支石墓 120개소, 487기를 분석한 것을 보면 3기 이상의 密集群을 중심으로 반경 3.5km(7.0km의 범위) 範圍안에 있는 것이 32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이 支石墓들의 立地는 옛부터 전통적인 交通路上에 위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 錦江 중상류의 경우도 支石墓의 密集群이 대략 7.0km의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常用資源의 領域을 반경 약 3.5km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의 領域圈은 직선거리여서 실제의 사람이 활동하였던 거리는 소밀집의 경우 10km 내외로, 밀집 분포권을 이룬 경우는 30~40k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남지방의 支石墓사회의 領域圈은 同時期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의 군집간의 성격 파악으로 동시기를 설정한다면 보다 더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韓國의 支石墓는 多樣한 形態와 밀집된 群集性, 풍부한 遺物 등에서 어느 분야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調査와 研究가 진척되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世界的인 密集 分布圈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韓半島에 적어도 3만여 기가 분포되어 유럽 전지역에서 조사된 6만여 기에 비해서 單一面積에서의 密度는 세계적으로 가장 稠密한 分布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密度와 群集은 한국이 東北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이며, 그 중에서도 全南 全域과 全北 高敞을 포함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多樣的 形態가 존재하고 있고, 그 構造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支石墓가 가장 發達하고 지역에 따라 發展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靑銅器時代의 普遍的인 무덤과 紀念物로 오랜 동안 築造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外形的인 형태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超大形級 碁盤式 支石墓의 存在이다. 卓子式은 世界的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碁盤式은 韓半島 南部와 日本 九州지역 등 한정된 곳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이다. 日本의 碁盤式은 큰 것이 2~3m에 불과하여 韓國에서 발견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支石墓의 出土유물로 靑銅器, 玉, 石劍의 副葬 風習의 盛行을 들 수 있다. 靑銅器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청동검인 琵琶形銅劍이 지석묘에서 발견되고 있어, 청동기와 함께 支石墓文化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유물 중 특히 石劍은 韓半島와 日本 支石墓에서만 출토되는 遺物이다. 石劍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지석묘 부장 유물을 대표하고 있다. 출토된 石劍의 형태나 수적으로 보면 그 중심은 韓國이다. 이러한 韓國의 支石墓는 世界 巨石文化의 中心的인 位置에 있는 것이다.

[支石墓 關聯 文獻]

1. 著書

金秉模, 1982, 『亞細亞 巨石文化 研究-Megalithic Cultures in Asia』, 漢陽大學校 出版部.

金元龍, 1974, 『韓國의 古墳』, 세종대왕기념사업회.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 支石墓 研究』, 國立博物館.

梅原末治, 1947, 『朝鮮 古代의 墓制』.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墳墓의 研究』.

沈奉謹, 1990, 『韓國 靑銅器時代 文化의 理解』, 東亞大學校出版部.

- 李健茂, 2000, 『青銅器文化』 대원사.
- 李榮文, 2001, 『고인돌 이야기』 多知里.
- 林炳泰, 1996, 『韓國 青銅器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 장철수, 1995,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
- 河文植, 1999, 『古朝鮮地域의 고인돌 研究』 백산자료원.
- 許玉林, 1994, 『遼東半島 石棚』.

2. 學位論文

- 고동순, 1994, 『江原 嶺東地方 支石墓 研究』, 江陵大 碩士學位論文.
- 金珍英, 2001, 『麗水半島 支石墓 研究』 木浦大 碩士學位論文.
- 宣在明, 2001, 『榮山江流域의 支石墓 研究』 木浦大 碩士學位論文.
- 吳相卓, 1986, 『韓國 支石墓의 一考察』,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 우장문, 1986, 『韓半島의 고인돌文化에 대한 考察』,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 禹鍾潤, 1983,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 研究』, 忠北大 碩士學位論文.
- 柳在恩, 1991, 『韓國 西北地方 支石墓 研究』,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 李相吉,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카톨릭대 博士學位論文.
- 李榮文, 1987, 『全南地方의 支石墓 研究』,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研究』, 韓國教員大 博士學位論文.
- 李鍾宣, 1976, 『韓國 石棺墓의 研究』,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 林炳泰, 1964, 『韓國 支石墓 型式 및 年代問題』,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 任世權, 1975, 『韓半島 고인돌에 대한 一考察』,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 鄭然雨, 2000, 『北漢江流域 支石墓 研究』, 翰林大 碩士學位論文.
- 河文植, 1985, 『우리나라 고인돌문화의 한 연구』, 延世大 碩士學位論文.
- 河文植, 1985, 『東北亞細亞 고인돌文化 研究』, 崇實大 博士學位論文.

3. 論文

- 姜仁求, 1987, 「中國 東北地方의 古墳」,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基雄, 1968, 「韓國 支石墓 小史」『友石史學』 1.
- 金吉植, 1998, 「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志』제9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金秉模, 1980, 「자바島의 巨石文化」, 『韓國考古學報』 8輯.
- 金秉模, 1981, 「韓國 巨石文化 源流에 관한 研究(Ⅰ)」, 『韓國考古學報』 10.11合輯
- 金善基, 1994, 「全北地域 支石墓의 傳播經路」, 『考古歷史學志』 10.
- 金善基, 1997, 「高敞地域 柱形支石을 갖는 支石墓에 대하여」, 『湖南考古學報』5집.
- 金善基, 2000, 「高敞 岩峙里 支石墓를 통해 본 無石室 支石墓의 性格」, 『古文化』56집.
- 金若秀, 1986, 「琴湖江流域의 支石墓研究」, 『人類學研究』 3輯.
- 金元龍, 1961, 「十二 臺營子の 青銅短劍墓」, 『歷史學報』 16, 歷史學會.
- 金元龍, 1962, 「南方式 支石墓의 發生」, 『考古美術』 3-1.
- 金元龍, 1976, 「沈陽 鄭家窪子 青銅器時代墓와 副葬品」, 『東洋學』 6輯.
- 金貞培, 1996, 「韓國과 遼東半島의 支石墓」, 『先史와 古代』7.
- 金貞姬, 1988,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研究」, 『崇實史學』 5輯.
- 金學輝, 1989, 「全南地方에 分布된 支石墓, 甕棺墓 造成集團勢力的 史的意味」『鄉土文化』10.
- 盧熾眞, 1986, 「積石附加支石墓의 形式과 分布」, 翰林大學『論文集』 4輯.
- 도유호, 1959, 「朝鮮 巨石文化 研究」, 『文化遺産』 2, 과학원출판사.
- 박상빈, 1998, 「西團山文化의 돌널무덤의 研究」, 『古文化』 51.
- 박희현, 1984, 「韓國의 고인돌 文化에 대한 한 考察」, 『韓國史研究』 46.
- 방선주, 1968, 「韓國 巨石制의 諸問題」, 『史學研究』 20, 韓國史學會 .
- 석광준, 1979, 「우리나라 西北地方 고인돌에 관한 研究」, 『考古民俗論文集』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孫秉憲, 1987, 「韓國 先史時代 무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
- 孫晉泰, 1934, 「朝鮮 Dolmen 考」, 『開闢』 1.
- 孫晉泰, 1948, 「朝鮮 돌멘에 關한 調査 研究」, 『民俗學論考』 民學社.
- 沈奉謹, 1979, 「日本支石墓의 一考察」, 『釜山史學』 3輯.
- 沈奉謹, 1981, 「韓·日 支石墓의 關係」, 『韓國考古學報』 10 . 11合輯.
- 安志民, 1995, 「中國 東南部の 支石墓」, 第38回 全國歷史大會發表要旨.
- 吳相卓, 1990, 「韓國 支石墓의 變遷과 年代問題」, 『人類學研究』 5.
- 우장문, 1987, 「堤原 黃石里 고인돌 文化의 考察」, 『白山學報』 34號.

- 尹武炳, 1975, 「韓國 墓制의 變遷」, 『忠南大 論文集』 II-5.
- 李健茂, 1987, 「青銅遺物の 罨罨 技法」,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 李健茂·申光燮, 1994, 「益山 石川里 甕棺墓에 대하여」, 『考古學志』 제6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李南奭, 1985, 「青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問題」, 『百濟文化』 16輯.
- 李相吉,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 『古文化』 第45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李相吉, 1996, 「青銅器時代 무덤에 대한 一視覺」, 『石唔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 李榮文, 1987, 「全南地方의 支石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20輯.
- 李榮文, 1989, 「全南地方의 支石墓文化」, 『全南文化財』2, 全羅南道.
- 李榮文, 1992, 「全南地方 支石墓 分布에 대한 分析的 考察」, 『全南文化財』5, 전라남도.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領域圈과 構造에 관한 檢討」, 『先史와 古代』 5, 古代硏究會.
- 李榮文, 1994, 「支石墓의 機能的 性格에 대한 檢討」, 『裴鍾茂總長退任紀念論叢』.
- 李榮文, 1998, 「支石墓社會의 葬制에 대한 一考」, 『東隱池春相博士停年紀念 南道民俗學의 進展』, 太學社.
- 李榮文·曹根佑, 1996, 「全南의 支石墓」, 『全南의 古代 墓制』, 全羅南道·木浦大博物館.
- 李榮文, 2000, 「韓國 先史時代 墳墓의 諸樣相」, 『韓國 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尹世英停年論叢-, 西京文化社.
- 李隆助, 1980, 「韓國 고인돌社會와 그 儀式」, 『東方學志』 23.24合輯.
- 李隆助, 1985, 「韓國 先史文化에서의 石돌의 性格」, 『東方學志』 46. 47. 48合輯.
- 李隆助·禹鍾允, 1988, 「黃石里 고인돌 文化의 문기方法에 관한 一考察」, 『博物館紀要』 4輯.
- 李隆助·河文植, 1989, 「韓國 고인돌의 다른 類型에 關한 硏究」, 『東方學志』 63.
- 李鍾宣, 1976, 「韓國 石棺墓의 硏究」, 『韓國考古學報』 1輯.
- 李清圭, 1985, 「濟州島 支石墓 硏究(I)」, 『耽羅文化』 4輯.
- 李亨九, 1987, 「渤海沿岸地區 遼東半島의 고인돌무덤 硏究」, 『정신문화硏구』 32호.
- 李亨九, 1988, 「渤海沿岸 石墓文化의 源流」, 『韓國學報』 50號.
- 林炳泰, 1964, 「韓國 支石墓의 形式 및 年代問題」, 『史叢』 9.
- 任世權, 1976, 「韓半島 고인돌의 綜合的 檢討」, 『白山學報』 20號, 白山學會.
- 全榮來, 1990, 『全州, 如意洞 先史遺蹟 發掘調查報告』, 全州大博物館.
- 정백운, 1957, 「朝鮮 古代 무덤에 관한 硏究」, 『文化遺産』 2.

- 鄭義道, 1992, 「France 南部 Quercy 地方의 megalithisme에 대하여」, 『考古歷史學志』 8.
- 趙鎮先, 1997, 「支石墓의 立地와 長軸方向 選定에 대한 考察」, 『湖南考古學報』 6.
- 趙現鐘·張齊根, 1996, 「全南의 石棺墓·木棺墓」, 『全南의 古代 墓制』, 全羅南道·木浦大博物館.
- 池健吉, 1982,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形式學的 考察」, 『韓國考古學報』 12輯.
- 池健吉, 1983, 「支石墓社會의 復元에 관한 一考察」, 『梨花史學研究』 13. 14 合輯.
- 池健吉, 1987, 「巨石文化의 東과 西」,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一志社.
- 池健吉, 1990, 「湖南地方 고인돌의 形式과 構造」, 『韓國考古學報』 25, 韓國考古學.
- 池健吉, 1993, 「韓半島 고인돌文化의 源流와 展開」, 『馬韓·百濟研究』 13.
- 崔夢龍, 1973, 「原始 採石問題에 대한 小考」, 『考古美術』 119..
- 崔夢龍, 1978, 「全南地方 所在 支石墓의 形式과 分類」, 『歷史學報』 78, 歷史學會.
- 崔夢龍, 1981,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 『韓國史研究』 35.
- 崔夢龍, 1982,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編年 -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53. 54合輯.
- 崔夢龍, 1990, 「湖南地方의 支石墓社會」, 『韓國考古學報』 25, 한국고고학회.
- 崔盛洛·韓盛旭, 1989, 「支石墓 復元의 一例」, 『全南文化財』 2, 全羅南道.
- 河文植, 1988, 「錦江과 南漢江流域의 고인돌 文化 比較研究」, 『孫寶基博士停年紀念考古人類學論叢』.
- 河文植, 1990, 「韓國 青銅器時代 墓制에 관한 研究 - 고인돌과 돌간무덤을 中心으로」, 『博物館紀要』 6.
- 河文植, 1992, 「中國 東北地域 고인돌 研究의 成果와 現況」, 『白山學報』 39, 白山學會.
- 河文植, 1998, 「中國 東北地域 고인돌의 分布와 構造」, 『古文化』 51.
- 河文植, 1998, 「고인돌의 葬制에 대한 研究(I)」, 『白山學報』 51.
- 河文植, 1998, 「北韓地域 고인돌의 特異構造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10.
- 河文植, 1998, 「遼寧地域 고인돌의 出土遺物 研究」, 『先史와 古代』 11.
- 河仁洙, 1992, 「嶺南地域 支石墓의 形式과 構造」, 『伽耶考古學論叢』 1, 伽耶文化研究所.
- 한규량, 1984, 「韓國 선돌의 機能變遷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28號.
- 韓興洙, 1935, 「朝鮮의 巨石文化 研究」, 『震檀學報』 3, 震檀學會.

전북 고창 지석묘 유적지 제4기 자연환경분석 연구

김주용 * · 양동윤 * · 남옥현 * · 오근창 *
이창훈 * · 이진영 * · 김진관 * · 봉필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제4기 지질연구팀
** 석유해저자원연구부 석유지질연구팀

1. 서언

1-1. 조사개요

죽림리 매산부락 일대의 지식묘 유적 본포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식생 변천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매산부락 일대는 서해로 유입하는 인천강의 상류의 고창천에 위치하며, 인접지역의 소계곡으로 부터 여러 소수계가 발달하며 이들이 고창천과에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여 있다(그림 1). 본 연구지역 일대 지식묘가 분포하는 죽림리와 상갑리 일대에 대해 지형발달과 개략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과거 하천환경과 식생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죽림리 일대의 지리냉기(구지명)와 매산부락 사이에 위치하는 논바닥 위에서 3개소의 시험구덩(test pit)을 만들었다. 이들 시험구덩의 층위기재와 제4기 지층단면 분석, 시험구덩에서 채취된 시료의 입도분석 및 화분분석을 통하여 과거 자연환경과 식생환경 변화를 규명하였다.

서해안의 소계곡이나 하천 주변 자연 저습지나 인위적인 저습지에 대한 화분분석 연구는 천리포 일대의 Park(1990)과 익산 미륵사지 일대의 최기룡(1990)에 의한 화분연구, 일산신도시개발지역 학술조사 일환으로 실시된 최기룡(1992)의 화분분석, Yi 등(1996)에 의한 서해안 화분연구와 이영길 등(1996)에 의한 서해안 함평만 일대에 대한 퇴적상과 해수면 변화 연구, 전희영 등(1998)에 의한 화성 만년제 복원을 위한 시추조사 및 화분분석 연구, Kim 등(2000)에 의한 부여 궁남지 일대의 홀로세 층서 연구, 그리고 김주용 등(2001)에 의한 함평 옥산 일대 저습지의 화분연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아산면 죽림리 일대에 대한 홀로세 자연환경 연구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와 식생변천 연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 지형발달

죽림리와 상갑리 지식묘 유적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1:25,000 축척의 고창도폭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수계 음영기복도를 제작하였다(그림 2). 음영기복도에서 나타나듯이 본 지역의 산지는 북서, 동, 동남쪽에 위치하여 있다. 북서쪽에 위치한 산지는 화일봉(403.2m)을 중심으로 아래쪽 성들봉(157.6m)으로 이어진다. 이들 산지에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고창천 방향으로서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지형형태로 볼 때, 산록완사면(piedmont)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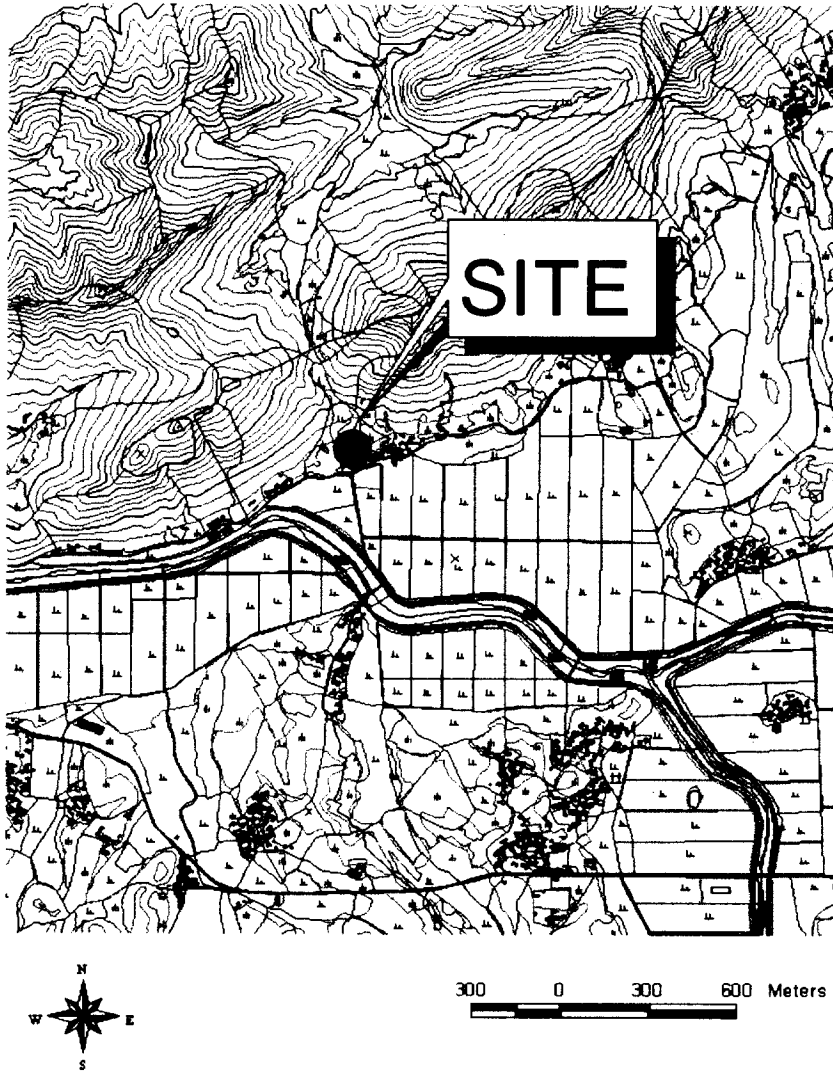


그림 1. 고창 지석묘 유적지의 위치도

북서부의 산지는 다시 170m정도의 낮은 산지를 지나 동쪽 방문산(640.4m)으로 연결되며 남동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나누고 있다. 남서부는 고도 30m~50m의 비교적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계곡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 하천유역 남부에 흔히 발달하는 저구릉성 평탄지는 기반암인 쥬라기 화강암의 침식면으로 여겨지며, 고창천 주변의 충적 퇴적층은 화강암과 산성화산암류의 차별 침식면 위에서 하천의 횡적 이동과 고기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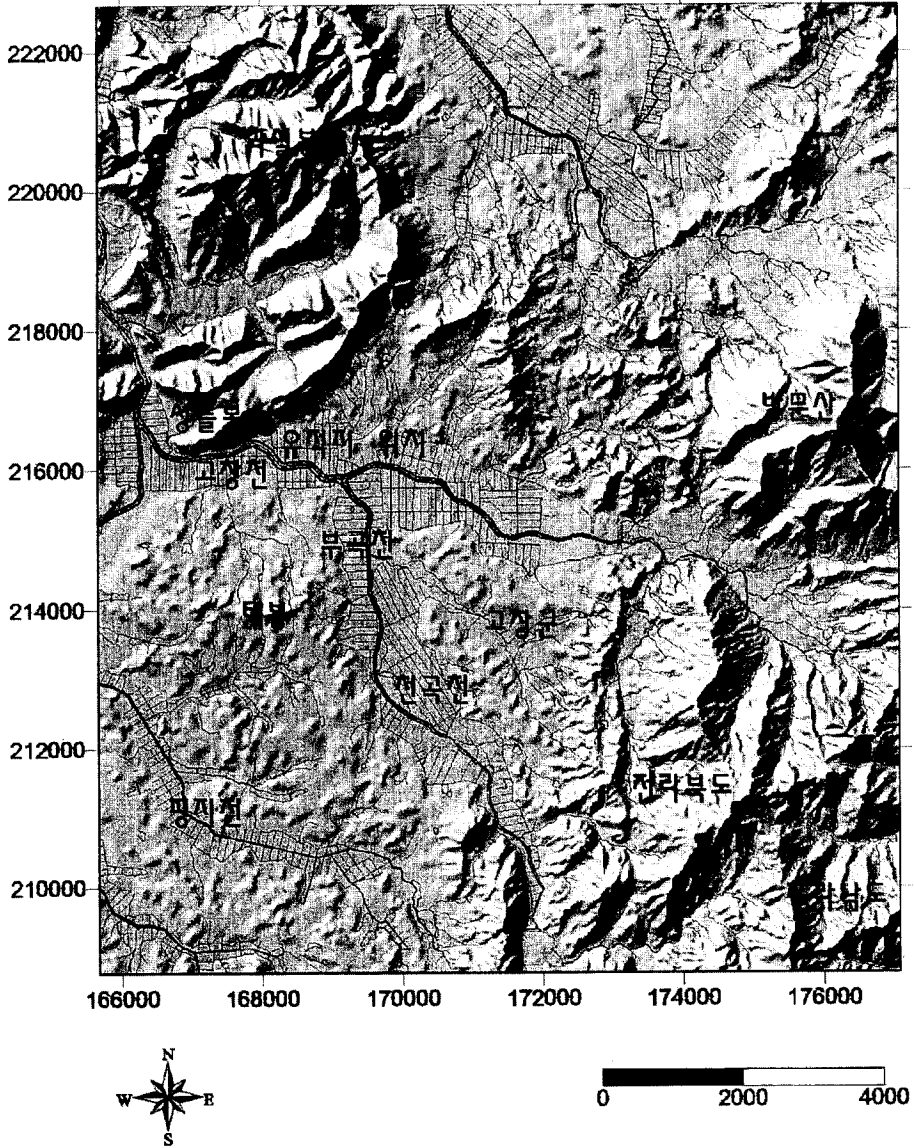


그림 2. 고창 지석묘 유적지 일대의 음영기복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본 지역의 수계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며, 주요 지석묘 유적지 본포위치는 부곡천과 고창천이 합류하는 지점 바로 하류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하천에 의한 소규모 범람원(floodplain)이 발

달하는 지점으로 그 주변에는 하안단구와 충적추가 형성되어 있다. 자연제방은 대부분 인공적인 제방축조로 이루어져 있고, 논으로의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자연제방과 인위제방의 구별이 뚜렷하지는 않는 편이다. 자연제방은 택지나 밭으로 이용되는 곳에 간혹 남아 있을 뿐이다. 고창천은 북서로 흘러 인천강을 이루며 최종적으로 서해의 곰소만으로 흘러들어 간다. 죽림리 일대 지석묘 유적지가 위치한 곳은 성틀봉 남남동 혹은 남동 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선상지와 유사한 지형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의 형성은 충적퇴적층(alluvium)과 질량류작용(mass movement)에 의한 충적추(alluvial cone)로 분류되며, 이의 하부에는 특히 하안단구와 단구애, 그리고 범람원으로 연결된다. 현재 저위면으로서의 하안단구는 주거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범람원 지역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1-3. 기후분포 특성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워 한서의 차가 심한 기후를 대륙성기후라 한다. 일교차는 일반적으로 대륙성기후나 건조기후 지역일수록 크며, 해양성기후나 습윤기후 지역에서는 작다. 일교차는 최한월인 1월에 가장 크고 장마철인 7월에 가장 작다. 1991년도 고창일대 기상자료에 의하면, 고창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비교적 적은 곳이나 연교차는 대략 28℃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수량은 연평균 1200mm정도로 하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강수량의 변동률은 22%정도이나 해에 따라 변동률이 심하다. 이는 우리나라 강수의 특색이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흔하다. <표 1>과 (그림 3)은 고창과 인접지역인 정읍의 지난 10년간 월평균기온과 월강수량 자료이다. 강수는 보통 6~10월에 대부분이 내리는데 그 중 7월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 이는 하천의 유량이 이 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이 기간에 내린 비는 시간당 강우강도가 비교적 강하여, 사면에서는 면상류(sheet flow)에 의한 면상침식(sheet erosion) 및 세류(rill flow), 곡상류(gully flow) 등을 형성시켜 사면류 퇴적층(slope wash)에 의한 상당량의 토사를 유출시킨다. 또한 하천유량의 급격한 변화는 하천의 범람을 초래하여, 그 주변에 범람원을 형성한다. 또한 하천 에너지의 증가는 하천의 곡률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하천 측방이동의 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하천의 곡률이 커진 가운데 급격한 유량의 증가는 잘림목(cut-off)같은 지형을 만들기도 한다.

〈표 1〉 연도별 월 강수량(1991~2000)

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	33.2	12.1	27.1	19	38.5	170	206.5	438	215	33	50	14.5
1999	49	46.7	120.5	127	117	157	165	198	278.5	116.5	18.7	24.4
1998	53.7	20.4	51	144.5	141	330	264	412	368.5	93	35.2	4
1997	24	54.5	53	75	180	173.5	443.5	217.5	19.5	25	180.5	65.7
1996	36.4	20	122	35	68	364	178.5	115.5	24	100	126	57
1995	51.2	31.5	27.4	104	56	56	114.5	254	126	20	36.5	33.2
1994	34.8	14.9	28.4	29	105	70.5	6.5	311.5	25	151	18	32
1993	34	59.5	51	19.9	111.1	296	525.4	304.3	91.5	40	81	28.5
1992	10.4	20.4	51.4	75.2	74.8	8.8	239.9	191.5	193	23.5	62.5	45.4
1991	16.6	56.4	79.4	94.8	25.8	170.2	319.6	183.9	184	8.5	27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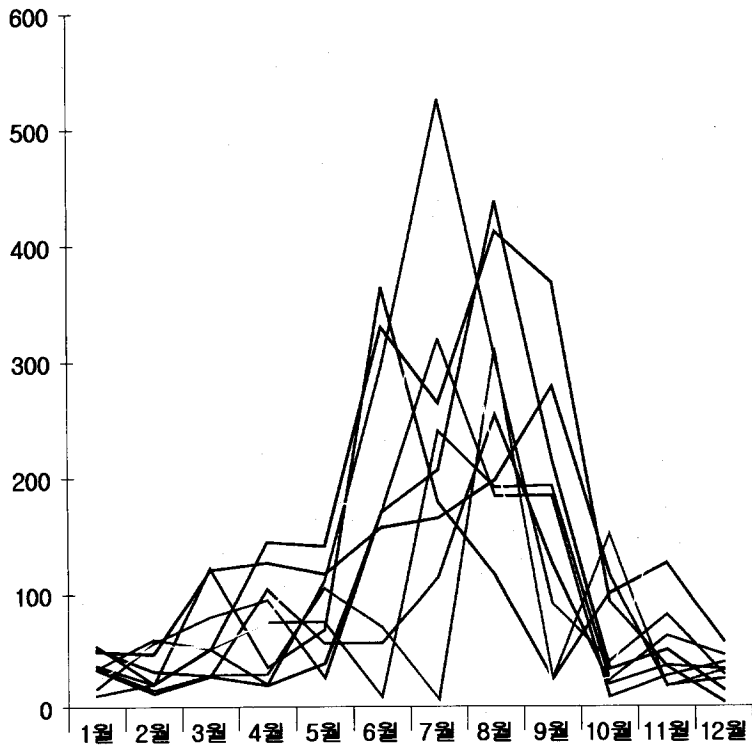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 강수량 변화도(1991 ~2000)

〈표 2〉와 〈그림 4〉는 연도별 월평균 기온을 나타내며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 연교차는 26℃ 정도

〈표 2〉 연도별 월 평균기온(1991~2000)

평균기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	-0.1	-0.5	5.9	11.6	17.1	21.9	26	25.8	19.7	14.7	7.1	2
1999	0.9	2	6.7	12.6	16.8	21.8	24.6	25	22.6	14.3	8.7	2.1
1998	0.5	4.5	7.4	15.7	18.4	20.8	25.3	25.6	22.1	16.3	8.7	3.3
1997	-0.9	1.9	7	12.4	18.4	22.8	25.5	26.3	20.7	14.6	10.1	2.9
1996	-0.3	-0.5	5	9.8	17.1	21.7	25.5	26.3	21.5	15.1	8	2.4
1995	-0.6	1.1	6.9	10.9	16.8	21.5	25.5	27.2	20.1	15.4	7.2	0.4
1994	0	1	4.2	14.2	18.2	21.6	29.1	27.6	20.7	15.2	10	3
1993	-1.3	2	5.4	11.3	17.3	21.3	23.4	23	20.8	13.4	9.2	1.9
1992	1.2	1.8	7	12.2	16.5	20.9	26	25.4	20.6	14.1	7.2	3.4
1991	-0.2	-0.1	5.2	12.1	17.8	22.6	25.4	24.8	21.2	14	7.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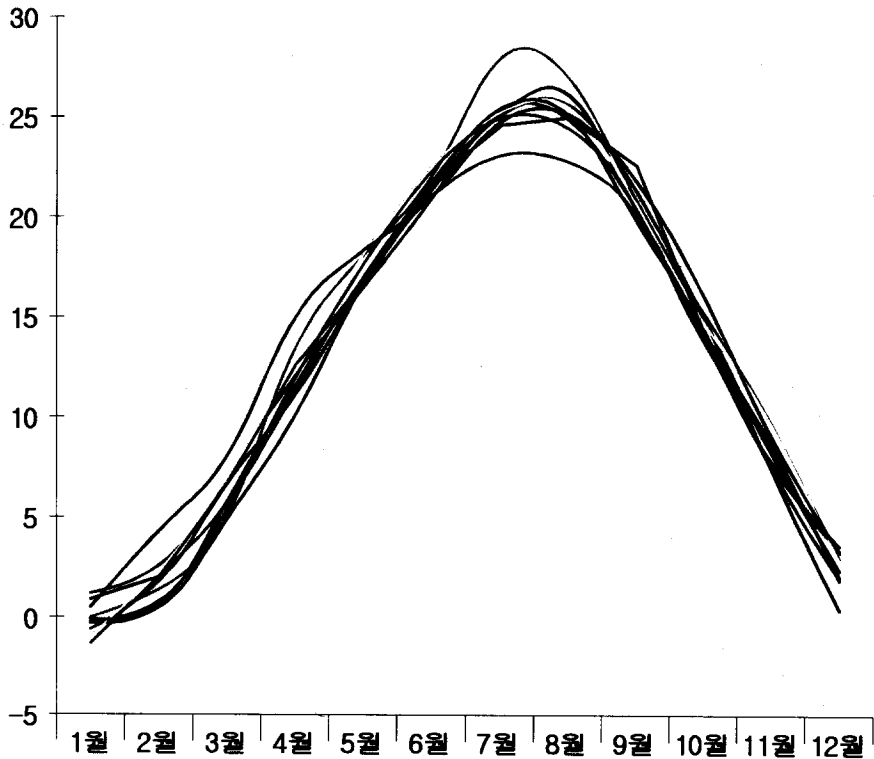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월 평균기온 변화도(1991 ~2000)

이나 겨울철 기온은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날이 많다. 겨울철의 영하 이하의 날과 영상 이상의 날의 반복으로 인해 토양층은 결빙(frost)에 의한 풍화작용(weathering) 증가로 쇄설물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는 여름철 호우시 경사면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퇴적물이 주를 이룬다. 또한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높은 강수량에 의해 비교적 고도가 낮거나 물이 모이는 분지지역은 기반암이 풍화되기 쉬우며, 이는 차별성이 다른 기반암 지역에서 차별침식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4. 광역 지질분포

고창군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 있는 옥천층군의 최남단보다 약간 더 북쪽에 위치한다. 1:250,000 축척의 광주도폭(한국자원연구소, 1997)에 의하면 본 지역남단에는 선캠브리아시대의 편마암류 및 편암류가 분포하여 있으나 이들이 고창까지 연장되지는 않으며, 주로 중생대 쥐라기 및 백악기에 관입한 심성암류와 화산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심성암은 쥐라기의 화강암으로서 대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지석묘 분포지인 아산면 일대는 백악기의 화산암체가 관입하여 있으며, 이들은 북북서 혹은 북서 방향의 단열계에 의하여 절단되고 있다. 요컨대 고창군에는 남동쪽과 남쪽에는 대보 화강암이 분포하며 그 중심부인 아산면 일대는 백악기 산성화산암류, 그리고 하천 수계 유역을 따라 발달한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1) 쥐라기 화강암류(Jurassic granites)

주변지역에서의 쥐라기의 화강암류는 지역과 암상에 따라 육십령화강암, 남원화강암 및 광주화강암으로 구분되는데, 이지역은 광주화강암에 속한다. 광주화강암은 화강암질편마암과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고, 무등산안산암과 능주지역의 퇴적암류에 의해서 부정합으로 덮히며,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된다. 이 암석에 대한 흑운모의 Ar-Ar 연대는 167 ± 1 Ma로 쥐라기 중엽이다. 광주화강암은 주 조성광물과 조직의 차에 의해 네가지 암상, 즉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반상흑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및 복운모화강암으로 구분된다. 광주화강암의 주 조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와 미사장석이고, 부 조성광물은 견운모, 녹염석, 스펀, 불투명광물, 저어콘 및 인회석이다.

2) 백악기 산성화산암류(Cretaceous acidic volcanic rocks)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산성화산암류는 백악기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북동-

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를 따라서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거나, 이 단층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분기성 단층을 따라 분포한다. 고창지역에 분포하는 산성화산암류는 암상에 있어서 격포일대에 분포하는 산성 화산암류와 유사하며, 대부분이 응회암과 유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도 산성 화산암체는 대체로 단층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지역의 화산암체는 대절산(221.6m)화산암층과 이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수리봉(350m)화산암층, 그리고 이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옥녀봉(101.2m)화산암층, 그리고 이들을 모두 관입한 불복재 유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충적 퇴적층(alluvial deposits)

주변지역의 지형은 동부는 비교적 높은 지형을 이루고, 서부는 낮은 산세를 가지고, 수계의 1차수 본류들이 대개 서해로 유입된다. 자갈, 모래 및 땔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 퇴적층인 충적 퇴적층은 대개 이들 수계를 따라 그리고 그 주변에 발달한다. 주변의 죽림교, 고창천교 및 고수천교, 고창 IC교, 도산교, 상편교 등의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실시된 시추공사 자료에 의하면 본 지역 일대의 표층 미고결 퇴적층은 약 3~6m 두께로 얇게 발달한다. 대개 퇴적층의 상부에는 다양한 두께로 인위적 매립토층이 분포하며, 하부로 갈수록 잔자갈이 약간 섞인 모래층이 분포하며, 매립토층과 퇴적층 사이에는 다양한 두께로 암회색과 회갈색의 유기질 니사질층이 부분적으로 협재한다.

1-5. 유적지 일대 지질

지석묘 분포지점의 지질은 흑운모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며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산성 응회암 및 유문암, 용결 응회암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그림 5). 특히 흑운모화강암이 노두로 드러난 지역은 지질도의 남부지역 즉, 상갑리, 하갑리, 중월리, 및 봉덕리 일대이며, 지질도의 북부지역은 백악기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암종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백악기 화산암종은 급경사의 높은 산으로 드러나며, 주라기 흑운모화강암으로 대표되는 100m이하의 구릉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상갑리에서 신월리로 연장된 산성응회암으로 구성되는 경사면은 암괴가 다량 떨어져 나와 완사면에 퇴적되어 있다. 본 암석은 지석묘의 주요 기원암을 이루고 있다. 본 지역의 북서부 즉, 쌍천에서 비석을 지나는 고창천을 따라 주향이동 단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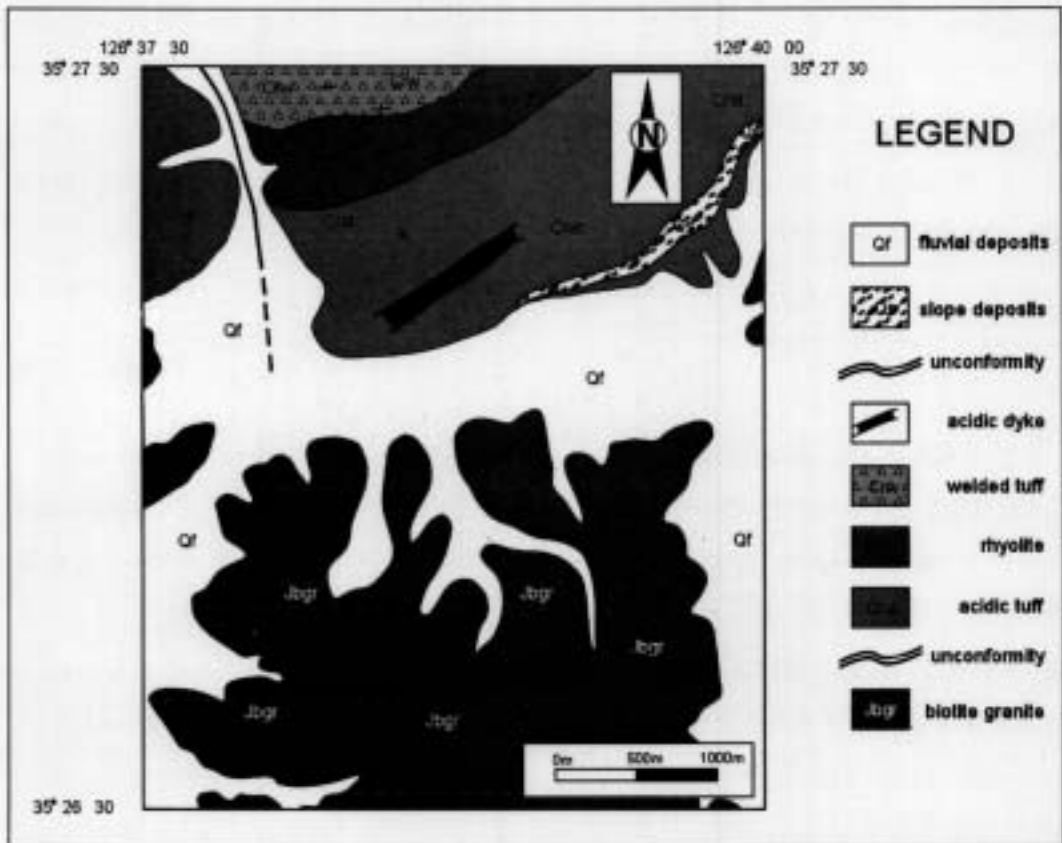


그림 5. 고창군 아산면 일대의 지질도(1:50,000 기준)
(지질자원연의 이병주 미발표 자료참고)

2. 지석묘 유적지 일대의 제4기 퇴적층 분석

2-1. 지층단면 분석

1) 단면별 토양·퇴적층 단면조사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일대의 논바닥에 대하여 3개소에서 시험구덩을 굴착하여 단면분석과 퇴적

층의 분포특성을 조사하고, 단면시료를 획득하였다. 이들 굴착지점은 (그림 6)에 나타나 있으며, KC-1은 고창천과 가장 인접하여 있으며, KC-2는 논 중앙에, 그리고 KC-3는 지석묘 분포지와 가장 인접한 경사면 하부에 위치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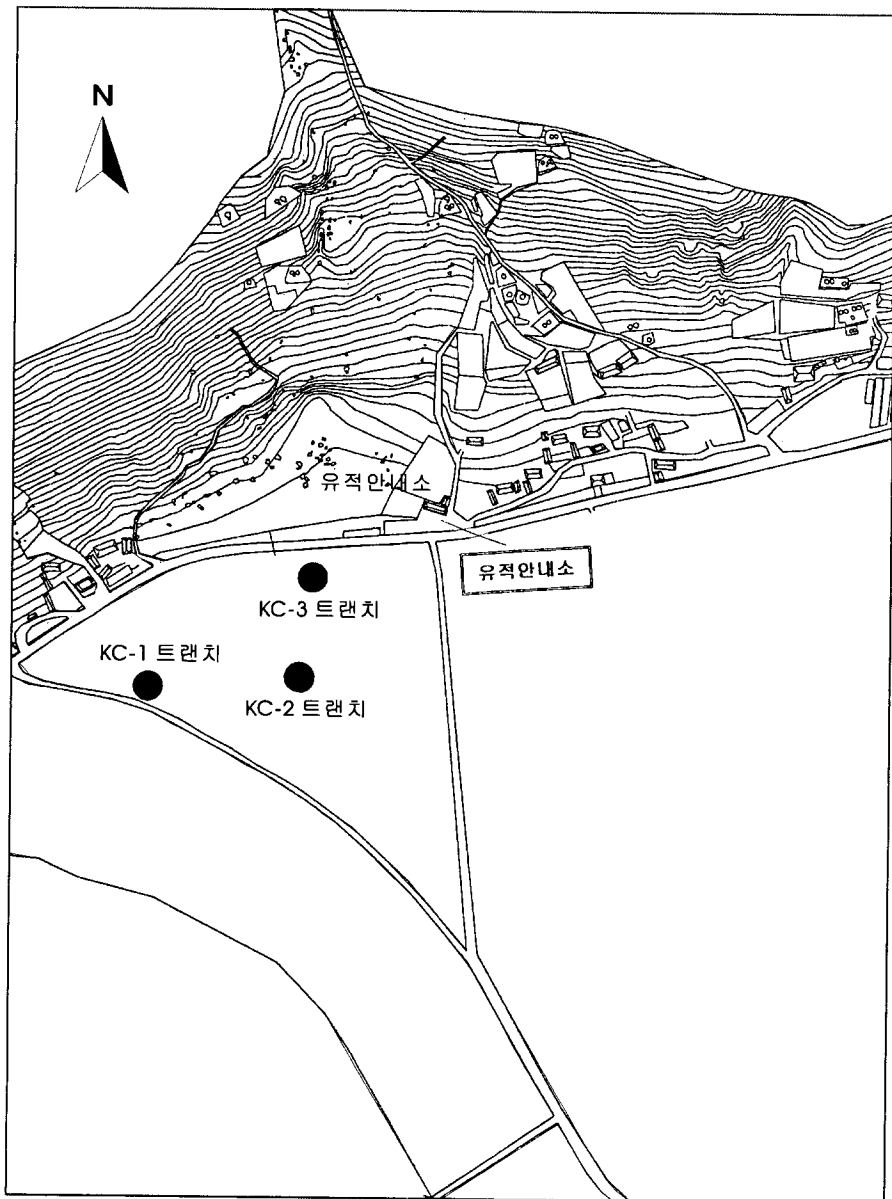


그림 6.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주변에 대한 시험구멍 위치도

① 고창 KC1 단면

본 단면은 약 360cm 깊이까지 굴착하였으며, 지하수위는 약 340cm 깊이에서 확인하였다(그림 7). 최하위에는 중립질 모래층이 분포하며, 320~300cm 깊이에는 암청회색의 니사질층이 분포한다. 그 상위에는 황록색 니사질층이 약 100cm 정도 (300~200cm 깊이)로 분포하는데, 특히 280~270cm 깊이에는 목편이 산재하며, 240~220cm 깊이에는 얇은 암회색 내지 청회색의 니층이 수매 협재되어 있다. 그 상위로는 니사질층 또는 사니질층이 약 180cm 정도로 분포한다. 이들 지층은 색 깔로 세분할 수 있는데, 하부에서부터 암회색(200~100cm), 회갈색(100~80cm), 암회갈색(80~20cm)을 보인다. 특히 150~130cm 부근에는 목편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80~50cm 부근의 암회갈색 니층에서는 산화철 반점이 관찰되어, 산화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토층은 20~0cm에 분포하는데, 암회색을 띠며 벼줄기 등 식물파편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KC1 단면의 280~270cm 깊이에서 출토되는 목편(wood fragments)에 대한 AMS 연대측정(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결과, 9,080±80년전(B.P)로 분석되었다(부록 2-1 연대자료 참고).

〈표 3〉 고창 지식묘 유적지점 목탄시료의 AMS 연대측정(서울대 AMS측정결과)

Sample No.	Lab.code.	BP/yr.	error	δ ¹³ C	Remark
KC1-1	SNU01-164	9,080	80	-29.1	270-280cm(wood)
KC2-1	SNU01-165	4,700	70	-29.1	140-150cm(wood)
KC2-2	SNU01-166	5,220	60	-30.5	230-240cm(organic mud)

② 고창 KC2 단면

본 단면은 약 330cm 깊이까지 굴착하였으며, 지하수위는 약 270cm 깊이에서 확인하였다(그림 8). 330~280cm 깊이에는 니질물이 함유된 조립질 모래층이 분포한다. 그 상위의 280~50cm 에는 니질물이 다양하게 포함된 니사질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다. 280~230cm 깊이에는 청회색의 니질 모래층이 분포하는데, 특히 250~230cm 깊이에서는 목편이 산재되어 있다. 230~180cm 깊이에는 암청갈색 니사질층이 분포한다. 180~160cm 깊이에는 회갈색 니질 모래층이 분포하는데, 여기에서는 산화철 반점이 발달하고 있다. 160~130cm 깊이에는 청회색 니사질층이 분포하는데, 특히 150~140cm 깊이에 목편이 산재되어 있다. 130~120cm 깊이에 회갈색 점토질 모래층이 분포하며, 여기에서도 산화철 반점이 발달하고 있다. 120~50cm 깊이에는 회갈색 니질 모래층이 비교적 두껍게 분포하는데, 이 층준에서는 부분적으로 교란을 받은 흔적이 관찰된다. 50~40cm 깊이에는

심도 (cm)

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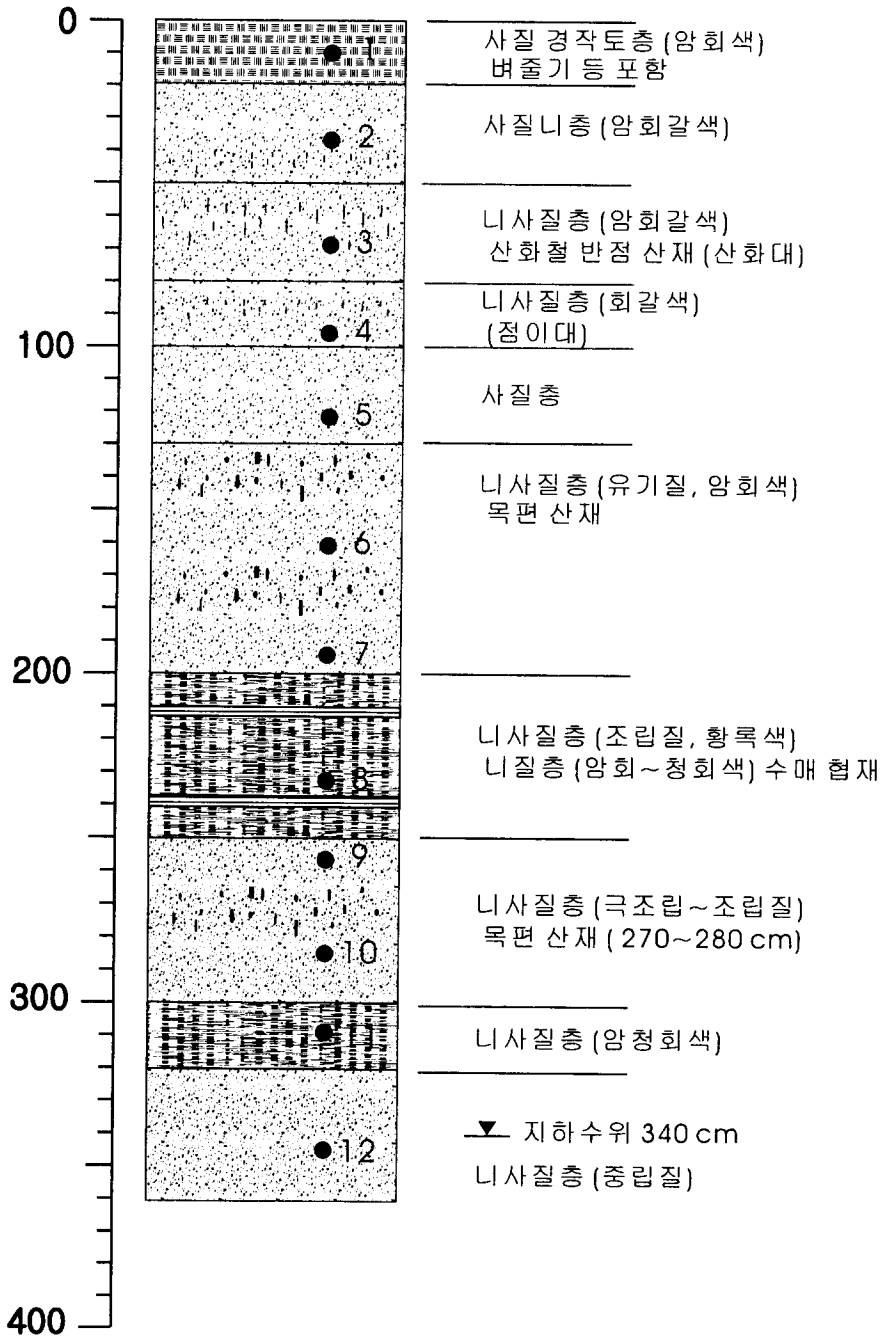


그림 7.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주변 KC-1 시험구덩 지층 분포도

심도 (cm)

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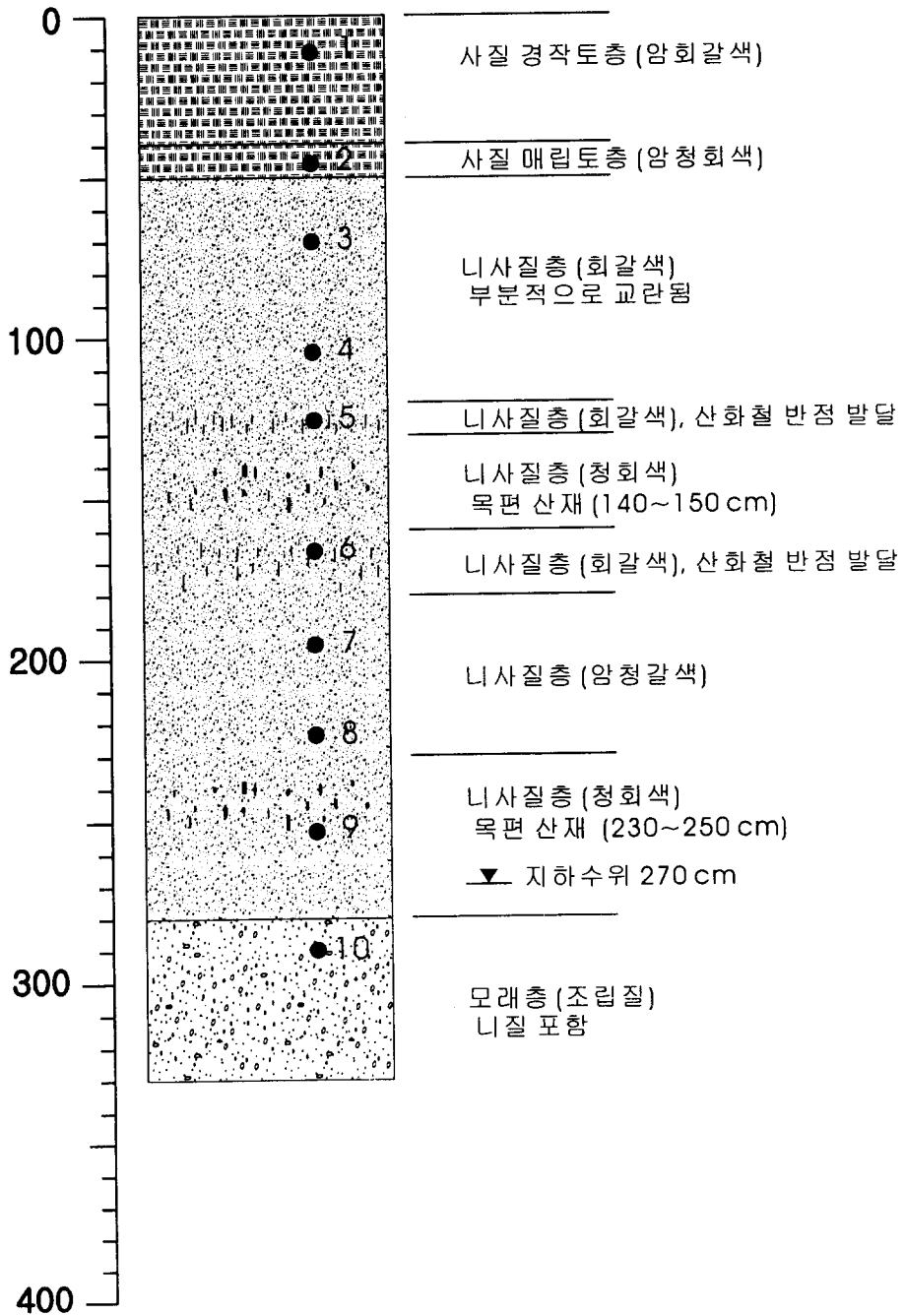


그림 8.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주변 KC-2 시험구멍 지층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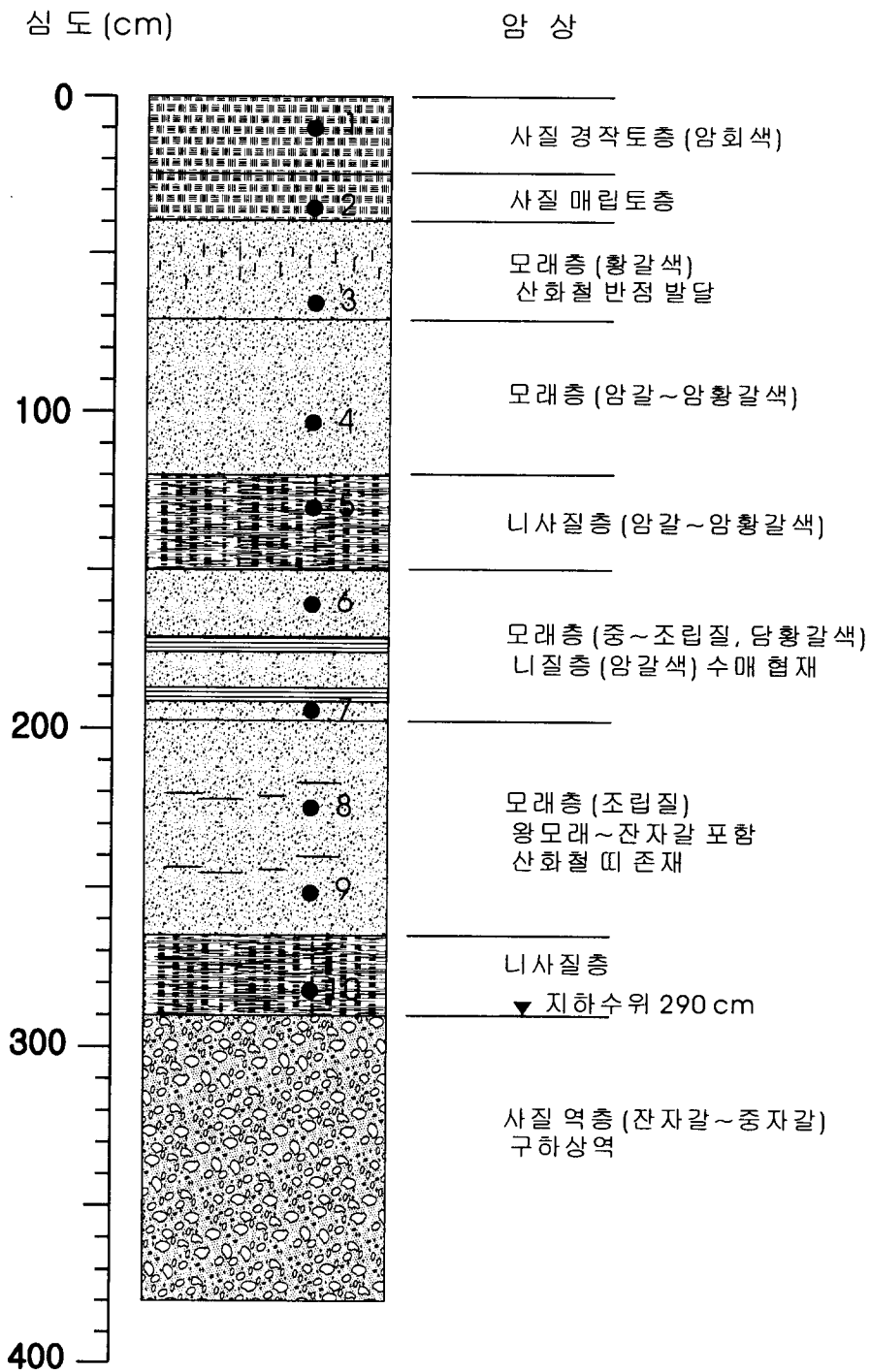


그림 9.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주변 KC-3 시험구명 지층 분포도

암회색 매립토가 분포하며, 50~0cm 깊이에는 암회갈색 경작토층이 분포한다. KC2 단면의 230~240cm 깊이의 유기질 니질물과 230~240cm 깊이에서 출토되는 목편(wood fragments)의 AMS 연대측정(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결과, $5,220 \pm 60$ 년전 (B.P)과 $4,700 \pm 70$ 년전 (B.P)으로 각각 분석되었다(부록 2-2와 2-3 연대자료 참고).

③ 고창 KC3 단면

본 단면은 약 380cm 깊이까지 트랜치하였으며, 지하수위는 약 290cm 깊이에서 확인하였다(그림 9). 380~290cm 깊이에는 잔자갈 또는 중자갈로 구성된 역층이 분포하는데, 이는 구하상 기원의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0~200cm 깊이에는 니질물이 많이 함유된 조립질 모래층이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왕모래와 잔자갈도 포함되어 있다. 220cm 부근에서는 산화철이 띠모양으로 산출된다. 200~150cm 깊이에는 담황갈색의 니질물이 함유된 중~조립질 모래층이 분포하며, 암갈색의 니질층이 수매 협재하고 있다. 150~40cm 깊이에는 니질 모래층 혹은 모래층이 두껍게 분포하는데, 약 70cm 깊이를 경계로 그 색깔이 암갈색 내지 암황갈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50cm 깊이 부근에서는 산화철 반점이 분포한다. 40~25cm 깊이에는 매립토층이, 그리고 25~0cm 깊이에는 암회색의 경작토층이 분포한다.

2-2. 퇴적물 입도분석

1) 퇴적물 입도분류

입도분석을 통하여 자갈(gravel)-모래(sand)-실트(silt)-점토(clay)의 함유 비율을 산정하였다. 3개의 단면에서 gravel-sand-mud의 입도분석으로 분류해 보면 자갈 함유비는 거의 없는 편이며(그림 10~12), sand-silt-clay의 입도분석으로 분류해 보면 주로 모래 또는 실트질 모래에 속한다(그림 13~15).

(1) 고창 KC1 단면

입도분석에 의하여 자갈, 모래, 실트, 점토의 함유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gravel-sand-mud와 sand-silt-clay 삼각분류도에 각각 도시하여 퇴적물을 구분하였다. 전자의 분류에 의하면, 본 단면의 시료는 주로 니질 모래(muddy sand)의 영역에 분포하며, 부분적으로(slightly gravelly

〈표 4〉 KC-1, KC-2, KC-3 시험구덩 시료의 심도별 자갈-모래-실트-점토 함유량 분포

(제 1시험구덩 단면)

시료번호	자갈(g)	모래(s)	실트(z)	점토(c)
1-10	0.00	59.05	40.95	0.00
1-40	0.00	45.72	54.28	0.00
1-70	25.51	59.19	15.30	0.00
1-100	3.46	69.84	26.70	0.00
1-130	16.27	83.73	0.00	0.00
1-160	0.00	62.72	37.28	0.00
1-190	0.00	52.97	44.99	2.04
1-220	0.00	51.85	45.43	2.73
1-250	0.00	64.93	33.30	1.77
1-280	0.88	75.97	22.29	0.86
1-310	0.00	72.99	25.71	1.30
1-340	1.37	65.10	31.67	1.87

(제 2시험구덩 단면)

2-10	2.89	87.26	9.84	0.00
2-40	0.00	76.54	23.46	0.00
2-70	0.00	48.32	51.68	0.00
2-100	0.00	55.70	44.30	0.00
2-130	0.00	80.65	19.35	0.00
2-160	0.00	61.18	38.82	0.00
2-190	0.00	69.64	29.16	1.19
2-220	1.12	62.41	35.03	1.44
2-250	3.67	74.47	20.79	1.06
2-280	0.75	55.75	41.31	2.18

(제 3시험구덩 단면)

3-10	19.20	80.80	0.00	0.00
3-40	3.45	96.55	0.00	0.00
3-70	1.37	98.63	0.00	0.00
3-100	3.14	96.86	0.00	0.00
3-130	0.00	78.56	21.44	0.00
3-160	0.00	100.00	0.00	0.00
3-190	0.65	77.70	21.66	0.00
3-220	0.00	69.91	30.09	0.00
3-250	0.00	66.12	33.88	0.00
3-280	0.00	59.16	38.45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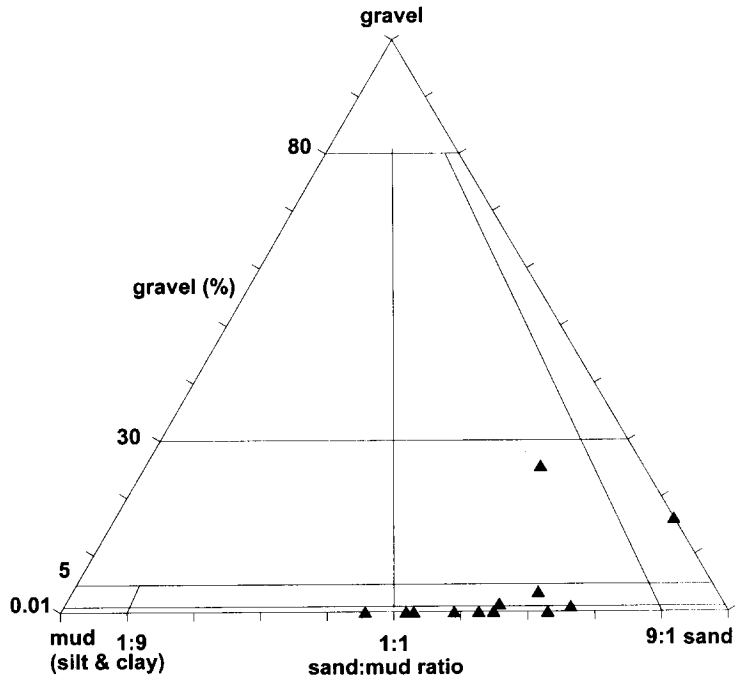


그림 10. 죽림리 KC-1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자갈-모래-니 삼각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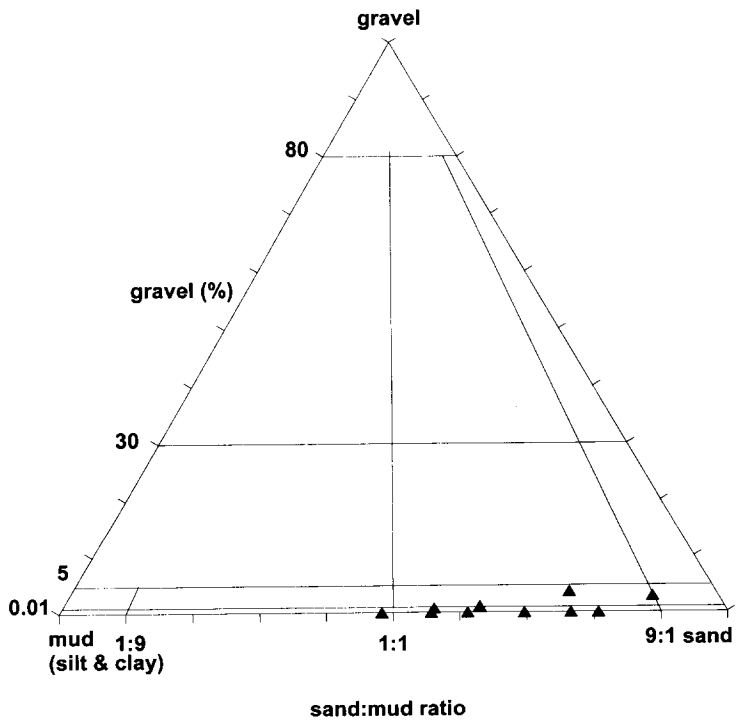


그림 11. 죽림리 KC-2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자갈-모래-니 삼각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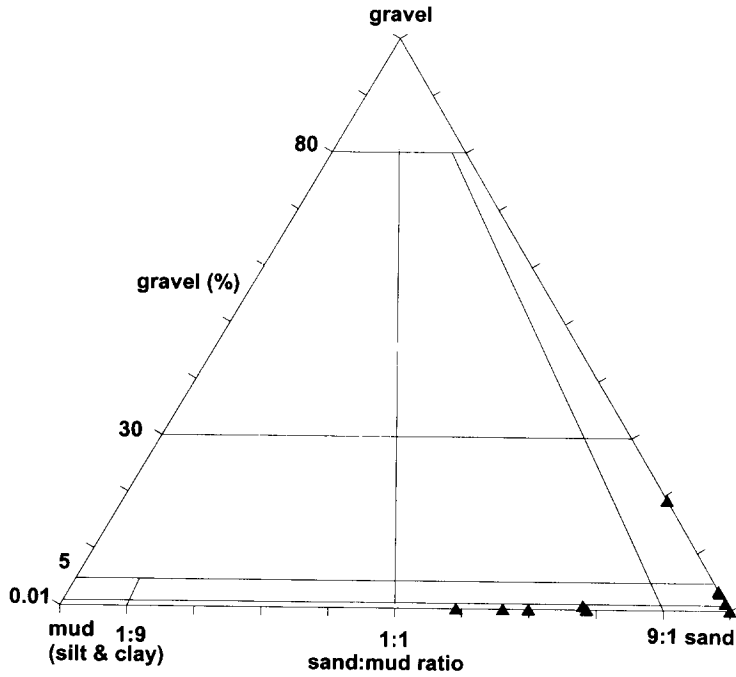


그림 12. 죽림리 KC-3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자갈-모래-니 삼각다이아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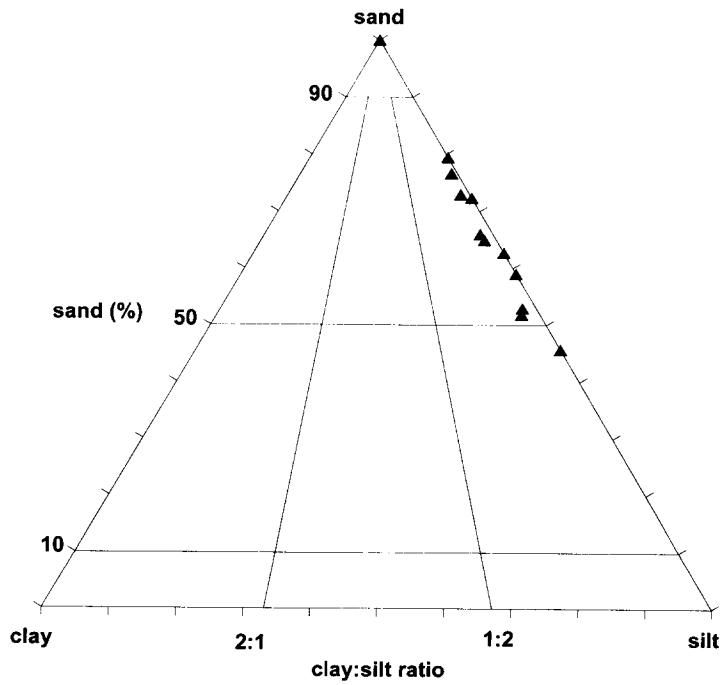


그림 13. 죽림리 KC-1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모래-실트-점토 삼각다이아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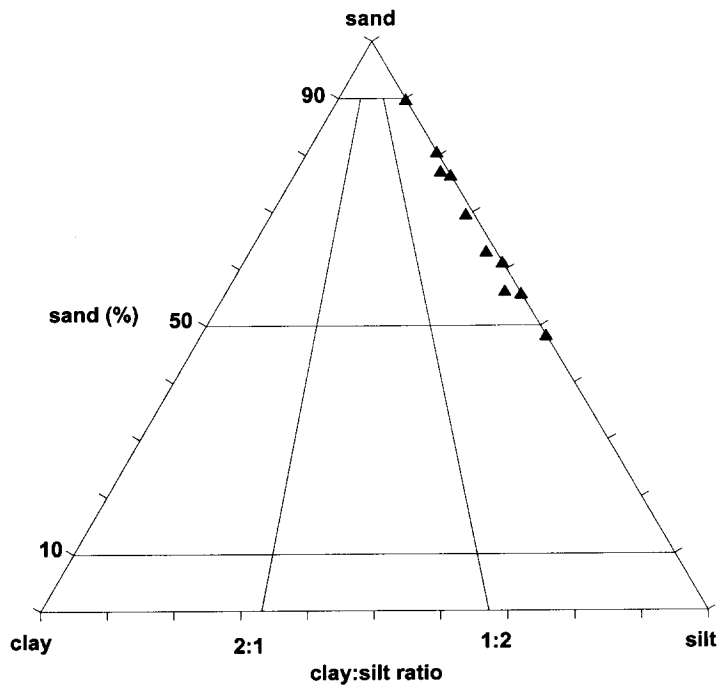


그림 14. 죽림리 KC-2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모래-실트-점토 삼각다이아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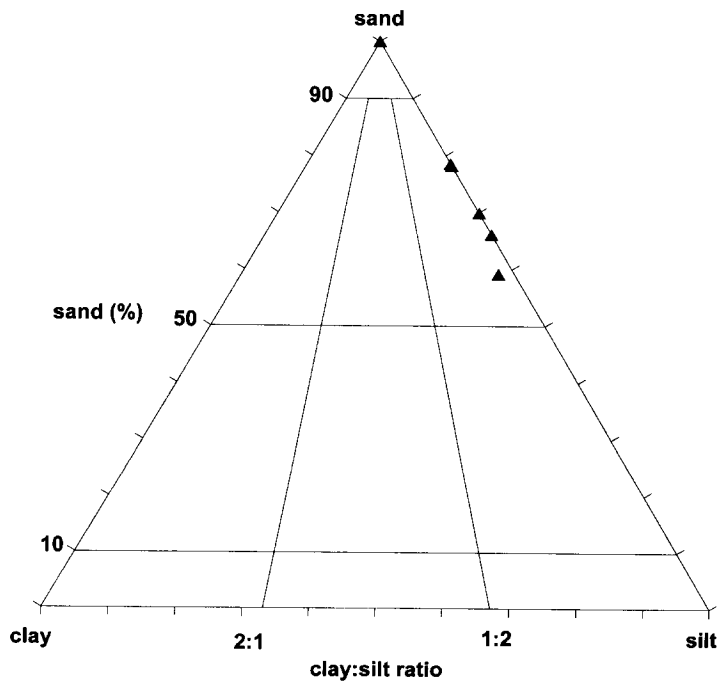


그림 15. 죽림리 KC-3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모래-실트-점토 삼각다이아그램

muddy sand)의 영역에 속한다(그림 10). 일부는 역니질 모래(gravelly muddy sand) 또는 역질 모래 (gravelly sand)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후자의 분류에 의하면, 시료의 대부분은 실트질 모래 (silty sand)의 영역에 속하며, 부분적으로 모래질 실트(sandy silt) 또는 모래(sand)에 포함한다 (그림 13 삼각다이어그램 참고). 고창 KC1 단면의 입도분석 결과, (그림 16)과 같이 하부 340~190cm 깊이에서는 니질의 성분비가 0.86~2.73% 정도를 보이는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니질 성분이 없어지면서 역질이 3.46~25.51% 정도 포함되어 있다. 상부의 경작토층과 암회갈색 점토층 부분 약 50cm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향조립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고창 KC2 단면

gravel-sand-mud의 분류도(그림 11)에 의하면, 본 단면의 시료는 주로 역니질 모래(gravelly muddy sand)의 영역에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니사질역(muddy sandy gravel), 미력니질 모래 (slightly gravelly muddy sand), 니질모래(muddy sand), 역질모래(gravelly sand)의 영역에 속한다. sand-silt-clay의 분류도에 의하면 시료의 대부분은 실트질 모래(silty sand)에 속하며, 일부가 모래(sand)의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14 삼각다이어그램 참고). 고창 KC2 단면의 입도분석 결과 (그림 17)과 같이 하부 190~280cm 깊이에서는 니질의 성분비가 1.06~2.18% 정도를 보이는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니질 성분이 없어지면서 표층인 2-10에 이르러서는 역질이 2.89% 나타나고 모래가 87.26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향조립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고창 KC3 단면

gravel-sand-mud의 분류도(그림 12)에 의하면 시료는 주로 역니질모래(gravelly muddy sand)와 미력니질모래(slightly gravelly muddy sand)의 영역에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니질모래 (muddy sand)와 역질모래(gravelly sand)의 영역에 도시된다. sand-silt-clay의 분류도에 의하면 시료의 대부분은 실트질 모래 (silty sand)에 속하며, 일부가 모래(sand)의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15 삼각다이어그램 참고). 고창 KC3 단면의 입도분석 결과, (그림 18)과 같이 최하부에서는 니질물의 성분비가 4.59%로 가장 낮고 모래의 성분비가 89.25%로 단면 중 가장 높은 성분비를 보였으며, 이후의 상부시료부터는 니질물의 성분비가 11.12~22.69%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오랜기간 동안 토양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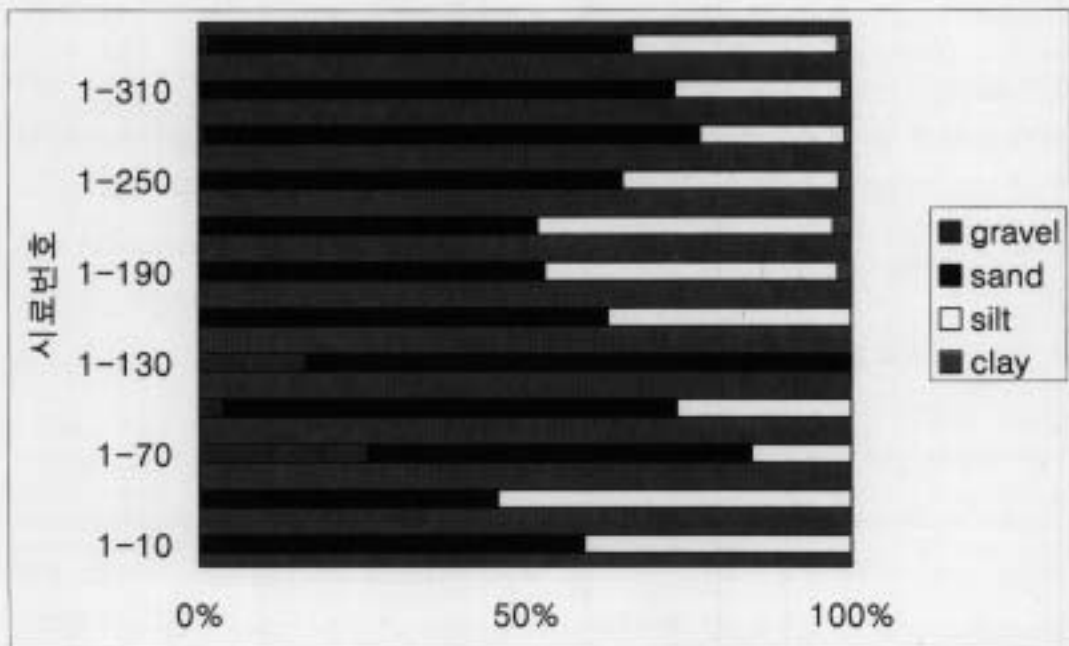


그림 16. KC-1 시험구멍 시료의 자갈-모래-실트-점토 함유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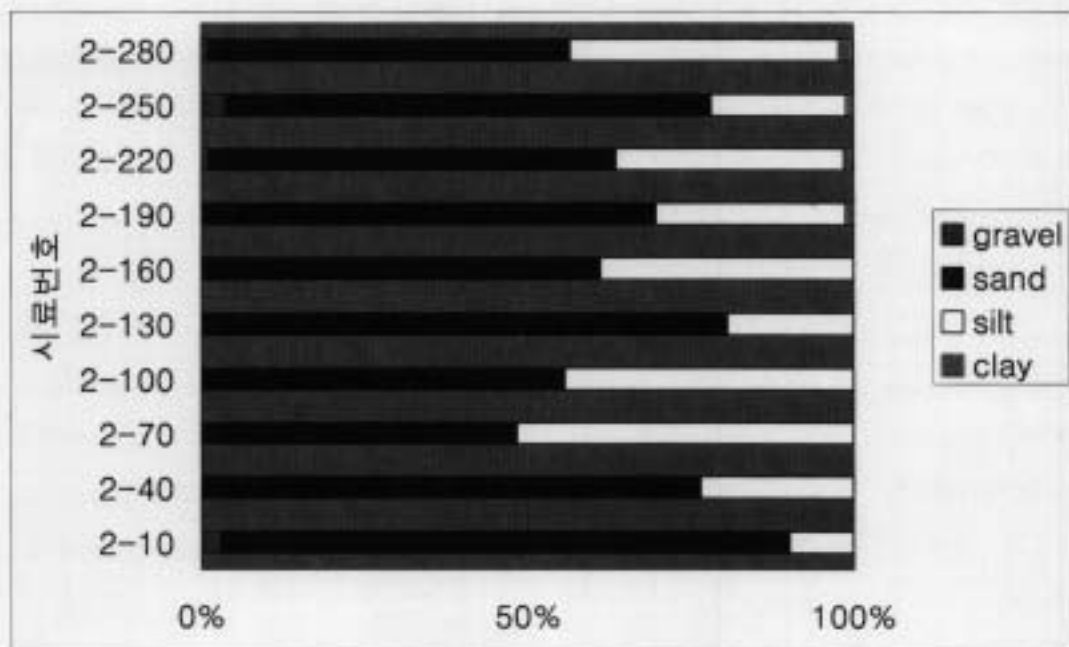


그림 17. KC-2 시험구멍 시료의 자갈-모래-실트-점토 함유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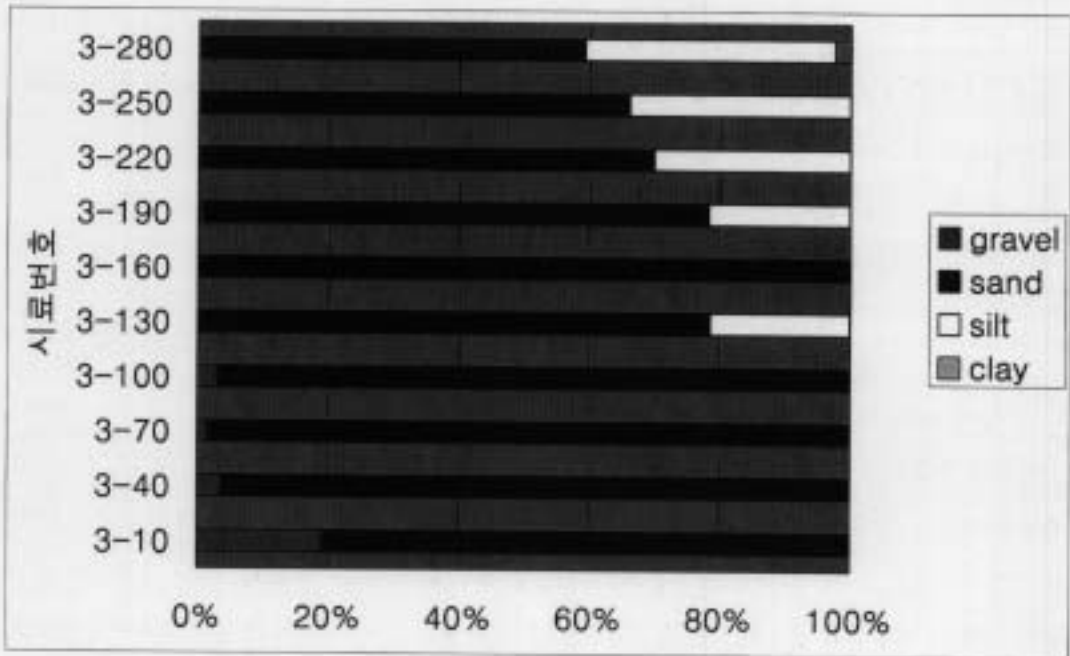


그림 18. KC-3 시험구덩 시료의 자갈-모래-실트-점토 함유량 분포도

2) 입도 통계변수 분포특성

토양과 퇴적물 조직특성 중 입도분포 특성을 통하여 퇴적물 이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입도 통계변수를 구해야 한다. 입도 통계변수를 구하는 방법은 누적분포곡선에서 $\phi 5$, $\phi 16$, $\phi 25$, $\phi 50$, $\phi 75$, $\phi 84$, $\phi 95$ 등에 해당하는 입도를 각각 구하여 공식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특정시료의 입자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oment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은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해서든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앙값, 조립질 1% 입도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입도 평균값은 입도 대표값으로서 최빈값(mode), 중앙값(median), 평균값(mean)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입도의 표준편차는 입도의 분급도를 지시한다. 각 퇴적환경에서의 유수작용 차이에 따라서 퇴적물은 상이한 입도군(size population)을 보이는데, 특히 입도군이 평균값에 어느 정도 집중·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입도변수가 분급도이다. 분산도를 지시하는 변수의 값이 작을수록 퇴적물의 분급도는 양호하게 된다. 입도군에 대한 왜도는 입도빈도 다이나그램상 입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분포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음의 왜도로 갈수록 조립질의 분급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도군에 대한 첨도는 입도

분포 곡선의 중앙부에 대한 말단부의 분급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중앙부의 분급상태가 말단부보다 더 양호하면 첨형(leptokurtic)을 나타낸다. 고창 시료의 입도분석에서는 입자들의 표준 통계변수를 moment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서 평균값(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구하였으며, 보간법에 의하여 조립질 1%(coarsest 1-percentile)과 중앙값 (median)을 각각 구하여 층위단면의 위치에 따른 변수의 수직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1) 고창 KC1 단면의 입도 통계분석 결과

입도 평균값은 조립질 실트에서 조립질 모래의 특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0.663~4.135 phi의 범위를 가진다. 중앙값은 0.370~4.100 phi의 범위를 보이며, 심부의 조립질 모래가 표면에 가까울수록 극세립질 모래로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19). 또한, 모든 시료에서 입도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더 세립질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직단면상에서 볼 때 심부의 조립질 모래에서 상부로 가면서 표층에 이르러 극세립질 모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입도 표준편차는 1.587~2.572 phi의 범위값을 보이므로 분급도는 모든 시료가 불량한 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입자가 세립화하면서 분급도가 미약하게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왜도는 0.273~1.145phi의 범위를 보이며, KC1-40시료만이 fine-skewed(positive skewed)의 범주에 속하며, 나머지 시료는 왜도가 very fine-skewed(positive skewed)인 경향을 보이며 세립질의 분급도가 중립질의 분급도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첨도는 -1.725~1.223 phi의 다양한 범위값을 보이며, 평정한 경향을 보이다가 KC1-280과 KC1-310시료에 이르러 정상적인 빈도분포에 가까워지고 다시 최고심도에서 평정 상태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립질 1%(coarsest 1-percentile)의 입도는 시료의 대부분이 조립질 모래의 영역에 분포하지만 KC-70~KC-130에서는 잔자갈(granule)과 중자갈(pebble)의 범위를 갖는다. 평균값, 중앙값, 조립질 1% 입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본 수직단면에서는 최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중립질 모래와 세립질 모래층이 교호하며 상부로 갈수록 상향세립화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조립질 1%입도는 표층에서 다시 조립화 한다.

(2) 고창 KC2 단면의 입도 통계분석 결과

입도 평균값은 조립실트와 중립모래의 특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1.704~4.609 phi의 범위를 가진다. 중앙값은 1.040~4.050 phi의 범위를 보이며, 시료의 대부분이 중립질 모래의 영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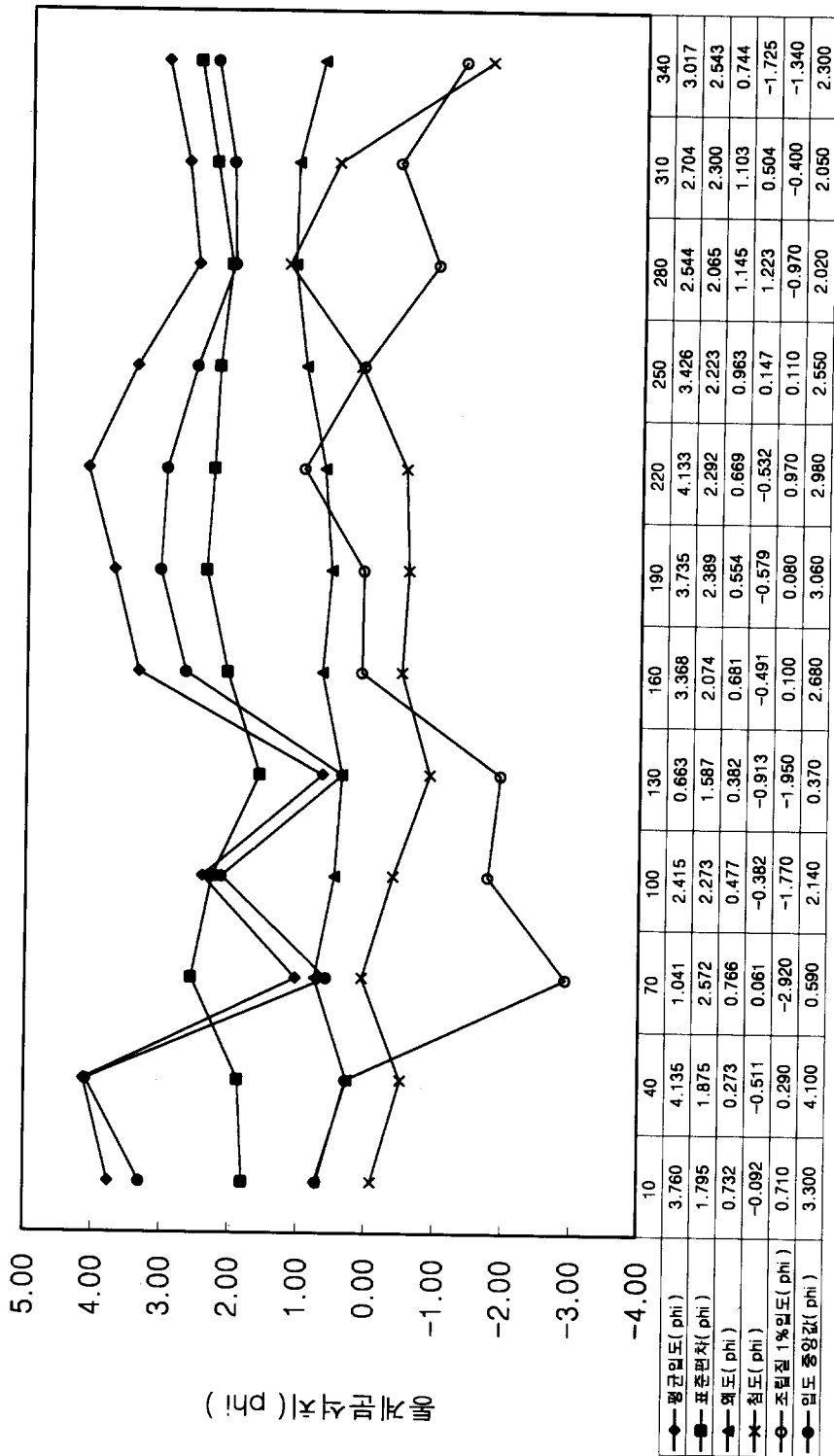


그림 19. KO-1 시험구덩 시료의 심도별 입도 통계변수 변화도

세립질 모래의 범위에 분포한다. 또한, 모든 시료의 입도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더 세립질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0). 수직단면상에서 볼 때 세립질 모래가 단면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전체적으로는 심부에서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극세립질 모래에서 조립질 모래로 완만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입도 표준편차는 1.466~2.481 phi의 범위값을 보이므로 분급도는 불량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입자가 세립화하면서 분급도가 미약하게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왜도는 0.531~1.477 phi의 범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왜도가 양의 값을 가지는 very fine-skewed(positive skewed)의 경향을 보이며 세립질의 분급도가 중립질의 분급도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첨도는 -0.983~2.293 phi의 범위값을 보이며, 첨도는 KC1-10과 KC1-130시료에서는 평균값주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료는 정상적인 빈도분포보다 평정상태로 낮게 퍼진 경향을 보인다. 조립질 1%(coarsest 1-percentile)의 입도는 -2.73~1.030 phi로 이는 중립질 모래에서 중자갈(pebble)의 범위에 분포한다. 평균값, 중앙값, 조립질 1% 입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본 수직단면에서는 최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세립화와 조립화를 반복하다가 표층에 이르러서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3) 고창 KC3 단면의 입도 통계분석 결과

입도 평균값은 극세립질 모래와 극조립질 모래의 특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0.042~3.765 phi의 범위를 가진다. 중앙값은 0.210~3.100 phi의 범위를 보이며, KC1-10와 KC1-100시료를 제외하고는 입도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더 세립질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1). 수직단면상에서 볼 때 최하부 극세립질 모래에서 잔자갈로 서서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입도 표준편차는 0.829~2.318 phi의 범위값을 보이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분급도는 불량한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입자가 세립화하면서 분급도가 미약하게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왜도는 -0.877~1.140 phi의 다양한 범위를 보이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음의 영역인 very coarse-skewed(negative skewed)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very fine-skewed(positive skewed)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세립질의 분급도가 조립질의 분급도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첨도는 -0.665~1.965 phi로 다양한 범위값을 보인다. 즉, 단면상의 위치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표면에서는 평정상태를 보이다가 KC1-100과 KC1-130시료에서는 오히려 leptokurtic한 경향을 보이며, 다시 최고 심도로 갈수록 평정상태로 변하는 흐름을 보인다. 조립질 1%(coarsest 1-percentile)의 입도는 조립질 모래부터 중자갈(pebble)의 영역에 분포한다. 평균값, 중앙값, 조립질 1% 입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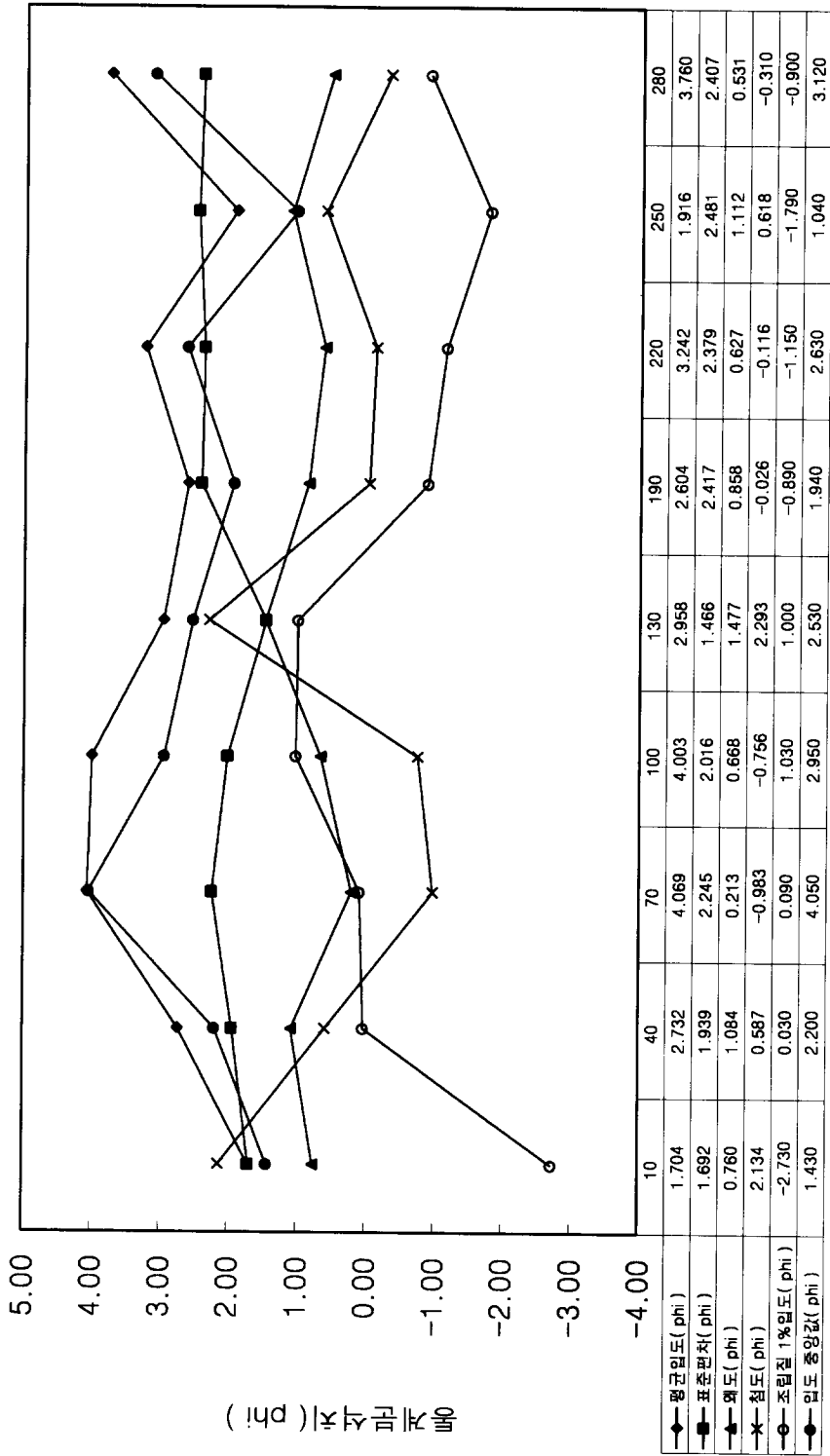


그림 20. KC-2 시험구덩 시료의 심도별 입도 통계변수 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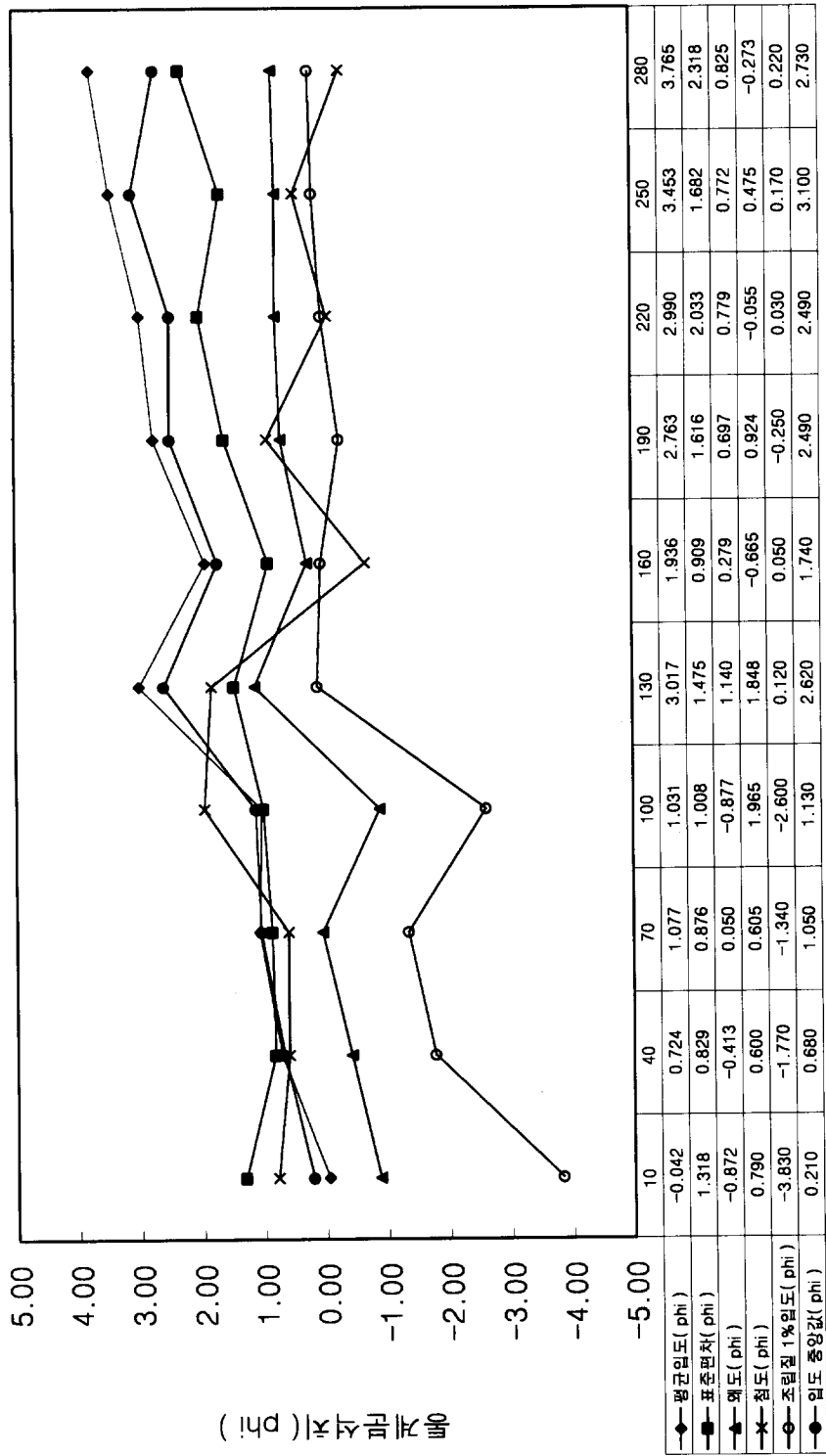


그림 21. KC-3 시험구덩 시료의 심도별 임도 통계변수 변화도

수직단면에서는 시료 위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부의 조립질 모래에서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상향세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퇴적물의 C-M 다이어그램 분포특성

죽림리 지석묘 유적지 일대의 시험구덩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산출한 입도의 중앙값(ϕ_{50})과 조립질 1%의 입도를 이용하여 C-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이들 입도 변수를 대수방안지에 표시하여 C=M 선을 중심으로 이 보다 위에 표시되는 점들의 분포 경향을 해석하여 퇴적물의 구성입자의 이동기작을 해석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고창군 죽림리 고창천 주변 시험단면 시료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퇴적물의 C-M 다이어그램 분포특성은 일시천(ephemeral stream)의 바닥짐(bed load)과 조약(saltation) 형태로 이동한 퇴적물과 부유성(suspension) 퇴적물이 섞여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2~24). 그러나 이들 퇴적물 이외에 니류작용(mudflow)이나 혼탁류작용(turbidity flow)으로 인해 이동된 퇴적물이 부분적으로 섞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니류작용이나 혼탁류 작용은 홍수범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할 때 일어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퇴적물 이동기작으로 보는 해석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으로는 상기 퇴적물이 퇴적된 이후 수반된 토양화 과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퇴적물의 입자가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립화되었을 경우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퇴적물의 C-M 분포특성상 전체적으로 C-M에 거의 평행하면서 왼쪽으로 이동된 경향(또는 세립화된 경향)을 보이게 된다.

2-3. 화분분석

1) 시료채취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지석묘 유적지 전방의 농경지(답)에 고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굴착된 3개 단면(KC-1, KC-2, KC-3)에서 채취하였다. 굴착 단면에 50cm 길이의 ㅁ 자형 철제상자를 연속적으로 박아서 획득한 퇴적층에서 10cm 간격으로 총 94개의 시료(KC-1, 35개 : KC-2, 29개 : KC-3, 30개)를 획득하였다. 시료가 채취된 경작지 주변의 북쪽은 해발 200m 이하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은 인천강의 지류가 자연 제방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따라서 본 화분 분석에서는 과거 이 지역의 어느 지점 까지가 하천의 영향하에 있었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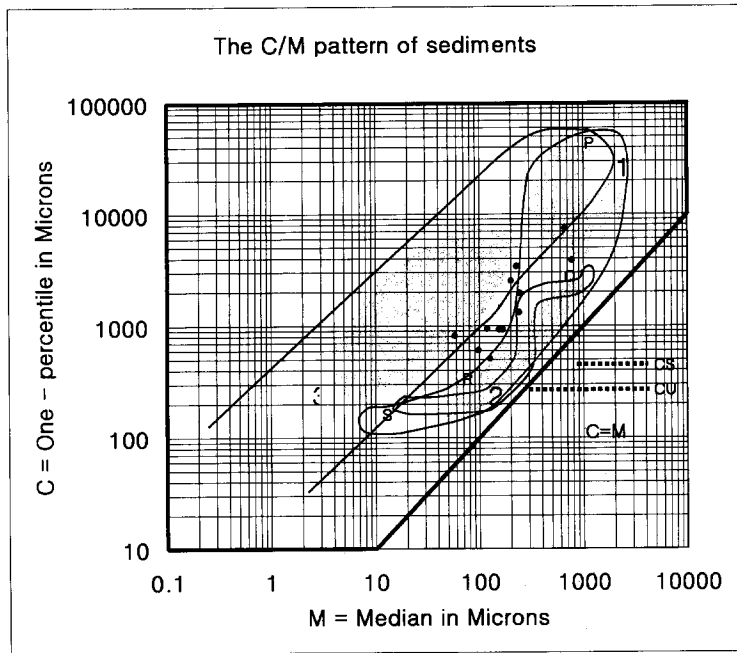


그림 22. KC-1 시험구덩 시료의 C-M 다이어그램 특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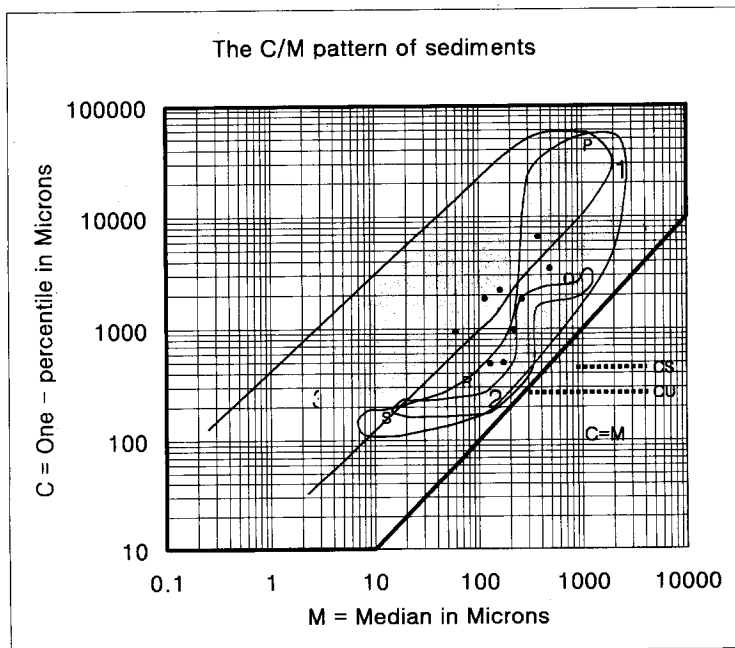


그림 23. KC-2 시험구덩 시료의 C-M 다이어그램 특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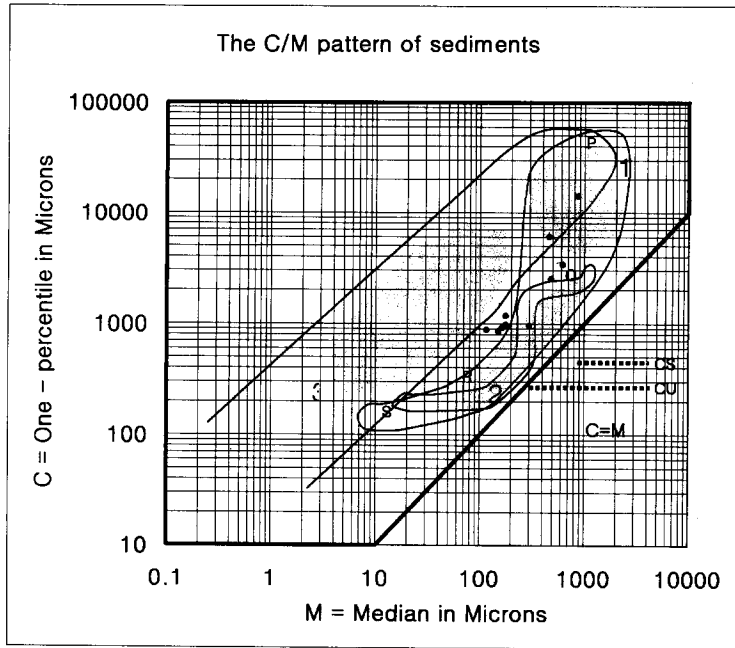


그림 24. KC-3 시험구덩 시료의 C-M 다이어그램 특성도

화분화석을 비롯한 유기질 미화석의 연구를 위한 시료처리는 약 30g의 시료를 20% 염산과 50% 불산에 차례로 반응시켜 탄산염광물과 규산염광물을 제거한 후, 잔여물을 비중 2.0의 염화아연비중액으로 분리시켜 유기물을 농축시켰다. 농축된 유기물은 Schulze 용액(HNO₃ 1:1 KClO₃)과 5% KOH 용액으로 환원시켜 미화석을 퇴적당시의 상태로 복원하여 현미경 하에서 분류하였다. 시료처리의 전 과정은 현생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미화석의 현미경 관찰은 시료 당 200 개체씩 관찰, 분류하였으며 도판의 사진은 Leitz Orthoplan 현미경으로 촬영하여 800 배의 크기로 도시하였다.

2) 고식물상(古植物相)

고창 아산면 죽림리 일대의 3개 시험구덩에서 94개 시료를 취하여 화분분석한 결과 총 54 종류의 화분, 포자 및 담수조류화석이 산출되었다. 산출된 미화석 군집은 크게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담수조류화석, 양치류 포자화석, 나자식물 화분화석, 목본류 피자식물 화분화석 및 초본류 화분화석으로 구분되며, 각 주요 군집의 구성요소 및 산출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Freshwater Algae(담수 조류화석)

<i>Leiosphaeridia</i> (0-34%)	<i>Micrhystridium</i> (0-1.5%)
<i>Pseudoschizaea</i> (0-13%)	<i>Zygnema</i> (trace)
<i>Spirogyra</i> (0-3%)	Unidentified algae (0-8%)

(2) Pteridophytic spores(양치류 포자)

<i>Laevigatosporites</i> (고란초과 : 0-59%)	<i>Osmunda</i> (고비속 : 0-2%)
<i>Cyathidites</i> (고사리류 : trace)	<i>Pteridium</i> (고사리류 : trace)
<i>Lycopodium</i> (석송: trace)	Unidentified trilete spores(0-3%)

(3) Gymnosperm pollen(나자식물 화분)

<i>Pinus</i> (소나무속 : 0-69%)	<i>Tsuga</i> (솔송나무속 : trace)
Cupressaceae(측백나무과 : 0-2.5%)	

(4) Angiosperm arboreal pollen(목본성 피자식물 화분)

<i>Quercus</i> (참나무속 : 0-8.5%)	<i>Juglans</i> (가래나무속 : 0-3%)
<i>Alnus</i> (오리나무속 : 0-50.5%)	Betulaceae(자작나무과 : 0-8%)
<i>Ulmus/Zelkova</i> (느릅나무속/느티나무속 : 0-3%)	
<i>Salix</i> (버드나무속 : trace)	<i>Acer</i> (단풍나무속 : trace)
<i>Tilia</i> (피나무속 : 0-10%)	<i>Rhus</i> (옻나무속 : trace)
Rosaceae(장미과 : 0-6%)	<i>Ericaceae</i> (진달래과 : trace)
<i>Ligustrum</i> (쥐똥나무속 : trace)	<i>Ilex</i> (감탕나무과 : trace)
<i>Symplocos</i> (노린재나무속 : trace)	

(5) Non-arboreal pollen (초본식물 화분)

Chenopodiaceae(명아주과 : 0-1.5%)	Gramineae(벼과 : 0-36%)
Cyperaceae(사초과 : 0-20%)	Compositae(국화과 : 0-8%)

Umbelliferae(산형과 : trace)	Polygonaceae(마디풀과 : 0-13%)
Saxifragaceae(범의귀과 : 0-5.5%)	Caryophyllaceae(석죽과 : 0-5%)
Ranunculaceae(미나리아재비과 : 0-3%)	Liliaceae(백합과 : 0-3%)
Verbenaceae(마편초과 : trace)	Malvaceae(아욱과 : trace)
Labiatae(꿀풀과 : trace)	Salvia(단삼속 : trace)
Geranium(쥐손이풀속 : trace)	Arisaema(천남성속 : trace)
Oxalis(괘이밥 : trace)	Corydalis(현호색속 : 0-3.5%)

* 수생식물

Potamogeton(가래속 : trace)	Nymphaea(수련속 : trace)
Nelumbo(연꽃 : trace)	Myriophyllum(물수세미속 : trace)

고창 지석묘 유적지 일대에서 산출된 유기질 미화석의 산출양상을 보면, 산록에 인접한 KC-3 단면에서는 상부 경작토 구간에서만 화분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반면, 하천에 인접한 KC-1 및 KC-2 단면에서는 하부구간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분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또한, 각 단면의 상부 구간에서는 소나무(*Pinus*) 화분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산출되며, 그 하부 구간에서는 오리나무(*Alnus*), 참나무(*Quercus*) 등의 낙엽활엽수 화분이 우세하게 산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주요 식물군별 산출양상을 보면 조류화석(freshwater algae)은 약 10%의 평균 산출비를 보이고, 일부 시료에서는 최대 35%까지 점유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이 관찰되는 종류는 *Pseudoschizaea* 화석으로 하안 단구의 소택지에 서식하는 조류이며, 이 외에 *Leiosphaeridia*, *Botryococcus*, *Spirogyra* 등 주로 정체된 담수에 서식하는 조류화석들이 흔히 관찰된다. 양치류 포자화석(pteridophytic spores)은 평균 20%의 산출비를 보이며 최대 59%의 높은 산출비를 보이는 구간도 있다. 이 종류의 대부분은 monolete spore인 *Laevigatosporites* 및 *Polypodiisporites* 가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trilete spore 의 산출은 미약하다. 나자식물 화분화석(gymnosperm pollen)으로는 소나무과(Pinaceae)에 속하는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상부에서 50% 이상의 높은 산출비를 보인다. 피자식물 중 목본성 식물의 화분화석은 자작나무과(Betulaceae)와 참나무과(Fagaceae)에 속하는 종류들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이외에 피나무속(*Tilia*), 느릅나무과(Ulmaceae), 가래나무속

(*Juglans*), 장미과(Rosaceae)등의 화분화석이 흔히 관찰되며, 이외에 단풍나무속(*Acer*)과 옷나무속(*Rhus*)의 화분화석이 소량 산출된다. 초본식물 화분화석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산출되는데 이들 중 주종을 이루는 종류는 벼과(Gramineae) 및 사초과(Cyperaceae)의 화분화석이며, 흔히 관찰되는 종류는 국화과(Compositae), 마디풀과(Polygonaceae), 범의귀과(Saxifragaceae), 석죽과(Caryophyllaceae),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백합과 (Liliaceae)등의 화분화석이고, 이 외에 명아주과(Chenopodiaceae), 미나리과(Umbelliferae), 쥐손이풀속(*Geranium*), 현호색속(*Corydalis*), 꿀풀과(Labiatae), 천남성속(*Arisaema*) 및 담수식물인 연꽃(*Nelumbo*), 수련속(*Nymphaea*), 물수세미속(*Myriophyllum*)의 화분화석이 산출된다.

3) 화분화석대(花粉化石帶)

(1) KC-1 구덩단면

하천에 가장 인접한 KC-1 단면에서는 일부 조립질 쇄설물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화분,포자화석이 산출되며(〈표 5〉와 〈그림 25〉 참고), 이들은 4개의 화석대로 구분되고 각 화석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KC-1a : *Pinus* Zone (Top - 50cm)

이 구간은 주로 암회갈색 니질층으로 구성되며 최상부는 경작토로 피복되어있다. 이 구간의 시료에서는 풍부한 미화석 군집이 산출되는데, 이 미화석군집의 우점종은 소나무속 (*Pinus*) 화분으로 50% 내외의 높은 산출비를 보인다. 초본식물로는 벼과(Gramineae) 화분이 가장 흔하고, 이외에 사초과(Cyperaceae), 마디풀과(Polygonaceae), 국화과(Compositae)등의 다양한 종류의 초본식물이 번성하였던 양상을 보이며, 양치류 포자와 담수조류화석도 흔히 관찰된다.

② KC-1b : *Laevigatosporites* Zone(50 - 120cm)

이 구간은 회갈색 내지 암회색 니질층으로 구성되며 상부 약 30cm 구간은 고토양으로 유추되는 산화대가 위치한다. 이 산화대에서는 미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으며, 그 하부 구간에서도 화분화석의 산출은 극히 미약한 반면에 양치류 포자화석 *Laevigatosporites*와 담수조류화석 *Pseudoschizaea*가 풍부하게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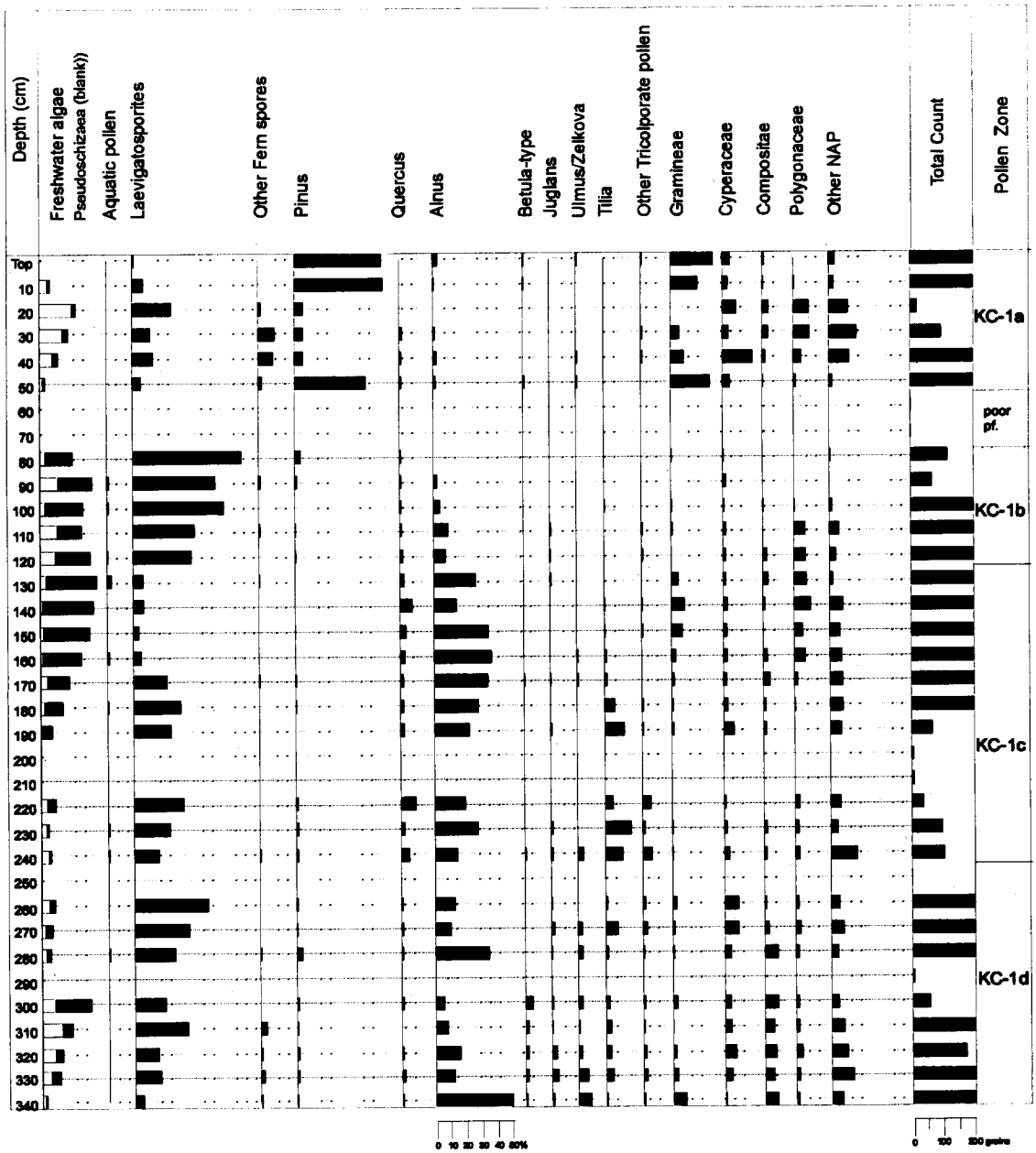


그림 25. KC-1 시험구덩 시료의 화분다이아그램

③ KC-1c : *Alnus - Quercus* Zone(120 - 250cm)

이 구간의 상부는 암회색 니질층이 우세하고 하부는 니질층을 수매 협재하는 황록색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분화석은 주로 상부 구간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며 우점종은 오리나무속(*Alnus*)이고 참나무속(*Quercus*)과 피나무속(*Tilia*)이 협재되어 산출된다. 초본식물의 산출은 많이 감소되었으며 마디풀과(Polygonaceae)가 그중 가장 흔하다.

④ KC-1d : *Alnus* Zone(250 - 340cm , Bottom)

이 구간은 주로 중립 내지 조립질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간이 협재된 니질층에서 화분, 포자화석이 다량 산출되어 당시의 식생을 알 수있다. 이 당시의 식생은 오리나무속(*Alnus*)을 비롯한 자작나무과(*Betulaceae*)식물이 가장 번성하였고, 여기에 느릅나무과(*Ulmaceae*), 가래나무속(*Juglans*), 피나무속(*Tilia*) 등의 온대 낙엽활엽수들이 협재된 양상이다. 초본식물로는 국화과(*Compositae*), 사초과(*Cyperaceae*) 및 양치류의 화분,포자화석이 흔히 관찰된다.

(2) KC-2 구덩단면

KC-1단면에 비하여 고창천에서 좀더 산지쪽으로 위치한 KC-2 단면에서는 조립질 쇄설물 구간이 많아서 미화석의 산출이 빈약한 구간이 많다. 그러나 사이 사이에 협재된 니질층 구간에서 화분, 포자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며(〈표 6〉과 〈그림 26〉참고), 이들은 3개의 화석대로 구분되고 각 화석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KC-2a : *Pinus* Zone(Top - 80cm)

이 구간은 회갈색 니사질층으로 구성되며 상부는 암회색 매립 경작토로 피복되어 있으며 미화석의 산출이 풍부하다. 이 미화석 군집의 주종은 소나무(*Pinus*)이며 50% 이상의 높은 산출비를 보인다. 초본으로는 벼과(*Gramineae*) 화분이 30-40%의 비율로 산출되며 기타 화분,포자화석의 산출은 미약하다.

② KC-2b : *Laevigatosporites* Zone(80 - 250cm)

이 구간의 상반부는 철 산화반점이 발달된 청회색 니사질층으로, 중하부는 암청회색 니질층으로, 최하부는 청회색 니사질층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미화석의 산출이 미약하나 중하부 구간에서 비교적 양호한 화석 군집이 발견된다. 이 군집의 특징은 양치류 포자화석 *Laevigatosporites*와 담수조류화석 *Pseudoschizaea*가 많이 산출되는 점이며, 일부 구간에서만 목본식물의 화분화석이 소량 검출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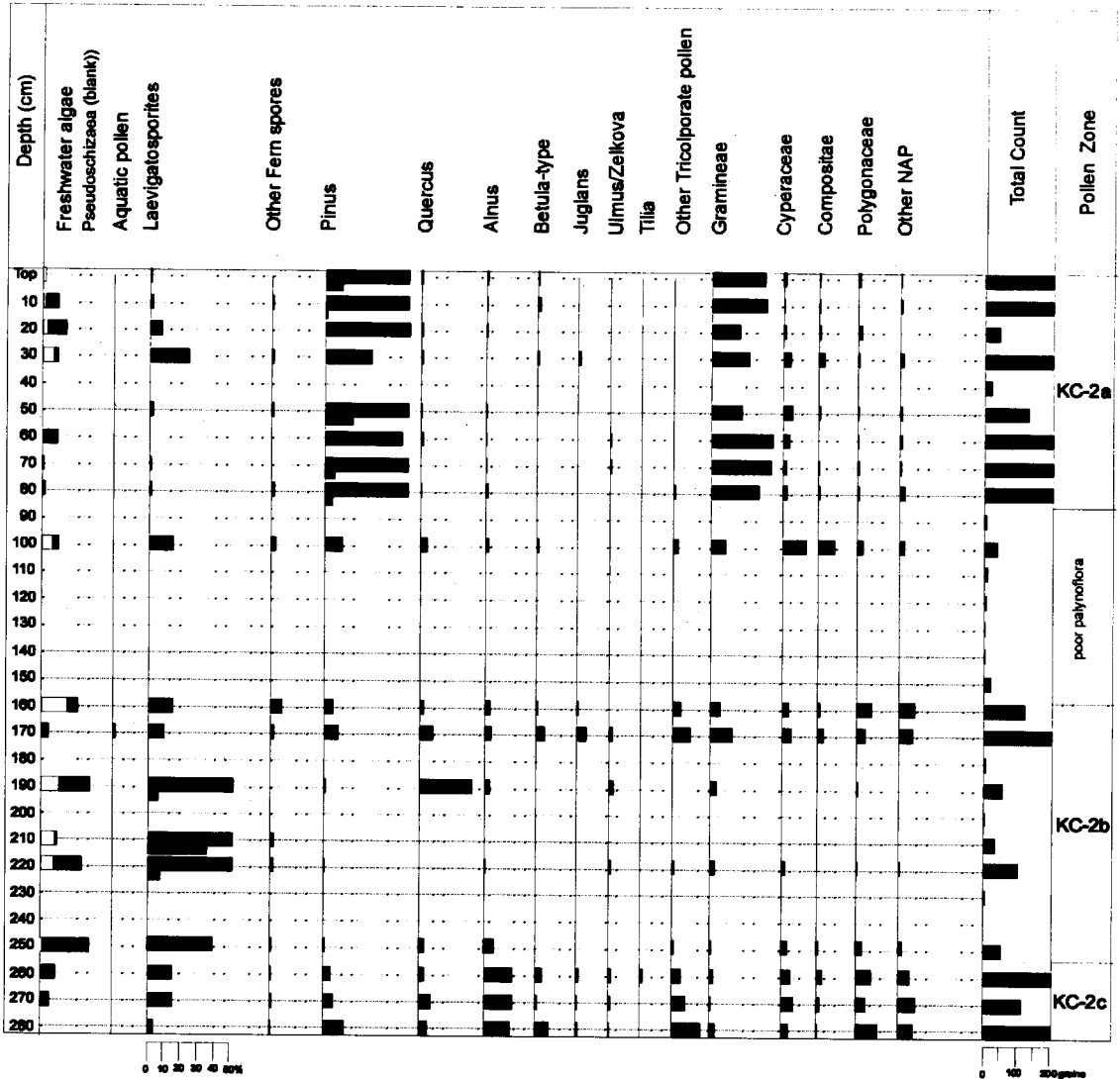


그림 26. KC-2 시험구덩 시료의 화분다이아그램

③ KC-2c : *Alnus - Quercus* Zone(250 - 280cm, Bottom)

이 구간은 식물편이 함유된 니사질층으로 미화석의 산출이 양호하다. 주종을 이루는 화분화석은 오리나무속(*Alnus*)과 참나무속(*Quercus*)이며 여기에 자작나무과(*Betulaceae*), 가래나무속(*Juglans*), 느릅나무과(*Ulmaceae*), 장미과(*Rosaceae*), 윗나무속(*Rhus*), 피나무속(*Tilia*) 등의 온대 낙엽수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초본으로는 마디풀과(*Polygonaceae*),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사초과(*Cyperaceae*)등의 식물이 비교적 흔하며, 양치류와 담수조류도 소량 산출된다.

(3) KC-3 구덩단면

지석묘 분포지에서 산지쪽에 가장 인접한 KC-3 단면에서는 최상부 경작토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립질 쇄설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화석의 산출이 극히 빈약하고, 다만 상부에서만 미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표 7〉과 〈그림 27〉참고). 따라서 이 단면에서는 단지 2개의 화석대만이 인지될 뿐이다.

① KC-3a : *Pinus* Zone(Top - 30cm)

이 구간은 암회색 경작토 및 매립토로 구성되며 화분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주종을 이루는 화분은 소나무속 (*Pinus*)화분으로 50%이상을 점유한다. 벼과(*Gramineae*)화분은 12.5-26.5% 로 다른 단면에 비해 산출량이 적다. 반면에 다른 단면에서는 거의 산출이 되지 않는 명아주과(*Chenopodiaceae*)화분이 검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건조지에 인접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KC-3b : *Laevigatosporites* Zone(30 - 60cm)

이 구간은 황갈색 니사질층으로 미화석의 보존이 극히 불리한 구간이며 단지 심도 60cm 시료에서 50개체가 산출되었다. 이 화석군집에서는 양치류 포자화석 *Laevigatosporites*와 담수조류화석 *Pseudoschizaea*가 비교적 많이 산출되는 특징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③ Poor palynofloral Zone(60 - 290cm)

이 구간은 대부분 조립질 쇄설물로 구성되었거나 일부 니사질 구간도 미화석의 보존이 불리한 산화환경의 황갈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화석의 산출이 극히 빈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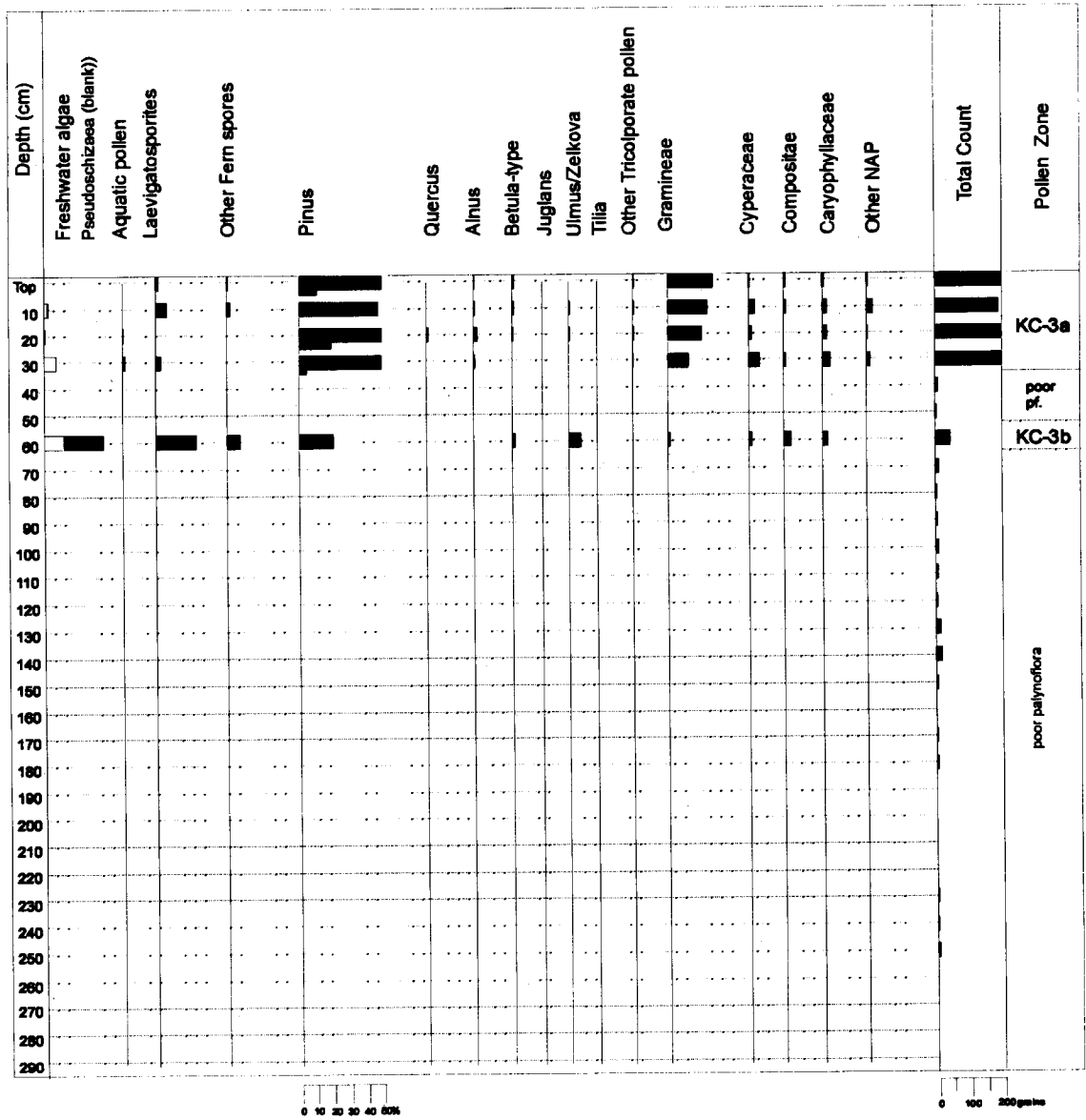


그림 27. KC-3 시험구덩 시료의 화분다이아그램

4) 고식생 환경 고찰(古植生 環境 考察)

(1) 침엽수림대(KC-1a, KC-2a, KC-3a)

이 시기의 초기부터 소나무속(*Pinus*)의 화분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낙엽활엽수의 화분산출은 미약하다. 이러한 식생의 변화는 기후가 온냉기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초본식물로는 사초과(Cyperaceae), 국화과(Compositae), 마디풀과(Polygonaceae)등의 야생 초본식물의 분포가 미약한 반면에 벼과(Gramineae)의 화분이 폭발적으로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이 시기에 경작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벼의 경작은 KC-2 지점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남북으로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8).

(2) 화분빈약대(Poor Palynofloral Zone)

자연에 대한 인간 간섭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이 지역은 온도상승에 의하여 세지역 모두 대기하에 노출된 산화환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양치식물 우세대(KC-1b, KC-2b, KC-3b)

이 시기는 하안단구가 형성된 시기로 단구 곳곳에 형성된 저지대의 정체된 물에서는 담수조류가 서식하였고, 주변에는 양치류가 번성하였던 환경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 당시의 기온은 현재보다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4) 낙엽활엽수림대(KC-1c & 1d, KC-2c)

각 시험구덩 단면의 하부는 대부분 모래 및 니질사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되는 화분, 포자화석은 인접한 산지에서 유입된 온대 활엽수의 화분이 대부분이며 이 중, 오리나무(*Alnus*)와 참나무(*Quercus*)의 화분화석이 가장 흔히 관찰된다. 또한 소나무(*Pinus*)의 화분의 산출이 극히 미약하고, 초본식물의 경우에도 벼과(Gramineae)식물보다 사초과(Cyperaceae), 마디풀과(Polygonaceae), 국화과(Compositae)등의 야생 초본류가 번성하였던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에도 양치류(ferns) 및 담수조류(freshwater algae)의 서식이 유리한 저습지 환경이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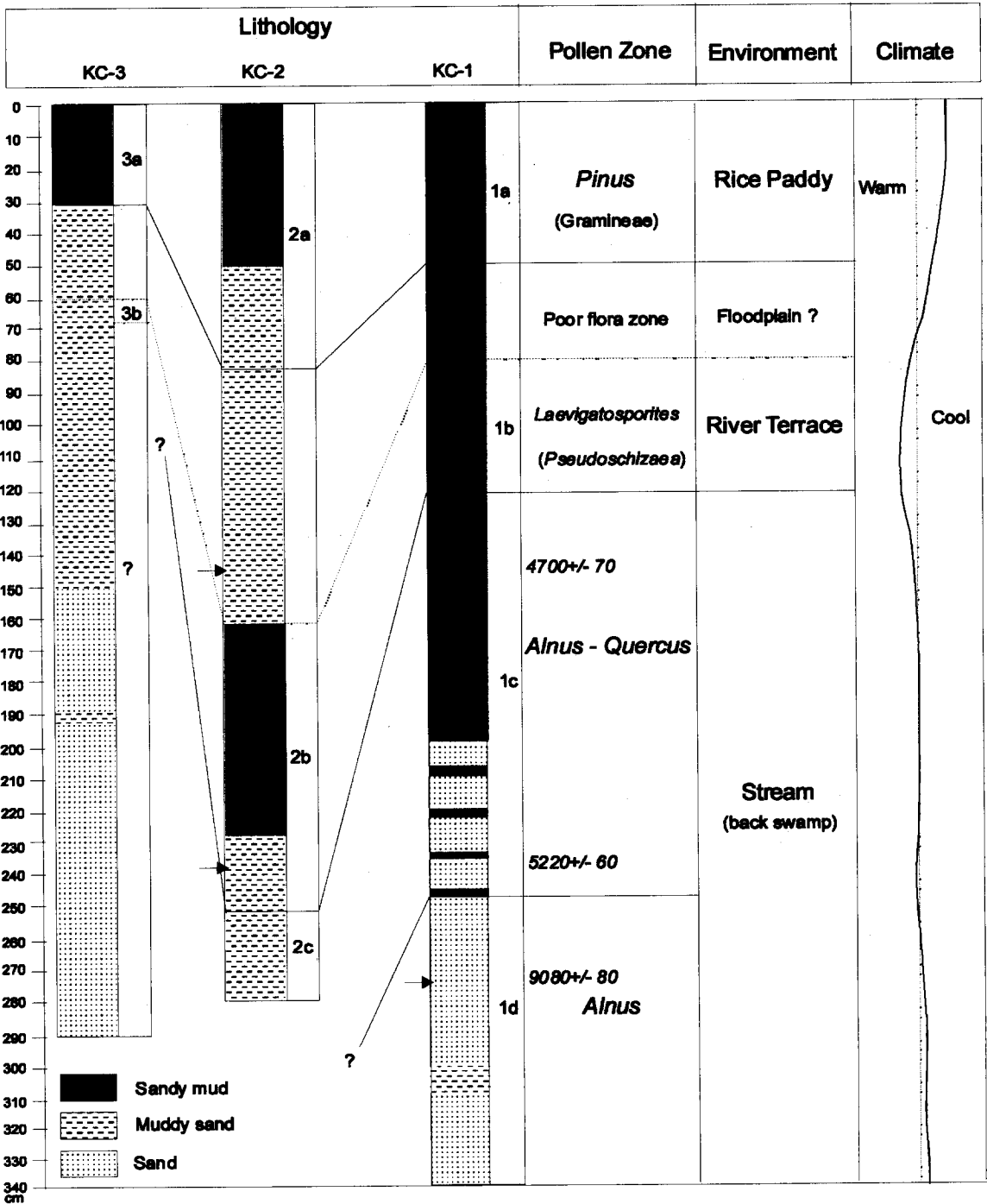


그림 28. 연구지역 3개 시험구덩의 화분분석에 근거한 화분분대와 고환경 대비

5) 제4기 지질시대 구분(第4紀 地質時代 區分)

본 지역 상부의 *Pinus*(소나무)화분대는 한반도 서해안의 제4기 퇴적층(화성, 천리포, 익산, 함평)의 최상부에서 모두 관찰되며 시대적으로는 2000 yr. B.P.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8). 본 연구지역의 하부에 나타나는 *Alnus-Quercus*(오리나무-참나무)화분대도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일련의 제4기 지층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데, 경기도 화성의 만년제 퇴적층(전희영 외, 1998)의 *Alnus-Quercus-Pinus*(오리나무-참나무-소나무)화분대, 천리포 지역(Park, 1990)의 *Alnus-Quercus*(오리나무-참나무)화분대, 함평 구석기 유적지(김주용 외, 2001)의 *Alnus-Quercus*(오리나무-참나무)화분대와 일치하고, 이들 화분대는 3500- 2000 yr. B.P. 의 시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고창-아산면 고창천 지역에서 *Alnus-Quercus*(오리나무-참나무) 화분대는 이보다 더 이전 시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하부의 *Alnus*(오리나무)화분대는 고창지역의 지역적인 식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화분대의 형성시기는 AMS연대 측정자료와 결부해 해석해 보면, 적어도 약 5,500년전보다 더 오래된 화분대인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28).

〈표 8〉 남한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홀로세 퇴적층의 지역별 화분분대 대비

Age (kr. B.P)	화성만년제 (전희영 외, 1998)	아산만 (Yi et al, 1996)	천리포 (Park, 1990)	익산 (최기룡, 1992)	함평 (김주용 외, 2000)	고창 (this study)	식생
1	<i>Pinus</i>	<i>Pinus</i>	<i>Pinus</i>	<i>Pinus</i>	<i>Pinus</i>	<i>Pinus</i>	침엽수림 (Coniferous)
2				<i>Ulmus-Zelkova</i>			
3	<i>Alnus</i> - <i>Quercus</i> - <i>Pinus</i>	<i>Quercus-Pinus</i>	<i>Quercus-Alnus</i>	<i>Pinus-Quercus</i>	<i>Pinus-Quercus</i>	<i>Laevigato- sporites</i> (<i>Pseudo- schizaea</i>)	혼합림 (Coniferous & Deciduous broad- leaved Mixed)
4				<i>Alnus-Quercus</i>	<i>Alnus-Quercus</i>	<i>Alnus</i>	낙엽활엽수림 (Deciduous broad-leaved)
5							

3. 요약 및 종합 논의

본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고창천 주변 시험단면 분석 결과 본 지역은 하부의 구하상 사력층과 이의 상부에 다양한 니사질 퇴적층이 분포하여 있다. 상부로 갈수록 토양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산화대의 반점상 구조가 나타난다. 최상부에는 경작토층과 매립토층이 분포하여 있다. 시험단면의 시료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 자갈(gravel)-모래(sand)-실트(silt)-점토(clay)의 함유 비율을 산정해 보면, 3개의 단면에서 최하부의 자갈층을 제외하면 자갈은 거의 함유하지 않는 편이며, sand-silt-clay의 입도분석으로 분류해 보면, 모래 또는 실트질 모래에 속한다.

또한 고창 시험구덩 단면의 입도 통계변수의 분포특성으로서 입도 평균값은 조립질 실트에서 극조립질 모래의 특성(-0.042~4.609 phi)을 가진다. 입도 중앙값은 0.210~4.100 phi의 범위를 보인다. 모든 시료에서 입도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더 세립질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도 표준편차는 1.466~3.100 phi의 범위값을 보이므로 분급도는 모든 시료가 불량한 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입자가 세립화하면서 분급도가 미약하게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왜도는 -0.877~1.477phi의 범위(very coarse-skewed에서 vey fine-skewed)의 범주에 속하며, 세립질의 분급도가 중립질이나 조립질의 분급도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첨도는 -1.725~2.293 phi의 다양한 범위값을 보인다. 조립질 1%(coarsest 1-percentile)의 입도는 KC2단면에서는 -2.73~1.03 phi의 범위를 보이며, 중립질 내지 조립질 모래크기가 우세하며, 간혹 중자갈 크기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값, 중앙값, 조립질 1% 입도에 대하여 KC-1과 KC-2에서는 최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입도의 조립화에서 세립화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조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C-3단면에서는 미약한 입도의 변화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상향세립화의 경향을 보인다.

퇴적물의 이동기작을 해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퇴적물의 C-M 다이어그램 분포특성은 일시천(ephemeral stram)의 바닥짐(bed load)과 조약(saltation) 형태로 이동한 퇴적물과 부유성(suspension) 퇴적물이 섞여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2~24). 그러나 이들 퇴적물 이외에 니류작용(mudflow)이나 혼탁류작용(turbidity flow)으로 인해 이동된 퇴적물이 부분적으로 섞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니류작용이나 혼탁류 작용은 홍수범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할 때 일어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퇴적물 이동기작으로 보는 해석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으로는 상기 퇴적물이

퇴적된 이후 수반된 토양화 과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퇴적물의 입자가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립화되었을 경우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퇴적물의 C-M 분포특성상 전체적으로 C-M에 거의 평행하면서 왼쪽으로 이동된 경향(또는 세립화된 경향)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능성이 인정되려면 홍수 범람 이후 장기간 동안 똑방위에 쌓인 니사질 퇴적물이 산화과정을 거쳐서 반점이 널리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산화대나 반점상 조직의 시험구덩 단면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즉, 고창 KC1 단면의 80~50cm 부근의 암회갈색 니사질층에서는 산화철 반점이 관찰되어, 산화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창 KC2 단면의 180~160cm 깊이에는 회갈색 니질 모래층과 130~120cm 깊이에 회갈색 점토질 모래층내에 산화철 반점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고창 KC3 단면에서도 220cm 부근에서는 산화철이 띠모양으로 산출되며, 50cm 깊이 부근에서도 산화철 반점이 분포한다. 이러한 산화대는 퇴적 이후에 퇴적물이 부분적으로 토양화 과정을 겪었음을 지시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고창 아산면 죽림리 지석묘 분포지역 주변의 화분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고식생 환경 결과 고창 지석묘 유적지인근의 굴착단면 바닥에 나타나는 오리나무 화분대(*Alnus Pollen zone*)의 분포로 보아 이 시기에 지석묘 분포지 중에서 KC-1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하천유역 주변에 저습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당시의 기후는 현재보다 다소 온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세 중기(약 5,500년 전으로 추정) 부터 오리나무-참나무 화분대(*Alnus-Quercus Pollenzone*)로 오면서 저습지는 차차 폐쇄되어 식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 변화는 KC-2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약 4,500년 전 이후의 양치류 포자대(*Laevigatosporites Zone*)에 이르러서는 고기 고창천의 후퇴에 의해 KC-2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하안단구(*River Terrace*)의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당시의 기후는 현재보다 온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이후로 하천은 더욱 후퇴하여 KC-2 → KC-1 → KC-3 의 순서로 범람원이 점차 형성되고 대기하에 노출되어 산화환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고토양의 형성 및 화분이 빈약한 지점이 되었다. 이후, 인간간섭에 의해 이 지점은 매립되어 경작지로 변화였고, 주변 산지는 소나무(*Pinus*)를 주종으로 하는 침엽수림으로 식생이 바뀌었으며, 이 시기는 대략 약 2,000년 전으로 추정된다(그림 28). 이러한 화분분대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화분분대와 잘 일치하며, 특히 *Alnus-Quercus*의 분대가 약 5,500년전까지 내려가며, 또한 그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초기 홀로세 동안의 오리나무 우점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증거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죽림리 일대 연구지역의 자연환경 변화 특히 퇴적환경의 변천사를 종합해 보면, 본 지역은 적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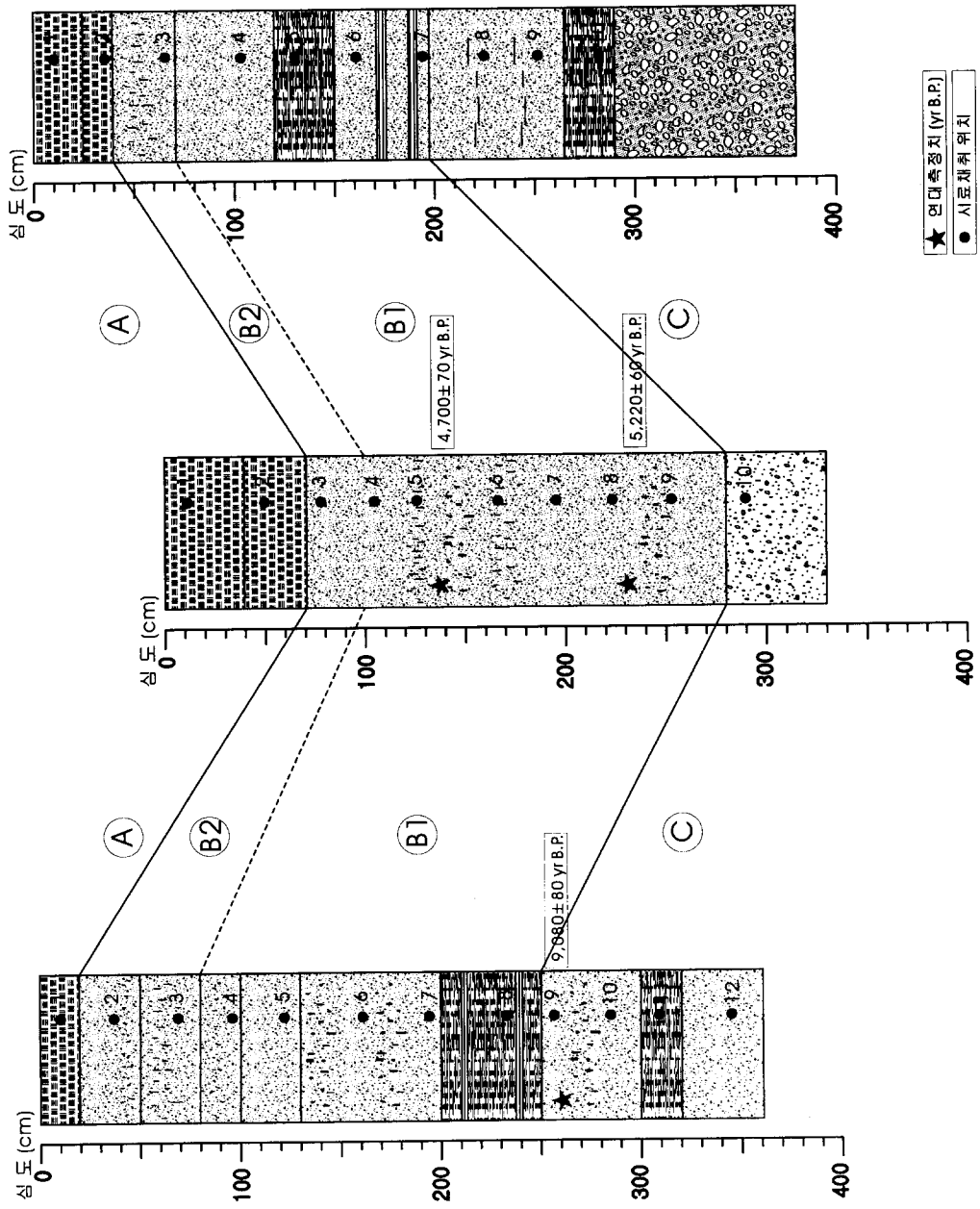


그림 29.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주변 KC-1~3 시험구덩 지층 분포도

약 9,000년전에는 현재 고창천 주변에 구하상(그림 29의 A)이 발달했으며, 죽림리 지석묘 유적지 앞의 경작지 부근에는 구하상 사력층이 퇴적되고 있었다. 이후 약 4,500-5,500년전에는 고기 고창천의 하상이 횡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KC-2가 위치하는 경작지 중앙부에는 배후습지(그림 29의 B1)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주기적인 하천범람으로 범람성 유수가 습지대로 밀려 들어오는 범람원 환경(그림 29의 B2)이 우세하게 되었으며, 이 환경은 화분분석 자료에 의하면 약 2,000년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인간의 경작활동과 교란이 수반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50~100cm 표층부 토층(그림 29의 C)은 이를 반영하며, 이 시기의 고고학적 유물들이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석묘 문화를 형성하였던 청동기인들이 주로 생활하였던 시기에는 죽림리 일대, 즉 현재 경작지 일대에는 늪지환경이었으며, 늪지 사이 사이에 부분적으로 자연제방(levee)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옛사람의 이동로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기 고창천의 주기적 범람으로 인하여 자연제방 위에는 퇴적물이 집적되기도 했으며, 배후늪지는 약간씩 수심이 얕아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경작활동으로 인해 자연늪지는 매립되거나 교란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4. 결론

본 죽림리 일대 논바다 하부의 층적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하상이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기도 하는 망상하천(braided stream)과 층적 선상추(alluvial cone)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천유수 작용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하천유수 중에서도 하상내 견인(traction), 조약(saltation), 부유(suspension) 작용들이 우세한 환경하에서 집적되었으며, 이동 집적된 퇴적입자들은 퇴적후 토양화 작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세립화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C가 M의 약 5-10배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며, $C=M$ 선과는 통계적으로 평행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C와 M의 비율이 일정한 분포를 보이므로 하천범람시 혼탁류(turbid flow)나 니류작용(mud flow)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죽림리 지석묘 분포지역 주변 화분연구 결과, KC-1 지점을 굴착단면 바닥에 오리나무 화분대(*Alnus Pollen zone*)의 분포로 보아 약 5,500년 이전에 지석묘 분포지 아래 고기 고창천 일대에

는 이미 저습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당시 기후는 현재보다 다소 온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세 중기 기후최적기(5,500년전)부터는 오리나무-참나무 화분대(*Alnus-Quercus* Pollen zone)로 바뀌었고, 주기적인 하천범람을 인해 퇴적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배후습지는 점차 폐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4,500년전부터 양치류 포자대 (*Laevigatosporites* Zone)가 발달하였으며, 고기 고창천은 후퇴하면서 하안단구(River Terrace)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당시 기후는 현재보다 온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이후 고기 고창천은 더욱 후퇴하여 범람원이 형성되었고, 전기에는 대기에 노출되어 퇴적물이 산화환경으로 인해 퇴적물은 부분적으로 토양화되고 산화반점조각이 많이 형성되었다. 이후 대략 약 2,000년전을 기점으로 인간간섭에 의해 이 지점은 매립되면서 경작지로 변하였으며, 주변 산지는 대개 소나무(*Pinus*)를 주종으로 하는 침엽수림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화분분대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일반적인 화분분대와 잘 일치하며, *Alnus-Quercus*의 분대가 약 5,500년전까지 내려가는 특징을 보여 준다.

죽림리 일대의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활동과 관련한 인위적 지층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고창 KC-1과 KC-2 단면 하부 270-320cm에 분포하는 중립질 모래층이나 사력층은 홀로세 초기(약 9,000년전)에 형성되었다. 홀로세 초기 이후 기후온난화에 따라 하천작용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죽림리 일대 고창천 舊河道를 따라 기저 사력층이 널리 분포하게 되었다. 현재 지식묘 유적지 안내소 부근의 KC-3단면에서는 구하상 사력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시 하도는 구릉지 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구하상 모래층의 형성시기보다 나중 시기(약 4,700~5,200년전)에는 하천의 주기적 범람으로 인하여 제방 위에는 니사질 퇴적층이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산화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구하상의 위치변화에 따른 폐쇄된 하도(abandoned channel)나 배후습지(back swamp)에는 암회갈색 내지 암회색의 니사질층이 퇴적되었다. 심도 약 60-120cm 보다 위에는 과거 표토층을 이루었는지 혹은 경작지로의 토지전용에 따라 경작층으로 분포하며, 이 안에 매립토층과 인위적인 교란층이 나타난다.

본 지식묘 유적지 일대는 청동기 시대 이른시기 혹은 신석기 말에 해당하는 약 4,700~5,200년 전에는 자연적인 하도나 배후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환경(fluvial environment)이 형성되어 부분적으로 암회갈색 내지 암회색 니사질층 형성되었다. 따라서 청동기인이 이 일대를 생활하면서 지식묘를 사용했던 시기는 적어도 약 4,700년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죽림리 일대 경작지의 지표면에서 최대 약 120cm 보다 윗쪽(KC-2 단면기준)에 인위적인 유물이나 옛사람의 기능면 혹은 생활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 김주용, 양동윤, 봉필윤, 남옥현, 이진영, 김진관, 2001. 서해안고속도로 합평-영광간 발굴조사지역 자연과학분석. 합평 장년리 당하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p.379-510.
- 이영길, 박용안, 최진용, 1996. 전라남도 합평만 조간대 퇴적층의 퇴적상과 해수면 변동의 흔적. 제12차 한국고생물학회 학술발표회 요약집, 한국고생물학회, pp.21-22.
- 전희영, 김유봉, 김복철, 최용석, 최홍규, 이상헌, 1998.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만년제 복원을 위한 시추 및 지질환경 조사연구사업 보고서. 한국자원연구소, pp.106.
- 최기룡, 1990. 익산미륵사지의 화분분석연구. 문연 35360-846 연구보고서
- 최기룡, 1992. 꽃가루 분석. 일산새도시개발지역학술조사보고 1 - 자연과 옛사람의 삶. 한국선사문화연구소, pp.145-154.
- 한국자원연구소, 1997. 광주 지질도폭 설명서(1:250,000 축척)

〈영문〉

- Kim, Ju-Yong, Yang Dong-Yoon and Dong-Young Lee, 2000. Holocene Stratigraphy of Gungnamji Archaeological Site of Puyo Coastal Plain in Korea, (ed. by Park, Y.A, Chun S.S. Choi, K.S. in the Tidalite-2000, Dynamics, Ecology and Evolution of the Tidal Flats),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idal Environments, pp. 58-61.
- Park, I. K., 1990. A pollen analytical study of the peat sediments from the Chollipo Arboreum in southwestern Korea. Korean Journal of Ecology, v.13, no.4, p.309-318
- Yi, M-S, Kim, J-M, Kim, J-W & Oh, J-H, 1996. Holocene pollen records of vegetation history and inferred climatic changes in a western coastal region of Korea. J. Paleont. Soc. Korea, v.12, no.2, pp.105-114.

부록 I : 화분분석 도판설명 자료 (Explanations of P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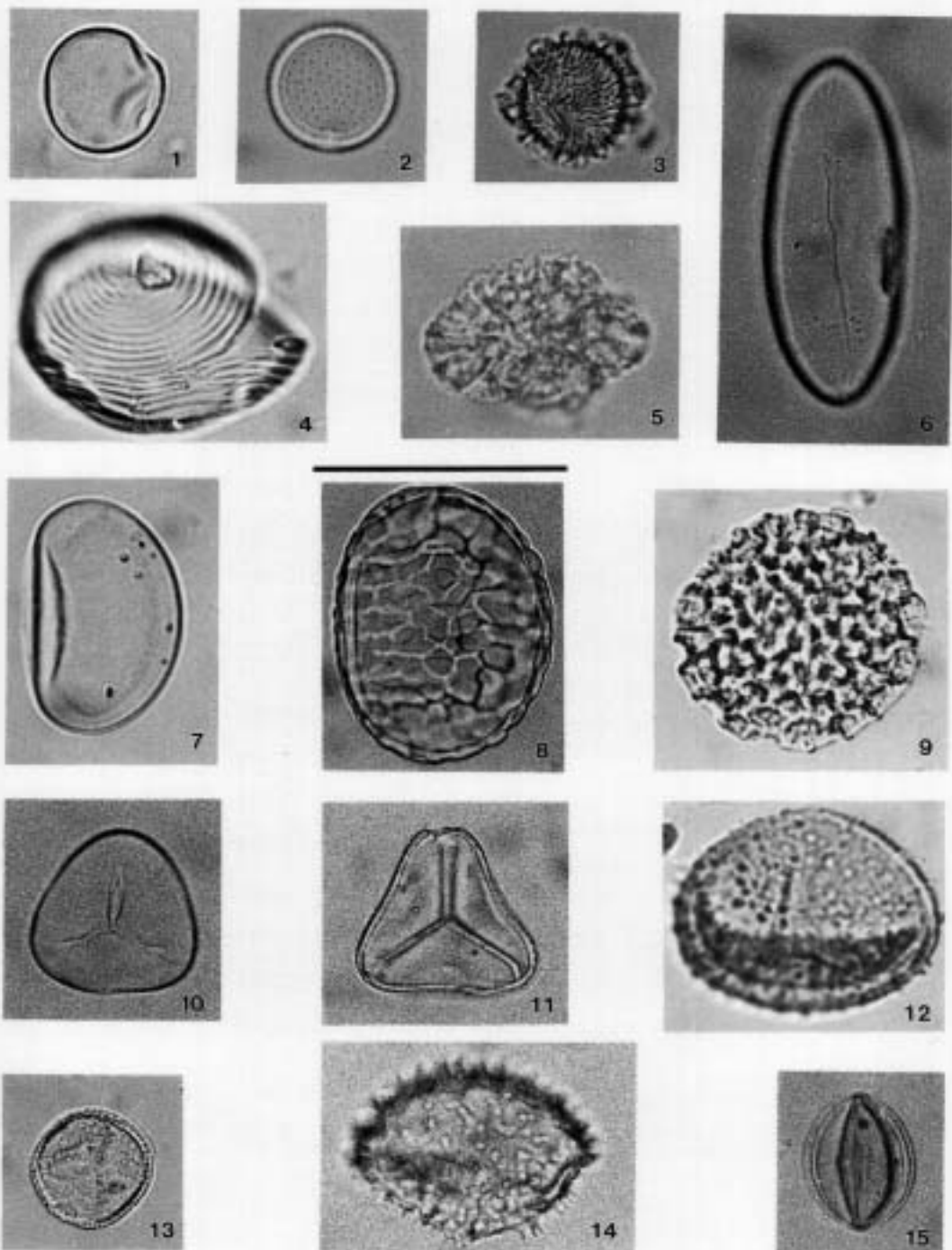
(All figures are illustrated at a magnification of $\times 800$. Scale bar in each plate is 50 μm . In the figure explanations, the taxa name is followed by the slide number, the location on the slide, and sampling horizon.)

부록 1-1. KC-1 시험구덩 단면시료의 화분감정 설명서 및 도판

(PLATE 1 : 담수조류, 양치류, 수생식물 포자, 화분)

1. Leiosphaeridia (기수조류)	2921b 45.8:107.5 KC-1 100cm
2. Micrhystridium (기수조류)	2952a 43.7:107.6 KC-2 60cm
3. Freshwater alga (담수조류)	2933a 27.5:110.3 KC-1 220cm
4. Pseudoscizaea (담수조류)	2958a 33.2:101.8 KC-2 120cm
5. Botrycoccus (담수조류)	2971b 27.8:102.2 KC-2 250cm
6. Spirogyra (담수조류)	2927a 45.0:110.8 KC-1 160cm
7. Laevigatosporites (고사리류)	2920a 27.9:111.3 KC-1 90cm
8. Polypodiisporites (고사리류)	2916a 44.6:103.8 KC-1 50cm
9. Trilete spore (양치류)	2986a 39.5:99.2 KC-3 110cm
10. Cyathidites (고사리류)	2962b 44.1:101.4 KC-2 160cm
11. Pteridium (고사리)	2979a 35.5:108.5 KC-3 40cm
12. Osmunda (고비)	2942a 42.3:108.7 KC-1 310cm
13. Potamogeton (가래)	2920a 37.7:101.5 KC-1 90cm
14. Nymphaea (수련)	2978a 36.8:108.5 KC-3 30cm
15. Nelumbo (연꽃)	2978a 42.5:101.8 KC-3 30cm

PLATE 1 (조류, 양치류, 수생식물 포자, 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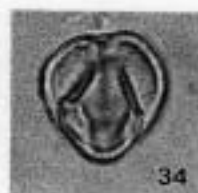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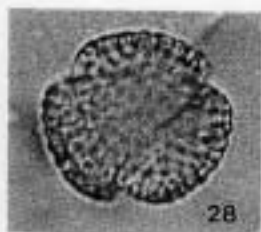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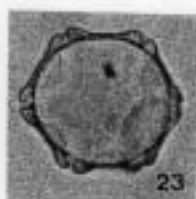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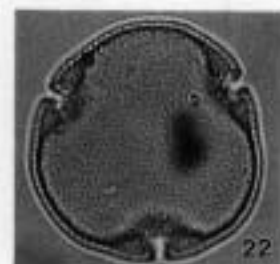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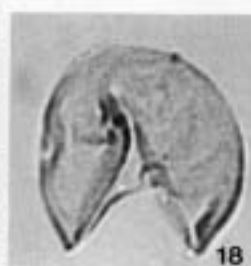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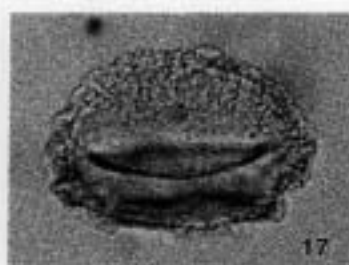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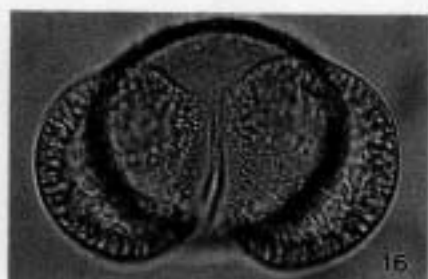


부록 1-2. KC-2 시험구형 단면시료의 화분감정 설명 및 도판

(PLATE 2 : 목본식물 화분)

16. Pinus (소나무)	2947a	33.2:102.8	KC-2	10cm
17. Tsuga (솔송나무)	2911a	35.5:101.5	KC-1	Top
18. Inaperturopollenites (속벉과)	2946a	25.9:111.8	KC-2	Top
19. Quercus (참나무)	2951b	35.9:105.3	KC-2	50cm
20. Quercus (참나무)	2925a	29.6:109.3	KC-1	140cm
21. Juglans (가래나무)	2943b	29.8:109.1	KC-1	320cm
22. Tilia (피나무)	2927a	37.1:111.8	KC-1	160cm
23. Alnus (6 pores)(오리나무)	2916a	36.1:95.2	KC-1	50cm
24. Alnus (5 pores)(오리나무)	2922a	43.8:112.0	KC-1	110cm
25. Corylus (개암나무)	2916a	42.3:99.0	KC-1	50cm
26. Ulmaceae (느릅나무과)	2963b	34.3:100.0	KC-2	170cm
27. Ulmaceae (느릅나무과)	2943a	45.3:107.7	KC-1	320cm
28. Ligustrum (취퐁나무)	2911a	44.2:106.7	KC-1	Top
29. Salix (버드나무)	2935a	40.3:104.0	KC-1	240cm
30. Ilex (대갯집나무)	2963b	37.5:101.5	KC-2	170cm
31. Acer (단풍나무)	2963b	33.2:111.9	KC-2	170cm
32. Ericaceae (진달래과)	2915a	36.9:105.4	KC-1	40cm
33. Rhus (옻나무)	2938b	29.1:106.5	KC-1	270cm
34. Rosaceae (장미과)	2974a	35.5:103.7	KC-2	280cm
35. Rosaceae (장미과)	2974a	42.6:100.5	KC-2	280cm

PLATE 2 (목본식물 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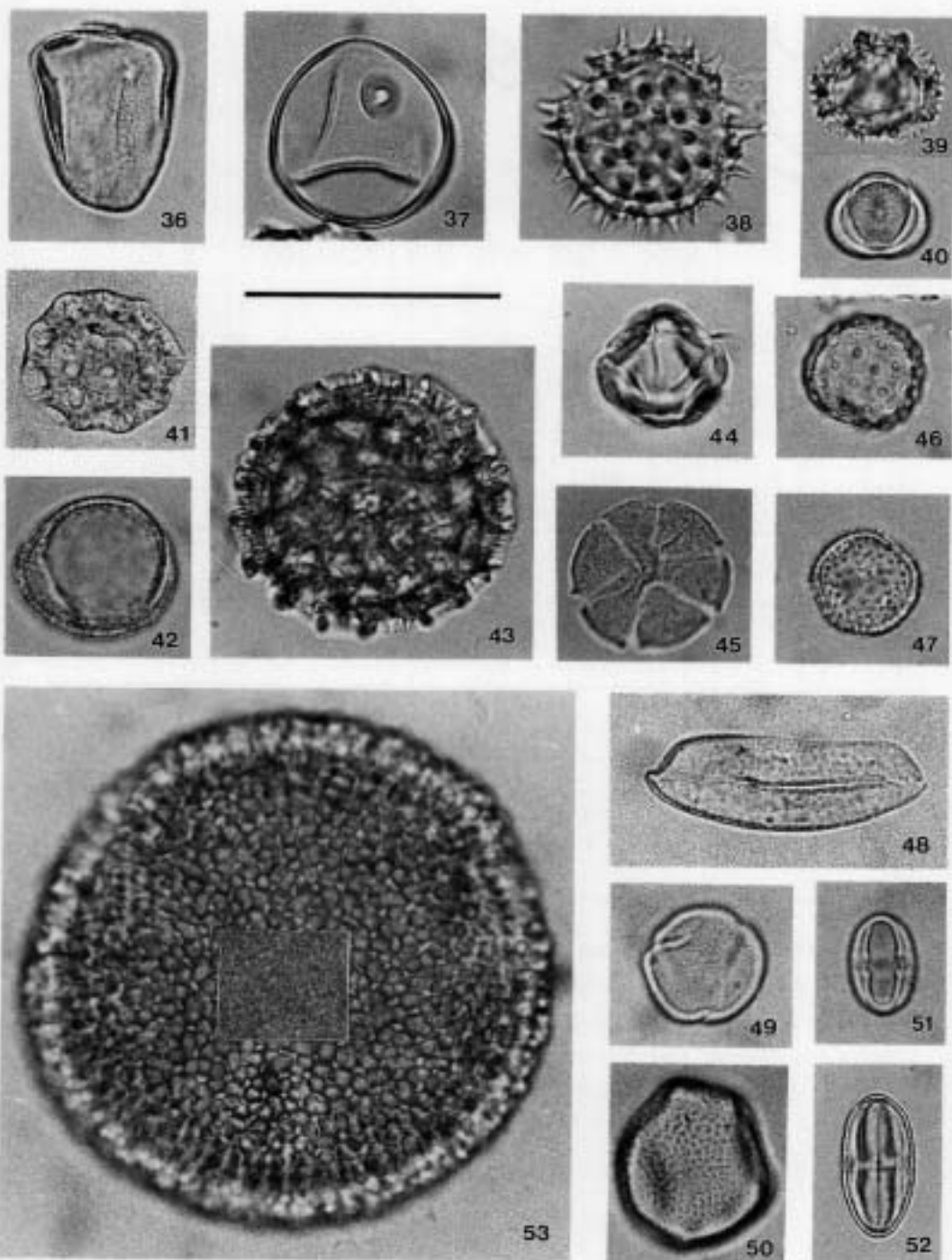


부록 1-3. KC-3 시험구명 단면시료의 화분감정 설명서 및 도판
(PLATE 3 : 초본식물 화분)

36. Cyperaceae (사초과)	2956a 33.5:109.8 KC-2 100cm
37. Gramineae (벼과)	2952b 43.0:97.8 KC-2 60cm
38. Compositae (쑥부쟁이류)	2943a 41.8:102.5 KC-1 320cm
39. Compositae (쑥바리류)	2935a 46.8:102.0 KC-1 240cm
40. Artemisia (쑥)	2943a 43.2:108.2 KC-1 320cm
41. Caryophyllaceae (석죽과)	2949a 27.9:100.8 KC-2 30cm
42. Rumex (소리쟁이)	2946a 45.5:111.4 KC-2 Top
43. Persicaria (여뀌류)	2924a 35.2:100.6 KC-1 130cm
44. Labiatae (꿀풀과)	2943b 36.4:111.5 KC-1 320cm
45. Salvia (차즈기)	2945a 44.5:106.4 KC-1 340cm
46. Chenopodium (명아주)	2976a 44.2:100.9 KC-3 10cm
47. Ranunculus (미나리아재비)	2962b 46.8:106.5 KC-2 160cm
48. Liliaceae (백합과)	2978b 28.4:99.2 KC-3 30cm
49. Oxalis (쟁이밥)	2923a 43.2:102.5 KC-1 120cm
50. Corydalis (현호색류)	2943a 26.0:101.4 KC-1 320cm
51. Polygonaceae (마디풀과)	2953a 28.2:111.2 KC-2 70cm
52. Umbelliferae (미나리과)	2946a 25.7:110.2 KC-2 Top
53. Geranium (귀손이풀)	2943b 37.0:107.9 KC-1 3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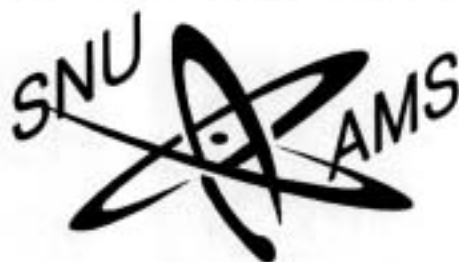
(central part is high focus)

PLATE 3 (초본식물 화분)



부록 I : 연대측정 자료

부록 2-1. 죽림리 지석묘 유적지 주변 KC-1 구덩단면(270~280cm)에서 출토된 목편시료(KC1-1)의 AMS 연대



AMS 측정에 대한 결과 (SNU01-164)

시료 접수일 : 2001년 3월 2일

결과 보고일 : 2001년 6월 26일

시료 제출자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결과 :

시료 ID	시료설명	시료량 (mg)	LAB 번호	^{13}C (‰)	pMC (%)	방사성탄소 연대 (BP)
KC1-1	Charcoal	4.2	SNU 01-164	-29.1		9080 ± 80

특기사항 :

시료추정연대 : 3,000 - 5,000 yrs B.P.

전처리 사항 :

동상의 탄산염 제거를 위한 산 및 염기 처리를 함.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기 위해, Combustion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 화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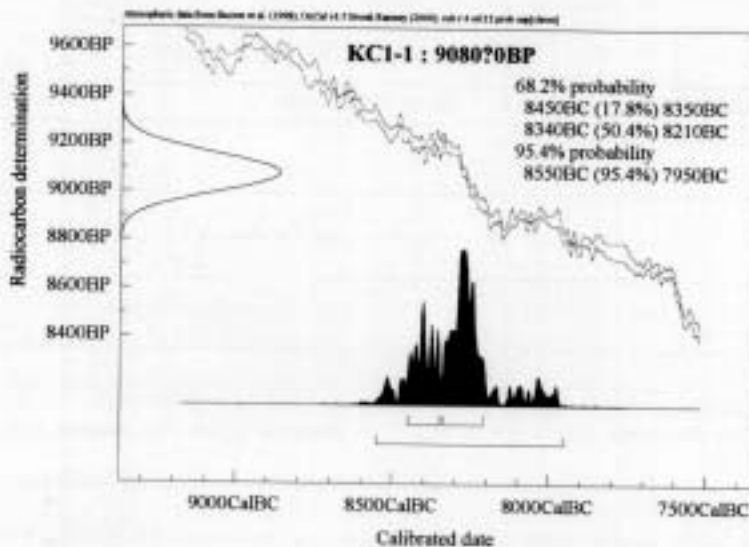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Fractionation)를 $\delta^{13}\text{C} = -25\%$ 기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시료의 연대는 Libby 의 ^{14}C 수명 8033 yrs. 을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통상적인 방사성 탄소연대 (Radiocarbon Age) BP(years 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의 산출은 표 준편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본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 - 880 - 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KCI-1	9080 ± 80 BP	8250 BC



*) Calibration 결과는 M Bronk Ramsey C. (1994), "Analysis of Chronological Information and Radiocarbon Calibration : The Program OxCal ", Archaeological Computing Newsletter 41, p11-16, 에 의한 OxCal v2.18 을 사용하여 구한 것인데, 이것은 Dendro Calibration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 - 880 - 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부록 2-2. 죽림리 지석묘 유적지 주변 KC-2 구덩단면(140~150cm)에서 출토된 목편시료(KC2-1)의 AMS 연대



AMS 측정에 대한 결과 (SNU01-165)

시료 접수일 : 2001년 3월 2일

결과 보고일 : 2001년 6월 26일

시료 제출자 : 김수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결과 :

시료 ID	시료성명	시료량 (mg)	LAB 번호	^{13}C (‰)	pMC (%)	방사성탄소 연대 (BP)
KC2-1	Charcoal	3.9	SNU 01-165	-29.1		4700 ± 70


특기사항 :

시료추정연대 : 3,000 - 5,000 yrs B.P.

잔처리 사항 :

동량의 탄산염 제거를 위한 산 및 염기 처리를 함,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기 위해, Combustion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 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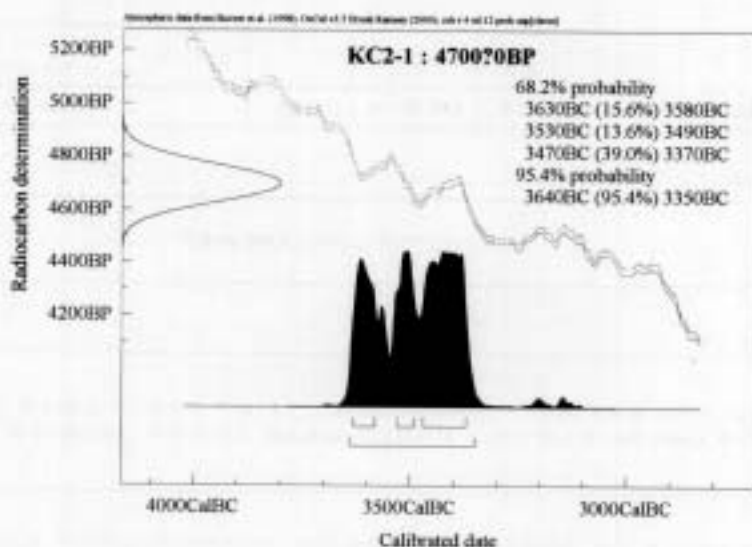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Fractionation)를 $\delta^{13}\text{C} = -25\%$ 기준으로 보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시료의 연대는 Libby 의 ^{14}C 수명 8033 yrs. 를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통상적인 방사성 탄소연대 (Radiocarbon Age) BP(years 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의 산출은 표 준면치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본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 - 880 - 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KC2-1	4700 ± 70 BP	3500 BC



) Calibration 결과는 M Bronk Ramsey C. (1994), "Analysis of Chronological Information and Radiocarbon Calibration : The Program OxCal ", Archaeological Computing Newsletter 41, p11-16, 에 의한 OxCal v2.18 을 사용하여 구한 것인데, 이것은 Dendro Calibration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 - 880 - 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부록 2-3. 죽림리 지석묘 유적지 주변 KC-2 구덩이단면(230~240cm)의 유기질 니층 시료(KC2-2)의 AMS 연대



AMS 측정에 대한 결과 (SNU01-166)

시료 접수일 : 2001년 3월 2일

결과 보고일 : 2001년 6월 26일

시료 제출자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결과 :

시료 ID	시료설명	시료량 (mg)	LAB 번호	^{13}C (‰)	pMC (%)	방사성탄소 연대 (BP)
KC2-2	Charcoal	7.9	SNU 01-166	-30.5		5220 ± 60

특기사항 :

시료추정연대 : 3,000 - 5,000 yrs B.P.

전처리 사항 :

중심의 탄산염 제거를 위한 산 및 염기 처리를 한.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열기 위해, Combustion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 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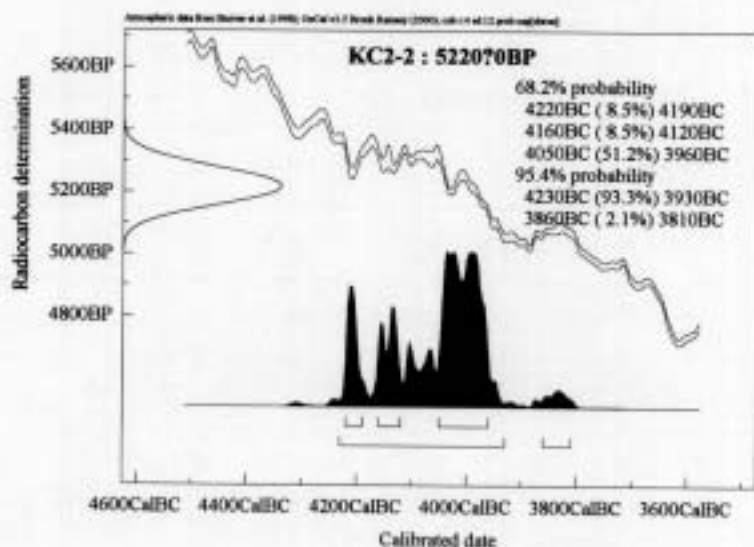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위(Fractionation)를 $\delta^{13}\text{C} = -25\%$ 기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시료의 연대는 Libby 의 ^{14}C 수명 8033 yrs. 을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통상적인 방사성 탄소연대 (Radiocarbon Age) BP(years 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의 산출은 표 준편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본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880-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KC2-2	5220 ± 60 BP	4000 BC



) Calibration 결과는 M Bronk Ramsey C. (1994), "Analysis of Chronological Information and Radiocarbon Calibration : The Program OxCal ", Archaeological Computing Newsletter 41, p11-16, 에 의한 OxCal v2.18 을 사용하여 구한 것인데, 이것은 Dendro Calibration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AMS 연구실(02 - 880 - 5778-9)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高敞 고인돌 遺蹟地表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史蹟 第391號 高敞 고인돌 遺蹟地表調查報告書		發刊日	2001年 10月
發刊機關	名稱	(財)湖南文化財研究院		
	住所	光州廣城市 光山區 三道洞 823-1番地		
	TEL	(062)943-3640	FAX	(062)943-3641
執筆・編輯者	金建洙・金珍英			
調査緣由	정비・복원사업의 일환			
地表調査者	尹德香・金建洙・金珍英・盧美善・朴琇鉉			
遺蹟調査地番	全羅北道 高敞郡 高敞邑 竹林里・道山里, 牙山面 上甲里 一帶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고인돌	青銅器時代	481기		
고인돌계석장	青銅器時代	28개소		
古墳	三國時代	7기		
城	三國時代	1개소		